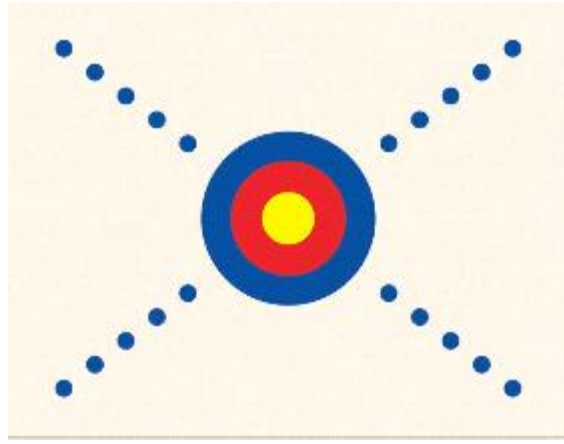


세 살림 말복 사명기 엠블렘

Essence 축약 Digest

범증산계 통합경전 서문(序文)

본서는 『범증산계 통합경전 서문』의 다이제스트이므로
본래 목차가 없습니다.

발행인:안병섭
발행처:대원출판사

이익을 목적으로 책을 찍지 않습니다. 성금으로 '한정본
비매품' 형태로 찍어 독자의 '5 만원 헌성 입금'으로
계속 이어달리기로 무한 보급합니다. 재판부터
20만원 이상 성금자는 마지막 페이지에 성금자 명을 기록으로 영원히 남깁니다.
(02)518-2532(영업부)
50,000₩
입금계좌:(국민은행:959-0802-1462 '도안세살림 말복')
실명 입금 후 다음 연락처로 받을 주소 및 전화번호 문자 연락주면 즉시 부쳐줌.
문의처:010-6547-3004, 010-2212-5963, 010-9132-6999, 010-9707-1652
(이상 4人 공히 네이버 밴드 '증산도가' 공동 운영자)
자료공유:Cheramia.net
보급처:대원출판사

이것이 동지한식백오제 105년간 숨겨져 있던 진법眞法 인사문제의 최종결론이다!!

⁂ 종통 역사의 전체 숲을 본다.

경만장 안내성 성도에게 내리신 각종 공사내용의 핵심은 최종적인 문왕 추수 사명자의 도안都安 초, 중, 말복 세 살림이며 기두자起頭者 입장에서는 희姬 씨성의 문왕가문 도수지만 이는 동지한식백오제 105년간 도운의 핵심을 눈가림 한 것이고 마지막 말복 도정 '수지지어사마소' 입장으로 보면 사마중달(사마의)의 3 부자 사마씨 도수가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내보인 카드는 도희都姬 3 부자 문왕이지만 속에 있는 진짜 카드는 바로 사마중달 3 부자의 도사마都司馬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의 전체 얼개는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의 105년간은 드러나지 않게 천기로 봉인해 놓아서 누구도 알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105년간은 맹인 봉사잔치의 신앙일 수밖에 없으며 단지 문왕의 도수만을 종통의 축으로 설정해 고난과 시련의 무서리 속에서 추수 도수 세 살림의 씨(仁)가 발아하게 질정해 놓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동지한식백오제는 상제님 낙종물-이종물-추수 사명 '초, 중, 말복 세 살림 진법'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대경 대법한 핵심 키입니다.

우선 첫째, 3초哨,招 문제와 3복伏 문제를 갑을기두甲乙起頭에 근거해 대국적으로 알아보고 둘째, 교운의 3변성도(태모 고 수부님 낙종물사명 3살림-차경석 보천교 이종물사명-숙구지 문왕 추수사명 3복 살림) 세 사명 중에서 문왕의 도수로 연 도운 추수사명의 초, 중복 살림이 마지막에 말복 살림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지극히 어려운 이유를 낙종물 사명에 이미 암시되어있음을 간단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태모 고 수부님도 "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요, 지금 운수 동지(冬至) 한식(寒食) 백오제(百五除)니라." "너희들은 폭 잡히면 일을 못 하느니라.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폭 잡히지 않느니라. 또 말씀

하시기를 “나의 일은 귀신도 모르나니 오직 나 혼자 아는 일이니라.” 하시니라. “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제님은 어천하시기 전 문 공신 성도에게 “문왕의 도수와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받으려면 극히 어려우리라.” 이같이 문왕의 도수는 마지막 진리 혁명의 도수(이윤의 도수)를 거쳐 힘들게 진입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삼초三哨,招 중 세 번 째 3초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으시고 그 ‘초’를 맡은 주인공이 의암 손 병희라고 밝히신 바 계십니다. 상제님이 3초 사명을 말씀하신 바탕을 살펴보면 ‘갑을기두甲乙起頭’ 라는 기제機制(작동 메카니즘)를 바탕에 깔고 인사 문제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초 사명 뒤의 대인출세(문왕 사명) 역시 동일하게 ‘갑을기두甲乙起頭’ 라는 메카니즘을 바탕에 깔고 인사 문제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 하에 안 운산安雲山 성도사 역시 갑을기두甲乙起頭라는 기제機制(작용원리)를 바탕에 깔고 일동일정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1945년 을유년 해방 이후 ‘2變(초복 도정) <증산교 대법사>’ 20년 대휴게기 선포 이후 74년(甲寅) 기두한 것이며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84년(甲子)에 공식적으로 증산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갑을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 구비친다”는 말씀은 특정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 천지공사에 있어 대국적인 마디와 절을 이루는 분기점에 있어 대국적인 천간의 기운을 읽어주신 것이며, 대소사를 막론하고 천지 기운의 변화 흐름을 타고 진행됨을 볼 때 상제님 대업과 같은 대대적인 사건이 변화 이치에 벗어나서 이루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성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

복 운을 타라."<증산도 道典>' 하신 삼복도 역시 삼초와 마찬가지 원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어도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능력을 채 모두 펴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인물들이 역사에는 비일비재한데 안 운산 성도사님 역시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도사님이 어떤 능력자인지를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2변 교운으로 알려진 '증산교 대법사' 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30~50대에 걸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묶여 지내신 성도사님이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나신 건 74년 갑인甲寅년이었습니다. 자취만 남은 왕년의 증산교를 다시 찾으시어 단체 개창자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셨지만 단체는 이미 이상호·이정립의 교단으로 완전 변질되어버린 상태라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60을 바라보는 초로에도 결코 퇴색되지 않은 개척 정신으로 새롭게 판을 개척하시게 됩니다.

20여 년 은둔기간 동안 길러진 자식들의 보필로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84년 갑자년에 갑을 기두로 '증산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때 여러 자식들이 증산도의 개척에 뛰어들어 함께 했지만 이 시기에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은 안 경전 중복 도정 책임자입니다. 문왕 사명을 맡으신 성도사님의 요약 함축된 진리 선언 말씀을 풀어, 문명화된 세상에 보편적인 문화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증산도의 진리>, <이것이 개벽이다 상, 하> 등 서적을 연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확고부동한 '갑오 황극 종통관'을 세워 성도사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과 더불어 90년대 후반기부터 이미 70을 넘긴 성도사님은 단체의 정신적인 상징으로 변모함과 동시에 안 경전 종정의 주도하에 모든 경영실무가 돌아가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임진년(2012) 성도사님의 선화등천(仙化登天)을 계기로 마침내 말복도수의 숨겨진

세 살림 통합 진리가 천지공사 105년 만인 '동지한식백오제의 사오미 개명장'의 기운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계사(2013), 갑오(2014), 을미(2015)의 사오미 개명장의 메카니즘 역시 갑을기두입니다.

이를 운암강수만경래의 '초, 중, 말복 세 살림 도수'로 대국적으로 환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운산 성도사님이 1945년 을유해방 이후 처음 개창하신 용화동 증산교를 추수 사명 첫 살림으로 잡으면, '20년 말점도(말도) 은둔'을 끝낸 74년부터 10년 과도기 준비 기간을 거쳐 84년 새롭게 선포된 증산도는 추수 사명 둘째 살림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사님의 선화등천(仙化登天) 이후 '계사(2013), 갑오(2014), 을미(2015)의 사오미 개명장' 에 공개된 '범증산계 통합경전'을 바탕으로 기두한 진법은 추수 사명 셋째 살림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물사로 본 3인 등장의 천하사 세 살림을 논외로 하고 초중말복 3복伏 기두起頭와 관련해 문왕사명의 대국적인 기두만을 놓고 보면, 해방 후 지금까지 ㊍㊌로서 머리를 든 사건은 바로 45년 ㊌유년 성도사님의 활동개시와 54년 ㊍오년 대휴게기 선포와 말도(말점도) 귀양 20년 도수가 끝난 74년 ㊍인년 재 기두, 84년 ㊍자년 공식적인 <증산도> 출범의 기두 이렇게 네 번 있습니다.(105제 사㊎미 말복 진법 개명장의 중심도 ㊍오임)

1945년 ㊌유 8.15 해방의 2변 안 흥찬 총 사수의 증산교 대법사 개척은 초복 살림이 되며(2변 개념은 중복살림을 3변 마무리로 오인한 결과) 74(갑인)년, 84(갑자)년을 중복이라 볼 수 있고, 74(갑인)년에 중복 살림을 기두해 10년간의 준비기를 거쳐 84(갑자)년에 중복 살림의 공식적인 기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도수는 1992(임신)년 <증산도 도전> 출간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기유년(1909) 천지공사 종필 선언 이후, 동지한식백오제 105년 만의 '범증

산계 통합경전'의 전격적인 공개는 결과적으로 갑오갑자꼬리 도수와 함께 사오미 개명시기가 맞물린 ㉮오(2014), ㉯미(2015)를 계기로 말복살림을 등장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세 살림은 도안都安의 집 세 살림과 <운암강수 만경래 공사>에서 상제님이 말씀하신 '천하사 세 번'과 계룡산 '장 닭 세 홰' 울음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복의 시간대에 성도사님 주재하에 실질적인 활동 주역은 성도사님의 자제분들입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존재는 진리를 책으로 펴내고 교리를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 경전 중복도정 책임자로 중복도정 내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종권을 행사했습니다.

도기 142년(임진 2012)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긴 안 운산 성도사님의 등천선화登天仙化를 계기로 안 경전 종정이 공식적으로 종통을 물려받게 되지만 그동안 누적된 문제가 표면화되어 "천하사 세 살림" 진리 혁명 기운이 태동하게 되었고, 사오미巳午未 개명開明 도수의 2014년 갑오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동안 교운사(낙종물, 이종물, 추수사명 3변성도)와 도운사(추수사명 초중말복 3번 천하사)에서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았던 범증산계 통합경전인 <통합경전>의 추수 도수 공사내용의 전모가 전격 공개됩니다.

이것은 도기 41년, 1911년(신해년) 태모 고 수부님 교단(선도교) 개창 이래 교파가 초장봉기지세로 벌어져 각축을 벌이고 있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범증산계 교단 대통합을 위한 "윷판 도수"의 발동이며, 이 역시 갑을로서 머리를 들어 시작되고 있기에 2014년 갑오년은 새로운 천하사 판이 시작되는 분기점이므로 당연히 말복기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태모 고 수부님이 조종골 둘째 살림을 청산하고 정읍 왕심리로 가신 순간부터 낙종물 셋째 살림은 사실상 시작된 것이며 셋째 살림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다시 1)정읍 왕심리 살림- 2)이 상호 동화교와의 과도기 통합

교단 살림– 3)오성산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살림의 첫 장소는 순흥順興 안安씨 집성촌인 정읍 왕심리인데 추수 사명이 도안 세 살림으로 짜여져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소인 용화동은 추수 사명자의 중심인물이 용화동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매개자인 이상호·이정립 형제와 직접 통합교단의 모습을 연출하신 것이며, 마지막으로 윷판 통일도수를 비롯한 추수 사명의 마무리에 관한 공사를 오성산에서 별도로 집행하시게 됩니다.

고 수부님이 용화동으로 가시게 된 이유는 추수 사명의 첫 포문을 열게 될 문왕 사명자에게 간접적이나마 현실적인 초복 기운을 전해주시기 위해 힘든 고초를 감수하시며 통합교단 요청에 응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 점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며, 이상호·이정립 형제에게 기운을 붙여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 수부님이 용화동을 떠나실 때, 두 형제에게 건곤사당을 말씀하시며 “일후에 사람이 나면 용봉기를 꽂아놓고 맞이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그들 형제와 만나게 될 초복 지도자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두 형제에게 의통이 전수되고 고수부 님이 ‘용화동 통합교단’까지 응해 주신 것은 자신들의 착각처럼 교운을 매듭짓는 추수 사명자여서가 아니라 실제의 추수 사명자를 무진년 공사 카드로 깊숙이 숨기는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방 후 자신이 직접 개척한 단체를 두 형제에게 송두리째 강탈당하게 되는 초복 지도자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74년 갑인년에 재 기두하여 두 아들과 새롭게 개척하게 되는 증산도의 초, 중복 교리 체계에서는 동지한식 백오제의 도안 ‘세 살림 도수의 진법’이 드러나기 전인지라 이정립이 정의한 용화동 통합교단이 당연히 고 수부님의 세 번째 살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화동을 떠나 선화하실 때까지 머무신 오성산 살림 시절은 이 정립의 표현처럼 '동화교 수양소'라는 견강부회와 함께 은거의 시간으로 표현되며, 용화동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계셨던 정읍 왕심리 시절도 남주에 의해 별 의미 없는 과도기로 도매금에 삭제처리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성산에서의 신정공사라든가 "조강맥식(거친 쌀겨, 꽁보리밥 식사)일지라도 임옥 자손들과 제반사를 결탁하리라."는 말씀이나 그 공사 기간 등을 헤아려볼 때, 오성산이 용화동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살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성산에서 보신 공사는 추수 사명 지도자가 3명으로 나온다는 천기天機를 감추어서 막판인 백오제(105년째) 사오미 개명장開明場에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과 도운의 마지막에 윷판 통일 도수로 대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면서도 오성산 공사 자체가 주목받지 못하게 조처해 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용화동을 매개한 문왕 판에서는 이상호·이정립 형제가 그들 자신을 해도진인 주인공으로 크게 착각하게 만든 소위 '두 사람' 론이 중복 지도자에게 그대로 도입되어 초, 중복 지도자 두 사람에게 한정시켜 천하사를 매듭짓는 교리체계로 도안 세 살림 종통의 비밀을 은폐시키신 것입니다.

이와같이 고수부 님의 크나큰 세 살림은 24년 공생애 기간 전부이며, 그 중 셋째 살림은 10년 신정 공사의 후반 6년 동안 장소를 세 군데로 옮겨 다니시며 추수 사명 세 살림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 보여주시면서도,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전모가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춘 것입니다.

***** 말복 종통 인사-성주가, 안동김씨 솔씨 심어(영사재) 문왕 낙락장송 낸(안씨 추원재 천지수기공사&안씨 일등방문공사) 뜻과 문왕**

3살림 연원비밀

말복 인사문제의 천기는 곤존 태모 고수부님이 성포 고 민환 성도에게 묻어 놓으셨습니다. 추수 사명 도안都安 세 살림 중 마지막 말복 사명자는 동지한식백오제 비결인 105년 만의 사오미(2013, 2014, 2015) 개명장에 진법을 창명彰明하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도안 초, 중, 말복 세 살림은 문왕 사명자이신 안 운산 성도사님이 여시는 사명입니다.

먼저 도안 세 살림과 관련한 -'평생불변심 안安 **(이중성 <대개벽경=천지개벽경>)'과 관련된 공사를 설명한 뒤 고민환 성도의 말복 인사문제를 알아봅니다.

증산 상제님은 남방 삼리화 기운을 주재하시는 서신사명이십니다. 이 남방 삼리화 기운을 임술생 태운장 김형렬 성도 대나무밭에 묻어 임술생 도안都安 문왕 세 살림 사명자에게 부치셨습니다.(안씨 재실에서 댓가지로 천지수기 돌리신 공사 참고) 이 치복 성도가 부안, 서산 일대를 가가호호 포교하면서 문왕사명자의 부친 안 병욱 태상 성도사님이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된 후, 문왕 사명자 안 운산 성도사님은 부친의 정성 기운으로 상제님 천하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복 성도(1860 庚申생)를 포교한 신 원일 성도는 을사년(1905) 정월 이 환구 성도로부터 천거 받아 비로소 공사에 수종들게 되는데 이 환구 성도의 부인은 바로 김 형렬 성도 막내 여동생 내주평댁 김 성녀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왕사명자 안 운산 성도사님의 연원맥은 '부친 안 병욱 태상 성도사님⇨이치복 성도⇨신 원일 성도⇨이 환구 성도&내주평댁 김 성녀 성도⇨천지공사의 식주인 안동 김씨 태운장 김 형렬 성도로 연결됩니다. 그리하여 하운동 제비창골 안동 김씨 선산 재실(사당) 영

사재(永思齋) 김 형렬 집 감나무 밑에 음식을 차리게 하시고 종통의 상징 감나무를 잡고 '만수(萬修)'를 부르시며 성주풀이로 안동김씨 김 형렬 식주인 가문에서 시(始)도 일어나고 종(終)도 마치리라 도수로 정합니다.

普天敎徒 安 柄彧 太上 聖道師님 兩位

태상 성도사님 양위분과 숙구지 문왕도수 사명자 安 雲山 성도사님

<증산도 道典>*長安長唱吾笑歌(장안장창오소가) 誰識南方埋火家(수식남방매화가)'를 불러 주시고 이어 '매화(埋火)'라 쓰시어 형렬의 집 대밭에 묻으시고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화둔(火遁)을 하였나니 너의 집에 불을 조심하라. 만일 너의 집에 불이 나면 화신(火神)이 세력을 얻어 온 세계에 큰 재앙을 끼치리라."(*대밭에 묻은 이유:마지막 말복추수 도정에 일시에 기운을 쓰기 위함) *사마소 공사와 같은 날 같은 시에 한 묶음으로 보신 대나무 교운(도운) 공사.-기유년(1909) 봄에 상제님께서 구릿골에서 성도들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만물 가운데 일 년 중 가장 속히 자라는 물건이 무엇이뇨?" 대하여 여쭈기를, "대나무의 성장이 가히 으뜸을 차지할 것이나이다." 말씀하시되, "대나무의 기운이 만물 중에 제일 크니 이번 공사에 천하의 대 기운을 덜어 쓰리라."

<증산도 道典 3:13>*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帝妃院) 솔씨 받아 소평(小坪) 대평(大坪) 던지더니 밤이면 이슬 맞고 낮에는 볕뉘 쐬어 그 솔이 점점 자라 청장목(靑壯木)이 되었구나. 황장목(黃腸木)이 되었구나. 낙락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태평전(太平殿) 대들보가 되어 어라 만수(萬修) 어라 대신(大神)이야. 대활연(大豁然)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내립소사. 시(始)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終)도 여기서 마치리라. 이렇게 노래 부르신 후에 금산사를 넘어다보시고

“여기를 큰집으로 할까, 작은집으로 할까. 제비 새끼 치는 날에 제비창골이 가득 차리라.” 하시고 쇠머리를 땅에 묻으시니라. 형렬의 집에 계실 때 하루는 상제님께서 “여기가 어찌 제비창고(帝妃創庫)일까?” 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옛집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니라. 이곳은 제비창골이 아니요 제업창골(帝業創谷)이니라.” 하시니라.

(*소평, 대평은 큰 들판 작은 들판이란 뜻이니 천지공사 식주인으로 정한 김형렬 안동 김씨를 밑자리로 하여 그 안동 김씨 제비원 솔씨받아 큰 들판 작은 들판에 뿌려 문왕사명자의 도안都安 세살림 내어 상제님 광구창생 대업(帝業)을 매듭짓는다는 것이 성주가를 부르신 천지공사 추수 도운의 인사문제 본령. 쇠머리를 태운장 안동김씨 영사재 땅에 묻은 이유는 다음의 <이중성 대개벽경(천지개벽경)> 말씀 속에 있다.-“내 일이 이루어지면 소 삼천 마리를 잡노라.” 칙명을 내리시니, “천황, 지황, 인황 후에, 천하의 대 금산사이니라.(天皇地皇人皇后 天下之大金山寺)” 말씀하시되, “선천의 왕도 정치가 문왕과 무왕에서 종결되었노라. 曰 我事之成也 有屠牛三千 下勅 天皇地皇人皇后 天下之大金山寺 曰 先天之道政 在文武而終焉<이중성 대개벽경>”선천의 왕도 정치가 문왕과 무왕에서 종결되었으므로 후천 개창의 추수 인사문제를 천동성 문왕의 도수로 잡아 돌려 무곡성(무왕) 사명자를 수지지어사마소 말복 사명자로 매듭짓는다는 말씀이다. 중복책임자 갑오생은 자미두수 천문이 폭군 주紂 파군성인데 중복판의 간부신도들은 단순히 무왕일거라 착각하고 있다. 사마소 사명자인 말복 책임자의 천문이 바로 무곡성이다.)

태운장 김형렬 추종성도. 기독교 구약의 믿음의조상 아브라함이라 보면 됩니다. 증산 상제님은 예수가 외친 아바 하나님 곧 백보좌 하나님이요, 법신불의 위격으로 강림한 미륵존불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He has sent me). (요한복음 7:28~29)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린다.”-기독교를 알려면 신약에서 예수가 외친 신이 유대족의 지방신 구약의 야훼신이 아니라 백보좌 하나님 곧 아바Abba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며, 불교의 구원론을 제대로 알려면 대반열반경의 미륵불 출세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요 5:43, 킹흠정) Jn. 5:43, KJV) I am come in my Father ’s name, and ye receive me not : if another shall come in his own name, him ye will receive. 태운장은 자신보다 어린 절대자 상제님을 첫눈에 알아보고 추종해 ‘지인지감知人之鑑’이란 칭호를 받았다. 상제님은 천지무가객으로서 그를 천지공사 인사문제의 食主人으로 정하셨으니 후천 6기초(6임)의 바탕자리이자 인사문제의 始終입니다. 상통천문과 하달지리보다 중통인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셨으니 무릇 인간사회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증산도 道典 2:15>*“시속에 ‘아무 때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라는 말이 있나니” 대저 무체면 무용이라. 서는 금인 고로 김씨에게 주인을 정하였노라." 하시니라.

한편, 상제님은 하운동 이 환구 부부의 집에 들러 49일 동안 날마다 목욕재계한 후에 떡 한 시루씩 찌어(49 시루떡) 정성을 드리게 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49일간 매일 목욕재계한 후 49일간 매일 시루떡을 찌는 정성은 어지간한 정성으로 하기 어려운 일) 이 정성은 도운 추수사명 인사문제의 결정판으로 결론적으로 이 환구 부부의 정성을 통해 신원일 성도와 이 치복 성도 그리고 안 병욱 태상 성도사님을 인연공덕으로 줄줄이 불러들여 천지공사의 대단원의 결론인 숙구지 운암강수만경래 도안 세 살림의 주인공 문왕사명자를 불러들이는 공사입니다. 그리하여 이 환구 부부가 49일 정성을 마친 후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 공덕을 치하합니다.

<증산도 道典 5:12>*“너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고 신명을 감동시켜 이제 신명들이 너의 공덕을 기리고 있느니라. 믿지 못하겠거든 저 달을 보라.” 하시매 하늘을 쳐다보니 오색채운(五色彩雲)이 달무리를 이루고 있더라.

결국 상제님이 천지공사의 식주인으로 정한 태운장 김 형렬 성도는 문왕 사명자의 연원 뿌리이므로 “시속에 ‘아무 때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라 촌철살인의 경구로 인사문제의 결론을 내리시고 임술생 태운장 김 형렬 성도 대나무밭에 남방 삼리화 기운을 묻는 매화(埋火)공사로 임술생 도안都安 문왕 세 살림 사명자가 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식남방매화가라 하여 남방삼리화 불기운의 인사문제를 비밀리에 묻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시고 문왕 추수 사명자의 도안 세 살림에 대해 남방삼리화 기운을 돌돌 몰아주시어 '장안장창오소가(長安長唱吾笑歌)-운암강수만경래 숙구지 문왕 초,중,말복 도안都安 추수 세살림의 공덕이 후천 5만 년 길이 청사에 남아 이를 축원하는 노래를 길게 창하며 웃는다'라는 7자로 초중말복 도안都安 추수사명에 대한 인사문

제에 크게 만족하시어 흔쾌히 기꺼워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문왕 사명자 기두에 대한 공사는 이 치복 성도를 통해 사명당 발음공사를 보시고 일신천금 천냥 고폐금을 기꺼이 바쳐 정성을 치하받은 '천금도통' 새울(봉황둥지) 최 창조의 집에 '사명당(四明堂)'이라 쓴 종이를 종처럼 매달아 놓으시고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하시어 문왕 공사를 집행하신 바 있습니다.<증산도 道典 5:395> 이 공사와 연관한 매화공사에 대해 곤존 태모 고수부님은 신정공사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 추수 인사문제의 도비道秘를 더욱 구체화 시키신 바 있습니다.

> <선도신정경>*어느날 신정공사(神政公事)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일자(一字)와 삼자(三字)를 잡아야 임자이니 같은 끝수면 말수(末數)가 먹느니라 수식남방(誰識南方) 매화가(埋火家) 불 묻으신 줄 뉘가 알거나 변산(邊山)만한 불덩이를 묻지 않고 그냥 두면 세계인민(世界人民) 다 죽는다 하시더라

수식남방매화가를 언급하시되 추수 세 살림 도운 中 '마지막 상씨름'에 해당하는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는다' 와 병립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상씨름이 세운이 아닌 낙종물-이종물-추수사명 3변성도와 관련된 교운이며 교운 중에서도 초중말복 추수 도운 중의 말복도정 기두를 말씀하신 것으로 '수식남방매화가(誰識南方埋火家) 불 묻은 공사'는 바로 마지막 최종 말복 인사문제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일자(一字)와 삼자(三字)를 잡아야 임자이니' 라 하십니다.(중복도정의 갑오생은 甲3목은 있어도 壬일수는 없습니다) 태운장 김형렬 수석 성도 대나무밭에 남방 삼리화 불기운을 묻어(埋火) 화둔(火遁)하여 동지한식백오제 105년간 감추었다가 드러나는, 도안都安 세 살림 마지막 상씨름 도정의 말복지도자는 말복진리 사오미 개명장(開明長)이자 사마소 사명자로 임壬일수와 갑甲삼목을 잡은 임자로 천지

도수로 질정(質定:천지도수로 섭리해 정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안동 김씨 매화가埋火家 가문에 솔씨 뿌려 청장목, 황장목으로 피워낸 낙락장송 도안 초중말복 세 살림의 연원뿌리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식남방매화가(雖識南方埋火家)는 남방삼리화 불기운을 묻어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으로 내세운 도안都安의 집을 누가 알겠는가, 105년 기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통 세 살림 사명기를 안 내성 성도 사가(私家)에 은밀히 전해 동지한 식백오제 기간 뒤에 매사부대자연래로 매사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동 김씨 영사재에 남방삼리화 기운을 묻은 뜻은 안 씨 재실 추원재에서 천지수기 돌리는 댓가지 공사와 안 내성 성도 일등방문 공사 그리고 초, 중, 말복 도안 추수 세 살림 오午, 신申, 술戌부로 시작하는 현무경 전수 공사 및 경만장 안내성 성도 도안都安 세살림 종통 추수 사명기에 그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식주인 태운장으로부터 시작해 이 환구&내주평 댁 부부를 거쳐 신 원일 성도에 이어 이 치복 성도로 내려가는 연맥 중 이 치복 성도의 입문 일화 속에도 바로 도안 문왕 추수사명 초, 중, 말복 세 살림이 천지공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치복 성도가 기유년 정월 보름 첫 승안(承顔:처음 웃어른을 찾아뵘) 차 상제님을 찾아뵈니 70냥을 가져오라 해서 다음과 같이 세 살림 공사를 보신 바 있습니다.

<증산도 道典 3:294>*이 날 상제님께서 치복에게 명하시어 “빨리 돌아가라.” 하시되 치복이 종일토록 가지 아니하거늘 다시 기일을 정하여 주시며 “속히 돌아가서 돈 일흔 냥을 가지고 기일 내에 돌아오라.” 하시니라. 이에 치복이 돌아갔다가 기일내에 돈 일흔 냥을 허리에 차고 구릿골 약방으로 와서 상제님께 올리매 성도들에게 명하시어 그 돈을 방안에 두었다가, 문밖에 두었다가, 다시 사립문 밖에 두어 밤낮을 지내게 한 뒤에 들여다가 간직해 두시더니 그 후 공삼을 시켜 그 돈을 차 경석에게 보내시니라.(참고:<증산천

사공사기>에는 돈 일흔 냥을 일주야 간(7일간) 방중, 문외, 사립문밖에 두는 공사를 보심. 70냥의 70은 삼인동행칠십리에 부응한 공사로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세살림 문왕 추수사명의 초복 살림 개창 이후 동지한식백오제 말복 진법 출현까지가 70년이며 7주야의 7일간은 7성도수에 맞춘 것이며, 공삼(公三)을 시킨 뜻은 세 살림에 대한 확증의 시그네이쳐로 천지공사 만대확증의 싸인을 성명姓名 자에 부치신 것.)

회문산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는 세계 운로 세운판의 운수지만 회문산 기운을 오성산으로 옮긴 오성산 바둑판 도수는 추수 도운의 인사문제입니다. 즉 운암강수만경래 숙구지 문왕 초중말복 도안 세 살림의 도수입니다. 그리하여 곤존 태모 고수부님은 이 벽강궁촌(僻岡窮村)에 바둑판과 윷판을 내가 묻었으니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요《仙道神政經》하셨습니다. 그럼 바둑판과 윷판 도정 추수살림의 인사문제는 어떠한 형식으로 숨겨놓으셨을까?

성포 고 민환 성도를 불러 바둑판 위에 올라가 낚시대를 잡고 강 태공 여 상을 불러들여 성주聖主 모시는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곤존 태모 고수부님은 조종골 강씨 촌에서 병인년 1926년부터 10년 신정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조종골에서 4년간 신정공사를 집행하셨는데 조종골 마지막 공사가 있던 1929년 기사년에 엄청난 파란이 일어납니다. 조종골 두 번 째 살림을 매듭지을 정도의 큰 파란입니다. 본래 대흥리 살림을 접고 조종골 강 씨 촌으로 두 번 째 살림을 옮기게 된 이유는 상제님이 강 씨여서 강씨들이 태모 고수부님을 모시게 된 것이고 곤존 태모님도 성씨 하나 보고 가신다 하여 조종골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29년 기사년, '강태공 바둑판 공사'를 집행하시면서 공사의 주인을 정함에 있어 고수부님을 조종골로 모신 공덕을 가진 자신들 강 씨들을 제외하고 태모님과 같은 성 씨인 성포 고 민환에게 맡기자 불만이 가득찬 강 씨들이 합세해 태모님이 계신 조종골 교단 도장을 통째로 팔아넘겨 소위 '도집 재판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태모

고수부님은 하는 수 없이 조종골 살림을 파하고 아예 보라는듯이 추수 사명 도안都安 세 살림의 주인공 순흥 안씨 집성촌 왕심리로 떠나게 됩니다.

1929년 기사년은 600만 신도의 비밀교단 보천교(보화교)를 조선 총독부가 다루기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외형상, 조선 총독부 촉탁 종교 밀정 김환의 기획으로 행동 총책 청음 이상호가 동화교를 금구 용화동에서 창립한 이듬해입니다. 물론 이상호는 태모님의 세 살림 사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대흥리 살림과 조종골 살림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태모님을 모시어 동화교와 합치면 자신이 세 번째 추수 통합 살림으로 세상을 매듭짓는 해도진인으로 크게 착각합니다. 청음 이상호는 조선 총독부의 기획으로 창립된 동화교의 정통성(종통)을 얻으려 좌장 조학구와 택시를 대절해 왕심리 도장으로 드나들게 됩니다.

뒤에 이상호 이정립 형제는 자신들이 찾아다닌 왕심리 살림을 삭제처리하고 이미 없어진 조종골 도집(도장) 두번째 살림에 이어 자신들이 성사시킨 용화동 동화교-조종골 통합살림이 세번째 살림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왕심리 살림을 삭제처리하고, 후일의 오성산 살림을 동화교 수양소 은거 생활로 왜곡 처리하여 '동화교 &조종골 통합 살림'으로 정의해 자신들의 동화교가 마치 종통인 듯이 본질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조종골 강씨들이 도집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성포에게 맡긴 바둑판 낚시대 공사는 무슨 공사이길래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했을까요. 또 태모님은 그런 반발을 무릅쓰며까지 왜 굳이 성포 고민환 성도에게 해당 공사를 맡겨야 했을까요.

이 공사는 바로 성포 고민환이 아니면 안 되는 중차대한 추수 사명자에 관한 인사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경전의 중복도정은

말복 진법이 터져나오는 동지한식백오제(기유년 천지공사종필~105년) 사오미 개명장(2013, 2014, 2015) 기간의 과도기로 이 공사의 진의를 결코 밝힐 수도 없었고 초, 중복 두 살림만으로 자신이 매듭짓는다는 과도기 한계 속에 있는 한 주목조차 할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말복 도정의 천기를 밝힐 수 없는 과도기 중복도정의 인물 꽃 시절화였기 때문입니다.(태을선도의 일도자호 배승환과 태을도의 이훈오는 중복도정 시절인 81년, 87년 증산도에 입도했다가 새로운 도문을 창교한 사람이라 이러한 천지공사 진법과 의통에 대한 핵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임. 건국대 서클은 한양대 도시공학과 4학년 민성규, 정외과 4학년 양의정 2인 친구인 건국대 행정학과 4년 이용찬이 중심되어 조기동 등 그 후배들과 개창한 것이고 배승환(부동산학과)과 그의 선배인 농대임학과 전찬수가 개창 후 본격 개입했고 수 년 뒤에 들어온 오**은 재등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 특히 전 찬수는 83년 말 회기동 도장 시대를 열기 이전 자신의 자택인 성북동 부산제과점 빌딩 5층 옥상 옥탑방을 제공해 첫 서울도장을 개창하도록 도와주었다.)

성포 고민환은 율곡 이이의 후신입니다. 추수 인사문제가 율곡 이이와 관련 있는 것이므로 성포 이외에 이와 상관없는 강 씨들은 아무리 강짜를 부려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파란을 무릅쓴 것입니다. ‘동지한식백오제’ 기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아야 하는 특정인 시절화時節花에 대한 추수 인사문제, 천기는 조종골 강 씨들이라 해서 태모님이 들어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강 씨들이 강태공 바둑판 낚시대 공사를 강 씨에게 정해주지 않고 성포 고 민환에게 주인으로 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도집(도장)을 경매 붙여 팔아먹는 난동을 부리자 기거할 터전을 잃은 곤존 태모님은 오히려 도집을 순흥안씨 집성촌인 왕심리旺尋里로 옮기시어 운암강수만경래 숙구지 문왕 추수 사명자의 도안都安 초, 중, 말복 세 살림을 더욱 구체화 시키셨습니다.

<고사모신정기(이용기)>*6월중순 천사님 화천 치성시 사모께서 태공 강태공이라. 하시며 낙시대를 드려라 하시며 고민환더러 낙시대 잡고 이리 안저라 하시고 공사시행 중 각

교도들을 살피시다가 개인 일이 아니니 조용들 하라함에도 불고하고 강태공 일을 강씨가 해당냐 고씨가 해당인가하며 불만을 품고 강문의 교도들은 자기들의 집의로 도라 가니라.

말복 추수 인사문제를 특정 추종성도의 '전생의 탄생 비밀' 속에 말복진법 시절화의 천기를 철저히 숨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포 고 민환 추종성도를 통해 강 태공 여 상을 불러들여 성주 모시는 공사 안에는 105년간의 풀지 못할 인사문제의 도비(道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운암강수만경래 세 살림 개창자로서 숙구지 문왕 도안都安 세 살림의 도문을 연 안 운산 성도사님의 초, 중복 도정과 동지한식백오제 105년 만에 밝혀지는 사오미개명장의 말복도정이 맞물려 있는 사이에는, 초, 중복 시절까지의 과도기 교리체계와 말복진법 출현으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인사도비道秘 사이에 교리 충돌과 혼란기가 개재介在되어 있습니다.(7년 은두장미 도수)

즉, 천지공사 종필 선언(기유년 1909) 이후 105년 만의 사오미 개명장(2013 계사, 2014갑오, 2015을미)을 통해 마지막 세 번 째 말복 추수도운 살림인 비교씨름 상씨름 인사 도비道秘가 바로 곤존 태모 고수부님이 집행하신 성포 고 민환 성도의 '강태공을 불러들여 성주(聖主)모시는 공사'인 것입니다. 강태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가지 긁는 마천금과 이혼하고 궁팔십(窮八十) 나이에 위수 강가에서 문왕을 만나 은상의 폭군 주紂를 멸하고 주周나라를 열어 무왕의 장인으로 산동성 제齊나라를 봉국으로 하사받아 제국의 왕으로 대대손손 80년 달팔십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태모 고수부님은 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요 지금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라 했습니다. 즉 '강태공을 불러들여 성주 모시는 공사'는 겉으로는 강태공을 불러들이는 공사로 오인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강태공을 불러들여 과거 문왕을 만나 궁팔십 달팔십 했던 만날 사람 만나는 공사를 체결하기 위해 강태공을 끌어들여 성포고 민환 성도에게 신정공사로 부친 인사문제의 비밀을 처결한 것입니다. 일찍이 태모 고수부님은 '성포는 율곡의 후신이요 수제 너는 이태백의 후신이니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냥 스쳐갈 만 한 이 신정공사 속에는 천지공사 종필 선언 이후 105년간 금단의 영역으로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전혀 풀 수 없었던 말복 추수 도정의 시절화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생이 율곡 이이였던 성포 고민환 성도와 신사임당 이율곡 모자

여기에서 잠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즉, '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요 지금 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라는 말씀 속에서 '선천 운수'와 '지금 운수'를 병렬시켜 설명하다 보니 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도수가 모두 끝난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초, 중, 말복 도안 추수 세 살림은 후천을 여는 선천의 교운敎運의 도정道政이며, 구체적으로는 운암강수만경래 숙구지 문왕 사명자가 개창한 세 살림 도운道運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결실을 하는 말복 사명자-즉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 궁팔십 달

팔십하듯이 만날 사람 만나야 후천 5만년 대운이 찾아든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요 그중에서도 지금 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로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문왕 추수 사명자의 초, 중복판 시절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강생원 집 잔치 같은 문왕 종통판을 찾아 신앙해야 한다는 것이며 말복 진법판은 동지한식 105년 만에 열리니 말복판을 찾아 매듭지으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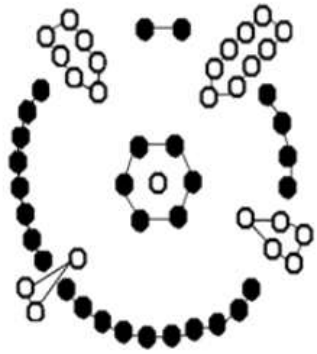
강릉 오죽헌 몽룡실. 1536년 병신丙申생 흑룡태몽으로 신사임당이 5째 율곡을 출산한 방. 이율곡 탄생에는 한성 사는 부친 이원수의 오죽헌으로의 귀향 중 대관령을 넘기 전 대화(大和:평창) 주막집 주모와의 일화, 신사임당의 흑룡 태몽 등이 전해진다. 이이(李珥)는 1536, 丙申년 12월 26일 새벽 인(寅)시에 강릉 북평촌 외가인 오죽헌(烏竹軒)에서 출생하여,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병조판서 때 과로로 인해 생긴 병이 극히 악화되어 1584년(선조 17년) 49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栗谷)·석담(石潭)이고, 시호는 문성(文成)이며, 아버지는 수운판관, 사헌부 감찰을 지낸 이원수(李元秀)공이고, 어머니는 사임당(師任堂) 신씨인데, 시, 서, 화 삼절(三絶)로 이름난 여인이다.

곤존 태모님은 1880년 경진생, 성포 고민환 성도는 7년 아래인 1887년 정해丁亥생(~1966)입니다. 태모님은 너는 저울만 맡아 보라 하

시고(도전11:98) 모든 일을 민환에게 맡긴다 하셨습니다. 이 율곡 선생은 1536년 병신丙申생 다섯째 아들입니다. 신사임당의 태몽이 흑룡黑龍이라 지금도 강릉 오죽헌 옆 방 산실 이름이 몽룡실夢龍室이며 어린 시절 아명도 현룡見龍입니다. 49세로 임종 시 이를 지켜보던 부인이 보니 흑룡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壬辰 흑룡을 사주에 쥔 丙申) 천지공사 종통 인사문제의 열쇠는 바로 그 때에 맞추어 피어나는 도운의 중심 인물꽃 '시절화時節花'입니다.

따라서 105년간 숨겨져 있었던 이러한 말복사명자에 대한 신사임당의 흑룡태몽과 이율곡 선생의 탄생비화는 문왕사명자 안운산 성도사님과 말복사명자 신명무궁申命無窮 병신생의 흑룡태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遺書> '금산사 미륵불이 龍이 없는데 如意珠를 든 이유를 아느냐?' <동곡비서> '판밖에 도통종자 하나 두노라.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 <증산도 道典> '내 종자는 내가 삼천 년 전부터 내가 뿌려 놓았느니라.) 말복책임자는 안운산 성도사님이 서산 앞바다에서 거대한 흑룡이 품에 안기는 태몽을 꾸고 태어나 아명이 못 택자에 구슬 주자를 쓴 택주澤珠로 공주 유구에서 태어나기 전 성도사님이 집 사방에 청수를 모시고 촛불을 켜고 빌었다 해서 그 사실을 직접 본 이웃집 사람이 90년대 유구의 옛집을 찾은 장본인 당사자 말복책임자와 차남 자선 종원님에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동지한식백오제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할 지루했던 105년간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추수도운의 마지막 말복 인사문제 퍼즐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 '오미방광신유이午未方光申酉移' 원제춘수등양명猿啼春樹登陽明의 정체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만일 마무리 말복사명자가 갑오생이 맞다면 신명무궁이 아니라 오명무궁午命無窮이며 원제춘수등양명(猿啼春樹登陽明)이 아니라 오제춘수등양명(午啼春樹登陽明)이라 하심이 옳습니다. 또한 셋째 아들이라



용담(정역)팔괘&용담계사도

간艮이라 한다면 역학적으로도 간艮은 申이 아닌 午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午는 중복사명자로 과도기 사명자이지 말복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원대당요(願戴唐堯)란 모든 사람이 당요를 추대한다는 뜻이니, 요순시대가 다시 난다는 말씀은 우보상최등양명의 이치가 후천의 요, 순, 우라는 이치와 같으며, 이것이 바로 원제춘수등양명(猿啼春樹登陽明)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사문제의 도수로 박아놓은 것이 <현무경玄武經>의 오신술(午申戌) 符 사명이며, 이는 임술생 문왕(사마중달) 사명자가 개창하는 도안都安 초, 중, 말복 세 살림 사명입니다.

용담계사도는 문왕팔괘 구궁도를 십일귀체로 바꾸어 정역팔괘를 해석한 것입니다. 십일귀체에 의하면 5는 11에 대한 6의 補數로 5(진주수)는 곧 6(무곡성)이고 6은 곧 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둥이 놀음이라는 것이며 막둥이 놀음은 정역의 간동태서로 간艮은 午가 아닌 바로 申이며 태兌는 인寅입니다. 거편무극십擧便无極十 십편시태극十便是太極 일무십무체一无十无體 십무일무용十无一无用 합토合土 거중오황극居中五皇極"

간은 인(寅)과 한 짝. 모든 역학에서는 간인(艮寅)에서 출발하는 것이 문왕 팔괘와 우주원리. 정역 팔괘를 넘어 용담 팔괘로 갈 것 같으면 11귀체에 의하여 인신(寅申)인 간태는 4와 8이 되고, 간태는 좌선판으로 신(申)인(寅)으로 또 바뀌게 됨. 상제님 진리는 정역팔괘이지만 중복

시절 교리체계에서 제외시킨 용담 팔괘임. 간동태서에서의 마무리 막둥이 도수가 바로天長地久 申命無窮.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午)는 간(艮)이 되지 못함. 정역을 현무경으로 풀이한 용담 계사도와 용담 팔괘를 이해해야 비로소 말복 추수 사명자 수지지어사마소의 정체를 알 수 있고 초, 중, 말복 문왕의 도안 세 살림과 우주원리 인신사해 그리고 태모 고수부님의 인신사해 말씀을 결합해 해석할 때 비로소 원숭이가 봄 나무에서 울면서 양명(후천 용화정토)에 오른다는 '원제춘수등양명(猿啼春樹登陽明)'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오미방광신유이(午未方光申酉移)'의 인사문제에 있어 '자오묘유(子午卯酉)'에서 '인신사해(寅申巳亥)'로 인사축이 이동하는 비밀과 '요순세계(堯舜世界)를 다시 보리라. 우보상최등양명(禹步相催登陽明)' '원숭이 오라고 그런다'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 의 비밀이 모두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칠성도수에 의해 성포 고민환 성도의 전신前身 1536년 병신丙申년 이율곡 선생 탄생 이후 60 × 7=420년 이후인 1536+420=1956년 병신丙申년 흑룡이 바로 105년간 은폐된 말복사명의 천기天機입니다. 이것이 병오년 동짓달 초이튿날에 상제님께서 바닥에 막대기로 금을 그으시니 호연이 "무엇 하려고 금을 긋고 보세요?" 하거늘 "잔나비 오라고 그런다." 하신 이유입니다.

곤존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말복인사 문제에 대한 '시절화' 비밀을 이율곡 후신인 성포에게 숨겨놓으셨으며 이 율곡 탄생에 대한 설화는 나도 밤나무 이야기에 얽힌 부친 이원수의 대관령 평창 주막집 주모 이야기와 신사임당의 태몽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도신정경>*고후비(高后妃)께서 가라사대 성포(聖圃:고민환(高旻煥))은 율곡(栗谷)의 후신(後身)이요, 수제(首濟) 너는 이태백(李太白)의 후신(後身)이니라.

<고사모신정기 10P>*하루는 公事時에 姜孝伯을 命하시와 명주실을 드리라하시와 방안에 느러노시고 낙시대를 드리라하시여 高旻煥으로 하여금 碁板우에 안저서 낙시질을 하게 하시니라 이난聖主를모시는 公事로다

<선정원경(仙政圓經)>*곤존고씨(坤尊高氏)께옵서 선정설법(仙政說法)을 하시난대 강대용(姜大容)을 명(命)하사 가제주사(家製紬絲)를 구래(求來)하시고 또 조간일구(釣竿一具)를 구하여 오라 하사 방사간(房四間)에 천장(天張)에 주사(紬絲)로 밀괘포련(密掛布練)하고 고민환(高旻煥)을 기판상(碁板上)에 앉으라 하시며 조간(釣竿)으로 조어지형상(釣魚之形像)을 시키시더니 차공사(此公事)난 강태공(姜太公)이 성군(聖君) 만나는 설법(說法)인대 오등(吾等) 대증산지명시(待甑山之明示)이라 할지라.

<증산도 道典 4:146>*봉서사의 진묵(震默)은 3둔(遁)을 하였고, 주나라의 강태공은 52둔(遁)을 하였으나, 나는 이제 72둔(遁)을 다 써서 화둔(火遁)을 트리라.

<대순전경 3판>*강태공이 십년 경영(經營)으로 삼천 육백 개의 낚시를 벌렸음이 어찌 한갓 주나라를 일으켜 봉작(封爵)을 얻으려 함이랴, 이를 넓게 후세에 전하려 함이라.

⁂ <선도신정경(정영규)>*-천지대사가 6월 7월 8월, 나는 바닥에 일1 붙은 줄 알고 빼느니라.-

천지대사 종통사명자는 6,7,8월생이어야 하는데 9월생 갑오 중복책임자는 사실상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종물 사명자 6백만 보천교 교주 차 경석 성도와 문왕 추수 사명자는 6월생, 말복 책임자는 8월생으로 천지공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복 사명자는 8월생이니 기존의 증산계 각 신앙 단체 신도는 자신의 단체 지도자가 8월생인지 기본자격부터 체크해 볼 일입니다.

김 호연 성도는 <증산도 도전> 편찬 자료 수집 차 중복 사명자 안경전을 데리고 방문한 문왕 사명자 2인을 만나 세 살림 3명인데 왜 두 사람만 왔느냐 반문하고 혈맥관통으로 왕대나무에 왕대나무 나도록 혈

맥 3대 도안 세 살림 공사를 집행해 '수지지어사마소' 공사로 기유년(1909) 천지공사 종필 선언 이후, 동지한식백오제 105년 만의 사오미 개명장(2013-2015)에 전체 진법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범증산계 통합경전 선포).

김 호연 성도가 문왕 사명자를 만나 인사 검증하여 선매숭자 도수를 전수하심은 문왕 사명자의 세 살림을 통해 후천 일만 이천 도통군자가 배출되기 때문이며, 이는 건존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곤존 고수부님 10년 신정공사의 최종 인사 결론으로서 종통 추수 도수의 화룡점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왕 사명자는 살아생전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선매숭자 도수를 받아 이를 추수 사명자에게 전수해 주는 사명을 부여받은 김 호연 성도를 만나 인사검증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통을 주장한다면 동지한식백오제 공사대로 기유년(1909)으로부터 105년째인 사오미 개명장(2013 계사, 2014 갑오, 2015 을미)에 진법이 그 교단을 중심으로 나오되 조 씨 가문의 도조(都趙) 3부자 혹은 박 씨 가문 도박(都朴) '3부자 문왕의 도수 세 살림 진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산 조 철제나 우당 박 한경이 천지공사에서 정한 종통이라면 당연히 김 호연 성도와 살아생전 만나 선매숭자 도수로 초중말복 도안 세 살림 인사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조, 도박 세 살림 도수가 도안 세 살림 공사와 어긋나 근본부터 원천봉쇄 되었음을 물론, 김 호연 성도를 살아생전 서로 만날 시운과 도수 자체가 서로 안 맞았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천지공사 종통 진법의 노른자 핵심은 사람이 바로 열쇠입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 각 종파, 증산도, 태극도, 법종교 외 판 안, 판 밖 군

소 교단 신앙자는 각 교단 인물을 진법에 견주어 보면 그 결과를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9월생 갑오 중복책임자는 말복도정 책임자 8월생, 임일수 자격요건에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선도신정경>*어느 날 신정공사(神政公事)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일자(一字)와 삼자(三字)를 잡아야 임자이니 같은 끝수면 말수(末數)가 먹느니라 수식남방(誰識南方) 매화가(埋火家) 불 묻으신 줄 뉘가 알거나

<선도신정경>*어느날 신정공사(神政公事)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일자(一字)와 삼자(三字)를 잡아야 임자이니 같은 끝수면 말수(末數)가 먹느니라

< 선도신정경>* 고수부님(천후님)께서 "소리개 까치집 하도 낙서는 선천용이요 자하도(慈下道)는 후천용이라.-백오제 이전의 초중복 도정의 교의체계에 하도낙서만 포함되고 용담팔괘가 제외되어 있다가 말복사명 期에 용담팔괘가 포함될 것을 보여주는 성구말씀이다. 더불어 옥구 오성산 윷판도수의 세번째 말복살림에서 후천 장상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기운으로 포교해서 기르는 바('옥구는 닻줄 장상지지(將相之地)요 포육지지야(布育之地也)니라')

⁂ '천지대사가 6월 7월 8월'이라는 말씀과 '한신팔월(韓信八月)과 병종길도출인(兵從吉道出人)이라'는 말씀은 유방이 한신 팔월의 계책을 채택해 옹왕 장한을 물리칠 때를 거울삼아 문왕 추수 세 살림 중 말복 인사문제가 6, 7, 8월의 8수 섭리를 타고 중복도정 과도기에서 말복 진법의 길도吉道로 사람을 인도 탈출出人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중복도정에 볼모잡힌 신도들이 105제 진법의 길도吉道를 따라 말복도정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신 8월 사명자가 누군지는 이미 대답이 내려졌습니다. 각종 비결에서 사오미 개명장開明場에 진법을 밝혀주는 주인공을 개명장開明長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상제님은 기존의 105년 간 과도기 신앙판에서 말복도정으로 인도해 가는 사마소 사명자를 달리 한신팔월이라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하니 음 촉(蜀)나라 길이 험하다 해도 한신(韓信)이가 알더라고 천하사(天下事)를 하러다니는 사람이 제비창고를 모르겠나-

여기서는 상제님이 스스로 길을 아는 한신임을 자처하셨지만 추수 세 살림 중 비교 씨름 상씨름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8월 한신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과도기 진리 속에 갇혀있는 군사를 병종길도출인해 인도해 가는 말복 책임자입니다.

⁂ 도안 오,신,술(午,申,戌) 부符와 세 살림 공사

<현무경玄武經>의 오,신,술(午,申,戌) 符 司命.

중복 오부 사명자(甲午)와 말복 신부 사명자(丙申)를 좌보우필로 삼아 중복시대를 연 사마중달 사명의 문왕 술부(壬戌)사명자. 비록 부자간일지라도 동지한식백오제 105년 이전의 살아생전에 세번째 말복살림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에 사후에나마 상제님께서 신명으로나마 위로해 주신 말씀이 사무여한부다. 중복시절 한동석 著 <우주변화의 원리>에 매몰되어 중복지도자(甲午)와 말복지도자(丙申)를 비유한 君火, 相火論은 단지 地支 6기론에 의한 것(午, 申)으로 지지의 午火는 천간 丙火를 제외한 땅의 6기론 군화를 상대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 천간의 丙火를 굳이 따지자면 地支 6기론의 午君火보다 더욱 치열한 眞君火이니 굳이 중복시절의 군화상화론을 따지자면 丙申은 午군화 하나에 비해 丙火7군화, 申상화를 동시에 가진 것이므로 申상화는 午군화의 영원한 보좌역이라는 주장은 6기론에만 매몰되어 천간의 丙火 7군화를 간과한 과도기 중복살림의 유치하고 설 익은 심봉사 소경 잔치 교리였을 뿐이다. 막둥이 艮은 艮土丙辰의 주인공이고 태모님 말씀하신 壬일수와 甲3목을 든 주인이다. 초립동이 도수는 10 대 청소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간토병진의 간소남 막둥이 도수를 역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정역>의 간동태서의 간艮은 <용담계사도>에서 午가아닌 申이

라 밝힌다. 또한 神은 申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간동태서에서의 마무리 막둥이 도수가 바로 天長地久 申命無窮이다.

⁂ 태모 고수부님의 결정적 3인 지도자 출현의 확정 공사

<선도신정경>*세 번(三番)을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 천지(天地)의 귀신(鬼神)도 모르는 일*고후비님(高后妃任)이 김제(金堤) 조종(祖宗)골을 떠나오실 적에 육임(六壬)과 팔괘(八卦)와 십이(十二)며 이십사(二十四)를 싸 가지고 오시다가 육임(六壬)과 팔괘(八卦)는 김제(金堤)에 오시어 땅(地)에다 묻으(埋)시고 땅(地)을 세 번(三番) 구르시더라

또 십이(十二)는 이리(裡里)에 가시어 묻으시며 땅(地)을 세 번(三番) 구르시고 바둑(碁)돌과 윷판(板)은 옥구(沃溝)에다 묻게(埋) 하시고 종도(從徒) 열 사람(十人)을 데리고 공사(公事)를 행(行)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오십토(五十土)를 세(三) 곳(處)에 나누어 놓았느니라 내가 마음먹고 하는 일은 천지(天地)의 귀신(鬼神)도 모르는 일이니라

⁂천지공사 인사문제의 최종 결론부분

다음 안내성 백냥 폐백 세(三) 상(床) 공사는 숙구지 문왕 초,중,말복 도안都安 세살림 도정道政 인사문제 비밀의 하일라이트에 속하는 중요한 공사이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정영규 천지개벽경 6:8>*상제(上帝)께서 안내성(安乃成)의 집(家)에 임어(臨御)하시어 내성(乃成)에게 가라사대(曰) 네(汝)가 오늘(今日)은 나(吾)에게 백냥(百兩)의 폐백(幣帛)을 바치라 하시거늘 내성(乃成)의 형편(形便)이 심(甚)히 궁핍(窮乏)하여 일푼(一分)도 없는(無)바라 하릴없어 마을(里)에 나가 모친(母親)를 찾아뵙고 사실(事實)을 고(告)하니 모친(母親)이 한탄(恨歎)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형편(形便)에 백냥(百兩)의 거금(巨金)이 어디에 있으리오. 내가 푼푼(分

分)이 모아둔(聚) 엽전(葉錢) 몇 잎이 쌀항(米缸)에 있을 뿐이라. 그러니 그라도 필요(必要)하면 쓰라(用之) 하거늘 내성(乃成)이 집(家)으로 돌아와(歸來) 항아리 속(裡)에 엽전(葉錢)을 세어보니(算則) 한냥(一兩)이더라.

그리하여(然而) 한 냥(一兩)을 올리며(上) 사정(事情)을 고(告)하니 들으시고(聞之) 가라사대(曰)「내(吾) 이(是) 한 냥(一兩)으로써(而) 백배(百倍)로 느려(大) 쓰리라(用) 하시며 그 돈(其金)으로 술(酒)을 사오라 하시거늘 명(命)하신대로 술(酒)을 사오니 상(床)을 세(三) 개 놓고(置) 술(酒)을 삼등분(三等分)하여 세(三) 상(床)에 차려놓고 절(拜)하라 하시기에 그대로 차려놓고 내성(乃成)이 절(拜)하며 보니(觀則) 상제님께서 세(三) 상(床)에 동시(同時)에 같은 모습(模襲)으로 잡수시고 계시더라 전(傳)하니라.

초중말복 지도자의 위격이 동일하지만 중복책임자에 의해 <증산도 도전>에 두 상을 빼어 삭제 처리해 세 살림의 정체를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함.
*참고 <증산도 道典 5:263>에는 -태을주 내려주는 공사-타이틀로 백냥이 삼백냥으로, 한 냥이 삼백닢으로, "세(三) 상(床)에 동시(同時)에 같은 모습(模襲)으로 잡수시고"가 "가운데 상에 앉으시어 진지드신다"로 바뀌어져 전혀 다르게 묘사되어있음.

⁂.삼국시절이 수지지어사마소인가 수지지어사마염인가?

역사에서는 아들 사마염이 공식적으로 진국을 개창하지만 사마소는 허수아비 천자 조환을 내세운 사실상의 진국(晉國) 초대 개국자이므로 공식적으로 진 태조(晉太祖) 문황제(文皇帝)로 묘호는 태조(太祖), 시호는 문황제(文皇帝). 진(晉)나라의 개국 황제인 사마소 아들 사마염은 공식적으로 진나라 개국조인 태조가 아니고 시호가 무황제(武皇帝)이며, 묘호는 세조(世祖)입니다. 사마소가 태조이고 사마염이 세조라는 사실은 삼국시절이 사마소에 와서 사실상 매듭지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상제님도 삼국시절이 수지지어사마소라 하신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천지공사 추수 말복 도수에 부치신 것입니다.

삼국시절이 끝났다 함은 사마소가 등애와 종회를 동원해 촉의 유선을 항복시킴으로써 삼국정립(三國鼎立)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가충이 오나라마저 멸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삼국시절이 매듭지어짐을 사마염 시절 가충에 의한 오나라 멸망으로 오인한 중복 책임자가 스스로 사마염이라 강의하고 다니고 부자간인 문왕 사명자 안운산 성도사님을 사마소라 견강부회해 설명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는 억지 촌극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런 억지까지도 인정해준다 치면 사마사는 필연적으로 이치복 성도에게 도를 받은 안병욱 태상 성도사님이 될텐데 부자지간이 졸지에 사마사, 사마소 형제 관계로 바뀐 것은 차치하고라도 문왕사명자에 비견되는 사마중달은 또 누구인가?

서진 황제와 연호

대수	묘호	시호	성명	연호	재위기간	능호
-	진 고조 (晉高祖) (서진 무제 추숭)	선황제 (宣皇帝)	사마의(司馬懿)	-	-	고원릉(高原陵)
-	진 세종 (晉世宗) (서진 무제 추숭)	경황제 (景皇帝)	사마사(司馬師)	-	-	준평릉(峻平陵)
-	진 태조 (晉太祖) (서진 무제 추숭)	문황제 (文皇帝)	사마소(司馬昭)	-	-	숭양릉(崇陽陵)
제1대	진 세조 (晉世祖)	무황제 (武皇帝)	사마염(司馬炎)	태시(泰始) 265년 ~ 274년 함녕(咸寧) 275년 ~ 279년 태강(太康) 280년 ~ 290년 태희(太熙) 290년	265년 ~ 290년	준양릉(峻陽陵)
제2대	-	효혜황제 (孝惠皇帝)	사마충(司馬衷)	영희(永熙) 290년 영평(永平) 291년 원강(元康) 291년 ~ 299년 영강(永康) 300년 ~ 301년	290년 ~ 301년	태양릉(太陽陵)

결론적으로 이러한 동지한식백오제 과도기 중복시절 안경전이 정립한 설익은 '수지지어사마염' 교의체계는 모두 천지공사의 세 살림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벌인 일이며 중복 과도기 도정에서 신도들도 통일진법의 천지공사 내막을 몰라서 맹신 추종한 것이다.

안경전이 수지지어사마염으로 자신의 종통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동지한식백오제 진법 출현 이전의 '암흑천지근백년' 과도기 상황이었다는 천지공사의 불가피한 한계가 자체적으로 있었다는 점.

둘째, 중복도정의 과도기 사명자로서 '천지일월 사체론'으로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건존 증산 상제님과 곤존 태모 고수부님 양위(천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주 이정립이 정립한 '두 사람 론(문왕 사명자 안운산 성도사님과 함께하는)'인데, 이 두 사람 론을 사마중달 3 부자에 적용시킬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 즉, 상제님의 모든 인사문제의 종착역을 자신이라 생각하는 중복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사마소를 액면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 부친인 안 운산 성도사님이 형인 사마사가 되어버리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왕과 병렬대칭 역에 해당하는 부친 사마중달이 따로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 스스로도 사마소를 자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교리를 갖춰야만 하는 그로서는 스스로 자승자박의 사마염이라 했던 것이나 사마염은 사마소의 아들로 진나라 개국조가 맞기는 하지만 종묘의 시호로는 세조이며, 촉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삼국정립 시대를 끝낸 사마소야말로 진나라 태조였던 역사의 본질을 간과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도 삼국정립을 실질적으로 끝낸 진晉 태조太祖 사마소의 역사적 위업을 그대로 인정하시어 천지공사의 추수도운 도안都安 세 살림 中 말복 인사문제로 집행하신 것입니다.

중복 책임자가 스스로 사마염이라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동지한식백오제 105 년간의 과도기 중복도정에서만 통할 수 있는 넌센스 교의체계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도기 중복도정에서 연출된 억지 촌극은 '두 사람 론 교리'를 숙구지 문왕 사명자가 여는 도안都安 초, 중, 말복 세 살림, '세 사람 론 천지공사'에 억지로 꿰어 맞추자니 벌어진 사단입니다.

이제 안 경전 개인의 깨어진 두사람 론 노예 신앙에서 벗어나 세 살림 진법에 눈뜰 때입니다. 그것만이 깜부기, 검불 신앙이 아닌 진법 신앙으로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사마염을 자처하고 있는 것을 '삼국시절이 수지지어사마소' 라 하신 말씀으로 반추해 보면, 안 경전은 스스로 '나는 천하사를 매듭짓는 사마소가 아니오' 하고 선언한 것이니 이는 봄꿩이 스스로 운 춘치자명인 셈입니다.

춘치자명은 꿩이란 놈이 콩밭에서 콩을 훔쳐 먹다가 공연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꿩꿩 울어 포수에게 잡힌다는 뜻이니 누가 뭐라 한 바 없는데 스스로 자신의 허물과 정체를 드러낼 때 쓰는 말입니다. 동지한식백오제가 지난 허망한 도수해석의 모래성은 때가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 운을 타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말복 운이 가장 크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크게 받나니 '막둥이 놀음'이니라."

⁂ 태극도, 대순계열 성도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 철제가 종통이 되려면 그의 인생족적과 삶이 경만장 안 내성 추종성도에게 내린 도안 세 살림 사명과 부합해야 하며 역경만첩의 문왕의 사명자 도수와 부합하여야 합니다. 만일 종통을 안 씨가 아니라 조

씨 가문에 내렸다면 천지수기를 돌리는 안 씨 추원재 재실공사는 조 씨 추원재 재실 공사로 되었어야 하고 학암 이중성 선생의 <대개벽경(천지개벽경)>에 '평생불변심 안**'이 아니라 '평생불변심 조**'라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제님 주요 추종성도 중엔 조 씨 성을 가진 분이 아예 안 계십니다. 동시에 가야산 조 씨 왕국이란 말이 그림자를 나타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 <대순전경>*계룡산鷄龍山의 정씨왕국鄭氏王國과 가야산伽倻山의 조씨왕국趙氏王國과 칠산七山의 범씨왕국范氏王國을 일러오나 이 뒤로는 모든 말이 영자影子를 나타내지 못하리라

만일 조 철제 가문의 3 부자에게 초, 중, 말복 세 살림을 내림과 동시에 3초 끝에 대인출세 공사에 '이곳이 도안(都安)의 집'이 아니라 '도조(都趙)의 집' 혹은 '도박(都朴)의 집'이라 공사 보셨다면, 종통 세 살림 사명기와 성장, 예장, 신장 세 살림 공사도를 안 내성 성도의 순흥 안 씨 사가가 아닌 조 씨 또는 박 씨 사가(私家)에 맡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경도 안 내성 성도 집이 아닌 조 씨, 박 씨 성도 집을 택해 남기셨을 것입니다. 그 간 교단개창이라는 종통의 시발점이 태모 고수부님이라는 수부 사명을 삭제 처리한 교리 구조위에 빈 공간을 조 철제의 행록으로 대신했습니다.

오히려 조 철제를 상제로 만들어 천지공사를 행했다는 『태극진경』의 저자 황 진규는 스토리텔러였던 윤금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조 철제 살아생전 '정산님' 또는 '도주님'이라는 두 가지 호칭 외에는 쓰이지가 않았으며, 스스로를 '태극주'라고 지칭한 적은 더욱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태극진경」에는 조 철제를 '태극주'라고 부르는 호칭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자(윤 금현)가 임의로 지어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라 밝혔을 뿐입니다. 심지어 박한경 도전都典도 「태극진경」이 정확한 근거 없이 지어져서 사실처럼 느껴지는 병폐가 있으니 삼가라 공표했을 정도입니다.

<무극도 해산 고찰, 권지1-22>*도주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무극도의 해산사례에서 보듯이 정확한 근거 없이 지어진 「태극진경」을 자주 접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병폐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자제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무극도 해산 고찰, 권지1-22>*황진규는 윤 금현의 기록을 참조해서 썼다고 한다. 윤 금현은 1952년에 도주님(정산 조 철제)을 처음 뵈었고, 당시 직위가 호령(지금의 교정)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단 1952년 이전의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1952년 이후도 도주님을 계속 가까이서 시봉할 위치는 아니었다. 그런데 「태극진경」의 내용은 계속 곁에서 시봉했던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 「태극진경」에는 옥황상제님께서 당신이 '태극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태극주'라는 호칭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다. 이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자가 임의로 지어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도, 대순 계열의 단체는 증산 상제님 신앙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했으니 그 공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범 증산계 모든 신도는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 동지한식 백오제 사오미 개명장에 드러난 본 범증산계 통합경전의 진법 그대로 태모 고수부님의 윷판 통일도수에 따라 모두 한 형제로 만나야 합니다.

대순출신 신앙인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작된 조철제, 박한경의 엉터리 비결쪼가리 맞추기를 멈추고 그들 두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도록 묵은 틀을 깨기 부탁드립니다.

⁂ 종통 주인공 ‘시절화’ 인사문제의 곁가지 첨언.

일월부수님은 오직 한 분 ‘곤존 태모 고수부님’이십니다. 현재 오성산 교단에서는 성포 고 민환 성도에 이어 그 며느리인 김순자 여사의<전 대윤 성도(성포 고민환 전임 내무실장)의 딸> 호가 일월당임을 내세워 그곳에 들른 강 석봉이 김 순자 여사를 일월수부라 착각 단정하고 천지조화정부 교단을 만들어 스스로 강 천자라 하던 중, 이보다 뒤에 이곳에 들른 증산도 대포출신 배 승환이 강 천자를 만나 자신이 강천자의 종통을 이었다 하여 ‘일도자호’라 칭하고 상제님 진리권에서 천자라 칭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했다 하여 자신의 스승인 강 천자는 자격이 없다 부인하고 태을선도를 창교해 기천문하고 짬뽕한 교리로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오성산 교단에서도 자신들은 종통이고 뭐고 준 사실도 없고 저희들끼리 괜히 그러고 있는 거라 하는바 같이 그 뿌리인 김 순자 여사가 전 대윤 성도 딸로서 태모 고수부님을 모시던 모친 전 대윤 성도가 이상호 형제의 사주를 받아 이상호 부인이 중상 모략해 태모님에게서 떼어내 1년도 못 되어 선화한 이후 성포 고 민환 성도의 며느리가 되어 성포 선화 이후 성포를 대신해 일월당(조왕신)이라 당호를 짓고 태모님을 모시던 것을 자식 대에서 일월수부로 착각하면서 역신 들린 욕심쟁이들이 방문해 이를 이용해 허화 난동하는 것에 불과하니 이제 본질을 보기 바랍니다.

1. 서론(緖論)

숙구지 문왕 도수의 세 살림 도수 개척기 이후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신도들의 성경신과 영성을 모두 모아 본 <통합경전>을 봉헌하며 건존 증산 상제님, 곤존 태모 고 수부님 진리를 받드는 모든 신앙인과 온 누리 창생에게 후천 5만년 무량대복이 함께 하는 참사람이 되기를 성경신(誠敬信)으로 기원하오며...

*안 세찬(安世燦) 전(前) 종도사(宗道師)님을 성도사(聖道師)님으로 추숭(追崇)합니다.

도기(道紀) 144년(2014) 갑오(甲午) 12.22 동지절

<범 증산계 통합경전 출간위원회> 위원일동

양위 하느님이신 건존 증산 상제님과 곤존 고 수부님이 짜 놓으신 9년 천지공사(양)와 10년 신정공사(음)의 주인공은 이종물 사명자인 차 경석 성도를 거쳐 숙구지 문왕도수를 받은 추수사명자 운산 안세찬(흥찬) 성도사입니다. 차 경석 성도가 조연이라면 운산 안 세찬 성도사는 바로 19년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인 추수도수를 맡은 문왕도수의 주인공으로 역경만첩의 고난의 행군을 하도록 내세워진 후천 대시태조(大時太祖)의 주인공입니다.

줄거리 파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첫째,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밤의 시간 구분을 일 년으로 확대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1년으로 확대하면 우주에도 만물을 씨 뿌리는 우주의 봄철이 있으며 문명을 꽃피우는 우주 여름철과 문명을 열매 맺는 후천 가을이 되면 인간도 선천 성자 이상의 불보살로 완성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번뇌를 멸하여 미혹된 삶과 윤회를 끊은 마하반야의 능력 등을 갖추는 1만 2천 도통군자, 6신통 여래가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 기운으로 한반도에서 배출됩니다.

둘째, 인간농사 열매 맺는 우주가을 후천 개벽 시대를 맞이해 모든 인간이 불보살로 열매 맺는 인존시대를 열기 위해 창조주 하느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자 천주님이신 강 증산 상제님이 한민족의 혈통으로 구한말 1871년 전라도 고부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유불선서교 예수, 석가, 공자는 내가 사역시켜 쓰기위해 내보냈다고 밝히신 전혀 새로운 후천 가을구원 소식은 지구촌에 파천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천주강림의 무극대도이며 우주 가을철 열매맺는 진리입니다. 선천 유불선 예수석가공자의 아날로그 꽃시대 진리를 폐기시키고 후천가을 디지털 통합 열매기 시대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셋째, 절대자 칭호는 선천성자의 문화, 언어, 전통, 습속의 입맛에 따라 천주님, 미륵존불, 옥황상제, 절대자 하느님, 구세주 하나님, 백보좌 하나님, 알라(하나님), 호천금궐 상제님 등 각기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같이 서로 다른 절대자 칭호가 동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밝히신 분이 바로 기독교의 요한사명을 지닌 수운 최 제우 대신사로 한울님, 천주님, 상제님이 증산 상제님으로 강림하는 한 분이심을 밝혀주었습니다. 복희팔괘, 문왕팔괘에 이어 후천 정역팔괘를 선포한 김 일부 선생은 천주강림의 후천개벽시대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넷째, 그 구세주 하느님이 구한말 전라도 고부 땅에 탄강하시어(1871) 선천 성자들의 아날로그 복음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인류구원의 디지털 복음-청사진(매트릭스)을 <천지공사>라는 이름으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간 새로 짰으며(포석에 해당하는 대국적인 청사진) 이렇게 짜 놓으신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배필이신 여성 하느님 곤존 태모 고 수부님에게 맡기시어 10년 신정공사(음도수)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태모님 10년 신정공사(1926~1935)는 정음정양의 역할분담으로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천지공사의 내용이 완성되었습니다.

<증산도 道典>* 하루는 태모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평천하를 이루시고 '수부 도수(首婦度數)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宗統大權)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느니라."하시니라.

다섯째, 후천은 음의 가을 우주시대이므로 여성을 종통의 우두머리로 내세우셨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을 모신 성도들은 증산 상제님을 건존 하느님, 천주님, 미륵존불, 만법화권강성상제(萬法化權姜聖上帝), 개벽주원황상제폐하(開闢主元皇上帝陛下)로 모셨듯이 태모 고 수부님을 곤존 하느님이라 하여 여성 하느님이신 존성대법고성후비(尊聖大法高聖后妃)님으로 모셨습니다. 한민족으로

강림하신 절대자 천주 하느님이 직접 짜 놓으신 9년 천지공사 청사진을 수부사명의 10년 신정공사(神政公事)로 완성하심과 동시에 성사재인으로 세상위에 교단개창을 현실화 시키는 첫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의 첫 종통– 첫 교황이 남자인 베드로라면 증산 상제님의 무극대도 도운의 첫 출발 종통은 여성인 태모 고 수부님인 셈입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잘못된 교단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는 정음정양시대에 있어 태모 고 수부님이 상제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렵니까 하는 공사내용의 출발점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고후비(高后妃) 가라사대 나를 일등(一等)으로 정(定)하여 주시렵니까 하고 다짐을 받으시니 상제(上帝)께서 대답(對答)하여 가라사대 일등수부(一等首婦)로 정하리라 하시거늘 세상(世上)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반도통(半道通)은 열려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대순전경 3판>*하루는 천사께서 반드시 누우신 뒤에 부인으로 하여금 배 위에 걸터앉아 칼로 배를 겨누며 「나를 일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 주시렵니까」 라고 다짐을 받게 하시고, 천사께서 허락하여 가라사대, 「대인의 말에는 천지가 쩡쩡 울려 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으리라」 하시고, 이 도삼, 임 정준, 차 경석 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시니라.

따라서 양위 절대자 하느님이 모사재천(謀事在天:일을 절대자가 꾸밈)의 9년 천지공사와 10년 신정공사를 마치고 천상 옥경으로 돌아가신 이후 이 땅 위에 초장봉기지세(楚將蜂起之勢)로 벌어진 교파 속에 태모 고수부 곤존 하느님의 종통을 부인하면 진리의 본맥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상제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 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니라.<증산도 道典>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산사 미륵전 남쪽 보처불(補處佛)은 삼십삼천

(三十三天) 내원궁 법륜보살(內院宮 法輪菩薩)이니, 이 세상에 고씨(高氏)인 나로 왔느니라. 내가 법륜보살로 있을 때 상제님과 정(定)한 인연으로 후천 오만 년 선경 세계를 창건하기로 굳게 서약하고 세상의 운로에 맞춰 이 세상과 억조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을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하시니라.<증산도 道典> (*참고:석존은 호명(護明)보살)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오려고 모악산 산신으로 내려와 있던 중에, 상제님께서 오시기에 금산 미륵불로 인도하고 시종하다가 상제님께서 개 구(狗) 자 아홉 드는 구구지(九狗地)의 중앙인 시루산 아래 객망리 강 씨 문중에 태어나시기로 나는 9년 만에 담양 땅 고씨문(高氏門)에 태어나서 신 씨와 인연타가 상부(喪夫)를 당한 후에 수부공사(首婦公事)로 상제님과 만났을 적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주 번개를 잡아 쓰노라. 수부, 잘 만났구나. 만날 사람 만났으니 오죽이나 좋을쏘냐.'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여섯째, 태모님의 10년 천지공사인 신정공사(神政公事)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3월 5일에 태모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도장에 불러 모으시고 선언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천지가 다 알게 내치는 도수인 고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시행하겠노라. 신도행정(神道行政)에 있어 하는 수 없다."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건(乾) 구수(九數)의 증산 상제님께서는 9년 공사요, 곤(坤) 십수(十數)의 나는 10년 공사이니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한 도수가 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건존 증산 상제님과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은 억조창생의 부모로서 음양합덕이자 음양동덕이시니, 상제님께서는 건도(乾道)를 바탕으로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수부님께서는 곤도(坤道)를 바탕으로 10년 천지공사(神政公事)를 집행하시거늘 인기어인(人起於寅) 도수에 맞춰 시작하셨습니다.(1926 丙寅~1935乙亥) 이에 상생(相生)의 도로써 지난 선천 세상의 원한과 악척이 맺힌

신명을 해원(解寃)하고 만백성을 조화(調和)하여 후천 오만년 지상 선경(地上仙境)의 성스런 운로를 밝게 열어 주셨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 10년 신정공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정신을 선행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 후천 선경 세계 도래 복음의 핵심인 이 9년 천지공사의 정신에 대해 상제님이 직접 밝히신 부분이 다음 김 형렬 수석성도가 정리해 놓은 『중화경中和經』에 나옵니다. 참고로 중화경은 상제님이 선천 중생이 밝힌 학문을 통관하시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신 후천 성리학서이자 후천 개벽철학서입니다.

<중화경中和經>*天地公事之基準 (천지공사의 기준)

我於未作事之前에 多聞天下古今之理하야 去私擇善而信從之하여 以爲表準焉하였으며 多見天下古今之事하고 或善或惡而兼識之하여 以爲參考焉하였느니라.

-내가 9년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시작하기 이전, 천하 고금의 이치를 많이 듣고, 사사로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해 이를 믿고 좇아서, 천지공사의 표준으로 삼았으며, 또 천하 고금의 많은 역사를 보고, 그 가운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려내어 이를 확인하고, 천지공사에 참고하였느니라.-

동학은 상제님의 일을 부르짖으며 예비길 닦는 역할을 하는 바("최수운은 예수를 부르짖어 예언한 요한이노라.<대개벽경(大開闢經)>*") , 상제님은 당신님이 하신 일이 결국 참 동학이라 하셨는데, 동학의 최고 지도자로서 당시 손 병희가 한 일은 대인(문왕도수)이 역사의 무대에 등단할 수 있도록 상황조성을 하는 역할의 마지막 마무리로 3초 역할이라 하신 것입니다. 갑오년(1894)에 동학혁명이 1초였고, 갑진년(1904)에 갑진개혁을 한 것이 2초였으며 손 병희가 주도하여 일으키는 거족적인 1919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이 3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3초 끝에 등장하는 대인은 혼자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안(都安)의

집'으로 표현된 것처럼 3부자 3인이 천하사 대임을 맡는 일이 아주 드물다는 삼인동행칠십희三人同行七十稀처럼 모두 안安 씨이며 한 가문이 대를 이어 일을 이루는 문왕의 도수나 사마소 도수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청음 이 상호, 남주 이 성영(정립)은 후비임직공사의 실체를 간과했음은 물론이거니와 태모 고 수부님의 곤존 하느님으로서의 신성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조종골 시절에도 태모님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것은 물론 마침내 동화교 합동 교단 시절 온갖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보천교시절에는 태모 고 수부님 배척운동을 공개리에 진행했는데 차 경석 성도의 이종물 사명을 조속히 끝내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수사명의 차례가 올 줄로 굳게 믿고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결탁해 거액의 보천교 자금을 횡령하는 시대일보 사건과 일제와의 창구역할을 하는 경성 가회동 진정원과 창신동 진정원 부동산 불법 횡령사건을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보천교 혁신운동을 일으켜 진리를 전해준 자신들의 스승인 차 경석 교주를 내치는 배사율을 범한 것으로도 모자라 김 형렬 수석성도가 개창한 미륵불교에 다시 들어가 김 형렬 성도에게 미륵불교의 경전으로 쓸 것인 양하여 모든 자료를 취합해 얻고 대원사 입산 수련으로 공석중인 '미륵불교' 교주 대표 이름을 빌려 팔파 연합회를 만들어 경전편찬의 도구로만 이용한 후 끝내는 김 형렬 성도마저 배신하고 '미륵불교'를 나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배사율의 정점에는 <증산천사공사기>와 <대순전경>의 편찬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개입해 만든 '동화교' 창교가 있으며, 이 상호 형제는 뿌리부터 그릇된 동화교의 정통성을 위해 태모 고수부님 유치를 위해 안간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추수사명자로서 해도진인(海島眞人)을 자처한 이때만 해도 이 상호·이 성영(정립)의 눈에는 태모님을 단지 씨 뿌리는(교단개창사명) 낙종물 사명자로만 알고 있을 정도로 기고만장할 때였습니다. 이는 곤존 하나

님이신 태모님의 정체성을 아예 몰랐거나 알고도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정책적으로 뒤엎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이 정립은 <선정원경(고민환 1960)>, <성화진경(구릿골 김씨 후손들, 1961년) 90년 <동곡비서>로 재출간> 등 여성 하나님으로서 곤존 태모님 공사와 양위 천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위에 대한 놀랍고도 새로운 근거가 등장하자 뒤늦게 2 년간 작업해 『고부인 신정기, 1963』를 내놓았으니 곤존 태모님의 절대적 신위와 실체를 뒤늦게나마 깨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원경(고민환 1960)> 등 이들 새로운 경전에는 곤존 하느님으로서 10년 신정공사(神政公事)를 집행하신 태모 고 수부님의 신성성과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신격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모님은 정부인(정씨대모님), 김수부님, 태모 고 수부님 세분의 후비 임직에 대한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금산사 미륵불을 양쪽에서 모시고 있는 남방과 북방의 시녀불 두 분은 바로 법륜보살 자씨부인인 태모님(남방시녀불)과 요운전 묘향보살인 김수부님(북방시녀불)이라는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 절대적 신격와 호칭에 대해 『보천교 교전』의 '증산천사甑山天師'라는 표현은 차 경석 교주의 견해에 반한 청음 이 상호의 독단적인 의견이었음이 후일 밝혀지게 됩니다. 청음 이 상호는 조선 총독부에 매수되어 비밀조직으로 운영되던 민족종교 보화교(보천교) 공개 프로젝트인 '보천교 양해사건'의 실질적인 행동책으로 활동하면서 차 경석 교주로부터 단체 전권을 위임받아 일제에게 단체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청음이 1922년 2월 소위 보천교 종지宗旨를 차 교주 대신 발표할 적에 증산 상제님의 절대 신격을 드러내는 가장 중대한 호칭을 "우리 천사天師께서 대순大巡의 성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사..." 라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일개 도가 문파의 스승을 의미하는 '천사' 또는 비범한 '성인' 정도로 간단히 매도해 버리고 맙니다. 그 뒤 일제에 의한 보천교 강제해체 이후 이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호칭이 해방이후 『보천교 교전』에 그대로 옮겨져 기록된 것입니다.

차 경석 보화교(보천교) 교주는 이미 청음이 보천교 종지宗旨를 발표하기 바로 전 해인 1921년 함양 황석산 고천제告天祭를 지낼 때에 제단 위에 <구천하감지위>, <옥황상제하감지위>, <삼태칠성하감지위>라 3 신위패神位牌를 모시어 증산 상제님이 옥황상제님이심을 공표한 바 있고 무라야마지준(村山智順)과의 대담(『보천교 교전』)에서도 증산 상제님이 옥황상제이심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청음은 상제님의 절대 신권을 선화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성격 모호한 '천사天師'란 칭호로 초지일관해 당시 600만 신도대중을 기만했습니다.

남주 이 성영(정립) 또한 이러한 형의 생각을 물려받아 '우주宇宙의 유일唯一 주재자主宰者 신神은 없다. 지방신들 만 있고 신계가 미 통일되어있다'고 선언宣言하여(『증산교사』 1977년) 상제님 신위神位를 절대 조화옹 미륵존불이신 옥황상제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오두미도>를 창시한 장 천사張天師 장 도릉(張道陵, 34-156년)처럼 도가의 스승 격인 천사天師로 일관되게 비하해 호칭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고 민환高旻煥 성도의 『선정원경仙政圓經 1960년』으로 크게 충격을 받아 태모 고 수부님의 신권을 비로소 재인식하게 되고 61년 태운장 김 형렬 성도의 자제 김 찬문과 김 자현 성도의 자제 김 태진의 수기 <성화진경(61년=『동곡비서』로 재출간 90년)>이 출간되자 다시 한번 상제님의 절대 신격을 깨우치면서 1963년 <고부인신정기>를 서둘러 발표하고 선화仙化 2년 전인 1966년 소책자 <증산교甑山敎 요령要領>에서 "천사天師께서는 곧 통천상제統天上帝시니라"고 애둘러 한 마디 남겼을 뿐입니다.

수운 최 제우가 대구 감영에서 처형당하고 8년 후 신미년(1871)에 한반도에 강림하실 것이라 예고한 미륵존불이시자 천주 하나님이시며 지존의 10 무극 옥황상제님이신 증산 상제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어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환궁하신 지 어언 10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2014 갑오 기준) 증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의 춥고 어두운 구름에 가려진 105년이 지나면서 계사(2013), 갑오(2014), 을미(2015)의 사오미 개명장 시간대를 맞이해 건존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의 10년 천지공사(神政公事)의 전체 퍼즐이 바야흐로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는 상제님 말씀대로 증산 상제님께서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집행하신 운암강수 만경래 도안(都安) 추수 세 살림 말복 도수의 실체와 태모 고 수부님이 집행하신 10년 신정공사(神政公事)의 마지막 말복도수 결론인 흑운명월(黑雲明月) 도수에 의해 태모님이 묻으신 오성산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 삼변 교운과 세 살림 추수 도운 통일 윷판 도수, 도안(都安) 세 살림 무기 오십토 공사의 모든 실체가 본 통합경전 출간을 즈음하여 온 세상에 활짝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상제님 진리는 모두 5막 9장으로 구성되어 후천 조화선경(龍華仙境)을 여는 진리입니다.(다섯 사람. 5장+1장+3장=9장 무이구곡) 상제님께서는 내 일은 낙종물 사명으로 씨 뿌리고 이종물 사명으로 모내기를 하여 마지막 숙구지 문왕 도수의 세 살림 추수 사명으로 세 단계를 거쳐 변하면서 후천을 연다 해서 내 일은 세 번 변해서 이루어지는 삼변성도(三變成道)니라 하셨습니다.

문 공신 성도도 “우리 일은 삼대(三代)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증산 상제님 대도 진리는 상제님께서 기유년(1909) 6월 24일 어천하신 이후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이 친히 씨뿌리는 낙종물 사명으로 신해년(1911년) 정읍 대흥리에

서 선도교(일명 太乙敎) 교단 개창을 하게 되어 비로소 1막 1장이 열립니다.

차 경석 성도는 태모 고 수부님의 낙종물 사명 살림에 합류했다가 모내기 사명인 이종물 사명으로 독립하여 일제하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 후원교단이던 600만 보천교(普天敎)를 이끌다 마침내 1936년 일제의 민족종교 탄압정책(보천교 신법)에 의해 강제 해체되면서 이종물 사명도 1막 1장 단막극으로 내려지고 맙니다. 태모 고 수부님의 낙종물 사명은 세 살림 3막 5장으로 꾸려져 있어 1막 1장만 대흥리에서 이종 동생인 차 경석과 동거살림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종골 살림 1막 1장과 <①왕심리 교단(1929~1931)-②왕심리&동화교 합동교단(1931~1933)-③오성산 교단(1933~1935)> 1막 3장 세 살림으로 따로 꾸려 총 3막(幕) 5장(場)으로 종장(終場)을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살림인 조종골 살림을 제외하면 대국적으로 세 번 째 살림 속에는 조종골 도장 시절 강 사성·강 응칠 성도의 방해공작과 강 응칠의 조종골 도장 명의도용과 불법매각으로 벌어진 '도집재판 사건'으로 태모 고 수부님이 조종골을 떠나(조종골 살림의 사실상의 청산) 순흥(順興) 안(安)씨 집성촌인 정읍군 입암면 왕심리(旺尋里)에 차리신 왕심리(旺尋里) 살림과 곤궁한 경제난을 잠시 피하기 위해 성포 고 민환 성도의 주청을 받아들여 옮기신 김제 용화동 동화교 통합교단 살림 및 옥구 오성산 교단 살림이 포함됩니다.

안 운산 성도사는 1945. 8.15 해방과 더불어 보천교 2변 증산교(甑山敎)로 기두하니(청음, 남주와 손잡고 '증산교 대법사(大法社)'로 됨), 이는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추수사명으로 문왕 사명자의 초복살림 발아가 됩니다. 초복살림은 1954년 문왕의 유리감옥 유폐도수인 '20년 말점도(말도) 도수의 귀양기간'을 거쳐 1974년 재기두 해 중복살림을 시작, 다시 10년의 과도기를 거쳐 1984년 도안(都安) 세 살림 도수의 중복살림을 본격적으로 열게 됩니다.

周文王

미륵불 구세주이시자 천주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은 선천 예수 석가 공자를 내보내신 절대자 하느님이십니다. 중동의 척박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야생벌꿀)을 먹으며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임박했다고 외치며 예수의 등장을 예고한 사람은 바로 에세네파의 세례 요한입니다. 구한말 수운재 최 제우 대신사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후 8년 뒤에 한반도에서 유불선 3교를 통합하는 후천 5만년 무극대도를 직접 내놓으시는 천주 한울님 증산 상제님께서 직접 한반도에 강림하심을 온 누리에 선포합니다.

<대개벽경(大開闢經) 편역자 서문>*예수의 요한과 같이 하느님 한반도 강림을 예고한 동학의 수운 최 제우 대신사는 "전 40년은 내려니와 후 40년은 뉘런가" 또한 "천하의 무극대도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용담유사)" "아사후(我死後) 8년 후 천사생(天師生)"<수운문집>고 하여 자신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후 1871년에 천주 하느님께서 한반도에 강세하실 것을 예고했다.(수운도 40세를 살았고 증산 상제님도 40(39)세를 사셨으며 수운이 참형당한 1864년 이후 8년 만인 신미(1871)년에 강림하셨음)

<대개벽경(大開闢經)>*말씀하시되, "수운가사는 스스로 깨달음을 노래한 책이오,

나를 노래한 책이니라.” 말씀하시되, “최 수운은 예수를 부르짖어 예언한 요한이노라.”
－曰 水雲歌詞 自歌之篇 我歌之篇 曰 崔水雲 耶蘇之於要漢也－

또한 최 제우 대신사는 선천종교마다 서로 달리 불러온 절대자 칭호가 다름 아닌 한 분임을 밝힙니다. 서교 개신교의 백보좌 하나님, 서교 가톨릭의 천주님, 한민족의 전통적인 하느님 또는 한울님, 불교의 미륵부처님, 도가의 응원뇌성보화천존이나 옥황상제님이 동일한 절대자 조화옹 한분이라는 것이며 그 분이 구한말 1871년 한반도에 강림하리라는 선포가 바로 그가 1860년 천상문답사건으로 절대자 하느님을 친견하고 자신이 죽은 뒤(1864) 8년 뒤 절대자 한반도 강림을 선포한 동학(東學)입니다.

동학은 모든 인류가 후천개벽을 맞이해 백의민족의 후손으로 성육신(成肉身)하신 천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시천주(侍天主)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며 그러한 천주한울님이 직접 선포하신 후천 5만년 무극대도를 통해 지상선경의 신선시대 곧 용화선경, 염부단금의 불국토 황금 세계가 건설된다는 복음입니다. 굳이 후천 조화 선경세계를 용화세계라 하는 것은 증산 상제님이 바로 미륵존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느님만 믿었어라(용담유사:교훈가)
*호천금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보냐(안심가)
*하느님이 내몸내서 아국운수 보존하네(안심가)
*그말저말 다던지고 하느님을 공경하면 아동방 삼년괴질 죽을염려 있을소냐(권학가)
*“어화 세상 사람들아 무극지운(無極之運)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보냐. 무극대도(無極大道)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용담가>
*“유(儒)도 불(佛)도 누(累) 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교훈가>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용담가>

천주 하느님이시자 미륵존불이신 증산 상제님은 소도 보본 제천의식으로 삼신 상제님을 신앙한 신교(神敎)신앙의 한민족 정서에 따라 여러 절대자 칭호 중에 한민족 전래의 옥황상제지위(玉皇上帝之位)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후천 5만 년 개벽철 열매 진리인 증산 상제님의 '무극대도'는 후천 개벽 시절 국내 49일, 세계 3년 괴질이 돌 때 죽어가는 사람을 의통(醫統) 인패(印牌)로 살려 같이 살자는 열매기 진리요, 남 살린 뒤에 후천 조화(龍華)선경에서 환골탈태해 장수장명(長壽長命)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해원상생보은(解寃相生報恩)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추리면 남 죽을 때 같이 살고 남 살 때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후천 5만년 우주 가을철 시대의 지상 조화 선경에서 장수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는 진리입니다.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어느날 도인(道人)들에게 가라사대 후천(後天)의 인간(人間) 수한(壽限)은 상수(上壽)가 일천이백세(一千二百歲)요 중수(中壽)는 구백세(九百歲)며 하수(下壽)는 칠백세(七百歲)를 살 것이요 그리고 성(姓)은 삼십육성(三十六姓)만 둘 것이니라 하시더라.

<증산도 道典>* "후천선경에는 수(壽)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하시고" 그 때에는 장수 시대가 열려 백 리 안에 할아버지가 셋이면 손자는 하나인 세상이 되느니라."하시니라.

侍

聖.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 사후 가부장적 전통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12 사도의 주요 정적이자 바울의 주요정적으로 자리매김한 성녀(聖女) 마리아 막달레나는 로마총독의 탄압이 무서워 십자가 처형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은 비겁한 12 사도 대신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 처형장에 나타나 현장 증인이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에서 깨어난 부활의 증인이 되어 12 사도에게 전합

니다.

사실상 기독교 교단의 실제 개창자 사명을 수행한 막달라 마리아가 성배를 들고 프랑스로 가서 막달라 마리아(생뜨 마리 마들렌)가 낳은 아이 사라(Sarah)의 후손들이 프랑스의 초기왕조 메로빙거 왕조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프랑스 왕가의 불변의 전설입니다. 예수와 막달레나를 부모로 둔 프랑스 국조 사라(Sarah)는 우리 민족으로 치면 단군성조의 위격(位格)이므로 막달레나-마들렌은 단군성조의 어머니인 웅씨(熊:곰토템족) 왕녀에 해당됩니다.

파리 중심부 마들렌 거리의 막달라 마리아-생뜨 마리 마들렌 신전 사원 (Église de St. Mary Magdalene) &바실리카 내부.

그런데 모국어 프랑스어의 자부심과 함께 민족 자존심하면 세계 1위도 아쉬워하는 프랑스의 입장에서 성스러워야 할 국조의 모친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에 의해 A.D. 591년 회개한 창녀로 온 누리에 공포되었으니 그 이후 1500여 년 동안 프랑스인의 높은 콧대와 민족 자존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구겨지고 상처받았을지 가히 불문가지입니다.

나폴레옹 실각 후 루이 18세는 1842년 프랑스 초기 메로빙가 왕조 국조(國祖)인 사라(Sarah)의 모친 성聖 마리아 막달레나(생뜨Sainte 마리Mary 마들렌Madeleine)를 기리는 가장 크고 화려한 마들렌(Madeleine) 에글리즈(Église:신전, 성당, 교회)를 파리의 중심부 꽁꼬드(Concord) 광장 뒤 마들렌 거리에 축성토록

명해 봉헌했으며 지금은 부근의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오페라 공연을 하는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로 한 역할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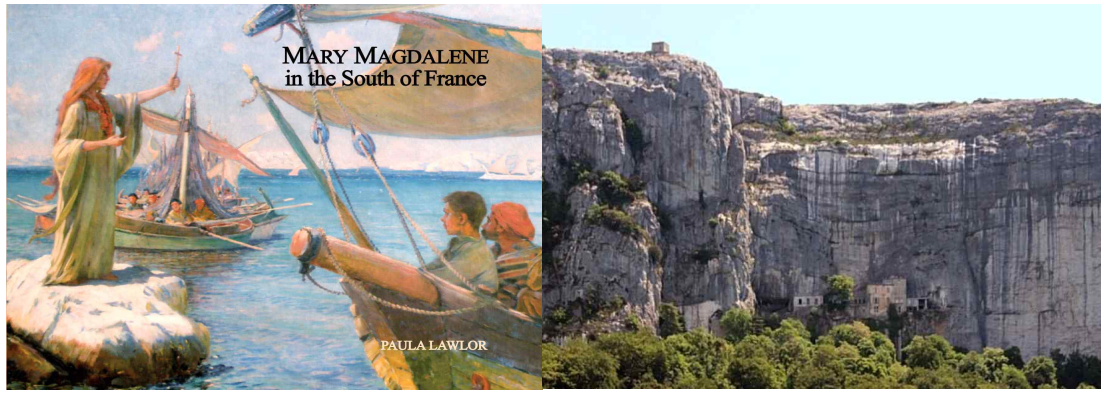
이곳 마들렌 사원은 프랑스 혁명(1789) 당시 시민혁명군에 의해 처형된(1793년 1. 21) 루이 16세의 유해가 이곳 마들렌 신전에 잠시 매장되었다가 루이 16세 동생 루이 18세에 의해 1815년 1월 18일에 발굴되어 1월 21일 프랑스의 역대 국왕과 왕비들이 잠든 생 드니 대성당으로 아내와 함께 이장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예수처형 후 삭제된 막달라 마리아의 자취는 남불(프로방스) 해변 소도시 까마흐그의 '생뜨 마리 드 라 메흐(Sainte Mary de La Mer)' - '聖. 마들렌 바다', 만년 은거 수도지 봄므산 석벽산 수도원, 남불 생 막시맹 라 생뜨 봄므 샤뻴르 바실리끄 수도원, 부르고뉴 <베즐레 생뜨 마리 마들렌(Sainte-Marie-Madeleine de Vézelay> 신전 등에 남아있습니다. 수도 빠리에는 생. 라자르(나사로) 역驛도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베즐레 마들렌 신전 사원 마들렌(막달레나) 지하무덤 전경. 만년 은거지 봄므(Baume)산 석벽 수도원 유골이 '생 막시맹 라 생뜨 봄므 샤뻴르 바실리끄 마들렌 신전'으로 옮겨지고 유골 중 일부가 771년 사라센을 피해 이곳 '베즐레 마들렌 신전'으로 옮겨왔는데 1058년 스테파누스 9세 교황이 베즐레 안치 유골을 진품으로 선언.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남성 12사도의 교권세력을 피해 유대 땅을

탈출해 프랑스의 제 2의 도시 마르세이유 항구 왼편의 <생뜨 마리 드 라 메흐(Sainte. Mary de la Mer: 聖. 막달라 마리아 海)>라는 소도시에 처음 상륙한 '성녀 막달라 마리아(Maria Magdalena)'는 남불 프로방스 전역에서 선교에 전념하다 만년에 은거지 봄므(Baume)산 석벽 수도원에 묻혀 있다가 일부 유골은 생 막시맹 바실리끄 신전 석관에 안치되고 일부는 부르고뉴 베즐레 마들렌(막달레나) 신전 사원 지하영묘에 안치된 것으로 전합니다.



'생뜨 마리 드 라 메흐(Sainte Mary de La Mer)' -'聖. 마들렌 바다'- 市를 그린 그림. 마들렌(막달레나)이 말년에 은거수행 기도한 유명한 프로방스 마들렌 관광 유적지, '그로뜨 생뜨 마리 마들렌(Grotte Sainte Marie Madeleine)-라 생뜨 봄므(la Sainte Beaume)' 山 동굴.

마리아 막달레나는 로마제국의 탄압은 물론 남성 교부세력의 핍박을 피해 동생인 마르타, 나사로와 함께 마르세이유 해변가의 소도시 <생뜨 마리 드 라 메흐(Sainte. Mary de la Mer) 항에 상륙했으며 마치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마의 태자, 덕주 공주가 금강산, 월악산(충북 제천) 속에 숨어 평생 수행으로 일관한 것처럼 인근 프로방스 지방의 생뜨 봄므 산 동굴에서 30년간 참회의 고행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경순왕의 큰 딸 덕주 공주는 13m의 거암에 마애미륵불(보물 406호)을 조성하고 신라의 재건을 염원하며 일생을 마친 뒤부터 본래의 월형산 이름이 월악산이라 바뀌어 불리고 월악사의 절 이름도 덕주사로 개명하여 마의태자와 덕주 공주 오누이가 조성한 월악산 마애 미륵불은

월악산의 유명 관광코스입니다.

마르세이유를 비롯 프로방스(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 부근, 론강 및 쁘띠 론강 일대, 까르까손느, 렌느 르 샤또, 론강 아를르, 엑상 프로방스 인근 생 막시맹 봄므 인근) 전역에서는 매년 2월 2일에 막달라 마리아를 기리는 의식이 축제처럼 대대적으로 행해집니다. 봄므산 석벽산 은거지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일부 유해는 생 막시맹 라 생뜨 봄므 샤뻴르 바실리끄에 안치되고 또 다른 일부 유해는 서기 860년에 비엔 백작 제라르 드 루시용이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 지방 베즐레 마을로 옮겨져 <베즐레 생뜨 마리 마들렌(Sainte-Marie-Madeleine de Vézelay>--약칭 <라 마들렌> 이라는 성당을 건축합니다.

프랑스 종교성지 브르고뉴 지방의 베즐레 마리 마들렌 사원. 제 2차, 3차 십자군 연합군 출정식이 열린 곳.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마들렌의 유해는 사라센이 프랑스의 중앙을 쇄도해 와서 신전(성당)을 황폐화시켰을 때 프로방스의 생(聖). 막시맹(Saint-Maximin) 꼬뮨(카운티, 동리 등 행정구역)에 있는 막시맹 샤뻴르 성당으로 옮겨져 설화석고(백대리석) 석관 안에 안치했다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묘는 폐허가 된 지하 속에 묻혀 안식을 취했는데, 그 시절에 그것은 대 수도원 중에서 마들렌 석관의 위엄있는 성聖 유

물로써 명망을 돋보이는 역할을 해냈다 합니다.

생막시맹 市 라 생뜨 봄므 바실리카 성당과 지하에 안치된 마들렌 석관묘 장면. 마들렌 해골도 모셔짐
Basilique-sainte-marie-madeleine-de-saint-maximin-la-sainte-beaume-basilica

지금도 성聖 유물인 마들렌(막달라 마리아)의 두개골과 석관이 프로방스의 소도시 생 막시맹(Saint-Maximin)의 막시맹 샤뻴르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성 루이 9세의 외투도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1279년 12월 9일에 프로방스의 백작 샤를 2세 당주(르네 당주의 선조)가 생 막시맹(Saint-Maximin) 성당의 지하묘실에 매장되어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르타, 나사로 가족 일행이 마르세이유 좌측 옆 '쁘띠 론(Petit-Rhone)' 강 입구인 지금의 까마흐그(Camargue)에 있는 해변 소도시 '생뜨 마리 드 라 메흐(Sainte Mary de La Mer)'에 상륙했다는 내용이 프로방스 모든 전승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들렌(막달레나)은 나중에 마리아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던 '라 생뜨 봄므(La Sainte Beaume) 산 동굴에서 은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생뜨 마리 드 라 메흐(Sainte Mary de La Mer)'가 있는 까마흐그(Camargue) 市는 론강의 아비뇽과 '마지막 수업'의 작가 알퐁소 도데(Alphonse Daudet,

1840~1897)의 '아를르의 여인'의 중심무대 아를르(Arles) 시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마들렌이 도착한 해변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 아를르시는 이시스(Isis) 여신 숭배의 중심지로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교가 처음 1세기 내에 프로방스 지방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생 막시맹 샤뻴르 바실리카 성당 내부. 마들렌 해골이 정중앙에 모셔짐. 프랑스 국조 사라는 얼굴이 검은 것으로 알려져 모친인 막달레나상의 얼굴도 다소 검은 것으로 표현됨.

브랑제흐 소니에르(Berenger Sauniere) 신부가 증언하는 렌느 르 샤또(Rennes-le-Château) 수도원의 막달레나 전설과 함께 막달레나가 프랑스에 온 이 같은 자취는 프로방스 전역에 확연히 드리워져 있으며 생뜨 마들렌에 대한 바티칸의 1500년간의 박해는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혈통마저 불분명한 터키-독일계 아슈케나지 유대인(Ashkenazi Jews)이 대부분(80%)이라는 점에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직계 혈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밝혀진 모든 프랑스인의 가슴속에 주홍글씨로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90년 7월 영국왕 리차드와 프랑스왕 필립이 제3차 십자군 전쟁 출정식을 한 곳이 바로 이곳 브르고뉴 지방의 <베즐레 라 마들렌> 신전인데 그 전인 프랑스 왕 루이 7세가 제2차 십자군 전쟁 출정식

을 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는 마치 유방이 출정식을 할 때 동이족의 무신(武神)인 붉은악마 치우천황에게 승리를 기원하고 떠난 것과 같이 십자군 연합군의 공통 신앙인 기독교인으로서 프랑스 국조 모친이자 성녀인 "막달라 마리아" 에게 승리를 축원하고 출정한 것입니다.

봄므는 앞의 사진에서 보듯이 막달레나가 수행한 '동굴'이라는 뜻이고 이 도시에 있는 로마시대 바실리카(basilica) 형식의 막시맹 샤뻴르 성당은 프랑스 역대 왕들에 의해 막달라 마리아에게 헌정된 것으로 유명하며 예수가 썼던 가시면류관을 보관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엘 와야 종교적 박해를 피해 프랑스에 망명 온 막달라 마리아의 자취와 무덤과 석관에 얽힌 비밀을 비로소 풀 수 있습니다.

예수혈통의 추정 가설은 역사적 예수가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하여 아이의 아버지가 된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가설은 20세기에 와서 1973년 도노반 조이스(Donovan Joyce)의 저서 『예수 두루마리 Jesus Scroll』 로 다시 한 번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1977년 저서에서 예수는 케쉬미르(Kashmir)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안드레아 훼이버-카이저(Andreas Faber-Kaiser)가 예수, 모세, 이스라엘의 행방불명된 10부족을 추적탐사하고 예수가 캐쉬미르 현지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몇 명의 아이를 낳은 전설을 탐사했음을 밝히게 됩니다.

작가는 또한 예수의 캐쉬미르 자손이라 주장하는 고인이 된 바샤라트 살림(Basharat Saleem)도 또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베이전트(Michael Baigent), 리챠드 레이(Richard Leigh), 그리고 헨리 링컨(Henry Lincoln)은 1982년 『성혈(聖血)과 성배(聖杯)(The Holy Blood and the Holy Grail)』 에서 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로부터 시작하는 혈통이 궁극적으로 메로빙가 왕조(Merovingian dynasty)가 되었다는 가설을 발전시켜 대중화했습니다.

侍

<주낙현 요셉 신부>* "2012년 9월 18일, 로마에서 열린 국제 콥틱학회에는 300여 명의 학자와 기자들이 마음을 졸이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요, 초대교회 연구의 권위자인 카렌 킹이었습니다. 그는 유리판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보존한 고대 기록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종이가 나오기 전에 옛사람들은 갈댓잎을 펴 붙여서 그 위에 글을 쓰곤 했습니다. 이를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카렌 교수가 보여준 파피루스에는 놀라운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내... 그녀는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겨우 여덟 단락에 불과한 짧은 쪽지 조각에 사람들은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내"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카렌 킹 교수는 이 파피루스가 어떤 복음서의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기억하기 쉽도록 "예수의 아내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렌 교수는 이 파피루스가 진짜이며, 예수님과 그 주변의 여인들을 이해하는 데 큰 단서가 된다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 주낙현 요셉 신부

여러 성배 연구자들은 요한복음의 실제 저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일종의 여성 영웅으로 보며 가톨릭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의 여성성이 가지는 힘을 두려워해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이유는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아이의 어머니, 즉 예수의 왕실 가문과 고귀한 혈통을 상속받는 아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가톨릭은 여성을 이교(異教)의 상징으로 몰아버리고 교회의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기 위해 예수를 극도로 신격화시키고 모든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대표하는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랑은 역사에서 지워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마리아에 관련된 것은 영지주의 이단으로 분류되고, 이단으로 분류된 한 복음서에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와 경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의 대결은 <도마복음>과 <이집트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서 막달레나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예수에게 받은 특별한 계시를 밝힙니다. 심지어 <빌립 복음>은 예수가 여러 제자들 중에서 그녀를 가장 사랑했으며, 그녀에게 자주 입맞춤을 했다고 적고 있으며, 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를 연인관계로 기정사실화하여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남성들이 중심인 교회에서 질투의 대상이었으며 남성으로 이루어진 성직자들이 여성인 그녀를 창녀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성 성직자들을 선호한 교부들에 의해 감춰졌습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핵심에 남녀 성 대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에서 교황과 사제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으로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

라."(마8:14,15)(눅 4:38,39)

기독교 구약의 주신과 신약에서 예수가 외친 신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신은 유대족 만의 지방신 야훼신입니다. 모세 때 신참신인 야훼신보다 강력하고 센 신은 슈메르 신으로 바빌론 지역과 애굽 지역의 농경신이자 평화의 신 바알신 및 태양신 이쉬타르 이시스 신 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들 슈메르신은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제국을 비롯 애굽 왕조를 포함해 중동의 가장 번영한 문화왕국을 제공했고 이들 고참신에 비해 당시로서는 떠돌이 짚시족에 불과해 타민족에 더부살이하며 살아야 했던 유대족의 신참신 야훼는 모세때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중동에 고등문명을 선사한 이들 다양한 고등 슈메르신과 유대인의 군신이자 짚시신, 복수의 신인 야훼신이 끝없는 반목과 투쟁의 역사를 만드는 와중에 신약에서 예수가 외친 신은 이 모두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빠 하나님(아람어나 인도어 한국어 동일-Abba)' 입니다. 이 아바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백보좌 하나님입니다. 불교에서 석가 부처님이 3천년 뒤에 강림한다는 미륵존불 또는 법신불과 같은 개념입니다. 바울은 국내파 베드로에게 천대받아 고향 유대사회에 접근도 못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기독교가 베드로 서신위주가 아니라 바울서신 위주의 바울교로 된 교권상의 대 반전!

외형상 남성 교권론자인 초대 교황 베드로와 이민족의 틈바구니 속으로 내쫓긴 로마제국에서 교권투쟁의 판세를 뒤집어 버린 바울. 이 둘은 예수의 수석 제자 막달레나를 축출하여 각기 히브리파, 헬라파의 맹주가 되어 종권투쟁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결승전 과정을 거칩니다. 아볼로(아폴로)까지 하면 외형상 3파전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사회는 로마제국의 힘없는 식민지. 따라

서 기독교 신약성서는 유대족 국내파인 초대 교황 베드로 히브리파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교도 국가 로마제국에서 바울이 씨 뿌린 인맥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교부신학의 아버지 유세비우스가 로마제국의 황권 확립과 제국통치의 필요에서 정치교의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치 교의서이지만 글자 한 자 한자 생명의 말씀-감로수로 알고 믿으라는게 영지주의에 반하는 소위 문자주의입니다. 막달레나는 이미 제거되어서 막달레나에게 전해진 에세네파의 메시지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사탄의 모자를 씌워 모두 유황불로 화형시켜 제거 말살됩니다.

그 결과 막달레나에게 전한 본래의 예수 복음은 쿰란 사해문서와 나그함마디 문서로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00여년 만에 햇빛을 본 바 있습니다. 당연히 막달레나가 교권 싸움에서 이겼다면 영지주의 문서는 정경으로 채택되어 바울서신은 삭제되었을 터이며 그레고리 5세에 의해 6세기 교황 칙령으로 창녀로 선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히브리파에서 신약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바울 교가 아니라 베드로 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맥에서 피어난 로마제국하의 유세비우스는 사도신경에 베드로 서신이 아닌 바울서신 위주로 편찬해 기독교를 바울 교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만일 막달레나 가족이 철벽같은 가부장적 사회인 유대족 사회에서 살아남았다면, 다시 말해 바울 베드로 등 남성 교권주의자들과의 종통경쟁에서 살아남았다면 굳이 프랑스 남불 론강 까마흐그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 요한복음도 당당히 막달레나가 저자라고 밝힐 수 있었을 것이며 사해 쿰란문서와 나그함마디 문서도 대부분 정경으로 채택되어 신약성서의 일부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마리아와 베드로 중심의 남성 사제 사이의 종권 경쟁처럼 한민족 <창세가>와 <미륵존경>에는 모란꽃 피우기를 둘러싸고 미륵존불과

석가불과의 당래하생(미래세 지구염부제 탄강)에 대한 종통왜곡 과정의 전말이 담겨있습니다.(후술) 우여곡절을 거쳐 석가세존이 먼저 지구 염부제에 하강한 뒤 초기 원시 불교시대에도 석가부처님과 또다시 종통경쟁을 시도한 간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닌 아난존자의 형님인 데바닷다였습니다. 데바닷다는 태모 고 수부님을 핍박하고 해도진인이 되고자 욕속부달 한 이 상호·이 정립 형제에 못지않게 동생 아난존자가 모시고 있는 석가세존을 죽이고 그 자리를 탈취하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미륵수기품 제일)1. 이때 미륵존불이 석가모니불과 더불어 삼세 이래로 친형제를 맺어왔으며 함께 대도를 닦았고 함께 지혜를 증득하여서 위없는 깨달음과 십호를 구족하였다. 천만억 주변신을 삼세 이래로 큰 공을 성취하였다. 미륵부처님은 덕혜가 원만하시와 이에 스스로 상의하여 말씀하시되, 누가 먼저 오는 세상을 맞아 중생을 제도할고 하시고이에 석가모니불과 같이 맹세하시고 크게 정하시어, 석장을 앞에 두고 만약 석장 위에 먼저 꽃이 피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뒤에 피는 자는 뒤에 세상을 다스리기를 말씀하시고 각각 자리를 정하고서 선정에 들었는데, 저 때에 석가모니가 입정한 후 하루는 눈을 떠서 석장을 쳐다보니 자신의 지팡이 위에는 단지 오색영롱한 서기만 비출 뿐이요 꽃은 피지 않았는데, 미륵불의 지팡이 위에는 이미 꽃이 피어 붉게 빛나고 있는지라, 그 석장의 머리 부분에서는 마치 해가 처음 뜰 때에 그 빛이 온 천하를 다 비추듯이, 삼계가 다 비쳐지는 것이었다.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2. 이때 석가모니불께서 미륵존불을 쳐다보니 정히 큰 선정 속에 들어있는지라, 이때 조심조심히 그 상서러운 꽃을 옮겨서 자신의 지팡이 위에 얹어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선정에 드시었다. 삼일이 지난 후 두 분이 동시에 선정에서 나오시어 석장을 바라보니, 그 상서러운 꽃의 색깔이 소멸되고 붉은 빛이 희게 변하여 있었다. 그때 미륵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되, 내가 비록 선정에는 들었지만 천안(天眼)으로는 능히 보고 있었노라. 나의 아우가 꽃을 옮겨 자기석장 위에 얹어 놓으니, 꽃의 색깔이 흡족치 못하고 광명 또한 감소되어 있었노라. 이 세계를 먼저 자네에게 부여하여 다스리게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온전하게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삼천년(三千年) 동안 사람들의 부귀함과 행복함이 고르지는 못 하겠구나. 골짜기는 깊고 언덕은 적을 것이요, 국토에서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으며, 사방이 편안치 못하고 도적이 뒤 끓고, 삿된 잡신들이 번성할 것이며 백 가지 괴이함이 사람들을 더욱 수고로이 할 것이리라.

이는 마치 보천교 일개 신도였던 조 철제가 “예로부터 계룡산鷄龍山의 정씨

왕국鄭氏王國과 가야산伽倻山의 조씨왕국趙氏王國과 칠산七山의 범씨왕국范氏王國을 일러오나 이 뒤로는 모든 말이 영자影子(그림자)를 나타내지 못하리라 그럼으로 정씨鄭氏를 찾어 운수運數를 구求하려 하지 말지어다<보천교 교전>” 하시어 가야산(伽倻山) 조씨(趙氏) 등극(登極)을 허사로 돌린다고 명명백백히 천지공사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보천교 교전>,<용화전경>,<이중성 대개벽경>,<정영규 천지개벽경>) 자신도 천지공사를 본다 하여 증산 상제님을 붙박이 하늘상제 천존(天尊)으로 만들어놓고 스스로 땅 상제 지존(地尊)에 오른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 바울 등 남성 사제 권력에 의해 막달레나가 삭제처리 되었듯이 상제님 도권 천하에서도 동일하게 태모 고 수부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종통의 낙종물 교단개창 사명 역시 정산 조 철제, 우당 박 한경에 의해 원천적으로 삭제처리하고 그 여백을 메꾼 것입니다.

남존여비로 찌든 조선말 유교사회에 있어 증산 상제님께서 여성이신 태모 고 수부님에게 종통을 전하신 것은 신분타파로 인한 평등사회 건설과 더불어 가히 전 세계에 대한 파천황적인 여성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첫째,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양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의거해 실제로도 여성에게 종통을 전하였으며, 둘째,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양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리라. 장차 남녀 동권시대가 되리라.” 하시어 남녀동권 시대를 천지공사로 처결해 실행하신 것입니다.

<대개벽경(大開闢經)>*기유년(1909) 여름에 구릿골에서 성도-물어 여쭈기를, “금번 공사가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하시니 후천 선경세계의 도이나이까.” 말씀하시되, “내 세상의 운이 상생이 되고, 내 세상의 도가 상생이 되노라. 그러므로 해원의 세상이노라.” 하루는 성도-상제님을 곁에서 모시더니 말씀하시되, “한 부인이 여자세상 만들기를 원하여 염주를 딱딱거리며 발원하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쳤노라.

이종물 사명 6백만 보천교 차경석 교주와 청음 이상호 그리고 곁가지 조철제

청음(靑陰)이 조선총독부 경무청 경시(警視) 조선인 정탐(偵探) 동광회 두령 김 태식(金泰湜:김태석으로 밝혀짐)과 경기도 경찰부 후지모토(藤本) 고등과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보천교 혁신운동을 일으키자 차 경석 교주는 1924년 7월 이 상호를 60 방주(方主)직책에서 해임시키는 초강수로 맞대응 합니다. 보천교로부터 교직敎職을 파면 당하자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어진 청음 이 상호는 보천교를 탈퇴한 뒤, 김 형렬(金亨烈) 수석성도가 개창한 <미륵불교> 신도로 들어간 다음, 다시 김 형렬 성도를 설득해 미륵불교의 교경을 편찬하겠다고 설득해 공사내용을 채록합니다.(1925년 9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태운장 김 형렬 성도 역시 보천교에서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나온 청음에 대해 반신반의하여 모든 것을 전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음은 당연히 태운장 김 형렬 수석성도 마저 다시 배신하고 나갔지만 뒤에 <대순전경> 초판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대거 실린 <동곡비서> 및 <중화경>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분량이 상당히 빈약한 <대순전경> 초판 내용을 감안하면 김 형렬 수석성도 역시 청음에게 전해준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립은 <증산교사>에서 김 형렬이 늙어서 옛일을 잊어버렸고 제대로 조리 있게 강화(講話)하지 못해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 뒤에

<동곡비서>와 <중화경>이 나온 것을 참고하면 이는 애초에 이 상호를 불신한 김 형렬 교주가 적당히 핑계를 대고 핵심을 다 전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의 검열 때문에 많은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서문에 밝혔지만 해방이후 3판도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상호에 대한 불신은 차경석 성도와 마찬가지로 김 형렬 성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산교사(甑山敎史)>*이상호가 노 좌대(盧左大)와 더불어 경석에게 교경을 편찬하자고 권고하니 경석이 이에 이 성영(李成英), 이 영호(李英浩) 두 사람을 교경편찬위원으로 임명하여 매일 오후에 경석의 담화를 필기하게 하여 십여 차례에 걸쳐서 천사의 행적을 강설한 뒤에 필기한 것만 재료로 하여 교경을 편찬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10 여건에 불과한 기록만으로는 너무 빈약하므로 교경편찬 문제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천교 교전>을 보면 '10여건 주장'은 감정적 허위증언)

<증산교사(甑山敎史)>*을축년(道紀 55, 1925) 구월에 상호는 경성에서 김 형렬(金亨烈)을 만나 그 뜻을 고하여 찬동을 얻고...날마다 형렬을 방문하여...직접 들은 대로 또는 직접 본대로 자세히 강화하여 주기를 청하여 낱낱이 필기하였다. 그러나 ...형렬이 이미 늙었고 또 수십 년을 지내버린 옛일이므로 잊어버린 일이 많아서 대번에 조리 있게 강화할 수가 없었다.

<증산교사(甑山敎史)>*그러므로 형렬의 기억이 회복되는대로 하루에 한두 절씩 혹은 며칠 만에 한두 절씩 필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병인년(道紀 56, 1926) 7월에 형렬에게서 필기한 것을 수집하고 전자(前者)에 차 경석에게 들은 바를 보태어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라는 제호(題號)로 간행(刊行)하였다.

<甑山道 道典 들어가는 말>*김자현 성도의 손자 김택식에 의하면 "조부님은 이상호에게 증언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김자현 성도는 김형렬 성도, 김갑칠 성도에게도 당시 보천교에서 출교된 뒤 태운장의 미륵불교 신도로 들어온 이상호에 대해 "한 판 차려 보려는 다른 뜻을 품고 있으니 전해 주지 마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다. 이상호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의식은 당시 주요 성도들에게 널리 파급되어 있었다.(참고: 임술 생 김형렬 성도의 손자 김현식씨의 증언도 김자현 성도의 손자 김택식의 증언과 동일하게 청음 이상호가 수차에 걸쳐 상제님 성적을 들려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들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함)

<甑山道 道典 들어가는 말>*백운동의 안내성 성도는 몇 차례 찾아와 증언을 구하는 이상호에게 단 한 마디도 응대해 주지 않고, 멀리 구성산만 바라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소년 시절에 곁에서 이를 지켜본 아들 안정남이 증언한다. 또 안필성은 이상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도인이 일찍 봉사가 되었다.'고 그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그래서 주요 성도들 못지않게 상제님과 삶을 함께 하고 상제님에게서 큰

도수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증언해 주지 않았다.

<甑山道 道典>(도문(道門)과 성도(聖徒) 3편 192장<측각주>)* 안내성 성도의 입문 과정이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까닭을 그의 아들 정남은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 아버님 생전에 이상호 씨가 와서 뭔가를 알려고, 뿌리를 캘려고 했는데 안 가르쳐 줬어. 그 이유가 있어. 이상호가 가고 나면 아버님이 '저놈이 역천을 해도 보통 역천을 하는 놈이 아니다. 책을 쓴다고, 우리 대선생님을 빙자해서 종교 장사를 한다. 그런 놈한테 내가 뭣 하러 알려 주냐.' 그러고 '저놈이 얼마 안 가서 천벌을 맞는다.' 했거든. 결국 이상호는 눈도 못 보고 살다가 운명을 했다고 하더만."

<태모님께서 아들 삼으신 이용기 성도 휘하 이교승 신도 증언>* '이상호 형제가 세상 떠나기 전에 태모님이 살아계신데도 "우리가 종통 계승자다. 일이 여기서 된다."고 하며 감 놔라, 대추 놔라 했다.'

<안내성 성도 아들 증언 내용>* '이상호 형제는 녹용을 한 가마씩 쌓아 놓고 금 궤짝을 갖다 놓았다. 이상호가 죽었을 때, 큰 형님이 가서 보니까, 그 집안에서 그런 물건이 나오더라는 것이다.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한다.'

해방이후 청음 이 상호에게 채 전해주지 않은 교의(敎義)는 태운 김 형렬 성도의 자(子) 김 찬문·김 찬진(이종질) 형제에 의해 <동곡비서(성화진경)>라는 형태로 <중화경>과 함께 세상에 선을 보이고, 차 경석 성도의 보천교 쪽에서는 <보천교 연혁사>와 함께 보천교 시절 필사본 형태의 구전심수 비밀교의서였던 <대도지남>, <이사전서> 등이 포함된 <보천교 교전(普天敎敎典)>이 발행됩니다.

범 증산교계에 그동안 전설처럼만 존재했던 <보천교 교전(普天敎敎典)>의 내용 100%가 본 <통합경전>에 포함된 것은 이종물 사명의 보천교 이후 초장봉기지세로 물중전의 본을 보여 왔던 범 증산 교단의 통합도수인 태모님 윷판도수와 사오미 개명도수에 맞추어 상제님 진리의 전체 퍼즐의 전면모를 확연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일제하 보천교 신도 600만 기록은 미·일 공식문서 일치)

그도 그럴 것이 <보천교 교전(普天敎敎典)>은 100부만 찍어 당시 출판성금을 낸 80 여명에게 책을 모두 돌리고 말아 세월과 더불어 소장한 당사자들이 모두 선화하여 한정판 경전이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증산도 道典>은 기존 경전 내용 모두를 수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상 많은 부분 누락되었으며, <도전> 편찬의 편집방식이 비슷한 성구를 서로 섞고 누락시킴으로써 내용을 표준화하고 단순명료화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방식은 그 의도가 어떠하든 대중화하는데 큰 공로가 있는 반면 그 핵심은 오히려 알기 어려운 역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신도들로서는 일일이 각 성구내용의 올바른 출처와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각 공사의 진의가 무엇인지 상호 연관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때문에 천지공사의 총론적 실체에 접근하고 종통의 맥을 올바로 잡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현재 증산 상제님 진리권에 가장 영향력이 큰 종단 중 보천교 시절이 치복 성도 연원계열의 라인이 둘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태모 고 수부님 10년 신정공사의 최종결론으로 문왕의 추수 도수를 받은 종통라인 운산雲山 안 세찬 증산도 창도자이며, 두 번째는 태극도의 전신인 무극대도교를 창도한 곁가지 윤통 정산鼎山 조 철제입니다. 안 운산 창도자는 그 부친이 이 치복 성도로부터 직접 도를 받은 모태 신앙인이며, 조 정산은 이 치복 성도에게 도를 받은 독립운동가 김 혁으로부터 도를 받아 진리를 펼쳤습니다.

부연하면, 무극대도교는 보천교 이 치복(李致福) 성도에게서 도를 받은 독립운동가 김 혁(金赫::1875. 10. 16~1939. 4. 23. 본명은 학소學韶, 호는 오석烏石)으로부터 다시 도를 받은 보천교 신도 정산鼎山 조 철제가 세운 단체입니다. 조 정산이 선화(仙化)하고 그 아들 조 영래는 태극도로

단체명을 바꾸고 경전도 <선도진경>과 함께 <무극진경> <태극진경>으로 나누어 다시 발간합니다. <무극진경>은 태극도에서 증산상제님을 무극상제님이라 하여 증산상제님 성구위주의 경전으로, <태극진경>은 무극대도교를 연 조 정산(철제)을 태극상제라 신격화 하여 조 정산 언행록 위주의 경전으로 분리한 가공의 소설입니다.

이에 대한 내막을 자세히 아는 담당자와 경전 편찬자마저 다음과 같이 정산 조 철제를 옥황상제로 칭하는 것 자체가 가공으로 픽션화한 사상누각의 허탄한 소설이라 말하는 지경입니다. 편찬자 자신이 이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지어진 「태극진경」을 자주 접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병폐가 생겨나므로 자제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고 고해성사하는 지경입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조 정산을 지존(地尊)상제로 칭하는 것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가공의 소설이라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가공의 터전위에 조 철제 시봉 출신 박 한경을 인존(人尊)상제로 칭한 것 역시 사상누각의 허탄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극도 해산 고찰, 권지1-22>*그간 무극도를 계승한 당사자임에도 대순진리회 측의 기록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그 결과 무극도의 사정을 잘 모르는(때론 악의적인 견해를 가진) 외부 학자의 책이 많이 채택되어 왔다. 여기에 편승해 태극도의 『진경전서』(87년 출간)와 같은 서적조차 상당한 근거를 가진 문헌으로 묻어가고 있다. 『진경전서』는 2년 후인 89년에 『진경』이라는 이름으로 재출간되었다. 『진경』은 「무극진경」과 「태극진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태극진경」이 도주님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수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소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도주님으로부터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님께서는 도주님에 대해 수도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교운 2장으로 친히 작성하여 내려 주셨다. 도주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무극도의 해산사례에서 보듯이 정확한 근거 없이 지어진 「태극진경」을 자주 접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병폐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자제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외부의 학자들이야 도를 모르는 사

람들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설을 가지고 종단 내부에서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차제(此際)에 『典經』의 신성성(神聖性)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극도 해산 고찰, 권지1-22>* **「태극진경」 즉 『진경』의 저자인 황 진규의 진술에 따르면 윤 금현의 기록을 참조해서 썼다고 한다. 윤 금현은 1952년에 도주님(정산 조 철제)을 처음 뵈었고, 당시 직위가 호령(지금의 교정)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단 1952년 이전의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1952년 이후도 도주님을 계속 가까이서 시봉할 위치는 아니었다.** 그런데 「태극진경」의 내용은 계속 곁에서 시봉했던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들어 낸 이야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 「태극진경」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나 우선 대표적인 한 가지만을 들자면 '태극주' 문제를 들 수 있다. 옥황상제님 재세시에는 '정산님' 또는 '도주님'이라는 두 가지 호칭 외에는 쓰이지가 않았으며, 당신께서 스스로를 '태극주'라고 지칭하신 적은 더욱 없었다. 그런데 「태극진경」에는 옥황상제님께서 당신이 '태극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태극주'라는 호칭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다. **이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자가 임의로 지어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태극도, 대순계열 신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 철제가 종통이 되려면 그의 인생족적과 삶이 경만장 안 내성 추종성도에게 내린 도안 세 살림 사명과 부합해야 하며 역경만첩의 문왕의 사명자 도수와 부합하여야 합니다. 만일 종통을 안 씨가 아니라 조 씨 가문에 내렸다면 천지수기를 돌리는 안 씨 추원재 재실공사는 조 씨 추원재 재실 공사로 되었어야 하고 학암 이중성 선생의 <대개벽경(천지개벽경)>에 '평생불변심 안**'이 아니라 '평생불변심 조**'라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제님 주요 추종성도 중엔 조 씨 성을 가진 분이 아예 안계십니다. 동시에 가야산 조 씨 왕국이란 말이 그림자를 나타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조 철제 가문의 3부자에게 초중말복 세 살림을 내렸다면 안 내성 성도에게 모든 종통공사를 돌돌몰아 보신 천지공사를 조 씨 성을 가진 추종성도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3초 끝에 대인출세 공사에 '이곳이 도안(都安)의 집'이 아니라 '이곳이 도조(都趙)의 집'이라 공사 보셨을 것이며 종통 세 살림 사명기와 성장, 예장, 신장 세 살림 공사도를 안 내성 성도의 순흥 안 씨 사가가 아닌 조 씨 사가에 맡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경도 안 내성 성도 집이 아닌 조 씨 성도 집을 택해 남기셨을 것입니다. 그간 교단개창이라는 종통의 시발점이 태모 고 수부님이라는 수부사명을 삭제 처리한 교리 구조위에 빈 공간을 조철제의 행록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통을 주장한다면 동지한식백오제 공사대로 기유년(1909)으로부터 105년째인 사오미 개명장(2013 계사, 2014 갑오, 2015 을미)에 진법이 그 교단을 중심으로 나오되 조 씨 가문의 도조(都趙) 3부자 문왕의 도수 세 살림 진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 철제를 상제로 만들어 천지공사를 행했다는 『태극진경』의 저자 **황 진규는 스토리텔러였던 윤금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조 철제 살아생전 '정산님' 또는 '도주님'이라는 두 가지 호칭 외에는 쓰이지가 않았으며**, 스스로를 '태극주'라고 지칭한 적은 더욱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태극진경」에는 조 철제를 '태극주'라고 부르는 호칭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자(윤 금현)가 임의로 지어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라 밝혔을 뿐입니다. 심지어 **박한경 도전都典도 「태극진경」이 정확한 근거 없이 지어져서 사실처럼 느껴지는 병폐가 있으니 삼가라 공표했을 정도입니다.**

侍

상제님 신앙권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대순계열 단체의 신도들입니다.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게 된 것은 그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태모 고 수부님 낙종물 교단개창으로부터 시작되어 차 월곡(경석) 추종 성도의 보천교 이종물 사명에 이은 운암강수만경래 숙구지 문왕도수의 대시태조 의통성업 세 살림 판에 들어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대순계열의 진리체계가 천지공사 전체 퍼즐판(건존 증산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곤존 태모 고 수부님 10년 신정공사) 중 10년 신정공사를 싹뚝 잘라내고 그 자리에 증산 상제님께서 장차 그림자도 나타내지 못하게 그 기운을 막은 계룡산 정씨, 가야산 조씨, 칠산 범씨 중의 하나인 조 씨 천하의 교의체계로 상제님 진리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동안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반하는 과도기 '부분 퍼즐판'의 교리체계로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조 철제(鼎山) 선화(仙化)후 부산 감천동 태극도에서는 조 철제(鼎山)를 증산(甑山) 상제님과 동격으로 신격화 해 증산 상제님과 정산이 음양상제-소위 하늘상제, 땅 상제라 하는 새로운 교리로 신도들을 이끌게 되고, 60년대 들어 같은 뿌리에서 나와 독립한 서울 중곡동 대순진리회에서는 우당(牛堂) 박 한경을 신격화하여 태극도에서 교리화한 하늘상제, 땅 상제의 음양 상제

이외에 인존시대의 상제임을 주장하는 천지인 3위(位) 상제 교리를 내세우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는 말과 시루(甑)와 솥(鼎)은 숯(牛堂)이 있어야 한다는 제법 기발하고도 그럴싸한 교리를 내세워 일세를 풍미(風靡)하게 됩니다.

이는 대순진리회 자체가 애초에 <대순전경大巡典經>의 짝퉁인 <전경典經>을 발행할 적에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정음정양의 음양짝 10년 천지공사(신정공사)를 보신 태모 고 수부님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켰기 때문에 모두 벌어진 사단(事端)입니다. 태모 고 수부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교단 개창 사명-낙종물 사명의 출발점을 잃어버렸으니 종통의 출발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쪽 진리로 출발 된 교리의 한계가 단체를 만들 때부터 <전경典經> 속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 정음정양의 곤존 태모 고 수부님 자리의 공백 위에 보천교 일개 신도였던 조 철제를 음양합덕 상제인 지존 상제라 하여 억지 춘향으로 끼워 넣게 되었고 이런 논리가 이어지다 보니 일개 신도인 박 한경이 인존상제로 덧붙여지고 박 한경 사후 다시 옥상옥(屋上屋)으로 삼천(三遷)이라는 술어까지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낙종물 교단개창 사명을 맡은 태모 고 수부님의 존재를 증발 삭제시키다 보니 차 경석 성도의 이종물 사명의 중요성 역시 도외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종통 사명의 마지막 결론이라 할 천지공사의 핵 中 핵인 문왕 도수의 추수사명 역시 허공에 떠 무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종통문제에 있어 낙종물 사명-이종물 사명-추수사명(3변성도)이 모두 실종된 이러한 상황에서 대순진리회에서는 증산 상제님 이외에 조정산과 박우당의 신위를 함께 모시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모두 상제님 어천 이후 도안(都安) 추수 세 살림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과거 증산 상제님 기유

년(도기 39, 1909) 어천 이후 동지한식백오제(105년) 기간 동안 상제님 교단을 이끌어야 했던 나름대로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벌인 일이었음을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더불어 동시에 건존 천주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 말씀과 곤존 태모 고 수부님 10년 신정공사에 있지도 않은 말씀으로 지은 말은 부서질 때 여지없이 부서진다 하신 말씀의 진의를 곱씹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종통이 애초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에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에서는 그동안 다음과 같이 상제님 진리의 최종결론인 의통(醫統)의 실체마저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 철제가 일찍이 해인을 찾기 위해 해인사까지 가서 7일간 머물며 결국 못 찾자 해인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속단하고 해인은 무형으로 먼 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어느날 고후비님이 도인들에게 가라사대 "지금의 현상으로 볼 때에 차경석이나 조철제나 각 교파의 건축물과 그에 따른 시설이 장엄화려하여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무척 부러워하니라.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허망한 꼴이 될 것이요, 오히려 세상을 속이는 사기에 불과하노라." 또 가라사대 "두고 보라, 이 다음에 필연코 초막 속에서 성인이 나올 것이니라." 하시더라.

<(대순진리회)典經 교운 2장 5절>*증산께서 해인(海印)을 인패(印牌)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 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진인(海嶋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태극도)太極眞經 7장 85절>*또 하교(下敎)하시기를 『증산성사께서 해인(海印)이나 의통(醫統)을 말씀 하셨다 하여 이를 어떤 물체(物體)로 아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이는 먼데 있지 않으니 해인(海印)은 海人(해인)이며 태극(太極)의 원리(原理)로서 모두 자기 심중(心中)에 있음을 알지니라.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다시 가라사되 세상世上에있는 모든병病을 다 대속代贖하였으나 오직 괴병怪病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醫統을 전傳하리라 하시니라

<동곡비서>*"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쓸 곳이 없으면 버리는 법이요, 아무리 궂은 것이라도 쓸 곳이 있으면 이롭게 쓰게 되나니, 그러므로 의통을 알아두라. 전쟁은 서

양에서 온 무기가 종국을 끝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위무와 병법을 멀리하고, 비록 보잘 것 없더라도 의통(醫統)을 알아두라. 의통을 알기 어렵느니라. 의통을 옳게 알아두었다가 인명을 많이 살리면 복 줄이 차차 따라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대순전경 3판>*이날 밤에 공우를 침실로 불러들여 일러 가라사대, 네 입술에 곤륜산을 달라. 무진(戊辰) 동지(冬至)에 기두(起頭)하며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인패(醫統印牌) 한 벌을 전하라. 좋고 나머지가 너희들의 차지가 되리라.

<대개벽경(大開闢經)>*(조성옥황상제로 참칭한 조철제에 대한 경고)하루는 대흥리에서 다수의 양지조각에 각기 옥황상제라 쓰시고 뒷간에 가시어 후지(后紙)로 쓰시니라. 성도 물어 여쭈기를, "지금에 옥황상제라 쓰시어 후지(后紙)로 쓰시니 어찌된 연고이나이까." 말씀하시되, "천하에 어느 누가 감히 이같이 하리오. 천지만신이 목을 자르고 몸을 찢어발기노라. 이 뒤에 하늘을 거스르고(패천) 도를 어지럽히는(패도) 자가 있어, 혹 패가망신하고 세상을 그르쳐 백성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정녕 경계함을 보인 것이나니 내가 고심함이 이와 같노라."

侍

주문왕周文王 영대靈臺

증산 상제님 기유년(1909) 어천이후 105년간의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 세월 동안 진법의 전 면모는 절대로 밝혀지지 않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상제님은 105년의 백오제 기간 동안 전체 퍼즐을 감추어 놓은 대신 가혹했던 일제하에 숙구지 문왕 도수의 씨(仁)만 잘 보존시켜 해방이후 발아해 나아가게 도수(度數:입력된 프로)로 예정시켜 두셨습니다.

주(周)나라 개창의 주인공은 무왕이나 주공 단이 아니라 사실상 온갖 역경 만첩의 고난 속에서 그 터를 닦은 문왕이며,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의

주인공 역시 사마사(司馬師)나 사마소(司馬昭)가 주인공이 아닌 온갖 역경 속에서 사마씨(司馬氏) 가문의 터를 닦은 사마중달(司馬仲達:司馬懿)이 주인공입니다.

상제님과 태모 고 수부님의 천지공사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이같이 바로 가장 어려웠던 일제시대 이종물 사명 시절부터 씨앗(仁)으로 보존되어 열풍뇌우불미(熱風雷雨不迷)의 역경 속에서 도안(都安) 세 살림을 일으킨 후진주(後眞主) 문왕 도수(文王度數) 책임자입니다.

상제님 진리의 종통(宗統)은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도안(都安) 세 살림을 활짝 연 문왕 도수 책임자 후진주(後眞主)에 있으며 12,000 도통 군자를 배출하는 도통(道通)줄은 말할 것 없이 도안(都安) 세 살림 종통(宗統)에 들어있습니다. 문왕 도수의 세 살림 운명길이 주자의 무이구곡처럼 워낙 변화무쌍의 파란만장, 역경만첩의 험난한 길이기에 상제님은 이러한 도수를 태워주신 문 공신 성도에게 문왕의 도수와 자기 혁명의 이윤의 도수를 받으려면 무척 힘들리라 하셨습니다.

<대법천사님 유서 김형렬 김자현 가 보존서>*또 선생님(先生任)이 가라사대 **우리 도(道)를 신앙(信仰)하기가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같다 하시니라**

侍

건존 증산 상제, 곤존 고 씨라는 칭호는 태모 고 수부님의 수석 성도이신 고 민환(高旻煥)성도의 <선정원경(仙政圓經)>에 의한 것입니다.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의 선도교(仙道敎) 낙종물 세 살림 교단개창(1911) 당시의 초기 신도들은 증산 상제님을 건존 증산상제(乾尊 甑山上帝), 법륜당 태모 고 수부님을 곤존 고씨(坤尊高氏)라고 호칭하며 신앙했습니다. 이후 일부 교단에서는 증산 상제님을 아버지, 태모 고 수부님을 어머니라 부르며 신앙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천후(天后)님, 후비(后妃)님, 지고후비폐하(地高后妃陛下) 등으로 존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단에서 봉도식(奉道式) 치성 때 사용한 위패에는 증산상제님을 만법화권강성상제(萬法化權姜聖上帝), 태모 고 수부님을 존성대법고성후비(尊聖大法高聖后妃)라 써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형제교단 중에는 태극도, 대순진리회 및 대진성주회 등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의 세 살림 낙종물 사명을 인정하지 않아 아예 신앙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진법이 어두운 구름 속에 가려있어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의 105년이 지나야(2013, 2014, 2015 사오미 개명도수) 흑운명월도수로 개명(開明)되는 이치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현실적으로 태모님 신앙 배제 내지 배척의 뿌리는 보천교 시절 차 경석 교주를 한시바삐 옹립했다 내치고 보천교의 종권을 빨리 쥐기 위해 곤존 태모 고 수부님 배척운동까지 공개적으로 벌인 <증산천사 공사기>와 <대순전경(大巡典經)>을 편찬한 청음 이 상호, 남주 이 성영(정립) 형제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천교 시절로부터 동화교 합동교단에 이르기까지 태모 고 수부님을 공개적으로 배척하고 핍박한 이러한 전통은 그들 청음, 남주의 종통(宗統)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안 운산 성도사님 연원계열 출신인 범초(凡草) 홍 성렬(洪性烈)에게까지 미치어 후일 오성산 신도들을 초청한 <증산교 대법사>의 용화동 통천궁 치성절에 홍 범초는 곤존 태모 고 수부님 어진(御眞)을 무력으로 떼어내 공개적으로 전신도 앞에서 짓밟아 모든 사람이 분노하는 소동까지 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 <통합경전>에 번역 수록된 <보천교 연혁사>와 이 정립의 <증산교사>에 의하면 당초 이 상호·이 정립 형제가 『증산천사공사기』를 편찬하고 『대순전경』 초판을 편찬하게 된 것은 차월곡(경석) 교주 아래에서 <보천교(普天敎)>의 교경편찬위원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보천교 교경편찬위에는 이 상호·이 정립 형제가 보천교에 입문하기 이전인 1910년에 이미 이 양섭이라는 분에 의해 작성된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 육필원본 초안草案이 있었고 이 초안은 이 정립의 손에 들어가 이 상호에게 넘겨져 후일 <대순전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충북 충주시 신니면 선당리 400번지에 있는 고불선원古佛禪院에는 국내 유일본인 <육필 대순전경>이 소장되어있는데 고불선원에서는 <육필 대순전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불선원 육필대순전경 설명>*육필 '대순전경'은 총 13장 489절 252면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 상호의 서(序), 이 정립의 체(替), 보주(補註), 목차, 본문, 그리고 책 말미에는 잡가 등 6편 12면, 증산 대 선생 략사(畧史)문답 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겉표지에는 단기 4282년(1949년) 7월로 표기되어 있고, 경의 끝부분에는 단기4281년 무자년(1948년) 5월 중순에 시작하여 6월20일 완기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옆을 보면 강 증산 선생께서 선화한 1년 후인 1910년 7월26일 전라남도 장성에 거주하는 '이 양섭'이 완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상호 가필)

侍

차 교주로부터 <보천교(普天敎)> 경전편찬을 위한 명분으로 증산 상제님 진리를 체계화해 듣고 자료 수집을 할 만큼 했다고 느낀 이 상호는 일제를 등에 업고 당대 메이저 3대 일간지 중의 하나였던 유명한 시대일보 사건을 일으키고, 차 경석 교주 축출을 통해 종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보천교(普天敎)> 혁신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일제 탄압을 누그러뜨리려 차 경석 교주가 <시국대동단>이

고불선원 국내유일본 1910년 7월26일 전남 장성인 이양섭 완필본

라는 사회단체를 만들어 예봉을 피하자 청음·남주 형제는 혁신운동의 명분이 없어져 실패했음을 느끼고 마침내 보천교 재산인 경성 가회동 진정원, 창신동 진정원 부지, 가옥불법매각 자금을 챙겨 만주로 도주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만주에서 전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만주 봉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와중에 경성의 동생 이 순탁이 기왕에 알고 있던 조선 총독부 경무국 간부들을 교섭해 봉천 일본 영사를 통해 감옥에서 빼내 차 교주에게 용서를 구하고 국내에 정착하고자 만주에서 들어왔으나 이들은 오히려 다시 한 번 만주삼림 개척 투자를 빌미로 사기사건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릅니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이 상호(李祥昊)의 친동생(實弟)인 순탁≪淳鐸: 보천교 자금으로 교토대 상경대 유학하여 교토의 개신교회에 다니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신해 언더우드(연희전문 초대 의대 학장)와 함께 연희전문 창립(초대 상대 학장) 해방 후 기획처장 역임. 6.25때 월북 혹 피납≫이 경성에서 그 형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경무 당국에 교섭하야 당국의 소개장을 얻어 만주 일본 영사에게 교섭하고 영사는 지나 관청에 교섭하야 이 상호(李祥昊)를 석방하니 이 상호 형제(이상호, 이성영)는 만주를 벗어나 을축(道紀 55, 1925) 정월에 경성에 도착하야(이 성영은 입지가 없음을 알고 지나로 다시 건너가 1928년에 귀국)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자신이 앞서 걸은 길을 고려한 즉 보천교에서 고소한 것이 기소중지 중에 있으니 조선 내에서는 활동이 부자유하겠고 외국을 갈라하니 신변이 위험한지라 몸 하나를 둘 곳이 없어 부득이 보천교에 용서를 얻어 기소문제를 해결한 후에 활로(活路)를 구하겠다는 야심으로 경성부(京城府) 마포에 사는 최 순영(崔淳永)을 설득하야 간선방(幹旋方:주선통로)을 구하였다. 최 순영(崔淳永)은 즉 교주 자부(며느리)의 실제 부친이니 이 상호가 그 관계를 안 까닭이라. 최 순영은 이를 승낙하고 이 상호의 개과(改過) 사죄장을 첨부하야 교주에게 용서하는 방향(방안)의 요구(容赦方要求) 서간(서찰)을 송달하였다.

이 상호·이 정립에게 진리를 전해준 진리의 스승 차 월곡 교주의 입장에서 볼 때 면종복배(面從腹背)를 귀 울리듯 일삼고 배사율(背師律) 범하기를 숨 쉬듯 하는 그들에게 알고 있는 진리를 모두 전해주었을 리 없는 건 오히려 당연합니다. 하지만 얻을 것 다 얻었다 성급히 판단한 그들이 일제를 등에 업고 차 교주 배척운동을 벌이며 보천교 혁신운동을 일으키다 1924년 7월 마침내 보천교로부터 교직(敎職)을 파면당하자 보천교를 뛰쳐나가 김 형렬 성도의 미륵불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음은 미륵불교의 경전을 펼 것처럼 태운장 김 형렬 교주를 감언이설로 속여 1925년 9월부터 김 형렬 교주에게 들은 몇몇 공사 내용과 사료만 편취(騙取)하고 차 경석 성도에 이어 김 형렬 성도마저 성급히 배신하고 나갑니다. 그 바람에 결국 이 상호·이 정립 형제는 자료가 아주 빈약한 초기 형태의 <증산천사공사기>와 <대순전경> 초판본만을 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월곡(月谷) 차 경석(車京石) 보천교 교주나 김 형렬 미륵불교 교주가 이 상호에게 채 전해주지 못한 진리는 후일 각기 독보적인 내용을 담은 경전으로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됩니다.

차 경석(車京石) 성도의 경우는 보천교시절 일제의 눈을 피해 <이사전서(二師全書)>, <대도지남(大道指南)>의 이름으로 각기 비장서(秘藏書) 형태로 몇 권만 간행되어 고급 간부만 보거나 간부를 통해 일반신도에게 구전심수(口傳心授)하는 경전이 되었다가 후일 다시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에 통합 수록되어 재발간됩니다. 따라서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의 신뢰도와 중요성은 성구의 원전(原典:Source)이라는 점에서 이를 구두로 전해준 뒤 이 상호에 의해 편찬된 2차 기록 경전 <증산천사공사기>, <대순전경 초판> 내용보다 가치 면에서 앞서며 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곡비서(銅谷秘書)>와 함께 중요도 제1순위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김 형렬(金亨烈) 성도 쪽에서도 상제님이 전하신 <중화경中和經>이 김 형렬 성도의 손에 의해 세상에 전해지고, 이 상호·이 정립 형제에게 채 전해 주지 못한 천지공사 내용 등이 후일 김 형렬(金亨烈) 성도 선화(仙化)이후 아드님 김 찬문, 김 자현 성도 아드님 김 태진에 의해 <동곡비서(성화진경)>로 출간되어 세상에 전해집니다.

태운장 김 형렬 성도는 상제님의 도장(인감)과 그 유서를 모아 김 태진(金泰振)·태준 형제(泰俊兄弟), 곽 봉훈(郭鳳勳)에게 전하고 곽 봉훈은 증산 상제님 유일 혈식 화은당(華恩堂) 강 순임 선사(仙師)에게 전해 <중화경中和經>으로 출간됩니다. 증산법종교(甑山法宗敎)에서 초판으로 펴낸 「중화경中和經」의 원명(原名)은 「중화집中和集」이며 이 효진(李孝鎭)은 「중화경집中和經集」으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미륵불교를 배신하고 나온 이 상호·이 정립 형제는 상제님이 전하신 「중화경」을 태운장 김 형렬 성도의 개인작품으로 매도해 폄하한 바 있습니다.

남주 이성영(정립)

전남 해남출신으로 해도진인(海島眞人)에의 야망을 가진 청음 이 상호, 남주 이 성영(정립) 형제는 자신들의 욕속부달의 허황된 이기심을 위해 공개적으로 태모고 수부님을 내치는 작업에 착수해 차 월곡 교주를 내세운 뒤 마지막 추수사명자로 착각한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실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는 경전편찬을 위한 사료채취 과정에서 월곡 차 경석(본명 보천교 교전 輪洪;대개벽경 輪紅) 보천교 교주로부터 태모님의 낙종물 사명과 차 월곡 교주의 이종물 사명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총독부 산하 경성 경무국 경시(警視)로서 친일 정탐조직 동

광회(東光會)를 이끄는 김 태식(金泰湜)에게 매수된 바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경찰부 후지모토(藤本) 고등과장에게 매수된 바 있는 두 형제는 오히려 당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자신들을 매수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일제를 역이용하여 당시 기독교 인구가 총독부 공식연감 기록상 20만이던 시절 조선총독부 공식연감 600만 신도(일제 조선총독부 백서는 당시 3부 발행했으며 미국 워싱턴 문서보관소 기록과 일치함)의 막강한 인권을 거느린 자신의 스승 차 월곡 교주를 내치고 보천교의 종권을 탈취하려 수없이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천교 연혁사>에 보이고 있는 이 상호·이 성영(정립) 형제의 차 월곡 성사(聖師)에 대한 배사율(背師律) 즉, 시대일보 사건과 보천교 혁신운동의 실체입니다. 그 요약을 간단히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이 대흥리 첫째 살림에서 둘째 살림 조종골로 옮기실 때에도 엄청난 분란과 곤경이 가로막혀 있어 첫째 살림의 주도적 조언(수석성도) 역할을 맡았던 '서전서문 만독' 이 치복 성도가 태모님으로부터 사실상 격리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둘째 살림 조종골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왕심리 살림에서는 태모님을 이용해 정통성을 얻고자 획책하여 차까지 대절하며 찾아다닌 이 상호·이 정립의 끈질긴 구애 공세는 왕심리 살림의 임시 재정난 타개라는 명분으로 금구 용화동 동화교 합동 교단이 성사됩니다.

이는 당시 태모님의 조종골 두 번째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고 민환 수석성도가 당시 심각하게 봉착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잠시 시간벌기용으로 주청해 태모님의 윤허로 성사된 교단입니다. 그러나 왕심리 교단과 용화동 동화교 합동교단의 결과는 마치 과거 대흥리 교단에서 조종골로 옮기실 때 이 치복 성도를 잃었듯이 이 상호·이 정립의 고 민환 암살시도로 이를 눈치 챈 고 민환 수석성도가 야밤에 금구 용화동을 탈출해 도망치는 사태로 고 민환 성도와 이별하는 것으로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이 상호·이 정립은 이미 보천교 혁신운동을 벌이며 조선총독부 인맥을 가까이 한 적이 있고 차 경석 교주의 신변과 보천교 실상과 내막을 조선총독부에 고스란히 노출 신고하는 소위 “보천교 양해사건”을 주도하면서도 조선총독부 인맥과 그 산하 경성 경찰국 김 태식(본명 태석)과 경기도 경찰국 후지모토에 매수된 바 있습니다. 이 상호 인맥인 임 경호·문 정삼은 조선인 종교 밀정인 조선총독부 촉탁 김 환과 정무총감 비서 조선인 채 기두 등과 하나가 되어 정보를 나누고 조선총독부 산하 경찰국 인맥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제의 편에서 보천교 혁신운동을 주도하다 해방 전 모두 사망합니다.

청음 이 상호는 일제에 매수된 이후 차 경석 교주를 설득해 경성(서울)에 일제와 소통할 수 있는 보천교의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천교 가회동 진정원과 창신동 진정원입니다. 말로는 조선총독부와 보천교의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보천교 사무실이라 하지만 실상은 경성 경무국, 경기도 경찰국과 결탁한 이 상호 형제의 사적인 연락 사무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대단한 규모로 연 이들 진정원을 경성에 두 군데에 열면서 이들 진정원의 명의를 보천교 단체로 등록치 않고 본인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 버리고 맙니다.

두 형제는 이 사무실을 아지트 삼아 일제와 공모하여 차 교주 배척운동인 보천교 혁신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지만 보천교 최고위직 60인 방주직에서 해임되자 보천교 재산인 경성 가회동 진정원과 창신동 진정원 부지 및 가옥을 불법적으로 팔아 만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상호 형제는 만주로 도망가서 전라도 재벌로 행세하며 만주의 부동산을 사러왔다고 만주 사교계에 휘젓고 다니다 모두 탕진하고 봉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만주 봉천 감옥에 갇힌 동안 동생 이 순탁의 힘을 빌어 다시 돌아온 이후에 차 경석 교주에게 간선(주선책)을 넣어 개과천선하고 사과한다는 미명하에 다시 월곡 차 경석 교주를 만나게 되지만 이 상호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한

술 더 떠 만주개척이라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도해 차 교주를 한 번 더 속이고 보천교 재산을 마지막으로 편취(騙取)하려 듭니다.

심지어 사죄를 빌미로 차 교주를 만나던 즈음 이 상호는 본래 폭력배를 고용해 보천교 간부들을 난타해 사경에 빠뜨리게 한 전력도 있는데다가 보천교 재산을 불법 편취 매각해 만주로 도망가 보천교 신도들에게 악명이 높은 상태로 조선 총독부 산하 경무국 후견인들의 힘을 빌어 봉천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청음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아는 보천교 간부들이 전혀 못 알아보도록 철저히 변장까지 하고 전주 정읍일대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치밀하게 하여 일본 순사들의 경호아래 전주 정읍일대의 여인숙을 전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 상호는 재산 불법처분 및 만주 도망이라는 문제로 당시 보천교가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악명이 보천교 간부 사이에 널리 퍼져있음을 잘 알고 있었는지라 간부들에게 얼굴이 알려지면 불상사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해 나름대로 치밀하게 전라도 전주 정읍 경찰부 일인 형사대에 조직적인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것입니다.

차 경석 보천교 교주에게는 보천교 재산 편취 불법매각 도망에 대해 사과한다는 명분으로 만주에서 귀국했으나 어렵사리 차 교주를 만난 자리에서까지 사과보다는 만주 삼림 채벌권(소위 만주개척)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여 사실상 끝까지 시종일관 기망(欺罔)하려 한 사실이 <보천교 연혁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천교와의 관계에 있어 이 상호가 차 경석 교주에 대해 과연 사과에 대응하는 진정성을 보였는지 아니면 거짓말과 재산편취로 시종일관했는지 대미를 장식한 일화가 <보천교연혁사>에 보입니다. 만주에서 도망 나와 보천교 교주에게 사과하는 자리가 주선책 동생 이 순탁을 통해 차 교주 며느리

의 부친 최 순영을 통해 어렵사리 성사되자 만주삼림 채벌권 획득이라는 사기성 기획안을 내놓았지만 차 월곡 교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큰 아량으로 과거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주자 이 상호는 오히려 자신에게 예전의 고위 간부 방주직을 재임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자신이 앞서 걸은 길을 고려한 즉 보천교에서 고소한 것이 기소중지 중에 있으니 조선 내에서는 활동이 부자유하겠고 외국을 갈라하니 신변이 위험한지라 몸 하나를 둘 곳이 없어 부득이 보천교에 용서를 얻어 기소문제를 해결한 후에 활로(活路)를 구하겠다는 야심으로 경성부(京城府) 마포에 사는 최 순영(崔淳永)을 설득하야 간선방(幹旋方:주선통로)을 구하였다. 최 순영(崔淳永)은 즉 교주 자부(며느리)의 실제 부친이니 이 상호가 그 관계를 안 까닭이라. 최 순영은 이를 승낙하고 이 상호의 개과(改過) 사죄장을 첨부하야 교주에게 용서하는 방향(방안)의 요구(容赦方要求) 서간(서찰)을 송달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교주난 그 후에 이 상호를 인견(引見:접견)하시니 상호의 행동은 전의 과오를 개선하고 보천교(普天敎)를 위하야 진력하겠다는 의사는 표현치 아니하고 그 요구의 제 1은 교중(敎中)에 용서를 얻어 기소를 해제하고 또는 경성 창신동과 가회동 양처 진정원(眞正院)을 타인에게 전당을 잡혔난대 기한이 멀지않음이라. 만일 기한을 지난 즉 그 사람이 고소를 제기할 터이니 금 8천 5백원을 지급해 주시면 이를 다시 찾아 활동상 편의를 꾀함이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제 2난 만주에서 교도 50 호를 이민시키면 외무성으로부터 금 10만원을 당겨 쓰겠다 하야 교도 이주시키기를 청구하는대 그 내용을 들은 즉 당국자와 결탁하고 만주개척하기 위하야 보천교도를 이민시킨다 하면 외무성으로부터 만몽(滿蒙) 개척비로 금 10만원의 보조를 받아 그 안에 얼마는 당국자에게 보수(報酬)하고 잔액은 교중(敎中)에 사용한다 이르며 제 3은 다시 보천교도로 선포하자면 권리와 신용이 없이 행치 못하겠으니 그러나 하급의 방주(方主), 선화사(宣化師)는 원하지 않고 전일 서방주(西方主)의 임직을 복임(復任)하여 줄 것이며 또는 정령(正領)의 중요한 임직(重任)을 요구하는지라.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교주 가로대 제 2의 만주 이민은 불가하다. 가령(假使) 외무성 보조금을 끌어 쓸 수 있을지라도 후일에 그 보답이 지극히 어려우므로 도저히 그 말을 듣고 좇을 수 없고 제 3은 고어(古語)에도 장공속죄(將功贖罪:장수는 공을 세워 죄를 면함)라 하였으니 죄를 범한 후 하등의 공이 없이 중임(重任)을 명(命)함은 불가능하니 먼저 임직이 없이 포교를 일심하야 공을 세우는 동시에 중임을 희망함도 무방하고 제 1 건(件)은 내가 이 지위에 처하야 그대 한사람을 용납치 못하겠느냐 하시고 이 건(件)만 허락하시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그 후에 이 상호난 용서를 얻어 기소문제를 해결한 후 일신의 자유를 얻어 포교할 의사는 없고 중요간부에 임명치 아니 한다는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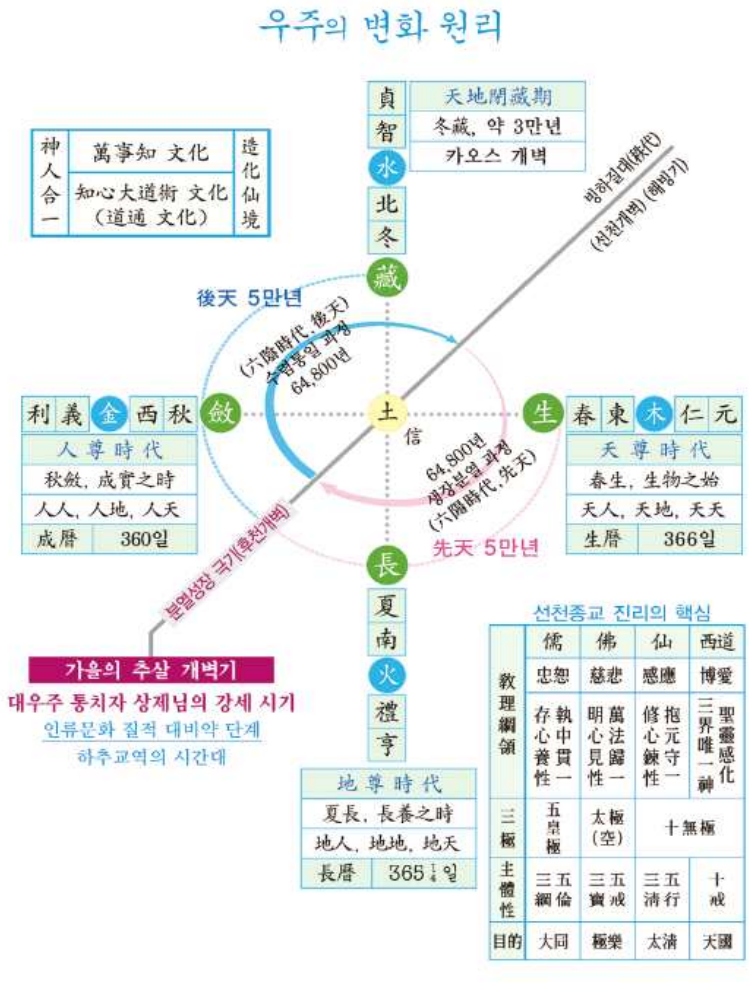
뿐으로 경기도 경찰부 모(某)의 촉탁(부탁)으로 만주개척을 빙자하고 보천교 금전을 사기해 속이기(欺瞞)로 목적하다가 계획이 불성립함으로 인하야 탈퇴하고 예전(前日) 혁신운동 하던 때에 저당 잡힌 진정원도 환추해 되찾지 아니하고 우(右) 금액을 사기하였다.

청음 이 상호의 동생 이 성영은 1945년 8.15 해방이후 보천교 내에서 악명 높은 자신의 이름을 세탁하기 위해 남조선 배라는 남주(南舟)로 호를 짓고 이름도 정립(正立)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해방이후 청맹과니로 시력을 거의 상실한 맹인 형님 이 상호가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자 해방 이후 발행한 <대순전경> 3판의 서문 찬(贊)을 이 성영이란 본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세인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이 정립(李正立)으로 새로 지은 이름을 쓰게 됩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당시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자신이 개창한 단체의 핵심 직계 간부인 경상도 포항 울진출신의 배 동찬(裵東燦:황원택과 함께 8교리 간부의 한 사람.영주·봉화 ·문경 책임자)을 통해 당시 신도들의 재정후원을 통해 <대순전경> 3판을 47년 발행하게 한 것이고 후일 이 정립은 <증산교사>에서 당시 실제 지도자였던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증산교 대법사를 주재한 사실을 뿌리부터 철저히 왜곡해 말살합니다.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이 정립을 서울에 하숙시켜 생활비를 대주며 책 쓰기를 독려해 나온 작품이 바로 <대순철학>인데 이 역시 총 사수의 지원으로 <대순전경> 3판과 함께 47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순철학> 책을 출판한 것은 1947년 12월 27일. “(운산 안 흥찬 총사수 강론) 내가 스물다섯 먹어서(1946년) 아산군牙山郡 배방면排芳面 남리南里 반상철潘相喆의 집에 한 부락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지금의 우주변화원리 도표를 그렸다.”)

<증산교의 진리>는 중복 지도자인 안 경전(安耕田)의 저서로 1981년 증산도장 이름으로 발행된 증산 상제님의 종합적인 천지공사 교리 설명서입니다. 뒤에 <증산도의 진리>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한 이 책의 초반 도입부에는

안 운산(安雲山) 총 사수(總師首)가 1945년 해방 당시 처음 그려 포교한 우주 변화 원리 도표가 실려 있습니다. <보천교 연혁사>나 <보천교 교전>을 보면 차 경석 성도의 '보천교' 시절에는 소 강절 선생의 '우주변화 원리 도표'를 비롯 이에 대한 종합적인 그 어떠한 설명이나 언급도 찾아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하 '보천교' 시절에는 전혀 빛깔도 안보이던 소 강절 선생의 우주원리를 배경으로 천지공사를 언급하는 초보적인 내용이나마 세상에 처음으로 활자화하여 체계적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이 정립의 <대순철학>에서입니다.



안 운산(安雲山) 총 사수(總師首)는 해방 이후 서울 합정동 최 위석 집에서 만난 이 정립에게 우주변화 원리에 입각한 상제님 진리의 전반을 일제하 구 보천교 시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전해줌과 동시에 하숙비와 일상 생활비까지 전담하며 적극적으로 책만 쓰게 독려한 결과 2년여 뒤에 바로 <대순철학(大巡哲學)>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에는 안 운산(安雲山) 총 사수(總師首)가 이

정립에게 <증산도의 진리>에 나오는 소 강절 선생의 우주원리 도표를 손수 그려가며 그 대국을 설파한 결과 이 정립의 소극적인 시각으로 재해석되는 집필과정을 거쳐 세상에 인쇄물로 빛을 보게 된 결과물입니다.

이 상호(明鐸)·이 정립(誠鐸) 형제가 힘을 합쳐 증산교 대법사의 종권(宗權)을 조직적으로 탈취하고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54년 말점도 대휴게기 은퇴를 선언하자 현실적으로 당시 총 사수를 따르던 배 동찬, 황 수찬, 황 원택 등 대다수의 심복 간부들까지 이 상호·이 정립의 휘하에 자진 귀속되어 이 상호·이 정립의 핵심간부가 되는 세탁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당시만 해도 말점도 도수를 통해 시간의 도수에 맞추어 때가 되어야만 활짝 피어나는 문왕 도수의 시절화(時節花:주인공)를 알지 못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도기 75년(1945) 을유 해방 이후 2변 교운을 개창해 증산교 대법사를 개창한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정읍 시기리에서 초가 단칸방에 경제적으로 홀로 버려지다시피 한 늙은 장님 이 상호를 만나(만날 때는 버려진 빈집에 들어가 생활) 용화동에 누옥을 마련해 주고 해방과 더불어 서울 합정동 최 위석 집에서 대구감옥에서 갓 출옥한 동생 이 정립을 만난 이후 직계 대연원주 간부 배 동찬(裵東燦)을 시켜 앳된 울진 처녀 21세의 장 옥(張玉)을 맺어주어 혼인까지 시켜줍니다.

당시 <동아흥산사> 사건으로 대구감옥에서 갓 출옥해 일가친척 하나 없는 홀아비 이 정립(誠鐸)은 서울에 사는 동생 이 순탁(淳鐸)의 집에 들렀다가 순탁으로부터 서울 마포 합정동 최 위석 집에서 치성이 있으니 한 번 가보라는 연락을 받고 안 흥찬 총 사수(總師首)와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호, 이 정립 형제는 전라도 해남 끝 좁은 섬마을에서 첩의 자식이라 성장과 더불어 좁은 섬마을의 손가락질을 피해 일찍이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했으므로 일가친척과 일체 소통이 없었습니다.

후일 이 정립은 일제하 보천교 혁신운동으로 차 월곡 교주에게 배사율을 범한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의 <증산교사>에서 자신의 스승이신 월곡 차 경석 교주의 보천교를 사이비로 흠집 내어 다시 한번 깎아내려 보천교 혁신운동을 미화시킵니다. 일제 당국의 보천교 힘 빼기 기획의 일환으로 일제 종교밀정 김 환(金丸)의 협조를 얻어 동화교를 개창한 이 상호 형제는 과거 보천교 시절 자신들이 주도해 공개적으로 태모 고 수부님 배척운동을 벌여 축출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31년 조 학구 등을 데리고 차를 대절해 수차례 왕심리를 찾아 태모님 유치를 통해 동화교의 정통성을 갖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이 상호, 이 정립 형제가 태모님을 모시기 위해 찾아다니는 각고의 유치노력과 조종골 이후 태모님의 경제압박의 정황이 일치하자 태모 고 수부님 수석성도 고 민환(高旻煥) 성도는 잠시 용화동에 가서 조종골 말기 살림부터 어려워진 경제적 난국을 피하자고 주청드린 결과 태모님은 마지못해 고육지책으로 신미년(1931) 동지치성 봉행 후 임신년(1932)부터 힘겨운 왕심리-용화동 과도기 합동 살림시대가 바야흐로 개막됩니다.(*이정립은 태모님의 왕심리 살림과 동화교와의 통합 살림을 이미 막 내린 두 번째 조종골 살림과 통합한 세 번째 살림으로 정의하여 동화교의 종통을 시도. 하지만 조종골 살림 이후 세 번째 살림도 세 묶음 살림으로 드러남.)

그러나 통합살림 개막 시부터 이 정립은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어떠한 신도를 막론하고 일체 태모님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시키고 1년간 종적을 감추고 별도로 태모 고 수부님 수석 성도인 고 민환(高旻煥) 성도를 내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고 민환 성도를 내쳐야 합동 살림에 대한 태모 고 수부님의 종권 장악을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모 고 수부님과 고 민환(高旻煥) 성도는 용화동에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서 이 정립에 의해 신도가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고 도판(도국)이 감소하자 이 상호·이 정립 형제의 의도를 미리 아시고 고 민환 성도를 통해 옛

날 도국을 다시 이루기 위해 예전 추종 성도들을 일일이 방문해 조직을 재구축한 후, 오성산 옥구 문 영희 집에 임시장소를 개설하고 임피군 성산면 오성산에 도장건축을 착수합니다.

그러면 용화동 통합 32년 초기에 이 상호 형제의 의도를 알고도 32년을 헛 보내시고 왜 33년 말에서야 오성산으로 가시게 되었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선정원경(仙政圓經)>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선정원경(仙政圓經)>*즉 용화동 초기에 문영희가에 새로 개편한 도체조직의 임시장소를 정하고 이 조직이 오성산 도장 새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도장건립 착수에 들어간 것이 그 해 32년 가을이었고 임시장소(臨時場所)를 옥구군(沃溝郡) 옥산면(玉山面) 기현리(岐峴里) 문 영희(文永禧) 가(家)에 정하고 도체조직(道體組織)후 임피군(臨陂郡) 성산면(聖山面) 오성산(五聖山)에 기지(基址)를 정하고 도장주택(道場住宅)을 건축(建築)이 시즉(時則) 임신년(壬申年:일구삼이) 추기(秋期)러라.

자금부족으로 천연 중(지체중)에 이 진묵이란 종도가 자비로 33년 동지절에서야 오성산 도장이 완공되어 불가피하게 용화동 체류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화동 2년 세월은 청음·남주 형제의 준동으로 태모 고 수부님 천지공사(神政公事) 공백기가 되었습니다. 용화동 통합 32년 초기에 이 상호 형제의 몹쓸 의도를 알고도 33년 말에서야 오성산으로 가신 이유와 이 상호·이 정립의 온갖 박해와 핍박에 대한 최종결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원경(仙政圓經)>* “오성산(五聖山) 도장(道場)을 속(速)히 수리(修理)하라.” 재촉 하시므로 이 진묵(李眞默)이 독단적(獨單的) 수리담당(修理擔當)하야 수리(修理)하는 시즉(時則) 계유년(癸酉年) 동지절(冬至節)이러라.

<선정원경(仙政圓經)>*고 씨(高氏)께서 말씀하시되, “동지치성(冬至致誠)은 오성산(五聖山)에 가서 봉존의(奉尊矣)리라. 그리 알라.” “조강맥식(糟糠麥食)이라도 임옥 자손(臨沃子孫)을 영솔(領率)하고 제반사(諸般事)를 결탁(結托)하리라” 하시더니 오성산(五聖山) 도장(道場)으로 오시사 신도선정(信徒仙政)을 시설(施設)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태모님께서 종종 이 상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상호, 저 도둑놈, 역적놈!” 하시고 “저놈이 내 일을 망쳐 놓는다.” 하시니라. 어느 날 태모님께서 상호를 보시고 또 “저 도둑놈, 역적놈!” 하시니 상호가 대들며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하거늘

이 정립은 자신이 집필한 <고부인신정기>에서 태모님 세 살림을 대흥리-조종골-용화동 통합교단으로 정의 내려 자신들 이 상호·이 정립 형제가 태모 고 수부님의 정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두 형제 모두 60년대 중반 헛되이 선화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평생 품었던 해도진인(海島眞人)에의 꿈은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동화교의 정통성 주장 역시 정통이 아닌 일종의 윤통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이 정립은 <고부인 신정기>에서 문왕의 도수 사명자로 추수 사명자를 배출하는 왕심리 살림을 도외시함은 물론, 오성산 살림을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의 ‘동화교 수양소 은거’로 표현해 오성산 사명당 도수 및 막둥이 칠성도수로서 윷판 통일도수가 암장된 오성산 살림의 비중을 경시해 제외하고 용화동 동화교 합동살림 만을 세 번째 살림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짐새 살기(煞氣)로 가득한 금산도득 문제는 금구 용화동으로 가면 네 몸이 부서진다 하신 상제님 말씀대로 태모님을 초빙해 따돌리고 얻은 종통의 명분을 내세워 고 민환(高旻煥) 수석성도와 태모님 살림을 책임진 내무실장 전 대윤 성도마저 내친 이 상호·이 정립의 욕망이 핵심입니다.

결국 오성산 살림은 왕심리 살림, 동화교 합동 살림과 함께 3벌 살림의 세 번 째 살림이고 용화동 살림의 실체는 고 민환(高旻煥) 수석 성도가 표현한 대로 강 응칠·강 사성 성도의 배신과 준동으로 형편이 안 좋아 잠시 의탁한 상태였을 뿐인 과도기 살림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상호 형제의 욕심을 알고 통합살림을 연 32년 초기부터 오성산 도장을 짓는 작업에 착수하고 역

시 경제난으로 천연되다가 이 진묵의 자비로 가까스로 33년 동지절에 완공해 오성산 도장에서 동지치성을 열게 되면서 마침내 우여곡절 끝의 마지막 3벌 살림의 마지막 살림 시대가 개막됩니다. *낙종물 세 살림 사명의 구성: ❶대흥리 살림-❷조종골 살림-❸(①왕심리 살림, ②동화교 통합교단 살림, ③오성산 살림)

여기에서 태모님이 용화동 살림과 오성산 살림의 성격 규정에 대해 중대하게 선언하신 말씀이 <선정원경(仙政圓經)>에 나오는데 <항시(恒時) 말씀하시기를, "조강맥식(糟糠麥食)이라도 임옥 자손(臨沃子孫)을 영솔(領率)하고 제반사(諸般事)를 결탁(結托)하리라" 하시더니 오성산(五聖山) 도장(道場)으로 오시사 신도선정(信徒仙政)을 시설(施設) 하시니라.

즉 변변찮은 거친 꽁보리밥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짐새 살기 가득한 용화동 이 상호 형제가 거느린 신도들이 아니라 오성산 임옥 자손 데리고 천지공사의 제반사 모든 일(신정공사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사道史에 있어 이 상호·이 정립이 규정하고 있는 용화동 두 번째 살림에 반反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상호·이 정립 형제의 신앙생명에 대해 태모님께서 최후 결론을 내리신 엄청난 선언입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는 낙종물-이종물-추수공사의 3변성도(三變成道)로 짜여져 있는데 스스로를 해도진인 추수자라 크게 착각했던 이상호·이정립 형제 시각으로 보면 10년 천지공사(神政公事)를 보신 여성 하느님(坤尊)- 태모 고 수부님의 절대자 신격은 고사하고, 낙종물 세 살림도 열매 맺는 사명이 아닌 교단 개창이라는 과도기 사명 인물로 혹독하게 배척을 당해도 되는 인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들 형제와 동일한 입장으로 한 술 더 뜬 대표적 인물이 바로 곤존 하느님이신 고수부님을 신앙대상에서 삭제시키고 그 자리에 증산 상제님과 음양 상제의 짝이라며 지존상제(地尊上帝)로 참칭한 태극도의 정산 조철제이며, 정산 사후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

니라' 하신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비틀어 인존 상제를 참칭한 대순진리회 도전(都典:교주) 우당 박한경입니다.

<용화전경>*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대개벽경(大開闢經)>*"인존시대의 세상에 상제(하느님)가 세상에 강림하여 선악을 심판하나니,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더욱 지존한 것이나니, 지금은 인존시대의 세상이노라."

이들 형제는 당시 고 민환(高旻煥) 성도의 표현으로 곤존 하느님이신 태모님의 정체를 전혀 몰랐고 따라서 존재 의미를 두지 않았다가 선화하기 전(前) 태모(太母) 고수부(高首婦)님 10년 천지공사(神政公事)의 신성성(神聖性)을 밝힌 태모(太母) 고수부(高首婦)님의 수석성도 고민환(高旻煥)의 <선정원경仙政圓經>이 1960년에 발간되기 무섭게 남주 이 정립은 곧바로 충격을 받고 과거 청음(靑陰)과 자신이 핍박(逼迫)했던 태모(太母)님의 곤존 신성권의 정체를 새로이 깨닫고 <고부인신정기:1963>를 황급(遑急)히 출판하게 됩니다.(청음 이상호는 청맹과니 장님이라 집필불가)

과거 보천교 시절 이 상호 형제는 고 수부님을 빨리 내쳐야 자신들이 모신 보천교 교주 차 경석 성도를 하루바삐 이종물 사명의 지도자로 옹립할 수 있고 그런 연후에 다시 차 경석 성도를 내쳐야 추수 사명을 가진 자신들이 역사의 종통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일제와 결탁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갖가지 모함, 사기, 협잡, 보천교 자산 불법 경매, 시대일보 불법매각 대금 도용 도적질, 차력사 동원한 보천교 신도 테러 등 온갖 패역적 난동을 벌입니다.

***<범증산계 통합경전> 편찬의 필요성과 의의

사정은 단체마다 다 다르지만 증산계 각 단체가 단일경전 하의 좁은 교리

都安 세 살림 추수도수를 부친 周 文王.

체계 속에 매몰된 가운데에서도 상제님 신앙에 있어 다 경전 시대로 비로소 업그레이드시켜 진리의 대국을 틔워준 신앙보서는 바로 <증산도 道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도 비로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모하며 그동안 타 신앙단체의 핵심 교리를 몰랐던 각 단체의 깨인 신도들이 타 단체의 핵심 교리와 왜곡상황이 담긴 경전까지 자유자재로 검색해 비교해 볼 수 있는 열린 정보의 디지털 마인드 시대로 변했습니다.

<증산도 道典>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모든 경전을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증산계 신앙권의 메이저 중의 메이저 경전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앙보서 역할을 해 왔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문왕의 도수로 20년 말점도 공사 도수(文王의 유리羑里 유폐)를 받으며 험한 세파를 헤쳐온 운산(雲山) 안 세찬(흥찬) 성도사(聖道師)님이 경만장 안 내성 성도에게 부치신 초복, 중복, 말복 세 살림 도수의 문을 연 지 28년 만에 돌연 선화(仙化)하시면서 동지한식백오제의 사오미(2013,2014,2015) 개명장 도수를 맞아 운암강수 만경래의 세 살림 정체가 더한층 세상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상제님 천지공사가 일호도 착오 없이 실로 무섭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임술생(壬戌生:1922)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본명 世燦) 성도사(聖道師)님은 해방이후 불과 2-3년 남짓에 곤존 태모 고 수부님 무진년(1928) 숙구지(宿狗地) 구월도(九月度) 공사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1945년 8.15 해방 이후 보

천교 해체 이후 영락해진 수십만 신도의 영성을 성성(醒醒)히 깨워 추수 도수 세 살림의 서막을 알리는 문왕 도수의 씨(仁)를 틔워 보천교 2변 교운인 <증산교 대법사>를 일으켰다가(초복도수初伏度數) 도수에 맞지 않은 철 이른 발아(發芽)였으므로 2 변 판 초복 살림을 모두 버린 채 말점도(末島) 20년 귀양 도수를 보내고 마침내 74년에 비로소 도안(都安) 세 살림의 본궤도인 중복도수(中伏度數) 기두에 도달합니다.

그리하여 10년간의 준비기를 마친 후 84년에 공식적으로 4남인 안 경전(安耕田) 종정을 내세워 두 번째 중복도수 살림 '증산도' 를 공식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천지공사 도운의 핵심인 고 수부님 낙종물 세 살림 도수, 차 경석 보천교 이종물 도수, 경만장 도안都安-安家 초복, 중복, 말복 세 살림 추수도수의 종통 핵심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교운(교단운로)인 ①낙종물(곤존 태모 고 수부님)-②이종물(차경석 보천교)-③추수사명(문왕사명) 삼변성도(三變成道)는 세운(세계 정치운로)이 깔아주는 바탕위에서 흘러갑니다.

마지막 결승 상씨름 판을 재조정하기 위해 오선위기 바둑판 패는 세운의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으로 재조정되는데, 일본에게 의탁한 '오선위기 세운판의 주인' 조선은 *칠월칠석삼오야의 1945년 8.15 해방으로 본래의 주인자리로 되돌려지게 됩니다.(*추수도운의 비결로 3,5,7 동지한식 105除 말복도수 출현 의미)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무조건항복으로 패망하면서 지구촌 조화정부의 2차 모델 국제연합이 또한 선을 보이며 종내는 오선위기 패의 핵심인 주인마저 남북으로 갈려 명실상부하게 결승 상씨름 판을 위한 오선위기 판으로 재조정된 것입니다. 1945년 8.15 해방이후 숙구지 문왕 추수도수 안 운산 성도사님의 증산교 대법사의 용화동 천지문턱 2변 교운- 초복 도수는 이러한 세운의 바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추수사명 도안(都安) 세 살림 전체를 포함한 태모 고 수부님의 노둣돌 공사

가 있습니다. 노둣돌은 내를 건너는 징검다리입니다. 노둣돌은 복희팔괘, 문왕팔괘, 정역팔괘에 이어 십일귀체의 용담계사도로 연결되는 용담팔괘임과 동시에 굳이 추수 살림으로 비정比定하면 문왕 도수가 막을 내리면서(2012년 2. 24(양)登天仙化) 사실상 중복도수는 진리적으로 그 사명과 한계를 다했으므로 말복 살림이 들어서기까지 흑운명월 사오미(계사, 갑오, 을미) 개명시대의 진리 혁명과정이 게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증산도 道典 11:308>*(이것이 내 새끼다)태모님께서 팥정이 징검다리를 건너시며 "하나, 둘, 셋, 넷!" 하고 담뱃대로 노둣돌을 세시고 네 번째 돌을 담뱃대로 탁 때리시며 "이것이 내 새끼다." 하시니라.

<선정원경(仙政圓經)>*건존증산(乾尊甑山) 께서 예언(豫言)하사대 "태인(泰仁) 숙구지(宿狗地) 자는 개가 일어나면 산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고씨(高氏)께서 무진(戊辰:1928) 구월도(九月度)에 말씀하시되 "시대(時代)가 불원(不遠) 하니 자는 개를 깨워야겠다" 하시고 신도(信徒) 수십인(數十人)을 영솔(領率)하시고 숙구지(宿狗地)에 행차(行次) 하시와

侍

무진년(戊辰年)인 1928년 곤존 태모 고 수부님께서 잠든 개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숙구지(宿狗地) 공사는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 성도사(聖道師)님이 7세 때로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어린 운산(雲山)은 느닷없이 5일간 식음 전폐하는 수행을 하여 부모님을 놀라게 하고 보통학교(일제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시어 보통학교 3학년을 그만두시고 초통하신 기운으로 수행과 천하사하는 쪽으로 인생의 뜻을 두게 됩니다.

운산 안 흥찬(安興燦) 성도사(聖道師)님은 실제로 상제님 탄신 120주년(1990) 개벽 대성회 모 중앙 월간지 황보 태수 기자와 인터뷰에서 7세 때 문득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깨닫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는 수행을 했으며 그러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5일 만에 그만두고, 다시 불 없는 방에 밀대방석을 깔고 콩, 곡식 가루만 먹는 생식을 하며 8개월 동안 참선을 했

으며, 14세 때쯤(1936) 일제의 모진 탄압으로 보천교가 침체에 빠지자 상제님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하리라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와 조선 팔도와 만주를 주유천하 하며 인간의 세상살이를 직접 체득하신 후 43년에 집에 돌아와 집안의 기둥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식 이튿날 일제에 비협조적이었던 부친이 기왕의 독립운동 자금 전달 탄로로 구금되는 등의 미운털이 박힌지라 조기 징용 통지서를 받았으며 징용 입대 중에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한 후 2년여 세상을 떠돌다 해방을 맞이해 고향에 온 후 상제님 천하사 만을 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천지공사 도운의 핵심인 태모 고 수부님 낙종물 세 살림 도수, 차 경석 보천교 이종물 도수, 경만장 安家 초복, 중복, 말복 세 살림 추수도수의 핵심을 영원히 풀 수 없습니다. 초복도수인 문왕의 도수의 자식들 중에서 중복도수와 말복도수가 무기 오십토 공사로 차례로 천지 정리해 나오기 때문에(都安) 91년 <증산도 道典> 편찬을 위해 안 운산 성도사님 부자父子 2 인人(安雲山, 安耕田)이 처음 방문하자 초면인 김호연 성도의 첫 마디가 '긍게 너 쫓던 사람은 고목인디 거기서 움이 나가지고 그렇게 생긴다 그랬어. 나는 저것들(취재신도들) 끼리라고만 해서 선상들을 안 봤어. 그래서 내가 **"아니 셋인디 어찌 둘이 오냐 오냐 그랬어."(동영상 원본)**

태모님이 첫 개창한 교단은 태을교(太乙敎) 일명 선도교(仙道敎)입니다. 김호연 성도는 선매숭자 도수를 받은 분으로 상제님께서 어린 호연의 첫 달거리(경혈)를 받아 1만2천 도통군자 배출에 대한 태모님의 낙종물 개창의 선맥(仙脈)을 잇는 사명을 내리신 분입니다. 즉 상제님 명으로 때를 기다려 추수종통 사명자를 만나 상제님 천지공사의 핵심내용을 전하고 동시에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태모님의 선맥(仙脈)의 종통기운을 직접 전해주기 위해 혈

맥관통의 도안 세 살림 도수의 주인공이자 숙구지(宿狗地) 문왕 도수의 주인공인 안 운산(安雲山) 성도사님을 역사 안에서 살아생전 직접 “대면(對面)”함으로써 천지인신(天地人神)의 음양공사로 집행하신 4차원 신명계의 신정공사(神政公事)가 도운사(道運史)위에 발현(發顯)하게 역사(役事)하셨습니다. 김 호연 성도는 어린 시절 증산 상제님을 직접 모신 성도로 상제님의 특명으로 선매숭자 도수의 선맥을 전하기 위해 세 살림 도수의 주인공인 숙구지 문왕 도수의 주인공이 찾아오기를 평생 기다린 분입니다.

<증산도 도전(道典)>에 ‘하루는 공신이 이르기를 “우리 일은 삼대(三代)밖에 없다.” 하니라.’ 합니다. 이는 서전서문 일 만 독을 명받은 이 치복(李致福) 성도에게 도를 받아 보천교도가 된 부친 안 병욱(安柄彧)으로부터 시작해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과 그 혈대 자식에 이르기까지 신앙역사가 혈대(血代) 3대인 3막(幕)으로 매듭지음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초복 도수인 숙구지 문왕의 사명 도수로 본다 해도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경만장 초복, 중복, 말복 세 살림 도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평생을 상제님 문왕 도수 초복 개창 책임자에게 도를 전하는 천명(天命)을 기다리고 산 김 호연 성도가 막상 당사자가 찾아가자 생면부지의 초면에 입 열자마자 개구벽두(開口劈頭)의 첫 인사가 삼부자인데 어찌 둘이 오냐는 말씀으로 대한 것입니다.

<증산도 道典>(安家 雲山도맥 都安 세 살림)*상제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아따 저 놈 ‘무식영웅’이라!” 하시고 손을 떼시니 과연 ‘경만(敬萬)’이란 글자가 쓰여 있더라. 이어 상제님께서 이르시기를 “운암강수(雲岩江水)가 만경래(萬頃來)라. 김만경(金萬頃) 뜰을 가지고 천하사 세 번 못하겠느냐.” 하시고 “너희들 내성이한테 ‘경만장, 경만장’ 하면서 세 번씩 외우라.” 하시니 성도들이 모두 명하신 대로 하니라. 상제님께서 다시 내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존경할 것이다.”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5:198>*(운산리 신경수의 집에 가시어) “이곳이 운산(雲山)이 아니냐. 운암(雲岩) 물줄기를 금만경(金萬頃:천하사 세 번 세 살림 하는 원천)으로 돌

리더라도 하류에서 원망은 없을 것이니 이 물줄기가 대한불갈(大旱不竭)이라. 능히 하늘을 겨루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강태공은 제(齊)나라 한 고을의 흉년을 없게 하였다 하나 나는 전북 일곱 고을의 큰 흉년을 없게 하리니 운암은 장차 만인간의 젖줄이 되리라."

<새시대 새진리(안운산 종도사 어록>*상제님은 안 내성 씨를 중하게, 긴요하게 쓰기 위해 아주 심하게 박대를 하셨다. 그러고서 안 내성 씨에게 태을주(율려 도수)를 전해주신 것이다.

<증산도 道典>*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다가 일꾼이 없음을 한탄하시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하시더니 내성을 보시고 "갈보야, 칠보야! 짧달막한 네가 있구나!"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소나 돼지를 잡아도 내성에게는 "저놈은 뼈다귀만 줘라." 하시며 고기 맛을 못 보게 하시고 국물만 큰 그릇에 하나 가득 주시며 "너는 국량이나 키워라." 하시더니 하루는 한 성도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저 장 닭 큰 놈 한 마리 잡아 푹 삶아서 내성에게 주고 깃털과 뼈다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해라. 안 먹으면 큰일 나니 다 먹으라고 해라." 하시니라. 그 성도가 명하신 대로 닭을 삶아 내성에게 주며 상제님의 말씀을 전하니 굶주린 내성이 털 째로 삶은 장닭을 정신없이 다 먹은 뒤에 입맛을 다시며 상제님께 와서 "다 먹었습니다. 터럭 하나 안 남겼습니다." 하고 아뢰거늘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아따 그놈, 계룡산 도둑놈이로구나!" 하시니라.

<선도신정경>*(무진(1928)년 숙구지 공사로 자던개(安家 세살림 시작을 알리는 문왕 도수)를 깨우시고) 기사년(己巳年:1929) 정월(正月) 초삼일(初三日) 치성(致誠)을 드릴 새 고후비님(高后妃任)께서 헌작(獻酌)을 드리고 나서 모든 도중(道衆)들이 반천무지사배(攀天撫地四拜)를 드린 후(後) 고후비(高后妃)께서 도중(道衆)에게 가라사대 이제부터 세 번(三番)을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라고 읽도록 하라 지시(指示) 하시거늘 말씀에 따라서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라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라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라 읽으니라

*참고:<증산도 道典 11:119>에는 거미일화만 싣고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 일화 전체부분이 생략됨. 무기 오십토(五十土)는 천지공사 인사집행의 총 결론으로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한 대목. ※※※하도 중궁 오십토(五十土)는 15진주 지도자를 상징하는 공사로 3명의 지도자가 차례로 천지정리해 나오며 완성된다.

<선도신정경>*(세 번(三番)을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 천지(天地)의 귀신(鬼神)도 모르는 일)고후비님(高后妃任)이 김제(金堤) 조종(祖宗)골을 떠나오

실 적에 육임(六壬)과 팔괘(八卦)와 십이(十二)며 이십사(二十四)를 싸 가지고 오시다가 육임(六壬)과 팔괘(八卦)는 김제(金堤)에 오시어 땅(地)에다 묻으(埋)시고 땅(地)을 세 번(三番) 구르시더라 또 십이(十二)는 이리(裡里)에 가시어 묻으시며 땅(地)을 세 번(三番) 구르시고 바둑(碁)돌과 윷판(板)은 옥구(沃溝)에다 묻게(埋)하시고 종도(從徒) 열 사람(十人)을 데리고 공사(公事)를 행(行)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오십토(五十土)를 세(三) 곳(處)에 나누어 놓았느니라 내가 마음먹고 하는 일은 천지(天地)의 귀신(鬼神)도 모르는 일이니라

侍

⁂ 전체 퍼즐을 맞추기 위한 난법에서 진법으로의 총론

주 문왕周文王을 모신 영대灵台. 감숙성甘肃 평량시平凉市 영대현灵台县 영대 성城内.

상제님 진리의 난법은 진법을 내기 위해 진법을 숨겨 길러주는 자양분입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는 시유기시(時有其時) 운유기운(運有其運) 인유기인(人有其人)—때에도 그 때가 있고 운에도 그 운이 있으며 사람도 그 도수를 담당한 그 사람이 있게끔 천지공사로 도수를 짜놓았습니다. 물샐틈없이 짜놓은 각종 천지공사 인사문제의 비밀 퍼즐이 때가 되어야만 드러나도록 인사각지(人事刻之)로 프로그래밍해 놓았습니다.

즉, 인사각지(人事刻之) 천지공사를 문왕의 도수를 부치신 문 공신(文公信) 성도에게 부쳤기 때문에 문왕(文王)의 도수와 안 내성 성도의 도안(都安) 세살림 도수를 동시에 받으신 운산(雲山) 안 세찬(世燦:興燦) 성도사(聖道師)님의 거취에 의해 비밀 퍼즐이 드러나게 해놓았습니다.

지난 105년간 진법이 드러날 수 없었던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기(砂器=邪氣)는 김제로 옮겨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해방 이후 2변(초복도수)을 개척한 운산 안 흥찬 총 사수와 이 상호·이 정립 형제에 얽힌 실상이 이 상호·이 정립 형제에 의해 뿌리부터 철저히 왜곡 말살되고 1945. 8.15 해방 직후의 2변 교운사(초복도수)에 대해 철저히 날조된 이 정립의 <증산교사(甑山敎史)>에 의해 그 근본이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제님 삼변성도의 추수 사명 운로는 후진주로서 문왕의 도수를 받은 도안 세 살림의 주인공 안 운산 성도사님의 일동일정에 의해 모든 것이 출렁이며 움직이는 운로입니다. 상제님께서 하루는 종도從徒들에게 옛글 한 수首를 외워주시며 가라사되 이글은 세상비결世上秘訣이니 잘 기억記憶하여두라 하시니 삼인동행칠십리三人同行七十里, 오로봉전이십일五老峯前二十一 칠월칠석삼오야七月七夕三五夜,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라 하셨습니다.(칠월칠석삼오야의 3×5=15는 7월 '백중' 만사개중, 만사적중과 중첩)

상제님 어천하신 1909년(己酉)이후 105년간은 경만장 안 내성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도안(都安) 추수 도수의 세 살림 도수가 철저히 감추어져 은장(隱藏)된 춥고 어두운 시절입니다.(암흑천지근백년) 이 기간은 낙종물 이종물 도수를 이어받은 문왕의 도수 사명자가 때가 되어야 피어나는 시절화(時節花)-'일만이천 도통군자'의 씨(仁)로서 초복 도수 추수 사명자로서 중복 지도자와 말복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 천지 우주 삼계에 몸부림치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입니다.

칠월칠석삼오야七月七夕三五夜는 기유년(도기 39, 1909) 천지공사 종필 이후 지난 105년간 풀지 못한 천기天機였습니다.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와 짝을 이루었으니 당연히 105년 만에 봉인封印이 해제되는 천기입니다. 칠월칠석날은 바로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극적인 날입니다.(3×5×7=105) 이 극적인 날은 바로 흑운명월 도수로 105년 만에 경만장 안내성 성도의 운암강

수만경래 도안 세 살림 칠성 도수가 밝혀지는 날입니다. 보통 보름은 십오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삼오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보름달이 떠오르는 보름이라도 무언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 시는 바로 칠성 도수를 붙인 안 내성 성도 도안 세 살림 도수와 연결되어있는 내용이며 태모 고 수부님이 칠월칠석날 오성산 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오성산 성덕리 사는 고 민환 성도(칠성 용정도수의 주인) 앞뜰 가운데 자리를 베푸시고 내성대업(乃成大業)의 축원을 사례(謝禮) 하신 공사와 직결되는 시입니다. 삼오야三五夜의 삼三은 앞 귀절 삼인동행칠십리三人同行七十里의 삼인三人 세 살림과 서로 대귀를 이루며 삼오야三五夜의 오五는 태모님의 무기오십토戊己五十土 공사의 오五입니다.(3×5×7=105년 뒤 갑오년 추수말복 진법 출현)

<선정원경(仙政圓經)>*기묘년 칠월(七月) 칠석 절(七夕節)에 고씨(高氏)께서 신도(信徒) 십여 인(十餘人)을 영솔(領率) 하시고 임피군(臨陂郡) 오성산(五聖山) 에 공사(公事)가 있어 가겠으니 행구(行具)를 준비(準備)하라 명(命) 하시고, 익일(翌日)에 발정(發程)하사 성덕리(聖德里) 고 민환(高旻煥) 가(家)에 좌정(坐定) 하시고, 그 밤에 정중(庭中)에 설석(設席)하사

<선정원경(仙政圓經)>*동서남북(東西南北)과 중앙(中央)에 명촉(明燭) 하시고 주안(酒案)을 성비(盛備)하여 오성(五聖)의 위(位)와 산신위(山神位)를 존설(尊設) 하시고, 신도(信徒)에게 명(命)하사 진법주(眞法呪) 삼칠독(三七讀)과 진액주(津液呪) 사십구독(四十九讀)케 하신 후에 주효(酒肴)로 근공지행(勤供之行)을 하시며, 천지무궁무극(天地無窮無極)의 대도(大道)를 참역(參役)하야 내성대업(乃成大業)의 말씀을 하시며 사례(謝禮)를 하시고, 회향지례(回向之禮)로 기동(起動)하시니라.

侍

「삼국시절三國時節이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라 하신 사마소 도수의 핵심은 삼국 정립의 주인공인 유비, 손권, 조조 그 누구도 삼국통일을 못하고 죽은 뒤 엉뚱한 사마중달이 위(魏)나라를 위해 제갈공명과 맞서면서 사마씨(司馬氏) 가문의 기반조성을 하고 병사하자 사마사(司馬師)가 조정의 대권을 장악해 부친 사마중달보다 더 큰 위엄을 떨치게 되고 동생인 무명의 사마소(司馬昭)가 뒤를 이어 촉을 멸망시켜 지루했던 삼국정립을 깨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다는 왕대밭에 왕대 나는 도안(都安)세 살림의 내용입니다.

난법은 진법을 감추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범 증산계 교단의 지나온 105년간의 과정을 보면 문왕의 도수와 안 내성 성도의 도수에 관심을 가진 교단이 없고 대부분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용화전경>' 하는 성구를 기반으로 증산 상제님을 하늘 상제님으로 박제화 시켜놓고 이를 넘어서는 땅 상제니 인간 상제니 하여 아주 그럴싸하게 단체를 운영해 온 동지한식백오제의 기간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종통문제로 이를 재해석해 보면 이는 문왕의 도수로 이어지는 진법을 감추어주는 역할을 해 온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문왕의 도수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아주 험악한 가시밭길 여정입니다. 상제님은 '문왕의 도수와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리라.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 하셨습니다. 문왕의 도수를 표방하고 단체를 만들어 지도자 노릇하라 하면 누구도 못할 괴로운 일입니다.

역경만첩의 어려운 운명길이므로 기존의 어떠한 교단 지도자일지라도 문왕의 도수를 표방하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함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편하고 쉬운 도수를 표방하고 가야 했겠지만 반대급부로 편하고 쉬운 길에는 다음과 같은 천지인신(天地人神) 수찰(垂察)의 댓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공사에 없는 법으로 행동하고 자작자배(自作自輩)하는 놈은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증산 상제님 진리에는 천지공사로 집행해 놓은 도수(度數)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인물이 튀쳐 나와 그 시간대에 벌어질 천지대업-우주 사명을 이루도록 천지인신(天地人神) 변수를 4차원 시공 속에 입력해 넣은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문왕과 이윤의 도수라든가 사마소 도수라든가 일등방문 안 내성 성도에게 붙여놓은 다양한 공사 내용은 모두 종통에

대한 공사내용입니다.

그런데 증산 상제님을 신앙했던 특정 신도가 단체를 만들어 증산 상제님을 넘어서는 천지공사를 별도로 집행한다 하고 지존 상제님이니 인존 상제님이니 선언하고 나면 증산 상제님이 집행하신 천지공사의 콘텐츠 내용인 특정도수는 모두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증산 상제님 천지공사 핵심인 문 공신 성도 문 왕의 도수와 안 내성 성도의 종통 도수도 쓸모가 없을 뿐더러 여러 추종 성도들의 다양한 도수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레나를 제거하고 초대 교황직을 빼앗은 베드로와 곤존 고 수부님을 신앙에서 제거하고 그 공백을 채운 조 철제, 박 한경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만일 상제님 신앙권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된 그들이 증산 상제님을 능가하는 법력과 화권을 가진 지존의 상제가 사실이라면 굳이 그보다 못한 증산 상제님의 도권을 표방해 증산 상제님이 집행하신 천지공사 진리권 내에서 곁방살이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을 능가하는 법력과 화권을 가진 지존의 상제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증산 상제님을 내세울 아무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아무개 도라고 본질부터 뜯어고쳐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는 결국 증산 상제님 초장봉기지세의 각종 교단 운로 속에 홀생홀유(忽生忽有)하는 예정된 난법 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공신(文公信) 성도에게는 문왕(文王)과 이윤(伊尹)의 도수와 독조사 도수 그리고 끈 도수와 천지대팔문 도수를 부치셨습니다. 상제님은 공사마다 각기 다른 추종 성도를 참여시켜 인사각지(人事刻之)로 서로 알지 못하게 퍼즐처럼 도수를 짜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천지공사의 전체 퍼즐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인사각지(人事刻之) 도수

숙구지 문왕 도안(都安) 초중말복 세살림 추수사명자 안운산 성도사님

를 문왕의 도수를 맡긴 문공신(文公信) 성도에게 맡긴 것은 문왕(文王)의 도수를 중심으로 막판에 천지공사의 전체 퍼즐인 인사 비밀이 드러나게 짜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제님 어천 이후 낙종물 사명과 이종물 사명 그리고 무진년 구월도 숙구지 공사로 깨어난 문왕 도수의 기두 이후 초, 중복 추수 도수에 이르기까지 105년간은 진리의 전체 퍼즐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문왕의 도수 책임자이신 안 운산 성도사(聖道師)님 선화 이후(2012.2.24.(陽)) 검은 구름의 장막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한 가운데 갑자기 새 희망의 밝은 달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이름하여 <풍류주세백년진風流酒洗百年塵>의 105년간 풀지 못했던 백년 티끌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풍류주(風流酒) 세례(洗禮)의 밝은 명월(明月)입니다. 태모님이 1911년 개창한 선도교(태을교)창립 이래 백년간은 각종 교단이 물중전의 본을 보이며 초장봉기지세(楚將蜂起之勢)로 일어나 백 년 동안 풀지 못하는 종통의 의혹인 백년진(百年塵) 시대를 유지합니다. 백년진(百年塵)의 백년 티끌은 암흑천지근백년 천지공사로 봉인(封印)된 의혹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의혹을 버리지 못하는 연고라. 이곳이 곧 일만 이천 도통군자를 배출하는 –비로자나 장엄장–, 선방(仙房)이니라.(금산사 미륵전 앞 대적광전 주불은 비로자나불, 협시불은 석가불과 노사나불)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수운가사水雲歌詞에 「제소위추리所謂推理한다고 생각나니그뿐이라」 하였나니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아니함은 의혹疑惑이 더하는 연고緣故라 이곳이 곧 선방仙房이니라

그러나 동시에 백년간 묵은 티끌(百年塵)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줄 풍류주세(風流酒洗)의 달 하나가 휘영청 떠오릅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신 “임피(臨陂)는 흑운명월(黑雲明月) 도수(度數)니라 하시며 또 가라사대 상제(上帝)께서 섣달 그믐날 저녁에 임피(臨陂)에서 달뜨게 하셨음을 알라”<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하신 소위 흑운명월 도수입니다.

문왕 도수의 초, 중복살림에서 말복 살림으로 넘어가는 섣달그믐은 달이 완전히 이지러져서 빛을 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왜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암흑 속에서 느닷없이 임피에서 휘영청 달이 떠오를까요? 이는 진리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된 듯한 어둠 속에서만이 말복 도수의 시절화(時節花: 철따라 피어나는 참종자 '인물 꽃')가 새로이 피어나게 되어있는 임피 오성산 세 살림 도수 때문입니다.

<선정원경(仙政圓經)>*증산(甑山)께옵서 임피읍(臨陂邑) 강장한(康壯翰) 집에 종종(種種) 내왕(來往) 하신 중 한번은 모야(暮夜) 중(中) 어디를 갔다 자정후(子正後) 당도(當到) 하신지라. 야중(夜中)에 어디를 갔다오시니까 주인(主人)이 문(問)한 즉(則), “오성산(五聖山)에 가서 큰 말뚝을 박고 온다” 하시더라. 차(此) 공사(公事)를 삼차(三次)를 행하시니라.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임피 오성산에 큰 말뚝 세 개 박는 공사*임피(臨陂) 강장한(康壯翰)의 집을 종종(種種) 왕래(往來)하시더니 어느 날 임어(臨御)하사 계실 세 밤(夜)중에 출행(出行)하시려 하거늘 장한(壯翰)이 놀래며 만류(挽留)하여 가로대 어찌하여 밤중(夜中)에 출행(出行)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가라사대(曰) 내가 볼일(管事)이 있노라. 곧 돌아오리니(歸) 그리 알라(知) 하시며 가시더라. 장한(壯翰)이 자지않고 기다리더니 자정(子正)쯤 되여 오시거늘(來) 장한(壯翰)이 물어 가로대 야심(夜深)한 밤중에 어데(何處)를 다녀 오시나이까 하고 여쭈니 대답(對答)하여 가라사대 응 오성산(五聖山)에 다녀오느니라. 장한(壯翰)이 놀래며 다시 묻기

를(問) 밤중에 오성산(五聖山)은 무슨 일로 다녀 오시나이까. 가라사대(曰) 큰 말뚝을(大橛) 박고(揷) 오는(來) 길이니라 하시였으며 그 후(後)에도 이와 같은(如此) 공사(公事)를 세(三) 차례(次例)나 보시였다 하니라.

상제님은 임피 오성산에 세 살림 큰 말뚝을 세 개 박으시고 태모님은 윷판 통일 도수를 묻어놓으셨습니다. 상제님은 종통과 관련한 인사각지(人事刻之) 비밀의 정의도(情誼圖)를 문 공신(文公信) 성도 집 벽 위에 그려 집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왕의 도수 주인공인 운산 안 세찬(世燦) 성도사(聖道師)님의 동정에 의해 새로운 도안(都安) 세 살림의 전 면모가 임피 흑운명월 도수로 휘영청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문왕 도수 문공신 집벽에 인사각지 정의도)무신년(戊申年:1908) 사월(四月)에 문공신(文公信)의 집벽(家壁)에다가 정의도(情誼圖)를 그려 붙이시고(付着) 구릿골(銅谷)로 돌아오시어 김준상(金俊相)의 집 방(房) 한칸(一間)을 수리(修理)하여 만국의원(萬國醫院)을 설치 하실세

증산 상제님이 집행하신 회문산 오선위기 혈은 세운을 주재하고 태모 고수부님이 회문산 오선위기 혈을 옮겨놓은 임피 오성산 오선위기 혈은 도운 세 살림 비밀을 묻어놓은 곳입니다. 태모님을 부인하는 교파에서 천지공사의 비밀을 영원히 알 수 없는 이유는 핵심적인 종통 인사문제가 이같이 건존곤존 음양 하느님의 음양 공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반쪽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왕 도수의 주인공 안 운산 성도사(聖道師)님이 등천선화하신 후 교리기반 자체가 모두 붕괴되어 진리의 암흑시대가 잠시 찾아옵니다. 분노하거나 두려워 뛰는 자, 눈 질근 감고 있는게 의로움이라 생각해 웅크려 엎드린 자, 큰 대자로 누운 자, 진리의 새로운 저울과 잣대로 재고 있는 자 등 우종우형

(于縱于衡), 우종우횡(于縱于橫)의 인사각지(人事刻之) 내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됩니다.

흑운명월 도수는 이같이 주위 사방이 검은 구름, 시커먼 장막으로 둘러싸여 뭐가 뭔지 모를 교의 체계의 혼란(섣달 그믐) 속에 새로운 희망의 밝은 달이 느닷없이 휘영청 떠올라 천지공사의 전 면모 퍼즐이 비로소 소상하게 밝혀지는 도수입니다. 따라서 흑운명월 공사로 인해 도안(都安) 세 살림 말복 도수의 천지공사 전체 퍼즐이 105제를 지나면서 사오미(巳午未) 개명(開明)도수로 샅샅이 밝혀집니다. 태모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어느날 신정공사(神政公事)에 고후비님(高后妃任)께서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무신(戊申) 기유(己酉)에 천지(天地)가 개로(開路)하니 무우뿝다 들킨격 되느니라 옥구(沃溝)는 닷줄 장상지지(將相之地)요 임피(臨陂)는 흑운명월(黑雲明月) 도수(度數)니라 하시며 또 가라사대 상제(上帝)께서 섣달 그믐날 저녁에 임피(臨陂)에서 달 뜨게 하셨음을 알라.

<증산도 道典>임피 오성산 사명당 기운의 세 말뚝*하루는 새울 최창조의 집에 '사명당(四明堂)'이라 쓴 종이를 종처럼 매달아 놓으시고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하시니라.<증산도 道典 5:395> (오성산) 임피로 해서 태전간다. ☞오로봉전 태전해서 가을용 안씨 찾아간다(김천수 옹)<증산도 道典 6:74>"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라.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회문산 오선위기혈은 단주해원 세운 공사, 임피 오성산 오선위기 혈은 단주해원을 매개해 초복, 중복 말복 도수 3명의 지도자 배출하는 교운공사(도운공사)로 음양공사임>

상제님 진리는 태모님 낙종물 세 살림 사명, 차 경석 성도 보천교 이종물 사명, 경만장 안내성 도안 추수도수 세 살림 사명 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무리 도수인 추수 사명 도수의 정체는 그동안 막연히 의통목을 목전에 두고 도운이 크게 굽이치는 숙구지 도수를 통해 임술생 성도사(聖道師)님 당대인 중복책임자 시절 의통목을 마무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도사(聖道師)님이 2012년 불현듯이 떠나시면서 말복도수를 거치

지 않고 의통목이 열린다고 믿어왔던 기존의 중복살림 시절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생각마저 사실은 상제님 은두장미(隱頭藏尾) 천지공사의 일부로 추수도수 세 살림마저 철저히 은폐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말복살림마저 7년 은두장미 칠성도수)

숙구지(宿狗地) 공사는 안 운산 성도사(聖道師)님이 의통목 전에 마지막으로 도운을 굽이치는 공사가 아니라 태모 고 수부님의 무진년(1928) 구월도(九月度) 공사로 잠자는 개를 깨우는 숙구지 공사임이 역설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로써 숙구지 도수와 말점도 도수를 받으신 성도사(聖道師)님이 이러한 문왕도수의 여파로 해방이후 새로운 2변 판(증산교 대법사)을 개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20년 말점도 공사 도수(文王의 유리羑里 유폐)를 받으신 문왕의 도수가 사실은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내리신 초복, 중복, 말복 세 살림도수 중 운암강수 만경래의 세 살림 싹을 틔운 초복(初伏) 도수임이 세상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상제님 천지공사가 일호(一毫)도 착오 없이 실로 무섭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입니다.

2) 본론本論

1) 세운과 교운의 삼변성도(三變成道) 대국과 핵심

증산 상제님 진리는 9년 천지공사와 태모 고 수부님 10년 천지공사인 도합 19년 천지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학 혁명을 거사했다가 실패하고 죽은 전 명숙(봉준) 장군을 도사공 삼아 선천 5만 년 모든 만고 역신(逆神)은 교운(敎運)판에 부쳐서, 적벽대전에서 불타 죽은 사마중달 3부자 가문이 소속한 위나라 조조군사 중 혈식천추 도덕군자만을 뽑아 노 젓는 뱃사공으로 삼아 자신들과 같은 혈식천추 도덕군자만 타게 하여 마지막 해원을 하게하시고, 인륜 기록의 시초이며 원의 역사의 처음으로 왕위승계를 못 받고 원억(冤抑)을 품고 죽은 단주(丹朱)를 필두로 한 만고 원신은 한반도 오선위기 세운(世運) 국제 정치(세계운로)판에 부쳐 모든 원한을 풀게 만들어놓으셨습니다.

<동곡비서(銅谷秘書):성화진경>*또 가라사대 "원한의 역사의 처음인 요임금의 아들 단주(丹朱)의 깊은 원을 끄르면, 그로부터 수 천 년 동안 쌓여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대저 단주를 불초하다하여 천하를 맡기지 않고, 요임금이 그의 두 딸과 천하를 순(舜)임금에게 전하여주니 단주의 깊은 원을 뉘라서 만분의 하나라도 풀어주리요. 마침내 순임금은 창오산에서 죽고, 그 딸인 두 왕비는 소상강에 빠져 죽으니라. 그러므로 단주해원으로 위주하야 모든 일에 원한을 없게 하고, 해원의 노정으로 나가게 하노라."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무릇 머리를 들면 조리條理가 펴임과 같이 인륜기록人倫記錄의 비롯이오 원寃의 역사의 처음인 당요의 아들 단주의 깊은 원을 풀면 그뒤로 수천년數千年동안 쌓여 나려온 모든 원이 마듸와 고가 풀릴지라 대저大抵 당요唐堯가 단주丹朱를 불초不肖히 여겨 두딸을 우순虞舜에게 보내고 드디여 천하天下를 전傳하니 단주丹朱는 깊이 원을품어 그 분울憤鬱한 기운의 충동衝動으로 마침내 우순虞舜이 창오蒼梧에 죽고 두 왕비王妃가 소상消湘에빠진 참혹慘酷한일을 일우었나니 일로부터 원의 뿌리가 깊이 박이고 시대時代의 추이推移를 따라 모든 원이 덮붙여서 더욱 발달하야 드디여 천지에 가득차서 세상世上을 폭파爆破함에 이르렀나니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그럼으로 단주丹朱解원을 첫머리로하고 모든 천하天下를 건지려는 큰 뜻을 품고 시세時勢가 이롭지 못함을 인因하야 구족九族을 멸滅하는 참화慘禍를 당當하야 의탁依託할곳이 없이 한恨을 먹음고 천고千古에 떠도는 만고역신萬古逆神을 그다음으로하야 각各히 원통과 억울抑鬱을 풀어 혹或은 행위行爲를 바로살펴 곡해曲解를 발우며 혹或은 의탁依託을 붙여 영원永遠히 안정安定을 얻게 함이 곧 선경仙境을 건설建設하는 첫거름 이니라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원래元來 역신逆神은 곧 시대時代와 기회機會가 지은바라 그 회포懷抱를 일우지 못하야 원한이 하늘에 넘치거늘 세상世上사람들은 사리를 잘알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야 비比할대없는 악평惡評으로써 일용상어日用常語에 모든 죄악罪惡의 머리로 일커르니 역신逆神들은 그것을 크게 실허하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든 역신逆神을 만물萬物가운데 시비是非없는 성수星宿로 붙여보내리라 하늘도 명천明天과 노천老天의 시비是非가 있고 땅도 후척厚堉의 시비是非가 있고 날도 수한水旱의 시비是非가있고 때도 한서寒暑의 시비가 있으되 오직 성수星宿는 시비가 없나니라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말씀하시되, “당요, 우순의 세상에 단주가 정치를 했다면 요복과 황복,(요복(要服)은 王畿에서 2천리 떨어진 변방. 황복(荒服)은 왕기에서 2500리 떨어진 변방)의 제도가 없어졌을 것이오, 만이(蠻夷:남만,동이)의 명칭이 없어졌을 것이오, 만 리가 지척처럼 가까워지고 천하가 일가했으리니, 요순시절의 도는 이에 비해 너무나 협소했노라.” 말씀하시되, “단주의 원한이 하늘 끝까지 높이 사무쳐서 순이 호남성 창오에서 붕어하고, 아황과 여영 두 왕비가 동정호 소상 강에서 참혹하게 빠져 죽었노라.”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말씀하시되, “이로부터 쌓인 천하의 크고 작은 원한이 큰 화를 빚어내어, 인간세상이 거의 진멸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이제 단주의 원한을 풀면, 만고의 축적된 수많은 원한이 마치 매듭이 풀리듯이 풀리노라.”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말씀하시되, “선경세계에 단주가 세운(世運:정치판)를 통할하노라.” 말씀하시되, “나는 만고의 역신(逆神)을 거느리노라.” 말씀하시되, “만고역신이 온 천하를 경천위지하는 큰 재주를 갖고 광구천하의 큰 뜻을 품고 일어났으나, 시세가 불리하여 멸족의 화를 당하고 천추에 몰락했거늘, 반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적 놈이라는 평을 받아 그러한 시비를 싫어하므로, 이제 각기 그들의 원을 따라, 만물가운데 시비가 없는 별자리로 붙여 보내어, 각기 안정시키노라.” 말씀하시되, “하늘도 명천과 노천의 시비가 있고, 땅도 후토와 박토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느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오선위기 세운판은 3막인 1) 애기판, 2) 총각판, 3) 상씨름의 삼세판으로 만고 원신의 대 천지 해원굿을 차례대로 연출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며, 초장봉기지세(楚將蜂起之勢)의 난법 교운판 속에서 천하사 일꾼들이 출현하는 도운판 운로 역시 3막인 1) 낙종물 사명, 2) 이종물 사명, 3) 추수 사명 등의 삼세판을 배경으로 만고 역신의 천지 해원굿을 차례로 연출해 가게 됩니다.(3변성도의 전체 틀은 敎運, 추수사명의 세 살림은 道運) 그리하여 추수 사명 세 살림의 마지막 정점인 세 번째 도안(都安) 말복 살림에서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도 전혀 손댈 수 없는 한반도 49일, 전 세계 3년 괴질이 창궐하는 의통목이 닥칠 때 천하사 6임군 의통(醫統) 성업으로 인류를 구원하도록 도수(運路;스케쥴)로 짜놓으셨습니다.

<동곡비서>* 또 가라사대 “일을 해야 되니 김 성국을 데리고 오라. 천지공사를 결정하자. 우리끼리 일했으나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또 손을 오므리시고 “이 손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방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친단 말이다.” 또 가라사대 “나의 일은 상씨름 씨름판과 같으니라.

<동곡비서>*상씨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서 누워서 시치렁코(시치렁코) 있다가, 상씨름이 난다고(나온다고) 야단들 칠제 그때야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와서 '어우(어유), 상씨름 구경하러 가자. 끝이(끝내기) 여기 있다. 노른(누런) 장닭 두 홰 운다. 상 씨름꾼 드르오라(들어오라)' 벽역(벽력)같이 고래장치니 어느 뉘가 당적 할까. 허허 허 참봉이로고. 소 딸 놈은 거그(거기) 있든감만. 밤새도록 헛 춤만 추었고나. 육각소리 놉피 뜨니 상씨름이 끗이 났다.” 하시니라.*<동곡비서>

<대순전경 초판>*현하(오늘날, 현재)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느니라.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내 일은 세 번 변하여 판을 이루노라. -我事 三變成局也-”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말씀하시되, “바야흐로 지금 천하의 운세가 씨름판과 같아, 먼저 <애기 판(동몽지시)> 씨름이 있고 다음에 <총각 판(총각지시)> 씨름이 있으며, 마지막 결승씨름판으로 연장자끼리 하는 <상씨름 판(장자지시)>이 있어 판을 마치나니, 그러므로 상씨름을 원하는 자는 판 밖에서 잘 먹고 힘을 길러, 상씨름이 넘어가는 막판에 한번 기세를 몰아부쳐 판을 매듭짓느니라.”

<용화전경>*천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 판이 지나고 또 총각 판이 지난 후

에 상씨름이 붙나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느니라 하시고, 또 씨름판대는 삼팔선에 두고 만국재판소는 우리나라에 두노라 하신지라.

첫 번째 씨 뿌리는 낙종물 사명이 1.대흥리, 2.조종골, 3.(왕심리-통합교단-오성산) 세 살림이듯이 두 번째 차 경석 성도의 보천교(원명은 普化敎) 이종물 사명에 이은 마지막 추수사명 역시 숙구지(宿狗地) 초복 도수로 깨어난 문왕이 기두(起頭)하는 도안(都安) 세 살림입니다. 인사각지(人事刻之)로 짜놓은 의혹의 천지공사, 인사문제 퍼즐(百年塵)이 동지한식백오제의 기간(1909-2014)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문왕의 도수 기두와 퇴장을 중심으로 인사 비밀의 전 면모와 핵심이 사오미(巳午未:계사(1913), 갑오(1914),을미(1915)) 개명장(開明場)에 훤히 드러나게 짜놓았기 때문입니다.(日出寅卯辰 事不知 日正巳午未 開明)

결론적으로 백오제(百五除) 105년간의 난법은 절대악이라기 보다는 진법을 양육하는 통과의례였던 셈입니다. 따라서 백오제(百五除) 이전의 105년간의 세월은 사실상 전체 퍼즐이 봉인된 채 암흑에 가려진 신앙을 해야 하는 눈뜬 봉사 시대일 수밖에는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태모님이 후속 집행하실 세 살림 공사를 위해 야밤에 오성산에 출타하시어 미리 천지에 큰 말뚝을 박아 질정(質定)하시는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는 문왕의 도수와 독조사 공사 그리고 이윤의 도수를 맡은 문공신 성도 집 벽 위에 인사각지(人事刻之) 정의도(情誼圖)를 붙여놓아 상제님 재세시(在世時)에 보신 모든 천지공사의 인사 비밀내용이 문왕(文王)의 도수 주인공을 중심으로 세 살림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도(情誼圖)는 문왕의 도수를 받은 인물의 기두(起頭)와 동정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운암강수 만경래 초중말복 세 살림 도수의 인사문제(人事刻之)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만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정교한 오토매틱 청사진입니다. 정의도의 천지지주장(天地之主張)은 천지가 주장한다는 것이요, 음양지발각(陰陽之發覺)은 대우주 음양원리가 품고 있는 인사문제의 가장 중요한 천기(天機), 현기(玄機)가 때가 되면 세상에 터져나와(발각) 만물지수창(萬物之首唱(倡))으로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천지가 인사문제의 현기, 천기를 활짝 터뜨려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 천지지주장(天地之主張) 음양지발각(陰陽之發覺)입니다.

인사각지(人事刻之)란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도수로 프로그래밍 해 스스로 작동되도록 운로(運路)로 짜놓은 인사문제의 자동화 청사진, 다시 말해 종통(宗統)의 오토매틱(automatic) 설계도입니다. 만물지수창(萬物之首唱(倡))은 인사의 주인공이 만물의 우두머리임을 주장 또는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사각지(人事刻之)로 입력해 넣은 중심인물이 때가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 진리판의 리더로 등장해 바른 길로 인도(倡)한다는 것입니다.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사월四月에 공신公信의집 벽壁에 정의도情誼圖를 그려 붙이시고 구릿골로 돌라 오신후에 백남신白南信에게서 돈천냥千兩을 갖어오사 김준상金俊相의 집에 방房 한간間을 수리修理하고 약방藥房을 차리실새 공우公又로 하여금 고부古阜에 가서 장판을 사오라하사 깔으시며 가라사되....

<동곡비서>*11월에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신경수의 집에 머무르시며 종도 20여명을 동리 문공신(文公信)의 집에 모으시고, -천지지주장 만물지수창 음양지발각(天地之主張 萬物之首倡 陰陽之發覺)-이라 쓰시며, 기국 중앙에 다섯 장점을 배치함과 같이 정의(情誼) 다섯을 쓰시고, 네귀와 중앙에 글을 쓰사 문공신의 집 벽상에 붙이시고.....

<대순전경 초판>*12월에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신 경수의 집에 머무시며 종도 20여인을 동리 문 공신의 집에 모으시고 "천지지주장(天地之主張), 만물지수창(萬物之首唱), 음양지발각(陰陽之發覺)"이라 쓰시며 기국(바둑판) 중앙에 다섯 장점(화점)을 열치(배치포석)함과 같이 "정의(情誼)" 두 자를 지면 사우(네 모퉁이)와 중앙에 열서(벌여 적음)하사 문 공신의 집 벽상(벽 위)에 붙이시고.....

태모 고 수부님의 정읍 대흥리 포정소와 조종골 도집 터(첫째, 둘째 살림)

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태모님 10년 천지공사의 결론은 세운과 교운(도운) 두 줄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세계 정치운로인 세운(世運)과 세운의 변화 속에서 물중전(백화점)의 본(모델)처럼 초나라 장수들 벌떼처럼 일어나는 초장봉기지세의 온갖 교단 속에서(敎運) 숙구지 문왕 도수 사명자가 역경만첩을 딛고 세 살림 추수 도운의 진법을 들춰내어 마지막 통일 윷판말복 도수로 모든 것을 매듭짓고 의통 성업을 이루는 진법도운(眞法道運)이 상제님 진리의 결론입니다.

진법도운의 종통맥 1막은 곤존(여성 하느님) 태모 고 수부님의 대흥리 선도교(태을교) 교단개창으로 씨를 뿌린 낙종물 사명으로 모두 세 살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살림은 신해년(1911) 상제님 성탄치성을 모신 후 쓰러지셨다가 도통한 이후 교단을 개창한 대흥리 살림입니다. 후천은 음이 체가 되므로 삼라만상의 곤음의 상징이자 만 여성의 대표로 교단을 개창하심으로써 예수의 수석 제자인 마리아 막달레나 조차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사도들로부터 축출되어 초대교황에 오르지 못한 선천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상 처음으로 후천개벽을 맞이하여 상제님 진리권에서 남녀평등을 처음으로 이뤄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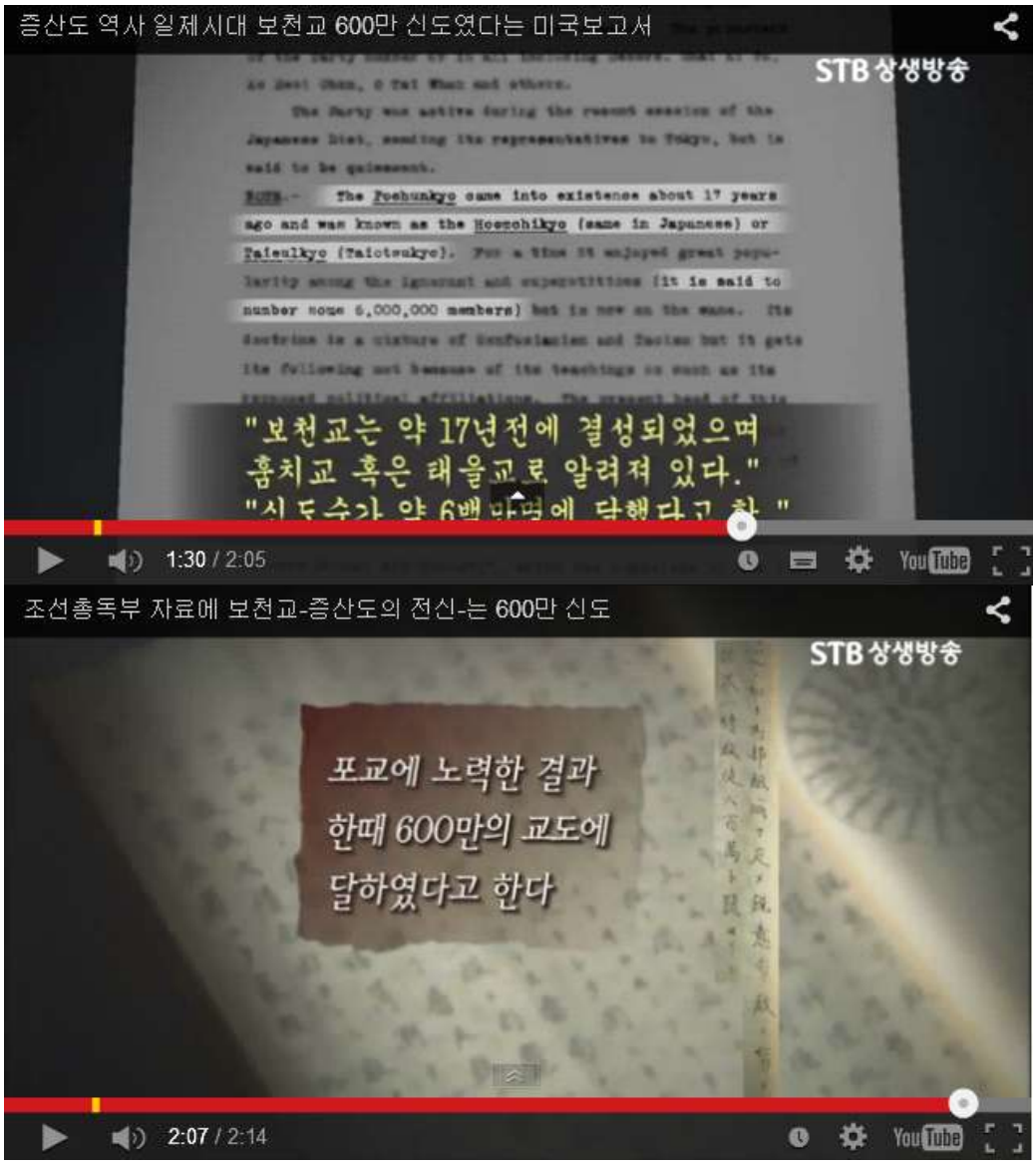
나머지 두 살림은 강(姜)씨 성 집성촌인 조종골 두 번째 살림과 ①왕심리 살림 ②왕심리-동화교와의 통합 살림의 과도기를 거쳐 ③오성산 세 번째 살

림으로 1926년부터 1935년 어천하실 때까지 10년 천지공사 대단원의 음도수를 마치시기까지가 1막 5장의 낙종물 사명입니다. 차 경석 성도의 일제하 600만 보화교(보천교) 시대의 이종물(이앙) 사명은 1장 1막이고 마지막으로 안 내성 성도에게 부치신 경만장 운암강수 만경래 김만경 평야 세 살림 추수 사명은 1막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모님의 조종골 살림에 이은 세 번째 살림은 다시 왕심리 살림과 이 상호와의 용화동 동화교와 왕심리 통합교단을 거친 뒤 마지막 오성산 교단 등 세 살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흥리 살림 시절은 차 경석 성도가 예문납객(禮門納客)이라 해서 태모님 방에 발을 치고 자신을 통해서만 신도에게 인사를 받게 한 고립정책이 있었습니다.

태모님께서 머무신 왕심리 살림 터&오성산 살림 터(성흥사 사찰)
태모님 세 번째 살림은 왕심리,용화동 통합교단,오성산 3살림으로 이루어짐

또한 이 상호(본명:明鐸)·이 성영(본명:誠鐸) 형제 두 사람은 목포에 수감되었을 적에 모든 책임을 얼굴도 모르는 태모님에게 덮어씌워 태모님으로 하여금 감옥 생활 하게 만든 적도 있을 정도로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뒤에는 자신들이 주인공 추수사명자인 해도진인(海島眞人)으로 자처하여 욕속부달(欲速不達)의 허황된 욕심으로 자신들에게 진리를 전해준 스승이자 이종물 사명자인 차 경석 교주를 조속히 옹립시킨 뒤 차 교주를 축출하여 교권을 차지하고자 공개적으로 보천교 혁신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총독부 공식집계 기독교 인구 20만 시절 <미 워싱턴 문서보관소>의 600만 신도 보천교 통계 기록& <동경 유형문화재 자료실>의 조선총독부 공식자료 中 600만 신도 보천교 통계 기록. <미 국립문서보관서 발굴 자료>는 일제하 미국 총영사 밀러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식민지 백성의 동향 보고서. 1925년 일제하 <치안유지법>이 발동되면서 가장 강력한 항일 민족운동단체 <보천교>의 신도가 당시 600만이었음을 보고함.

게다가 당시 서슬 퍼런 일제당국에게 이중으로 매수되어 사주를 받은 청음 이 상호·이 성영(정립) 형제는 비밀교단인 보천교와 신비의 베일에 싸여 얼굴도 모르는 차 경석 성도를 조선총독부에 공개화 시키기 위해(보천교 양해

사건) 경성 경무국 수사원, 경기도 경찰국 5인을 직접 인솔 안내해 차 교주 비밀거처인 함양 황석산 입구 우전리에 숨어있던 차 경석 교주에게 직접 찾아가 교주신상 및 교단공개를 압박해 결국 공개시킵니다.

이 상호가 주도한 이 "보천교 양해" 사건은 일제하 비밀 방주 제도로 운영하던 보천교가 향후 일제에게 보천교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운명으로 바뀌고 이를 계기로 일제하 보천교를 강제 해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인 "보천교 신법"이 제정되고 끝내는 1936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체당하는 불행한 변곡점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제는 조선총독부 공식 통계상 600만 신도로 식민지 치하에서라도 폭발성이 강해 함부로 다룰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민족종교 보천교를 비로소 손바닥 위에 발가벗겨 놓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인 소위 밀당을 하며 언제든지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 됩니다.

일제는 마침내 교주 차 경석 성도가 선화하자 정리하는 때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고 민족종교 보천교에 대해 마침내 "보천교 신법"까지 제정해 유사종교 해산령이란 미명하에 1936년 보천교 강제 해산령으로 단체를 해산하고 대흥리 십일전(十一殿)을 비롯한 보천교의 각종 부동산 및 재산은 모두 압수하고 강제 경매 처분해 버리고 맙니다.

이때 경복궁 근정전보다 더 크고 웅장했던 정읍 대흥리 십일전 본소는 강제 해체되어 일부는 경성(서울) 종로1가의 태고사(太古寺) 대웅전이 되는데 이는 원래 한 용운, 이 회광 등의 노력으로 1910년 5월에 각황사 (覺皇寺)로 세워져 불교의 중앙 종무원 역할을 하다가 1938년 태고사로 바뀌어 뒤에 다시 조계종 본사인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일제에 의한 보천교 강제 해체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일제에 의해 이중으로 매수된 이 상호가 황석산 우전리 산골에 비밀리 숨어있던 차 경석 교주에게 아무 연락 하나 없이 일제 경무국 수사관들을 안내해 신변을 공개하고 보천교를 공개화 하도록 압박하여 이루어진 보천교 “양해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청음 이 상호는 당시 600만 인권을 가진 차 경석 보천교 교주와 대항하기 위해 오히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었던 일제의 매수(買收)와 사주(使嗾)를 역이용해 차 경석 교주를 축출하고자 신앙인으로서는 죄질이 불량한 혁신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말이 좋아 보천교 혁신운동이지 실상은 자신의 허황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 불의한 배사율(背師律)을 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동년 8월에 이르러 교중(敎中)에서는 상호(祥昊) 등의 야심을 탐지하고 중벌(重罰)의 과(科)에 붙였다. 상호(祥昊)는 본시 사회에서 내쫓긴 자(社會出脚者)로 교(敎)를 위하는 공공심(公共心)은 없고 자기를 살찌우려는 마음(肥己心)이 많은 사람이라. 경성 양해시(諒解時)에도 교주에 대한 체포령(逮捕令)과 각 방주(方主)의 체포장(逮捕狀)은 취소하도록 주선한 것이 없고 자신만 활동하기 편의(便宜)하도록 주선하였으며, 김 홍규 등 체포 수금(囚擒) 사건에도 하등의 주선력이 없이 한도 밖에 방치하였고, 교중 공금 4 만여 원 압수 사건에도 하등의 주선력이 없다가 필경 국고로 편입이 되었고, 또 경성(京城) 가회동(嘉會洞)과 창신동(昌信洞) 진정원(眞正院) 가옥 및 대지(垈地)를 저의 단독명의로 증명권(證明權)을 총독부에 제출 등록(屆出)하야 소유를 만들었으며, 또 망령되게 교주법통 계승(繼統)을 몽상하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전후소행이 모두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다가 이 기회(此際)를 틈타 경쟁(逐)해 반역자로 화하야 보천교 혁신인이라 자칭하고 교주를 성토하며 방주(方主)를 능욕하고 사회단체와 악수하야 교주 성토문과 및 혁신 이유의 선언서를 인쇄하야 전 조선(全鮮) 교도에게 발송 선포하야 인심을 난동(亂動)하고 사람으로 감히 행하지 못하는 바를 감행함으로 교중에서는 이 상호(李祥昊) 토죄문(討罪文)을 전 조선(全鮮) 교도에게 발부하고 간부 수인이 상경하야 이 상호를 정중히 질책한 즉 저들(彼等)은 유도 숙련인과 역사(力士)를 모집하였다가 간부 등을 난타하야 사경(死境)에 이르므로 인근 파출소에 급히 고발하니 경관이 웃어 가로대 종교가(宗敎家)에 투쟁함은 고래(古來)로부터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 하고 냉정히 물리쳤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이 상호(李祥昊)는 교중에서 횡령한 금전을 다 소비하고 지나(支那)지방으로 망명하다. 동시에 이 성영(李成英)은 보광사(普光社) 인쇄기 및 활자를 매각하야 지나(支那)로 동행해 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이 상호(李祥昊)는 당국자의 지도 후원 아래에 상등(上等) 양복(洋服)을 착용(着用)하고 금은보석(金銀寶石)의 장신품(裝身品)을 갖추며(俱) 그 첩(妾)인 여학생도 극(極)히 사치적(奢侈的)으로 장식하야 동반(同伴)으로 만주에 들어가 이름(名字)을 바꾸어(改) 전라남도 이(李) 모(某)라 가칭하고 백만장자로서 만주 토지를 매수하려 왔다고 선전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그런대 금전이라 하면 친자식 사이(親子)도 모른 체 하는 만주 각 사회단체 등은 이 상호(李祥昊)의 내력을 철저히 탐사한 후에 그 사람(彼)은 보천교의 금전을 절취하야 왔으니 그 재물을 우리들이 나누어 먹음(分食)이 가하다 하야 주야로 협박 공갈하여 일방으로난 지나 관헌에게 불량분자로 고발하야 이 상호를 포박(捕縛) 수금(囚禁)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이 상호(李祥昊)의 친동생(實弟)인 순탁(淳鐸:보천교 자금으로 교토대 상경대 유학하여 교토의 개신교에 다니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언더우드와 함께 연희전문 창립. 각기 초대 의과 학장, 초대 상과 학장. 좌익 사회주의 운동. 해방 후 기획처장 역임. 6.25때 월북)이 경성에서 그 형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경무 당국에 교섭하야 당국의 소개장을 얻어 만주 일본 영사에게 교섭하고 영사는 지나 관청에 교섭하야 이 상호(李祥昊)를 석방하니 이상호 형제(이상호, 이성영)는 만주를 벗어나 을축(道紀 55, 1925) 정월에 경성에 도착하야(이 성영은 입지가 없음을 알고 지나로 다시 건너가 1928년에 귀국)

2)청음 남주에 의해 말살 왜곡된 추수사명 숙구지 문왕 도수

낙종물 사명과 이종물 사명에 이어 세 번째 추수사명은 해방이후 숙구지(宿狗地) 문왕(文王)의 도수를 받은 2대 보천교(普天敎) 교인(敎人) 운산(雲山) 안흥찬(安興燦:호적상 본명은 世燦)이 일으킨 도맥(道脈)에서 출발합니다.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은 문성공파 참판공파(參判公派, 참판은 6조의 종2품 차관)의 후손으

로, 이 치복(李致福) 성도에게 도를 받은 1대 보천교인 안 병욱(安柄彧)의 장남으로 임술년(1922) 6월 16일(음)에 태어나 7세 때 집중수련을 경험한 뒤 이다음에 커서 상제님 천하사를 하리라 작정하게 되어 사실상 이때에 운명적인 상제님 천하사 길을 결정합니다.

普天敎徒 安 柄彧 太上 聖道師님 兩位

이미 어린나이에 집안을 드나들던 보천교 교인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진리를 들은 터라 보통학교(일제하 초등학교) 과정이 재미없어져 더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해 3학년을 그만 두고 수행에 전념해 광명체험을 수 차 경험한 다음 보천교(普天敎) 신도이던 조부와 부친의 영향으로 12세 때 보천교에 정식 입교합니다. 동향인(同鄕人)으로서 같은 보천교(普天敎) 교인(敎人) 한의사인 김 교창(金敎昌)의 장녀 김 정란(金正蘭)과 결혼식 올린 이틀 뒤 일제의 2차 세계대전 막바지 강제 징용으로 서산 집결지에 끌려가다 기회를 틈타 탈출하게 됩니다.

1943년 운명처럼 다가온 결혼식 이튿날의 강제 징용 사건과 탈출은 마침내 청년 운산을 천안 아산 공주 대구 울진 영덕 김포 주위 경기권 일대 및 만주 등 전국 시골산골로 몰아내게 되어 결과적으로 숨어서 포교나 하며 기초 연원(淵源) 조직을 다지게 되는 중대한 기점이 됩니다.

부친 안 병욱(安柄彧)은 당시 부안을 비롯 충청도 군산, 서산 지역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포교활동을 벌이던 부안 하서면 청호리(晴湖里) 사람 이 치화(李致和:致福) 성도로부터 스승 이 옥포(李玉圃)가 저술한 수행서 영보국 정정편(靈寶局定靜篇) 필사본과 함께 상제님 도를 전해 받고 보천교를 신앙하게 되는데 이 필사본은 독실한 가족신앙의 대물림으로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

燦)에게 전달됩니다.

<증산도 道典>*(추수맥 기초공사)경석이 후비소(后妃所)를 후비소(后妣所)라 썼거늘 "잘못 썼다." 하시며 불사르시고 다시 써서 약장에 붙이게 하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형렬의 딸을 돌려보내신 후에 경석으로 하여금 그 글을 거두어 불사르게 하시니라. (서전서문 심법 공부)다시 경석에게 명하시어 "치복을 부르라." 하시니 치복이 약방 안으로 들어가 문 옆에 서서 명을 기다리거늘 상제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벽을 향해 누우신 채로 다만 왼쪽 손바닥을 펴 보이시는데 -書傳序文서전서문 萬讀만독 致福치복- 이라 쓰여 있는지라 치복이 그 글을 마음에 새기니 상제님께서 나가라는 손짓을 하시거늘 곧 밖으로 물러나니라.

운산(雲山)은 결혼식이 끝난 이튿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생사를 걸고 탈출해 해방이 될 때까지 시골로 잠적해 기초 연원(淵源) 조직을 구축하다가 1945년 해방되던 해 돌아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쳐 처가 친척 김 정봉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연원 조직을 수면위로 드러내며 단체를 개창하는데 매두몰신(埋頭沒身)합니다.

24세의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은 차 경석(車京石) 성도 선화(1936) 후 일제의 보천교 강제 해산령과 일제의 폭압 속에 모든 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흔적조차 없는 상황에서 마치 과거 이 치복(李致福) 성도가 충청도 지방에서 가가호호 방문포교 했던 것처럼 독행천리(獨行千里)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 하나로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잠자고 있는 영혼을 성성이 깨워 연원(淵源)조직을 풀(Full) 가동합니다. 그리하여 해방 당년 아산 천안 방면에만 3천여 세대를 결집시키고 이후 부여 공주 전주 등 전국에 십 수만호 연원(淵源) 조직을 삽시간에 일으켜 세웁니다.

이로써 숙구지 문왕 도수의 혹독한 수련 실습 기간인 9년간의(45-54) 숙구지 문왕 초복도수 도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추수살림 중 도안都安 초복 도수 도운의 핵심은 장차 있을 도안 중복살림 무대 데뷔를 위해 스

숙구지 문왕 도안(都安) 초중말복 세살림 추수사명자 안운산 성도사님

스로 동심인성(動心忍性) 증익기소불능(增益其所不能)의 가혹한 훈육(訓育)과정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대국으로 보아 문왕 도수의 초복 살림은 이미 태모님의 두 번째 조종골 살림이후 세 번째 살림인 ①순흥안씨 집성촌 왕심리 교단-②동화교 통합교단-③오성산 세 살림 중 이 상호 형제와 손잡은 ②동화교 통합교단 속에 내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태모 고 수부님의 순흥 안 씨 집성촌 왕심리 살림에 이은 동화교 통합 살림이 1945 을유년 8.15 해방이후 안 흥찬 총 사수總師首가 개척한 문왕 도수 초복살림과 동일하게 이 상호 형제와의 연대와 배신으로 서로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숙구지 문왕 도수의 초복살림의 운명은 태모 고 수부님 세 살림 속에 그 비의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으며, 크게 보아 20년 말도(말점도) 도수 이후인 1974년부터의 중복도수 기두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제하 보천교시절과 동화교 시절 채 이루지 못한 한(恨)을 품은 이 상호·이 정립 형제에게

혼신의 힘을 바쳐 개척한 단체를 애체없이 희생번제(犧牲燔祭)로 던져줌으로써 해원시킴과 동시에 스스로를 연단시키는 일종의 혹독한 수련 기간이었습니다.

<2변 도운 132(2002). 양력 9월 8일 安雲山 종도사 강론>*여기 종도사 아버지가 전부를 다 바쳐서, 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청수 모시고 태을주를 읽으셨다. 내가 그걸 보면서 컸다. 그때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을 때다. 헌데 대부분의 군자금이 보천교를 통해 들어갔다. 그건 들키면 아주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해서 지금까지 독립자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신문에 단 한 줄 난 게 없다. 암만 찾아도 없다. 했는데 그 때 재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걸려들었다. 그러니 얼마나 악형을 당했겠나?

<2변 도운 132(2002). 9월 8일 安雲山 종도사 강론>*내가 맏아들이거든. 자식으로서 어린 나이에 사식도 넣어드리고, 옷도 차입해드리느라고 쫓아다니다가 나도 전기고문을 세 차례나 받아봤다. 전기고문 몇 차례 받으면 사람이 바보가 돼 버린다. 아주 혼을 빼가 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대전 감옥에 있었는데, 형 받을 새도 없이 너무너무 두드려 맞아서 식물인간이 돼서 내쫓겨 나왔다.

<2변 도운 121(1991).3.4 강론>*먼저 내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의 조선(祖先) 할아버지 조, 먼저 선, 다시 말해 부조(父祖)문제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디. 내의 부조인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천교를 신앙했는데. 부지하처소정래라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태을주를 읽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정식으로 보천교 신도여.

<2변 도운 121(1991).3.4 강론>*내 호적이 세찬이여, 안 세찬. 헌디 안 세찬 하면은 아니 다만 이 세상으로 따지면 한 나라 보담도 천하를 평안히 해야 이름값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순하게 흥찬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을 흥찬이라고 고쳤어. 여기 내가 "總指揮者 安興燦"이라고 돼 있어(2변 때 교적부를 보여주심) "總師首" 라고도 돼있어. 그렇게 하면 2변이라는 것이 무슨 뭘 따지기 이전에 2변이 내가 총 사수여, 사실이 그랬어.

<새시대 새진리(安雲山 종도사님 어록)>*아무것도 없이 나는 사람 농사만 지었다. 제 2 변 때에도, 지금 제군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신도들을 키웠다. 헌데 불행히도 신도들이 이 상호·이 정립이의 불의함과 무도함에 동조야합同調野合하여, 상제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져서, 기세농민欺世弄民, 기인취재欺人取財하는데 빠져 버렸다. 내 그것을 지켜보다가, 6.25 동란과 더불어 다 내던져 버리고 말았다.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은 태모님께서 집행하신 잠자는 개 깨우는 무진

년(1928) 구월도 숙구지(宿狗地)공사로 7세 때 문득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깨닫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는 수행을 했으며 그러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5일 만에 그만두고, 다시 불 없는 방에 밀대방석을 깔고 콩, 곡식가루만 먹는 생식을 하며 8개월 동안 참선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 이 다음에 크면 반드시 상제님 천하사만 하리라 마음먹는 계기가 됩니다.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운산은 곧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여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바로 그만두었으며 12세 때 2주간 수련과정에서 영성체험을 크게 한 다음 14세 때 역시 14일간 수련하며 눈앞이 밝아지는 초통(初通)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 호패 차는 나이인 15세가 되자(1936) 차 경석 성도의 선화에 이어 일제의 모진탄압으로 보천교가 강제 해체되면서 상제님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하리라 마음먹고 상제님 천하사 예비단계로 전국을 주유하며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丙子開路)

<증산도 道典>*상제님께서 공주산(公主山)과 입마산(立馬山), 어래산(御來山)을 지나 임피 술산(戌山)에 이르시어 성도들에게 명하시기를 "망량신 대접을 하리니 개를 잡으라." 하시고 크게 제를 지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인신합덕(人神合德)을 술래(戌來)로 하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임피에서 태전으로 향하시니라.

<2변 도운 121(1991).3.4 강론>*고 수부님이 상제님 비슷한 통을 해가지고 상제님 그 문도들 그 성도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 가지고 포교를 개창했다 이거여. 그래서 보천교 문을 열어놓고 차경석씨에게 배척을 당했어. 그러니 고 수부님이 파종물을 맡고 차경석씨에게 이종물을 맡았을거 아녀. 이종물 맡은 분에게 거기서 상제님 추수할 사람 하나를 추려야 하거든. 거기서 하나가 나와야 하는디 결론적으로 그 하나는 증산도 종도사가 될텐데.

당시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은 연원(淵源)의 총 사수(總師首) 수방주(水方主)로서 보천교(普天敎) 2변 교운인 <증산교 대법사> 조직을 개창하고 교주 직제가 없는 방주제로 청맹과니 이 상호 씨를 용화동에 얼굴마담인 토방주(土方主)에 앉혀 놓았는데, 토방주 밑에 사성(司成)으로 임명한 동생 이 정립과 공모해 포교차 용화동 본부를 비운 총 사수와 연원 간부 사이를 끊임없

이 이간시키는 일방 용화동 신앙촌화 운동과 범 증산 교단 통합운동을 빌미로 단체를 강탈하고 2변 교운의 뿌리부터 왜곡 조작한 문서를 간직하고 죽은 뒤 <증산교사>라는 유고집으로 출간되어 증산교 대법사가 마치 이 상호·이 정립 형제가 개창한 것으로 둔갑되고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이들 형제를 배신하고 나간 것으로 둔갑됩니다.

당시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개창한 조직의 이름은 순수하게 <증산교>로 교주 직제가 없는 방주(方主)제였지만 후일 총 사수(總師首)가 토(土)방주로 예우해 임명한 이 상호 형제가 <증산교> 조직을 야금야금 강탈한 뒤 사회조직인 대법사(大法社) 이름만 첨가해 <증산교 대법사>가 된 것이 보천교 2변 교운 역사(문왕의 都安 세 살림 초복도수) 실체입니다. 젊은 총 사수가 힘들게 차려 놓은 밥상위에 보천교 시절 산전수전을 겪은 노회한 두 형제가 조직을 강탈해 숟가락만 얹어 놓은 것입니다.

당시 젊은 총 사수(總師首)가 얼굴마담의 명예직으로 임명해 용화동에 거처하게 배려한 맹인 이 상호와 20세의 장 옥(張玉)과 혼사를 맺어준 이 정립 형제는 포교를 위해 전국으로 떠도는 총 사수가 조직을 떠나 부재한 사이 젊은 총 사수가 포교한 연원 간부들을 수없이 이간시킴과 동시에 용화동 신앙촌화 운동과 교단통합운동을 명분으로 총 사수를 단계적으로 고립시켜 조직적으로 단체를 탈취해 세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상호(본명 명탁明鐸)와 이 정립(본명 성탁誠鐸)은 결국 집요한 갖가지 방법으로 교주직제가 없이 목화토금수 방주方主조직으로 단체를 운영하던 젊은 20대 총 사수(總師首)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직을 철저히 자기 사람들로 수없이 가다듬고 세탁해 단체의 실권을 장악하고 젊은 총 사수를 비밀리에 제거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해방 직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최 위석의 집에서 30-40여명 모인 치성에

참석해 분위기를 살펴본 총 사수(總師首)는 그 해 초겨울 정읍 시기리에 사는 교인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인근에서 해인(海印) 샘플을 만들고 있는 이 상호와 조우하게 되는데 이때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빈곤한 상황에 처한 청맹과니 이 상호 씨를 보고 쌀 한가마니와 생활비를 대주고 용화동에 임시 거처까지 마련해 옮기도록 배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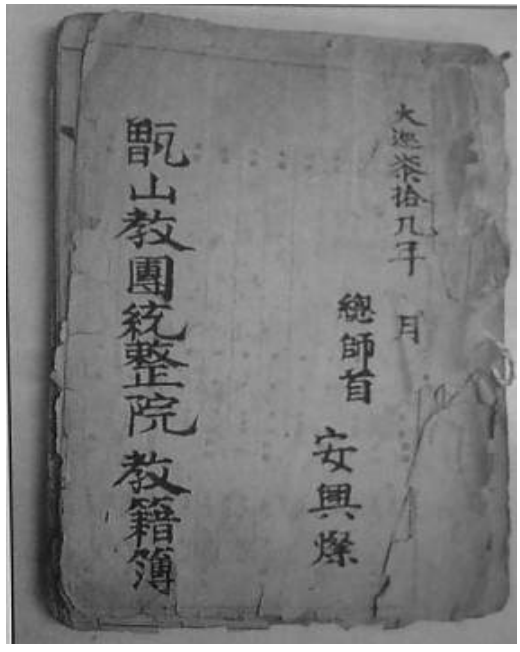
그리하여 <대순전경>의 저자로서 비록 과거 보천교 신도들에게 악명을 떨친 인사라 할지라도 이제는 세월도 적지 않게 지나간 과거로 다만 증산교 본소에 얼굴만 내민 채 거동을 크게 안 해도 연로한 신도결집에 한 역할 하리라 생각하고 토방주(土主)로 임명하는 배려를 합니다. 이는 청음이 비록 과거 보천교 시절 일제와 한통속이 되어 파란만장한 악명을 떨친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년기에 들어선 청맹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용화동 본소에 자리나 잡고 연로한 신도결집이나 하며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원모심려(遠謀深慮)한 총 사수의 포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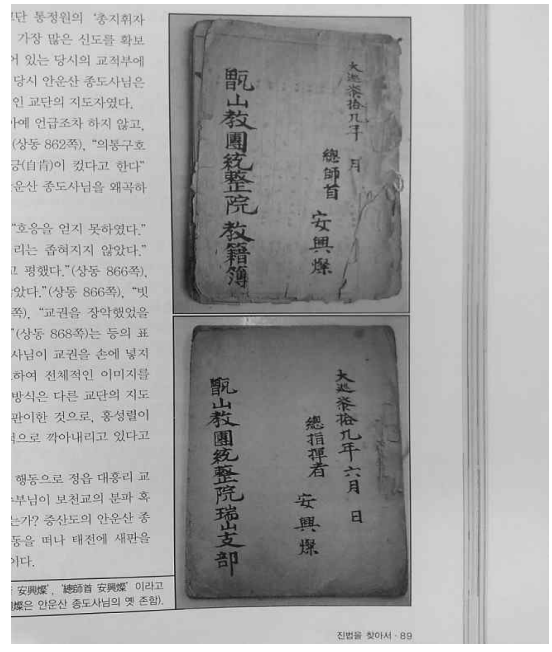
이에 대해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해방 후 당시까지도 이 상호 형제에 대해 구 보천교 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악평이 나있어 함께 어울리면 같은 부류로 욕을 먹을 정도로 소문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체를 키워야 하는 당시로서는 대순전경 저자라는 이름값을 비롯해 총 사수 자신의 20대 나이가 지도자로서 일반 사회에서 중장년층을 폭넓게 아우르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연로한 장년 노년층 신도들을 다독이며 묶어줄 인사로 적합하다 생각해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옳건 그르건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의 용안을 직접 대면한 인사라는 장점 하나만으로도 대중 운동의 강력한 설득력이 나름 있을 것이라 생각해 손을 잡았다고 술회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진리를 전하는 쪽 자료들은 많이 나돌았지만 경전으로서는 오직 대순전경밖에 없을 때여서 미우나 고우나 그 경륜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었고 어차피 청맹과니인지라 앞으로 더 이상 과거 일제하 보천교 시절의 젊었을 때처럼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용화동 증산교 본소에 토(土)방주로 임명 배치합니다.

그리하여 젊고 실행력이 좋은 수(水)방주 총 사수는 몸소 접사(接使) 역할로 밖으로 나돌며 따 담는 역할을 하고 앞 못 보는 토(土)방주는 용화동 본부에 조용히 앉아 밖에서 몰아오는 신도들을 수렴하는 접주(接主) 역할을 맡깁니다. 20대의 젊음이 오히려 조직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한 20대의 총 사수(總師首)는 비록 인망이 떨어졌으나 원로로서 연배가 지긋한 맹인 이 상호로 하여금 당시 연배가 많은 신도들의 얼굴마담 역할이나 하기를 바라고 포교실무에만 전념해 신도를 포교해 잡아들이는 접사역할을 도맡은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후 2변 용화동 증산교단 통정원 유일 교적부

<보천교普天教 교전教典>*또 경석京石다려 일러가라사되 너는 접주接主가 되라 나

는 접사接使가 되리라 이뒤로는 출입出入을 폐廢하고 집을 지키라 이것은 자옥도수自獄度數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젊은 총 사수가 '독행천리獨行千里에 백절불굴百折不屈이라'는 정신으로 불철주야 밥 굶어 가며 힘든 포교활동으로 부재한 사이 두 형제가 조직을 그렇게 야금야금 정책적으로 먹어가며 송두리째 강탈해 갈 줄은 몰랐다 합니다. 한 술 더 떠 1947년 결혼까지 시켜준 이정립은 형과 공모해 조직을 강탈한 것도 모자라 교사(敎史)까지 날조해 뿌리를 철저히 왜곡 말살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미 모든 것을 내려두고 대휴게기를 선언하고 자취없이 은거한 자신에게 끝없이 인격살인에 가까운 모함과 험담을 전 교인들에게 하고 60년대 중반까지 끊임없이 암살대를 보낼 줄 몰랐다고 합니다.

<2변 도운 121(1991).3.7 강론>*"내가 (54년 이후로) 단체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서천읍에 사는 김 창배(金昌培), 최 낙홍(崔落鴻) 등을 시켜 사기하다 철창에 갔다 병들어 누어있다는 등으로 매타도어시키는데 사람을 모욕해도 그런 모욕을 할 수가 없다. 이 상호 형제가 전국의 간부마다 다 내세워 불명예적인 모욕과 모함 이간질을 시켰다."

해방이후 단기필마로 자기연맥이 없던 이 상호는 이미 자기 연맥조직을 구축한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와 만나 증산교 단체에 토방주(土)로서 몸을 담그게 됩니다. 본래 이 상호 형제는 보천교 시절에도 6임 포교를 통해 방주가 된 사람이 아니고 임명제 방주여서 자기 연맥이 없었기 때문에 늘 사회운동을 통한 이슈선점으로 사람을 끌어 모으던 다분히 정치적일 수 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포교운동을 통한 진리 본연의 조직 확대보다는 남이 일구어놓은

<격암유록 승운론>*儒佛仙道通難得유불선도통난득커든 儒佛仙合三運通유불선합삼운통을 有無知者莫論유무지자막론하고 不勞者得불로자득 될가보냐-유도(儒道)와 불도(佛道)의 통달도 어려운데, 하물며 유불선(儒佛仙)이 하나로 합하여 통하는 운수를 어찌 지혜로운 자이거나 지혜롭지 못한 자이거나 간에 모두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기를 바라는가?

농사를 통째로 차지하려는 과욕이 바로 이같이 교단 통합운동 방향으로 매진하게 된 것이며 이 전통은 두 형제가 선화한 이후 범초 홍 성렬에게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남이 일구어놓은 판을 공짜로 먹으려는 심보에 대해 신인(神人) 격암 남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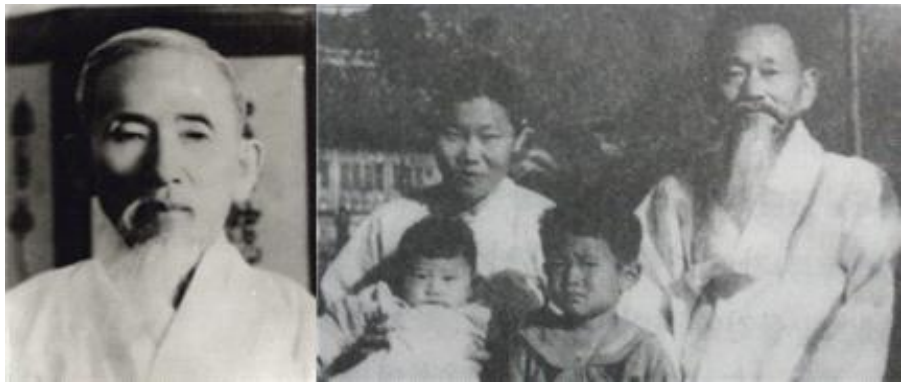
2변 교운에 대해 왜곡 날조된 이 정립의 증산교사에 소개된 145명 통제위원 및 교체조직 운운은 6.25 후에 단체를 접수한 이후 정통성 왜곡의 알리바이용으로 이 정립이 왜곡 날조해 놓은 거짓말 기록입니다. 당시 이 상호는 시기리의 외진 초가집 단칸방에 세들어 사는 초로의 청맹과니로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순전경 초판이후부터 서문 찬(讚)을 본인이 못 쓰고 동생 이 정립이 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조종골 시절부터 목포에 수감된 이 상호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다녀오시고 형제에게 갖은 핍박과 공개적으로 배척까지 당한 태모님은 초판 대순전경을 처음 받아보시고 담뱃대로 휙 밀쳐 버리시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선정원경>과 <보천교연혁사>에 이미 다 밝혀진 일입니다.

<증산도 道典>*6월 24일에 이 상호가 대순전경(大巡典經)을 간행하니 7월에 고찬홍이 책을 가져다 태모님께 올리거늘 태모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담뱃대로 바닥에 놓인 책을 옆으로 휙 밀쳐 버리시니라. 이에 성도들이 의아해하며 그 책을 집어다 한쪽 구석에 천으로 덮어 놓으니라.

侍

청음 이 상호와 남주 이 정립 형제는 29년 동화교 무렵 교인들로 하여금 사택공사를 하면서 안집 사택을 가리켜 내전(內殿)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두 형제 스스로 태모님과 차 교주를 차례로 내쫓고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해도진인(海島眞人)이라 생각하고 태모님까지는 내쫓는데 성공했지만 차 교주가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을 만들면서 보천교 혁신운동의 명분이 없어지자 차 교주를 내쫓는데 실패하고 보천교 재산을 챙겨 일제관리의 비호(庇護)를 받으며 금은보화로 치장한 여고생 첩까지 대동하고 만주로 도망가고 맙니다.



청맹과니 청음 이 상호李祥昊와 총사수가 결혼시켜준 동생 남주南舟 이 정립李正立 장옥張玉 부부.

뒤에 만주에서 사기를 당해 감옥에 갇혔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와 비록 차 교주 축출에는 실패하여 보천교를 탈퇴하고 조선총독부 촉탁 김 환의 기획과 후원을 얻어 동화교를 창교했지만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추수 주인공으로서의 달콤한 야망을 내전(內殿)이라는 호칭으로 속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맙니다.

두 사람은 평생 죽는 날까지 제왕적 사고를 지닌 채 살았는데, 사택을 내전(內殿)이라 칭하여 많은 신도들이 항의를 해 물의를 빚자 동화교 사택(舍宅)으로 평범하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야무진 꿈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느닷없이 안 흥찬(安興燦)이라는 젊은 20대 총

사수(總師首)가 두 형제 앞에 수호천사로 등장해 자신이 몸소 개척한 증산교 조직을 쾌척하고 종적 없이 사라지자 단체를 장악한 이후인 62년에 비로소 용화동 본부에 자신들만의 사택을 짓고 형식적으로는 다른 이름을 내걸어 놓지만 실제로는 결국 다시 내전(內殿)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기독교 인구 20만인 일제 치하 시절 600만 신도를 거느린 일제하의 실세 차 교주도 우습게 알며 산전수전 다 겪은 두 형제는 해방 후 느닷없이 전국적으로 포교 대운을 일으키며 젊은 총 사수(總師首)가 전면 등장해 나타나자 내심으로 이는 마치 상제님이 자기들 꿈을 이루고자 보내준 비장의 수호천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총 사수의 배려로 자신들이 과거 일제 치하 동화교 시절 근거지였던 용화동 증산교 대법사 본소에 다시 자리잡게 되자 노회한 전략으로 범 증산 종단을 통합하겠다는 명분과 신앙촌을 건설한다는 금산도득(金山圖得)의 명분을 내세워 전국 신도들로 하여금 땅 팔고 재산을 팔아 금산 용화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재산집중의 허망한 공사를 벌입니다.

보천교 초기에 교주 없이 방주제도로 운영했던 차 경석 성도처럼 교주 없는 방주 제도로 조직을 관리하던 총 사수가 포교활동에 정신이 팔려 전국으로 떠도는 사이(교통도 불편하고 연락체계가 불편해 전국포교를 떠나면 1-2개월 걸리던 시절) 이 상호 형제는 이 허망한 공사를 통해 인권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도록 하면서 포교활동으로 부재중인 젊은 총 사수와 간부사이를 이간시키려 각종 모함과 흑색선전을 하며 젊은 총 사수(總師首)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킵니다.

<2변 도운 121(1991).3.7 강론>*그러면, 이 상호·이 정립의 정책도 장하려니와 사실은 당시 신도들이 부응을 해 주었어. 한 놈도 나 찾아와서 용화동으로 다 팔아서 들어오라 하는디 가야 옳읍니까 하는 놈을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놈을 보지 못했고. 내가 집에 와서 누웠는디(20년 말점도 은거) 날 찾아오는 놈 한 놈 없었고.

<2변 도운 121(1991).3.7 강론>*그러구서 허튼 신도만 50명도 찾아오고 뭐 30명

도 찾아오고 밥만 삶아내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말여. 그러구서 간부진에 있다는 자들은 대가리도 안 디밀고. 그리고 몰래 돈도 이 상호·이 정립에게 갖다 바치고. 나는 인패 같은 거 준비 하려고 하는디 속으로 이 상호·이 정립에게 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버려..... 돈 받고. 이러한 얘기를 참 다 할 수도 없고.

<2변 도운 121(1991).3.7 강론>*"전주로 가고 싶었지만 전주로 가면 이 상호·이 정립이 꼴도 보기 싫고 말여. 그래서 애들 교육상도 그렇고 해서 공주로 가서 있었는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할 말이 있어. 집이를 앉았는디 박복만이 바로 또 그 놈여, 그 놈이 전국에 꼬꽹이를 쳐가지고서 격문이 말여,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가지고 들어왔어. 이 격문이 최종적으로 황 원택(장남을 주사 놓아 죽인 장본인)에 와서 떨어졌는디 전국일주를 해가지고서....

<2변 도운 121(1991).3.7 강론>*(총 사수가 임명한 토방주 이상호가 인권을 집중시키면서 이미 교주인 듯이 행세)그런디 그 격문이 뭐냐 하면, 뭐 나는 수교정(首敎正)도 아닌디, 수교정 안 흥찬이가 망령이 발작해서 망령된 생각이 발작해 가지고서 천인천패(天印天牌)를 위조하고 뭐 어쩌고 해서 직권을 정지허구 말여. 그 사람들 말로 수교정의 직권을 정지한단 말여. 허니께 전국신도는 본부로 직접 연락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여. 그걸 내가 다 외든 못혀 지금. 그게 우리 집에 있어. 그런 내용여. 그런디 나두 사람아녀 사람은. 내가 칠정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볼 때 그 장님 새끼를 내가 말여, 도와준 죄 밖에 없고 말여.

◎ 이상호가 보낸 자객 박복만의 자백과 용서

<2변 도운 121(1991).3.7 강론>*(6.25 전쟁 중에) 공주-청양-부여로 가서 부여군 내산면(內山面) 마전리(麻田里) 이 평국(李評國) 신도 집에 가서 좌정하고 윗방에서 거의 두어 달 있었는데 이 평국 씨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상하게 집주변을 싸고 배회를 하는데 참말로 이상합니다. 여러 날을 두고 저렇게 같은 사람이 저러는디, 그게 참 이상하다고 만날 그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나와서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한번 보쇼.

<2변 도운 121(1991).3.7 강론>*나가서 보니 박 복만이란 사람여. 박 복만이. 나한테 들켰거든? 아니 복만이가 왠 일여? 내가 하니께. 얼굴이 새빨개져서 주저 앉어버려, 그 자리서. 아니 이 워쩐 일이냐고 말여, 들어가자고 방에 떡 들어가 앉혀 놓았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여 그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 같이 인자하고 그런 양반을 참 내가 죽을죄를 졌습니다. 내가 바로 제가 선생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하수인였습니다. 내가 보름을 별렀습니다. 내 독심을 품고서. 했는디, 결국 내가 선생님에게 참 사죄를 합니다.

<2변 도운 121(1991).3.7 강론>*내가 그래서 니가 나를 죽이면 뭐가, 나를 죽임으

로서 뭐가 있느냐.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상제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할 이유라도 있다면, 내가 만 번이라도 죽어주겠다, 헌디 내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죽어줘야 하는지, 누가 나를 꼭 죽여야만 하는지, 그거나 좀 알자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을 죽이면 내가 감투가 높아지고 중언부언하고... 이게 내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안 할라고 한겨. 항자는 불살로 내가 쾌히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밥 잘 먹여줬으면 됐고 늙은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가 해원상생인데 천하에 나쁜 놈이다.

<2변 도운 121(1991).3.7 강론>*장님이고 눈깔 먼 놈이....증산교는 내가 하는 것이지 그 누구(이상호·이정립)도 증산교하고 관계가 없다. 여기 신도들이란 게 내가 신앙하라고 해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고 여기 신도들의 지도자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떠메야 할 사람이 나하나 밖에 없어. 그 이외에는 다 객꾼이여. 개평일 뿐이지. 도와는 못줄망정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괴롭게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자 문화권에서도 일찍이 이런 일이 없고, 석가모니 불교 권에서도 이런 일이 없고, 서교에서도 나는 이런 일을 나는 못 들어봤다. 그러나 상제님 사업위해 쾌히 용서할 테니 가서 전해라.

<2변 도운 121(1991).3.7 강론>*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 이건 공자 문화권인 유교에서도 일찍이 이런 일이 없고, 석가모니 불교에 문화권에서도 이런 일이 없고, 이건 서교에서도 말여, 나는 이건 못 들어본 사실이 없다 말여.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허나 나는 상제님 사업을 위해서 쾌히 용서 할테니께 그런 줄을 알고, 그런 일을 가서 전하라고. 내 그러구서 용서해 준 사실이 있어.

<새 시대 새 진리 3(安 雲山 증산도 종도사 어록)>*또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상호가 암살대까지 조직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나를 없애버려야 후폐後弊가 없으니까 완벽을 기하느라고 하는 짓이다.

<2변 도운 121(1991).3.4 강론>*박 공우 씨의 수제자 송 종수라는 분이 있어. 봉남면에 살았어. 금남면에서 황산고개 넘어가면 봉남면이여, 그 옆이 원평 금산면이고. 거기를 뜩 가니 그 의통 인패를 준비하는데 의통인패를 제작하는데 한 반가마를 새겼어, 많이 새겼어. 그래서 송 종수씨한테 의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송 종수씨야 나를 끌려고 난리가 났었지. 내가 아주 잘생기고 귀골이고 하니까 말여. 호신의통, 호부의통이니 그리고 내가 양 비누를 좋아서가 아니라 녹수비누가 있다. 녹수비누로 세수하면 절반은 하루 종일 냄새가 가. 냄새가 좋으니께 PX에서 나온다고...

<2변 도운 121(1991).3.4 강론>*그러고 나서 세상에 호사하던 사람이니께 너무 잘 빠졌다고... 대전 와서 가난해서 기가 막히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내가 어디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서 장사꾼들이 가게 문을 닫고서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 장사 잘된다고 그렇게 쫓아 다녔어. 그 때도 어디를 가면 금새 사람들이 모여들고, 송 종수씨 댁에서 이틀인가 잠깐 묵었는디, 그 근방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신도라고 모이고,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고 말여, 송 종수씨가 그러기도 했어.

<2변 도운 121(1991).3.4 강론>*상제님 사업을 해야겠는데 동지를 규합할려고 그런다 하니께 송 종수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고서 누구를 가서 만났냐면, 정읍장터 있는 데 시기리가 있어. 시기리에 이 한우, 윤 순탁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보천교 신도여. 그 사람들은 윤 설 씨하고 그렇게 잘 알어. 그 분들을 만났는데 역시 그 분들도 의통을 준비하고 앉았더라. 이 한우씨 집하고 윤 순탁 씨 집하고 한 30미터 거리나 되나? 그 의통을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송 종수씨에게 있으면서 배워가서 만들고 앉았던겨, 윤 순탁 씨 집에서. 신기리 산다고.. 이 한우는 약종상이여. 또 보천교 때 차 경석 씨의 안전질서 전담하던 사람 가서 만나보니, 우리 선생님이라고 월곡 선생님이라고 꼭 그러면서 하늘처럼 떠받들고 숨결마다 월곡 선생이여.

<2변 도운 121(1991).3.4 강론>*내가 의통 제작한 이야기를 윤 설 씨에게 들어보니께 이 상호씨, 윤 순탁 씨, 이 한우, 함 우열, 김 태성, 김 규찬 이렇게 여섯 사람이 상제님이 육임을 말했으니까 육임을 짜서 육임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혀. 호신의통을 네모진 도장으로 말여. 어떤 놈은 호신 의통에다가 도장 찍는 사람도 있고, 호신의통을 겉껍데기로 싸서 이 상호 도장 찍은 사람, 윤 순탁, 이 한우 도장 찍는 사람도 있어. 한 이틀 머물면서 윤 설 씨하고 시기리 정읍 장사구경도 하고 오늘 길에 이 상호 씨 댁이라고 들어간단 말여. 들어가서 보니께 사람 들어가도 목소리만 듣지 몰러. 보니께 장님이여, 장님. 그런대로 잘 생겼는데 하관이 빠져서 속을 썩이게 생겼어. 뒤끝을 못 맺을 사람이구나, 거기서 얘기가 되었어.

<2변 도운 121(1991).3.4 강론>*내가 큰 홍어 하나를 사가지고 술을 사서 푸짐하게 먹으면서 이 한우, 윤 순탁 씨가 소개를 혀. 윤 설 씨랑 나랑. 자기에게 의통을 박공우 선생이 전수를 했다. 이 상호가 그런 일을 해여, 자기도 때를 모른다. 그런데 해방도 됐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함 우열하고 김 태성이라는 사람은 그 후로 나오덜 않는다. 육임이 부족하니 혹시 상제님 사업에 열의가 있으면 의통제작 하는데 한번 악수를 해보자고 말여. 그래서 거기서 결합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어.

<2변 도운 121(1991).3.4 강론>*그러는 동안에 집회장소를 옮겨야 하는데 갈 곳이 있냐 말여. 용화동으로 옮겼는데, 이 상호 씨 건물이 삼 칸 오막살이 하나가 용화동에 있어. 그건 이 상호 씨 개인이 살 수 있는 집이지. 우리 단체하고는 무관하고. 또 수용능력이 없어서 마침 옥성광산 거기가 노다지가 나던 곳이여. 그 사무실을 얻어서 금산여관 자리 그 사무실을 내가 샀어. 삼분의 이는 내가 내고 나머지는 신도들 몇이 내고. 신도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여. 몇 명 없지. 그 눈먼 장님을 더불고 다니면서. 그걸 뭐하러 이 상호를 눈먼 장님을 쫓아 다녔는지. 내가 자살행위를 했어.

<2변 도운 121(1991).3.4 강론>*그러니께 내 호주머니 돈이 공금이고 그렇게 4년

을 지냈었어. 이 상호 씨를 그날 내버려두면 똥수깐에 빠지게 생겼어. 이 정립 씨는 감옥살이 3년하고 8.15후에 나와서 서울서 하숙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자는 생각에 나가서 밥 먹자고 하면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랬지.

<2변 도운 121(1991).3.4 강론>*그런데 그 사람이 <대순전경大巡典經> 제호題號 쓴 임경호林敬鎬씨 집에서 하숙을 했어. 그 하숙비도 내가 줬어. 내가 책이나 쓰라고 했어, 이 정립 보고. 그래서 <대순철학大巡哲學>이라는 게 그래서 쓴겨. 그거 책 쓰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쓰는 거 아니잖어? 한 2년을 썼나 봐. 이 정립 씨가 하숙을 하러 서울 합정동 27번지 근처로 갔어. 서울에도 연락소 하나는 있어야 되잖어. 그래서 대법사 연락소라고 이 정립 씨가 거기 있었거든. 일을 누가 했냐? 최 규석 씨가 다 했거든? 나이도 많은데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것어. 그래서 내가 지금 돈으로 10억 가지고 있었을 겨.

◎❀증산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여

雲山 安興燦(世燦) 총사수

<2변 도운 121(1991).3.4 강론>*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뱃심도 좋았고. 영등포 같은데서 마이크 걸어놓고 포교를 하면 석 달 만에 교회가 문 닫았어. 그럼 목사가 와서 뭐라고 그려. 왜 신도관리 못해서 다 잃어버리고.... 재주 있으면 내 신도 다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포교를 했어. 그러면 신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무슨 조직을 해야 할 거 아녀. 그 때 까지만 해도 특별히 교주敎主고 그런 것도 없어. 이 정립(李正立)이 양말, 양복도 다 내가 사주고. 이 상호(李祥昊) 경제문제 다 알잖어. 누가 그렇게 돈을 줘? 그러면 나 건드리면 그 사람들 경제활동이 없어지거든. 내 의사에 항의할 수도 없고. 이런 문구가 내게 해당될 겨 -동충서 남주북- 나 혼자 활동을 해도 한 대여섯을 활동을 했 어. 단시일 내에 활동을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어. 최 규석, 경상도 이 원호 같은 사람들 뭐 나하고 싸울 일이 있었나. 내가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그래서 조직을 하자. 그 조직이름을 ❀증산교❀라고 했어.

<2변 도운 121(1991).3.4 강론>*신도도 내 사람이고. 포교라는 것은 내 기운을 붙여야 포교가 되어. 그 때는 이 간부들을 어떻게 했냐면. 간부들 전국적으로 모아놓고 조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간부직을 준다. 감투를 쓸려면 이런 공이 있어야 된다. 우선 먼저 실적을 만들어라. 반드시 내가 절 받고 다짐하고 그런 마음으로 포교를 하면 포교가 되어.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간혹 있어, 그렇지만 건방진 수작하고 그러면 그 사람 되덜 않어. 내게다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이 되어,

그 사람들하고 조직을 했어. 내 몸뚱이가 하는거지.

<2변 도운 121(1991).3.4 강론>*그러면서도 증산교 교칙을, 조직을 하는데. 그 때는 이 상호 씨한테 청음 선생이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 연배니께 말여. 당신이 의통 얘기하는데 천하에 다 공개된 사실인데. 내가 당신한테 받은 게 뭐가 있냐? 내가 당신 지켜주고 당신 동생 생활시켜 주고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조직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수주>여. 이 상호 씨가 <토주>고. 내가 포교한 김 종렬이가 화주이고. 경상도 이 원호라는 사람이 목주고. 서울 합정동 27번지 최 규석이라는 사람이 금주여. 내가 조직을 위해서 조직 정비하고 의통을 이 상호 씨에게 반환을 했어. 받건 말건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이 상호 씨 밑구녕 닦아주기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다. 다만 상제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차 교주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리의 사도로서 그러는 거지.

<2변 도운 121(1991).3.4 강론>*이 정립이 50여살 넘었을 때 자기 집이 없으니께, 마누라도 없고. 이 정립이 돈 일 푼이 있나? 또 늙었고 해서 이 정립한티 시집온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장가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혀. 그건 지 부모도 어떻게 하덜 못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일이 어딨냐고. 내가 결혼시켜 준다고 말여,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시켜서 아들 삼형제를 낳게 해줬어!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이 정립이는 신명이 다할 때까지도 나한테 은혜를 다 못 갚어.

<2변 도운 121(1991).3.4 강론>*이 돈영 씨가 포교한 이 원호, 당시 65살 정도 됐을까? 도체 조직할 때 사람이 없으니께 목주로 하고. 거개가 이 상은, 이 돈영 그런 사람들 많이 끌고 그랬거든. 화주가 내 신도다 말여. 이 상호 심부름꾼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말여. 김 종렬 씨 같은 이, 최 규석 씨 같은 이, 목주로 있는 이 원호 같은 이 말여, 다 내 영향권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위치에서 이 상호 씨 밑에서 있을 수 있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조직에서 빠졌다 말여 할 수 없이. 실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과 청음 이 상호와의 만남 뒤에 남주 이 성영은 해방 이후(태모님에게도 물오리라 칭호를 얻은 바 있고 보천교 시절부터 악명을 떨친 이 성영은 만주망명이후 귀국해서도 자신의 안 좋은 소문이 바뀌지 않자 아예 이름을 正立으로 개명함) 아산 온양지방에만 해도 3000여 세대의 신도를 구축한 패기만만한 당시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를 만나 총 사수의 배려로 배 동찬(裵東燦)의 협조를 얻어 울진에 적을 둔 젊은 20세 장 모 처녀와 47년 결혼을 하고 6.25가 나면서 한강철교가 끊겼을 때 자신의 처남 장 상달(張相達 당시 고교생)과

함께 자신을 결혼시켜준 젊은 총 사수(總師首)와 함께 마지막 배를 함께 타고 노량진나루를 건너 수원을 거쳐 천안 온양까지 피난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6.25를 맞이하면서 전농동 서울 시립대 처음 생길 때 동생 도찬(道燦)과 처남이 입학하여 서울 있을 때 아우와 이 정립과 그 처 그리고 그 처남 장 상달과 보천교 담당형사인 호가 근하라고 하는 김 종영이라는 사람과 함께 한강 노량진 나루터를 마지막으로 건너 도보로 걸어가다 오산서부터 차를 타고 온양까지 갑니다. 각자 헤어져야 하는 온양에서 전투기가 상공을 날아다니고 피난민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전쟁 통에 이 정립은 고교생이던 어린 처남 장 상달에게 삶과 죽음을 가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 갈대로 가라고 아주 매정하게 떼어놓습니다.

<용화도장 지킴이: 장옥 著>

이때 젊은 총 사수(總師首)는 어린 처남을 전쟁통에 매정하게 내치는 이 정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당시 냉혈한인 저 사람이 저게 무슨 인간인가 생각하고 대 실망했다고 밝힙니다.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피난민 대열에 정신없는 와중에 총 사수(總師首)는 하는 수 없이 이 정립이 떼어놓은 어린 처남 장 상달(張相達)을 거두어 동생과 함께 서산 집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이 때 피난대열에 동행한 이 정립(55세)의 처 장 옥(23세)은 총 사수의 증언과 동일하게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홀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만 챙겨가지고, 강나루를 건너 수원을 십 리 쯤 남겨둔 어느 시골집에서 하루저녁을 쉬었다. 우리 부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인 줄 알았다. 그럴 때마다 곧이곧대로 말해야 풀리는 성격이라 부부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이 당시 피난길에 동행한 일행은 집 선생님, 안 흥찬 선생, 그 분의 동생 안 도찬씨, 나의

남동생이었다.”

◎6.25 피난시 혼사시켜준 이정립 부부와 한강을 함께 넘은 젊은 總師首

<2변 도운 121(1991).3.7 강론>*(이정립을 혼인시켜주고 이 정립 부부와 그 처남 장 상달 일행과 한강을 건너 함께 피난)*6.25를 맞이하면서 서울서 한강다리 끊은 뒤에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내 동생이 전농동에 서울 시립대학이 처음 생길 때여. 동생과 처남이 입학을 할때여. 입학해서 등록금까지 다 냈을 때여. 그러구 나는 뭐 상제님 사업하러 여기 저기 다니는 사람이니께. 그 때 마침 서울에 있었구. 그래서 같이 말여. 이 정립 씨 그 누구누구 그 처되는 사람 누구 여럿이 일행이 말여. 저 김종영이라고 말여. 보천교 담당하던 형사라고 있어, 호는 근하라고. 모두 휩싸여서 수원까지 걸어와 가지고, 그래서 오산서부터 차를 탔어. 그래가지고 온양온천까지 와서 머물러 있는디,

<2변 도운 121(1991).3.7 강론>*이 정립이 처남 장 상달이라고 있어. 서로 상자에 통달 달자 장 상달인디. 걔 집이 울진여 울진. 헌디 걔를 내던져두고 가, 이 정립이가. 제 처남이고 여자에게는 제 친정 동생인디. 거기다 떼 내던지고 너는 너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저 연놈이 말여 사람도 아니고 말여. 제 처남이요 어린앤디. 그게 그 때 아마 서울서 고등학교 다녔던지 아마 그렇게 됐나봐. 헌디 그걸 어떻게 떼내 버리고 가나 제 동생 제 처남을. 그래서 헐 수 없어서 내가 더불고 집에 들어왔어, 내가 더불고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위암에 걸려서 말여. 나는 우리 어머니가 위암 때문에 말여, 참 양방에 무슨 방법이 없나 해서 그렁저렁해서 서울을 갔을 때다 이 말여. 상제님 사업도 사업이고. 그러니께 나는 어디로 갈 수가 없잖어, 집으로 가야지 말여. 자식 된 도리에 어머니가 말이여 중병에 처했는디.

<2변 도운 121(1991).3.7 강론>*집에 들어오면서 내 아우, 처남, 장 상달이 이 정립 처남, 그렇게 떡 더불고 집에를 와서 보니께 그 숱한 얘기 다 못하지만.... 그때에 그 이 정립이의 처남 되는 애가 내가 어떻게 소화하는 수가 없어서, 산에 가서 저 삽정이라도 따는 척 하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녁이면 와라, 밥 싸가지고 나가서 말여, 그렇게 해서 한참 뭐할 때 얘를 피난을 했어. 9.28 수복을 하고서 아마 얼마나 있었는지 내 기억이 안 나지만, 해서 우선 너 가는디가 용화동이 가장 쉬우니께. 거기루 해서 차를 타게 되면 타고, 걸어가게 되면 걸어가고 해서 슬슬 가라고 그런대로 말여. 충분히 여비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어 보냈는디,

<2변 도운 121(1991).3.7 강론>*안 흥찬이 같이 못된 놈이 말여, 여비도 제대로 안주어 보냈다고. 그게 이 정립 마누라가 하는 소리여, 병여 그게. 이 정립이하고 이 정립 마누라가 하는 소리여. 아니 그 죽는 세상에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좋은 밥 대접했고, 편안히 잠자리 제공해 줬고, 아니 잘 살려서 그렇게 해서 여비 줘서 저희들도 버린 애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해서 여비 줘서 저 갈디로 보냈으면, 그게 다만 고마울지언정 욕할 필요가 없는거거든. 그게 그 사람들 세계여.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의통 제작을 한 1950. 6.25 한국전쟁을 허망하게 보내며 이 상호·이 정립을 중심으로 숱한 도제들이 변질되어가자 20년 말점도 도수가 아직 남아있는 대국을 바라보고 대휴게기를 선포하며 간부들에게 단체 현상유지만 할 것을 명하고 아무 기약 없이 무대 뒤로 잠행을 합니다. 2변 증산교 연원의 총 사수인 주인이 갑자기 기약도 없이 사라지자 갑자기 기댈 곳이 없는 연원 간부들과 신도들은 미우나 고우나 연원과 상관없는 이 상호·이 정립 휘하에 자진 굴복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신앙단체인 증산교는 점점 친목 대법사(大法社) 판으로 변질되어 용화동 대법사는 두 형제 사후 연원을 부정하는 평신도회로 변질, 투표제 선거로 지도자 종령을 뽑는 헤게모니 정치판 단체가 되고 맙니다.

3)이상호·이정립 홍범초가 교단 통합운동에 목을 맨 이유

이 상호·이 정립 형제가 보천교 혁신운동을 벌인 이후 평생을 교단통합운동에 목을 맨 이유는 본인들의 신앙경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상호(李祥昊)는 김 형렬 수석 성도의 미륵불교에 들어간 뒤 김 형렬(金亨烈) 성도가 대원사 입산 수련차 대표자리를 잠시 공석으로 비우자 미륵불교 대표자리를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1926년 상제님의 성모(聖母)님 장례식에서 <팔파연합회(八派聯合會)>를 결성하게 되지만 큰 소득이 없이 끝나고 맙니다.

그 후 1942년이 되자 이들 형제는 6개 교단 17인과 상의하여 다시 상제님 신앙단체 통합운동의 일환이 아닌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며, 건전한 정치세력의 출현을 뒷받침하자는데 뜻을 같이하여 사회단체이자 일종의 회사인 동아흥산사(東亞興産社)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전원 구속되어 6인이 옥사하고 이 정립 등 5인은 1945년 8.15 광복 당시 대구감옥에서 출옥하게 되면서 그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 이후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의 2변 개척 조직을 자신들의 독조사 개평으로 헌사받은 것으로 생각한 이 상호 형제는 이 조직을 기반으로 독립운동가 유 동열(柳東說, 1878-1950 임정 군무총장, 국무위원) 장군을 중심으로 1949년 <증산교단통정원(甑山教團統整院)>을 조직하지만 6·25 때 유 동열의 납북으로 공중분해 되고 맙니다.

그 뒤 1955년 3월 11일 대법사에서 <증산대도회(甑山大道會)>라는 연합체를 결성, 위원장에 이 정립을 추대하였으나 2 년도 안 되어 유야무야되고 맙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1960년 9월 <민족신앙총연맹(民族信仰總聯盟)>을 결성하지만 이 역시 5·16 군사 혁명으로 무효화됩니다. 이후 1963년 군사정권에서 민정(民政)이양이 된 뒤 종교단체 등록이 필요 없게 되면서 평생 두 사람 주인공 해도진인으로 자처한 이 상호·이 정립 형제가 허망하게 선화하자, 이 정립으로부터 종통승계를 받았다고 자칭 주장하는 범초 홍 성렬는 1971년 1월 22일 보천교 신도 40여명과 증산교 신도 50여명이 보천교(구파) 회의실에 모여 <증산신도친목회(甑山信徒親睦會)>를 결성하여 회장에 박기백(朴耆伯), 교리연구위원장에 구 동서(具洞書), 부위원장에 배 용덕(裵容德), 총무부장 겸 교화부장에 홍 범초(洪凡草)가 선임됩니다.

해방 당시 초등학생으로 안 흥찬 총 사수와 이 상호·이 정립 형제 사이의 자세한 2변 교운 내막을 알리 만무한 홍 범초는 자신이 이 상호·이 정립이 이루지 못한 진주 사명자로 크게 착각해 내심 우월감을 마음에 품고 평생

교단통합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선화한 남주 이 정립의 유업을 이었다 주장하면서 <증산신도친목회(甑山信徒親睦會)>를 결성함을 계기로 이 정립이 뿌리부터 왜곡 말살시킨 2변 교운 내용을 자신의 <범증산교사>에 그대로 복사해 인용하면서 끝내는 자신의 신앙 뿌리인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에게 배사율을 범하면서까지 차도살해(借道殺害)하는 지경까지 가고 맙니다.

홍 범초는 마침내 자신의 실제 스승인 '안 흥찬'이야말로 지도자인 청음 남주를 배반해 출교된 자로 청음이 개창한 증산교라는 이름 자체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며 역공격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하게 됩니다. 상제님 진리 자체만으로 대국적으로 살펴보면 홍 범초는 순수했던 공주사범학교 1학년 학생 시절부터(58년 6월 24일(陰. 대학 하계방학) 어천절 용화동 첫 방문) 근묵자흑(近墨者黑)으로 평생 이 상호 형제에게 끊임없이 세뇌당한 채 증산교 역사의 뿌리와 내막이 은폐되어 말살된 상태에서 교단 조직을 물려받은 업보 아닌 업보로 애꿎은 진리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의 인연설은 사람이 서로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끼리 유유상종으로 뭉친다고 말해 줍니다.

단기필마에 가까운 이 상호와 증산교 단체를 거느린 안 흥찬이 대흥리에서 만난 시절 서로 간 연원의 스승관계를 맺기는 어려워 서로 동반자적으로 악수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등학생으로 당시 사정을 알 리 만무한 홍 범초는 현격한 나이차를 거론하며 안 흥찬이 이 상호에게 도를 받고 배신했다며 자신의 신앙 뿌리를 스스로 짓밟는 패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 조직 없이 만난 백전노장 이 상호는 자신보다 어리지만 조직을 갖춘 안 흥찬 총 사수 휘하로 잠시 들어가 은연관계를 맺은 뒤 마지막 인연을 정리할 무렵 서로 동상이몽(同床異夢)하게 됩니다. 원래 백전노장의 나이 많은 존장(尊長)으로 애시당초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를 애송이로밖에 여기지 않은 이 상호는 애초부터 총 사수와 생각과 정책이 같을 수가 없었습

강태공을 만나는 위수강가의 문왕

니다.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이 상호·이 정립 형제의 모함과 정책적인 단체 주도권 탈취에 대해 때가 때 아님을 알고 군말 없이 이 상호 형제에게 단체를 내던진 채 말점도 20 년 대 휴게기를 선언해 후일을 기약하고자 했고 이 상호 형제는 객관적으로 상제님 은두장미(隱頭藏尾)의 천지공사 정신에 의해 문왕(文王) 도수와 도안(都安) 세 살림 추수 도수는 전혀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추수 도운의 보천교 2변 교운사는 문왕 도수가 기두되는 뿌리역사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안 되면 진리의 종통맥을 전혀 잡지 못한 채 도안(都安)의 세 살림 도수가 무엇인지 흑운명월 도수, 윷판 도수, 초중말복 도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절대 암흑 속으로 낙오되고 맙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해방 이후 증산교 대법사 2변 교체조직은 보천교 초기 역사처럼 교주직제가 아닌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방주제(方主制)로 임술 생(壬戌生)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수(水)방주였습니다.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대구감옥에서 갓 나온 50세의 이 정립 씨를 2년 뒤 20세의 처녀 장옥과 맺어줘 장가 보내주고 이 상호 씨 토방주(土方主) 아래 명예직인 사성(司成)에 임명했으며, 방주 밑에는 동서남북(東西南北) 춘하추동(春夏秋冬)의 8교리 제도가 있어 80년대 용화동 교령(교주직책)을 수차례 맡았던 총 사수 직계 도제 황 원택은 배 동찬과 같은 8교리 간부였으며, 당시 범초 홍 성렬洪性烈은 천안의 도인 이 정득에게 도를 받은 형 홍 성찬을 따라다닌 13세 국민(초등)학교 6학년생이라 존재감 자체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범초凡草는 아산의 박 재근 신도 집으로 중학생인 그 형을 따라다니며 함께 수련을 받으며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후일 홍 성찬, 홍 성렬(범초)을 교육시킨 박 재근 신도는 홍 성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습니다. “홍 성렬은 아주 철저한 명리주의자다. 제 비위에 거슬리거나, 자신의 명예추구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공작모의해서 소리 소문없이 제거한다.” 일찍이 <연산군일기>는 간신 유자광을 두고 “음흉하고 남을 해쳐 재능과 명예가 뛰어난 자는 반드시 모함한다” 한 바 있으니 이는 바로 동품일질(同品一質)의 표현인 셈입니다.

범초 홍 성렬은 이 상호·이 정립을 추종하면서 자신의 연원체계를 부정하기 위해 자신은 부친 홍 만표洪万杓에게 도를 전해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형 홍 성찬과 홍 성렬이 박 재근 신도 집에서 숙식하며 진리교육을 받고 수련공부를 하던 즈음 두 형제가 증산 신앙권에 발 들여 놓은 자체를 혐오하던 두 형제의 부친 홍 만표洪万杓는 증산 상제님을 격렬히 비난하여 당시 신도들조차 그 집을 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부친의 패악으로 모친 김 홍옥金洪玉이 물에 빠져 죽는 우환이 생기자 부친의 강압에 못이긴 두 형제는 결국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었으며 후일 공주사범 전문학교에 입학한 범초 홍 성렬은 58년(陰. 1학년 하계방학 시절) 어천절(음 6월 24일)에 용화동을 처음 찾아가 이 상호·이 정립과 만나면서 다시

상제님 신앙권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안 운산(安雲山) 총 사수(總師首)가 간직한 2변 연원체계도(淵源體系圖)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변 연원체계도(淵源體系圖)>*2변 간부인 온양 이 창제(재)-송 태진(천안 200여명 포교)-천안 이 정득-홍 성찬(홍범초 兄)-범초 홍 성렬.

홍 범초는 스스로의 고백처럼 젊은 시절 가톨릭을 믿다가 철이 들어서야 비로소 황 원택 처럼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 20년 말점도 대휴게기 선언 이후 이 상호, 이 정립이 장악한 용화동에서 다시 신앙하게 된 사람입니다. 홍 범초는 교주 직(敎領)에 있던 80년대 통일교의 종교신문이었던 <週刊宗敎>에 자신은 대전의 안 흥찬(安興燦) 이라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 받았다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승을 비난하곤 하던 무례한 사람이었으며 이 상호·이 정립 형제의 태모 고 수부님 핍박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성산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치성절 날 태모님 어진을 짓밟아 모두를 경악시킨 적이 있는 강심장의 소유자였습니다.(경상도 거창출신 오성산파 신앙인 某 信徒 慶南丈증언)

또한 그는 이 정립의 종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날조된 <증산교사>의 2변 교운 내용을 <범증산교사>에 앵무새처럼 재생산하여 자신의 스승인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용화동 대법사 종령(교주직)을 수차례 지낸 황 원택은 해방이후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에게 도를 전해 받은 사람으로 총 사수(總師首) 동네 이웃에 살면서 늘 총 사수(總師首) 집에 와 살다시피 했습니다. 총 사수로부터 한문과 상제님 진리를 배우고 집중적으로 수련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증산교 원불교: 차옥승저>에 황 원택의 대담에서 그는 “증산교에 안 흥찬(安興燦) 선생의 설교를 듣고 증산교 본부에 입도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용화동의 종권을 차지한 뒤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20년 말점도 도수를 끝내고 재 기두(再起頭)를 위해 용화동에 찾아가자 “자식들을 다 버릴 때는 언제고 20년 만에 찾아와 연원(淵源)을 들먹인다.” 하며 홍 범

초와 함께 연원이고 스승이고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는 자신에게 재입도하고 신앙하라며 폭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상제님 도는 연원(淵源)이 중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상제님 도판에서 연원이 중심되지 않는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고 천명(闡明)합니다.

<安雲山 121(91년).3.4 강론>*홍 성렬이가 어떻게 나갔냐하면. 온양의 이 창제(재)가 간부여, 여기 명부가 있는디. 이 이 창제(재)가 송 태진이를 포교했어, 한 5분 꺼리 4분 꺼리 되나? 거기 살면서 포교를 그 사람이 많이 했어. 송 태진이가 천안을 가서 거기서 한 200명 포교했을 거여. 거기는 얼마 전까지 기독교가 못 들어갔어, 증산도 영향 때문에. 거기서 이 정득이라는 사람을 포교하고 이 정득이가 홍 성렬의 맏형 홍 성찬이라는 사람을 포교했어. 그 명부가 여기 다 이렇게 있거든. 이 명부, 이건 대한민국의 상제님 신앙하는 사람 출생 신고한 호적이라고 보면 되어. 용화동도 이런 것이 없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여. 딴 사람 누구도 가지고 있었을 자격이 없어. 내가 총 사수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기운으로 들어온 거란 말여 내가 총 사수니께!

<安雲山 121(91년).3.4 강론>*그런디 홍 성찬이를 포교한 사람이 이 정득이다. 홍 성렬 아버지가 홍 만표인디, 그 자가 왜 그렇게 못돼먹었는지, 상제님 신앙하는 사람은 집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왜 그러는지 죄악시하고 미워하고, 미친 개 취급하는 거보다 더하다 말여.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거주지가 어디냐면 목천면 신계리, 지금 독립기념관 있는 디여. 거기를 갔다가 병천을 갔다 오다가 홍 성찬을 한번 찾을려고 했었어. 나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홍 성찬이 애비가 그렇게 못 돼먹어서 거기 가면 망신당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려. '그렇게 증산도를 박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벌 받것다' 했는디 그 뒤에 홍 성렬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었어.

<安雲山 121(91년).3.4 강론>*홍 성렬이가 박 재근의 집에서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수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증산도에서 큰놈이 오늘날 와서 내가 지 뿌리인디. 여기 충청도는 전혀 딴 기운이 0.1%도 없는디여. 전부 강 증산을 찾았다면 그건 150% 다 내게서 나간 내 신도여. 그때 대한민국에 나처럼 젊은 사람이 포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이제 와서 무슨 이 상호 코빼기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어!

<安雲山 121(91년).3.7 강론>*범초 홍 성렬은 그 형에게서 도를 받은 사람이고 그 형제에게 진리를 전해 준 사람은 아산군 배방면 남리에 사는 박 재근 신도다. 도를 전해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형제가 쌀 한 톨 가지고 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박 재근에게 밥 대접 받으면서 이불 덮어주고 수련도 시켜주고 알몸으로 길렀다.(46년에 박재근 25세, 홍범초 형은 중학생, 홍범초는 13세)

<安雲山 121(91년).3.7 강론>*홍 성열은 제 형 쫓아다니며 박 재근에게 공부한 녀석이다. 제 아비 홍 만표가 그렇게 신도들을 비난하고 상제님을 박해하고 악살을 부

리고 했는데 그 처가 물에 빠져 죽었다. 나는 그 악살로 물에 빠져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이후 허탈해 가톨릭인가 예수교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제님 품에 들어온 사실을 제 입을 통해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 그 당시 나는 얼굴 한 번 본 일 없다. 그 때나 지금이나 풋내기 어린 애가 제 형 밑에 붙어 제 신앙하면 된 거지, 지도자가 그 많은 신도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나.

<安雲山 121(91년).3.7 강론>*황 원택은 서산 내 이웃이라 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교체 조직할 때 수화금목토 밑에 동서남북, 춘하추동의 8교리에 집어넣어 소화했다. 내 이웃이고 심부름시키기 좋고 국민학교 밖에 안 나온 걸 뭘. 그 때도 그놈을 내가 어떻게 인재 양성해 교육했냐 하면 한 두어 발 되는 댓가치를 갖다 놓고 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집중교육을 시켰다. 그때만 해도 한문 문화권이고 해서 지금보다야 한문을 해야 행세하는 때라 문자를 한 천개 가르쳤다. 독행천리에 백절불굴이라, 작지부지라야 내성군자라. 그런 문자를 한 천개 술어를 주입시켜놓으면 그런대로 사회에 강사로 내세울 수 있거든. 졸면 댓가지로 딱 하고 때리며. 가까운 제 집에 가서 먹기도 했지만 내 집에서 밥 먹여가며 자식 기르듯 온 정력을 바쳐 길렀건만 그런 게 커서 지금 용화동 책임자라고 어쩌고 한다.(황원택이 종령하던 70년대 용화동 방문때 자신을 받들어 재입도하라 폭언한 사건)

<증산교 원불교>(차옥승 지음)*증산교에 안 흥찬安興燦 선생의 설교를 듣고 증산교 본부에 입도를 했다. 후에 안 흥찬 선생이 증산도로 가시고 나는 증산교에 남아 있었다. 이 정립 선생이 살아계실 때 나는 보정保正으로 활동했고, 서산 증산교 교무사로 일했다. 남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김 형관金炯官 선생님이 대표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후 내가 증산교교단 대표를 몇 차례 했다. 나는 조석으로 청수를 모시고 매일매일 오주를 칠독하고 태을주를 백오독, 절후주를 칠독하고 있다. 특별한 종교적 경험은 없지만, 아직까지 무병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 〖황원택黃源澤 (2003년 현재 80세) 대담장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3구. 황 원택 선생님 자택. 대담시간 : 2003년 3월 6일 오후 3:30 ~ 4:40)〗

그러나 사제지간의 연원을 부정하는 이들 황 원택, 홍 범초 등 연비 간부들에게 갖가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이후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자식들을 데리고 대전 콩밭(太田)에서 문왕의 추수 세 살림 도수 中 중복도수를 새 배포로 꾸미게 되면서 운암강수 만경래 경만장 도안(都安) 세 살림의 중복 도수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됩니다. 한편 용화동 증산교 대법사는 신도 중심주의라는 미명하에 연원을 부정하고 교주(宗領)를 선거로 뽑을 때 마다 폭력이 난무해 조직이 쇠락해 유명무실해집니다.

동시에 자신들과 아무 연원관계가 없는 조직을 사회 정치적으로 강탈하다 시피 한 청음 남주가 자신들 위주로 단체를 재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금산도득(金山圖得) 문제인 용화동 신앙촌화를 선언하여 현안문제로 이슈화하고 범 증산계 교단 통합운동이라는 평신도 사회운동을 통해 연원의 맥을 끊고 부정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단체를 포교로 키우지 않고 사회운동으로 키우려는 이러한 빈껍데기 정책은 단지 이들 형제의 과욕이었을 뿐이므로 스스로 자처한 해도진인(海島眞人) 심법 근처도 못가는 그들이 성공할 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더우기 범 교단 통일은 상제님 종통의 핵심으로 105년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의 인사각지(人事刻之)로 추수 세 살림 초중말복 도수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최종적으로 태모님의 옥구 오성산 윷판도수와 흑운명월 도수가 현실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제님 진리본연의 6임 연원포교로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남이 애써 포교해 거두어 놓은 천하사 농사를 교단 통합운동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남이 애써 지은 도덕농사를 통째로 들어먹으려는 욕심이 이미 근본에서 빗나간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4) 청음 남주에 이어 홍범초로 계승된 2변 날조와 왜곡

총 사수(總師首)가 대국을 내다보고 이 상호·이 정립 형제에게 애써 일군 패를 송두리째 던져버린 용화동 증산교(甑山敎) 대법사(大法社)는 이같이 연원의 근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생태학적인 한계가 대물림 된 곳입니다. 이

러한 연장선 위에서 청음(1888-1966)에 이어 남주(1895-1968.1)마저 선화하자 그 허망한 종통을 물려받았다는 범초(凡草) 홍 성렬(洪性烈)이 뿌리부터 날조 왜곡된 <증산교사> 2변 내용을 바탕으로 스승인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를 집요하게 흠집내며 교단 통합운동에 그렇게 목을 맨 것입니다. 홍 범초가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에 대해 자신의 저작물 <범증산교사(汎甑山教史)>에서 이 상호·이 정립의 뿌리말살에 비견되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왜곡 2가지만 대표로 지적합니다.

1)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의 부친 안 병욱이 이 상호·이 정립 형제를 따랐으며 안흥찬 총 사수가 이 상호를 해도진인에 비유하면서 포교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범증산교사>*안병욱이 어느 때 이상호(李祥昊)·이정립(李定立)형제를 따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안병욱은 아들 운산에게 말하기를 네가 일을 하려거든 아산(牙山)의 원응섭(元應燮) 이응상(李應祥) 두사람과 손을 잡으라 했다 한다. 원응섭과 이응상 두사람은 인근에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운산(雲山)이 원응섭 이응상과 함께 정해(丁亥 1947)년에 아산군(牙山郡) 배방면(排芳面) 남리(南里)에 와서 윤철원(尹哲元) 반상철(班相喆)에게 포교하니 이들이 아산지방에서 대법사(大法社)에 입교한 최초의 교인이었다. 이 때 운산은 대법사교주 이상호(李祥昊)의 출생지가 전남(全南) 해남군(海南郡) 삼산면(三山面) 구성리(九星里)인 것을 비결의 진인해도출(眞人海島出)에 비유하면서 포교에 열성을 다 했다 이후에 서산(西山) 아산(牙山)지방의 교인의 수효가 수백세대(數百世代)에 이르었고 인접지역인 공주(公州) 천안(天安)등지로 전파되어 적지 않은 교인이 늘어났다.

홍 범초는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의 부친까지 언급하며 보천교시절 이 상호 형제를 따른 혁신파로 매도함과 동시에 안 운산 총 사수가 이 상호를 해도진인(海島眞人)으로 비유하면서 포교했다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단체를 탈취하고 뿌리역사를 날조한 이 상호로부터 허위날조된 가르침을 사주(使嗾)받았거나 홍 범초 개인의 상상으로 적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증산진법회를 개창하고 증산사상연구회 회장을 지낸 故 배 용덕 회장은 자신이 중풍을 맞자 회장 자리를 내놓으라 압박하던 파렴치한 홍 범초 때문에 괴롭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당시 자신의 논문 교정을 돕던 이 근직(한양대 행정학 박사)에게 <범증산교사>에 유독 대전의 증산도만 감정적인 글로 도배해 놓았던데 증산도에서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고 했을 정도로 홍범초의 날선 비방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대개벽경>에, 어느 성도가 상제님께 묻길 무진 기사에 진인이 해도에서 출현한다는 설이 있사온데 믿을만 하옵니까? 말씀하시되 나의 덕을 펴는 자는 무진년에 세상에 기두하니라, 천지 대운이 서전서문에 있노라. 내 조정에 설자는 서전서문을 만독하라. 말씀하시되 내도 아래에서 이 서문으로 망하는 자 한 사람 있고 흥하는 자 한 사람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상호가 <대순전경>을 간행하여 태모님께 올리자 태모님께서 아무말씀도 않으시고 담뱃대로 바닥에 놓인 책을 옆으로 휙 밀쳐버리셨습니다.

“이 서문으로 망하는 자 한 사람 있고 흥하는 자 한사람 있느니라.”에 대해 무자(戊子:道紀 18,1888)년 2월 생인 이 상호의 현무경 자부(子符)를 참고로 보면 상제님은 크게 보아 <충자充者는 욕야慾也라 이악충자以惡充者도 성공成功하고, 이선충자以善充者도 성공成功하느니라(玄武經)>라 경계하시고 반면 임술(壬戌:道紀 52, 1922)년 6월생인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의 현무경 도안都安 세 살림부로 시작되는 문왕 도수 술부(戌符)에 “사무여한부(死無餘恨符)”라 하셨습니다.

진인이 해도에서 출(出)한다는 말씀에는 답을 하지 않으셨고 바로 나의 덕을 펴는 자는 무진년에 기두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호는 기사삼월기망에 대순전경이 출간 되도록 시점을 맞춘 것일 뿐이지 기사삼월 기망에 경전이 나오다는 공사는 어디에도 없는 구절입니다. 무진년은 바로 상제님 숙구지 공사로 구월도에 태모님이 이어서 문왕이 일어나는 공사를 보시는 것

을 말씀하시는 것인데(나의 덕을 펴는 자는 무진년에 세상에 기두하니라) 이 상호는 무진기사 진인해도출 비결을 상제님의 무진년 후진주 기두설에 연관시켜 자신이 상제님 진리를 펴는 주인공으로 크게 착각했습니다.

더욱이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의 부친 안 병욱(安柄彧)은 이 상호·이 정립 형제를 따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당시 일제의 협조를 얻어 보천교 혁신운동을 벌이며 주먹깨나 쓰는 역사(力士)를 동원해 보천교 간부들을 폭행해 사경에 빼뜨리고 보천교 재산을 횡령하는 등 불의한 이 상호 형제 추종자를 제외한 모든 보천교인이 이 상호·이 정립 형제에 대해 악평을 한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음이 보천교 정사(正史)인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에 나옵니다.

동시에 총 사수의 연원으로 목화토금수 방주제 아래 조직인 8교리 직책에 있으면서 이 정립의 결혼을 성사시킨 경상도 지역의 대연원주 배 동찬(裵東燦)이 총 사수 은퇴 후 이 상호·이 정립 형제의 신앙촌 운동에 부응하여 용화동에 자리를 잡자 배 동찬(裵東燦)의 160여명 경상도 출신 연비들이 이 상호가 장악한 용화동 증산교 대법사를 집단 탈퇴해 연원주 배 동찬(裵東燦)으로 하여금 왜 피를 토하게 만들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일입니다.(<용화도장 지킴이> 57P. 張玉 著)

이 상호를 추종했다면 당시 몇 안 되는 극소수의 이 상호 혁신파라는 의미인데 이들 극소수 이 상호 혁신파는 이미 보천교 연혁사에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고 소수파인 그들이 그 명단을 내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천교 역사의 중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숙구지 문왕의 도수가 출범되는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사실 왜곡입니다. 만일 2변 총 사수(總師首)의 부친이 이 상호를 추종했던 혁신파라면 이 상호 형제가 부친 안 병욱이나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와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이 상호를 해도진인(海島眞人)에 비유하면서 포교했다는 허위, 날조 주장은 2변 증산교 대법사를 개창한 단체의 총 사수로 이 상호를 용화동 본소에 임명한 내막을 당시 국민(초등)학교 학생이었던 홍 범초가 알았을 리 만무하며 홍 범초의 신앙 연원에 대한 자료나 홍 범초 스스로 고백한 인터뷰를 고려할 때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불과합니다.

<2변 도운 121(1991).3.4 강론>*그 못 배우고 무지한 촌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제님 진리를 주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추교차기 개벽기 -우주변화의 원리 도표- 그게 그때 거기서 나온거여. 그게 지금 제군들이 알구서 보니께 우스운 것 같지? 그게 하도, 낙서보다 더 좋은겨.

<2변 도운 121(1991).3.4 강론>*하도, 낙서 죽을 때까지 주역공부해도 이 세상 꼬라지를 몰라. 누구도 그것 그려놓고 이야기하면 한 시간이면 우주원리가 싹 들어와! 그것을 내가 개발했어. 인류역사를 통해서 동양문화권에서 가장 알기 쉽게 개발한 게 나여, 누구도 알기 쉽게 포교 전략으로 그런 것을 개발했어.

❀증산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여

<2변 도운 121(1991).3.4 강론>*당신이 의통 얘기하는데 천하에 다 공개된 사실인데. 내가 당신한테 받은 게 뭐가 있냐? 내가 당신 지켜주고 당신 동생 생활시켜 주고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조직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수주>여. 이 상호 씨가 <토주>고. 내가 포교한 김 종렬이가 화주이고. 경상도 이 원호라는 사람이 목주고. 서울 합정동 27번지 최 규석이라는 사람이 금주여.**

<2변 도운 121(1991).3.4 강론>***이 정립이 50여살 넘었을 때 자기 집이 없으니께, 마누라도 없고. 이 정립이 돈 일 푼이 있나? 또 늙었고 해서 이 정립한티 시집온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장가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혀. 그건 지 부모도 어떻게 하덜 못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일이 어딨냐고. 내가 결혼시켜 준다고 말여,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시켜서 아들 삼형제를 낳게 해줬어!**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이 정립이는 신명이 다할 때까지도 나한테 은혜를 다 못 갚어.

侍

그런 점에서 보면 홍 범초 역시 이 상호·이 정립이 뿌리부터 말살한 2변

교운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그렇다 해서 그의 역사적인 허물까지 면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홍범초는 <범증산교사> -운산(雲山) 대법사(大法社) 간부와 불화(不和)-라는 소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인신공격성 소설을 썼습니다.

> <범증산교사>*대법사(大法社)는 신묘(辛卯 1951)년 음력 2월에 원평 장승백이에서 호신부(護身符)와 인패를 만들 때 인육(印肉)의 제조에 필요한 경면주사(鏡面朱砂)15근을 운산이 자기의 연원(淵源)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공주(公州) 부여(夫餘)지방에서 거출하여 냈고, 의통구호단의 조직국장의 책임을 맡아 자긍(自肯)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운산이 호신호부(護身戶符)의 배부(配付)와 의통구호단의 인원배정(人員配定)을 자기의 연비(連臂)에 유리하도록 짠데다가 장승백이에서 만든 호신부와 인패를 자기 연비 교인들을 시켜 모두 가져 갔으므로 **경상도(慶尙道)의 이원호(李元浩)같은 이는 '충청도 사람만 사람이냐 만일 안세찬(安世燦)연비의 의통구호단이 경상도에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두지 않겠다' 고 분개했다.**

이는 상제님 진리의 신앙인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매우 불량한 진리왜곡입니다. 당시 공주 사범 전문학교 학생이던 홍 범초는 당시 대학생이 아주 귀할 때여서 남주 이 정립으로부터 아주 기대받는 신도로 총애를 받으며 가까이합니다. 증산교 대법사의 뿌리 역사를 왜곡시킨 장본인 밑에서 올바른 역사를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천교 시절 이 상호·이 정립 형제의 가장 큰 죄는 일제에 이중으로 매수되어 형사대를 이끌고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 자금처였던 600만 비밀교단의 정체와 신비화된 월곡 차 경석 교주의 비밀 거처를 급습해 공개시켜버린 소위 "보천교 양해"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태모님이 강조하시는 참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상호, 이 정립은 인륜 역사에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이미 태그조차 필요없이 아웃인 사람입니다.

태모님은 용화동 동화교 합동교단을 열고 이들 형제에게 온갖 핍박을 당

하고 “조강맥식(糟糠麥食)이라도 임옥 자손(臨沃子孫)을 영솔(領率)하고 제반사(諸般事)를 결탁(結托)하리라” 결론을 내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일 안운산 성도사는 “상극 속에서 상생이 비태秘胎 되는 수밖에는 없다. 상제님께서 어거지로 하신 것이 아니다. 뭇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즉 틀이 그렇게 된 것이지 상제님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설파 하여 대국적으로 과거를 수용하여 그들의 위패를 친히 모셔주는 대인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허황된 해도진인에 빠져있던 이상호·이정립 형제로서는 상제님이 안내성 성도에게 부치신 ‘만경강 세 살림 도수’ 속에 안 운산 총사수의 역경만첩의 일등방문 도수(문왕도수)가 은장隱藏되어 있음을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홍 범초 글은 <범증산교사>에 담긴 2변 교운 내용 전체가 허위 왜곡 사실인 것처럼 90% 이상 거짓말입니다. 이는 홍범초의 <범증산교사> 2변 교운 내용이 거짓으로 왜곡 말살된 이 정립의 <증산교사>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며 범초가 이 정립 살아 생존 시 새빨간 거짓말 역사를 착실히 전수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범증산교사>*대법사(大法社)는 신묘(辛卯 1951)년 음력 2월에 원평 장승백이에서 호신부(護身符)와 인패를 만들 때 인육(印肉)의 제조에 필요한 경면주사(鏡面朱砂) 15근을 운산이 자기의 연원(淵源)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공주(公州) 부여(夫餘) 지방에서 거출하여 냈고, 의통 구호단의 조직국장의 책임을 맡아 자긍(自肯)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운산이 호신호부(護身戶符)의 배부(配付)와 의통 구호단의 인원배정(人員配定)을 자기의 연비(連臂)에 유리하도록 짠데다가 장승백이에서 만든 호신부와 인패를 자기 연비 교인들을 시켜 모두 가져갔으므로 경상도(慶尙道)의 이 원호(李元浩)같은 이는 ‘충청도 사람만 사람이냐 만일 안 세찬(安世燦) 연비의 의통 구호단이 경상도에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두지 않겠다; 고 분개했다.

<범증산교사>*당시 지방별로 많은 교인을 거느린 대 연원주격(大淵源主格)인 경상도(慶尙道)의 이 원호 배 동찬(裵東燦), 경기도의 원 제철(元濟喆) 유 흥고(柳興皐), 충청도의 김 종렬(金鍾烈)등은 운산(雲山)의 처사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사건건(事事件件)대립하게 되자 운산(雲山)은 자기가 많은 교인을 포교하여 교세를 떨치게 하였고 의통 인패의 제작을 가능케 하였으며 의통 구호단을 조직해 놓으니 이 공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교주 청음과 남주는 자기에게 대드는 두령들 편을 들어 자기를 몰아내려 한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해는 교본부(敎本部)에서 박 복만(朴福萬)을 시켜 자기를 해치려 했다고 까지 항의하게 되었으니 운산(雲山)이 청음(靑陰) 남주(南舟) 밑에서 교(敎)를 함께 신봉할 수 없게되어 신묘(辛卯 1951년)년 가을에 대법사(大法社)를 떠났다. 이로써 운산은 을유(乙酉 1945)년 9월 19일 대법사 창립에 참가한 이후 6년여 간 몸담아 종교 활동을 해온 대법사와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다.

김 종렬(金鍾烈)과 배 동찬(裵東燦)은 특히 총 사수의 사람으로 배 동찬은 총 사수(總師首)의 명으로 영덕울진의 자기고향 출신인 장 옥을 이 정립과 연결해 결혼까지 해 준 사람이며 그의 아들은 박 기백(朴耆伯:용화동 교령(교주직) 및 증산신도친목회(甑山信徒親睦會) 회장 역임)의 아들 박 주호와 함께 총 사수를 도와 의통(醫統)을 직접 제작한 실무 팀이기도 했습니다. 화방주(火方主)였던 김 종렬(金鍾烈)은 초기 총 사수의 명으로 용화동 본소를 지은 사람으로 방주직 제도 하에서 토방주(土方主) 이 상호의 욕심을 눈치 채고 총 사수(總師首)에게 교주직(敎主職)에 오르기를 간청한 사람입니다.

용화동 본소는 총 사수가 결혼시켜 준 이 정립이 용화동 본소에 임명된 이 상호와 함께 경상도 지역 대 연원주인 배 동찬(裵東燦)이 주도하여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서울에 살림집을 두었던 이 정립이 수시로 개축공사를 살피러 내려간 것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총 사수를 심중으로 열외로 하고 마치 물 만난 듯이 보천교시절 해도진인(海島眞人)의 주인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 흥찬 총 사수가 20년 말점도 도수를 가슴 속에 담고 대 휴게기를 선언하며 장막 뒤로 사라지자 의지처가 없던 대부분 간부나 신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경상도 지역 대연원주인 배 동찬은 이 정립 부부를 성혼시킨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 상호가 주장한 신앙촌화의 이슈 속에 휘말려 신앙생활 역시

그 속의 한 가족 생활권으로 평생을 신앙하고 맙니다.(89년 선화)

안 흥찬 총 사수가 장막 뒤로 사라진 뒤 배 동찬 대 연원주가 아무 연원 관계가 없는 이 상호 형제의 용화동 생활권 속에 휩쓸려 가던 즈음 그가 거느렸던 160여 명의 직계 연비들은 보천교 시절 일제에 매수되어 보천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혁신파 두목으로 악명을 익히 아는지라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서로 모여 합의를 보고 한날한시에 이 상호가 장악한 용화동 대법사 휘하를 떠나 선불교(법종교)로 들어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용화도장 지킴이, 장옥 著>

아마 용화동 증산교 대법사 역사 중 가장 큰 충격으로 기록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을 직접 포교한 배 동찬(裵東燦)은 당시 피를 토했다고 이 정립 부인 장 옥 여사는 전합니다. 이 상호의 명을 받들어 자신의 신앙 뿌리인 안 흥찬 총 사수를 암살하려다 붙잡혀 용서해 주고 풀어준 박 복만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홍 범초는 어린 시절이라 알지 못 하는 일이므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홍 범초가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문제로 보입니다.

3) 홍 범초는 위 <범증산교사> 주장에서 이들 대 연원주들이

> <범증산교사>*“운산(雲山)의 처사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사건건(事事件件)대립하게 되자 운산(雲山)은 자기가 많은 교인을 포교하여 교세를 떨치게 하였고 의통인패의 제작을 가능케 하였으며 의통 구호단을 조직해 놓으니 이 공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교주 청음과 남주는 자기에게 대드는 두령들 편을 들어 자기를 몰아내려 한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마 뿌리 역사를 왜곡한 이 상호·이 정립에게 전해 들은 엄연한 사실 왜곡이고 결정적인 다음 사실 하나만 보아도 홍 범초가 얼마나 사실 왜곡을 넘어서서 인신공격성 비방을 해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 문장 하나하나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이라 다음 사실 하나로 전체를 가름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2변 교운사

에 대해 홍 범초가 쓴 <범증산교사> 내용이 얼마나 신뢰성 제로의 날조투성이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홍 범초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반박해 줄 수 있는 양심적 증언은 바로 해방 이후 2변 교운에 대해 홍 범초를 가르친 이 정립의 부인 장 옥 여사의 회고록 <용화도장 지킴이>에서 나왔습니다.

<용화도장 지킴이>에서 장 옥 여사는 1950년 6.25 사변 직후 의통 제작 당시 "그때 경면주사(鏡面朱砂)는 안 흥찬(安興燦) 선생이 전량 충당했다. 그래서 완성된 의통은 대부분 양 일환(梁一煥) 씨가 충청도로 가져갔다. 이에 경상도 밀양에 살던 이 원호(李元浩) 씨가 크게 화를 내고, 청음 선생님께 항의하여 일대 분란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범증산교사>*운산이 호신호부(護身戶符)의 배부(配付)와 의통구호단의 인원배정(人員配定)을 자기의 연비(連臂)에 유리하도록 짠데다가 장승백이에서 만든 호신부와 인패를 자기 연비 교인들을 시켜 모두 가져 갔으므로 경상도(慶尙道)의 이 원호(李元浩)같은 이는 '충청도 사람만 사람이냐 만일 안세찬(安世燦)연비의 의통구호단이 경상도에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두지 않겠다; 고 분개했다.

사실 이 증언 하나로 진실 찾기 게임의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심지어 홍 범초는 이 상호가 만든 의통을 안 흥찬 총 사수가 빼돌렸다고 중상모략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문장의 겉만 놓고 피상적으로 보면 마치 총 사수가 개입해 의통을 충청도로 탈취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천교 시절부터 평생 음해와 간교한 책략으로 일관했던 청음 이 상호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기회를 준 젊은 총 사수를 조직에서 제거하기 위해 젊은 총 사수(總師首)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덫을 놓는 음모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계책은 바로 6.25 당시 제작한 의통(醫統)을 장차 제거하고자 하는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의 고향 충청도

비밀장소에다 몰래 옮겨놓고 총 사수가 모두 빼돌렸다고 소문내는 것이었습니다.

통신과 교통이 불편해 지방 포교차 출장 가면 한 달 이상 비우던 총 사수에게 이러한 음모는 치명적이어서 극소수 간부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도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연스럽게 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 상호는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를 제거하기 위해 의통을 충청도 비선라인의 비밀 장소에 몰래 옮긴 뒤 충청도 출신인 총 사수가 비밀리 빼돌린 것으로 비방하면 총 사수에게 집중된 단체 신도들을 대거 이탈시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경면주사는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전량 공급했지만 자신 형제를 비롯한 최고위 간부 몇 명만 아는 사실이기에 이러한 사실조차도 전국신도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최고 두령인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를 제거할 치명적인 명분을 찾아 덫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총 사수(總師首)는 이 덫이 아니어도 대국을 바라보고 아직은 때가 아닌지라 스스로 용퇴했기 때문에 결국 그 덫에 걸린 장본인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청음 자신과 바로 세월이 지나 2년제 공주사범학교 대학생 시절(1958년 어천절) 이들의 품 안 용화동 대법사에 찾아든 패기만만한 범초 홍 성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총 사수 연원 이 정득, 박 재근에게 도를 받은 사람으로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학생이었던 범초는 이후 이 상호 형제의 뿌리부터 날조된 가르침을 받고 이 박제화 된 복사판 덫을 자신의 <범증산교사>에 옮겨 넣어 스스로 운명의 덫 속에 갇히고 맙니다.(홍범초 연원 계통도: 안운산 총 사수 2변 간부, 온양 이 창제(재)–송 태진(천안 200여명 포교)–천안 이 정득–홍 성찬(홍범초 兄)–범초 홍 성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상호가 총 사수 제거를 위해 의통을 충청도로

비밀리 빼돌린 실상과 함께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가 공급한 경면주사에 대한 사실도 50여년이 지난 2004년에 이르러서야 결국 2변 교운의 뿌리를 송두리째 말살한 주범 이 정립의 처 장옥(張玉)에 의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맙니다. 청음 남주가 단체를 개창한 주인을 내치고 도덕적으로 인격 살해까지 한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처가 50여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를 뒤집는 증언을 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50여 년이 지나 백일하에 드러난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이 상호 형제가 당시 총 사수(總師首)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씌워 제거한 뒤 수십 년간 대물림하며 차도살해(借道殺害)함으로써 완전범죄로 종권을 탈취하고 뿌리역사를 영구히 파묻고자 했던 치졸하고 비열한 술수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는 양심선언이었습니다. 이로써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를 제거하고 종권을 차지하려 했던 당시 청음 남주 형제가 이 사실을 철저히 감추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계책이 당대에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이 정립이 용화동에 스스로 찾아온 홍 범초에게 후속 시리즈 편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입니다. 홍 범초는 “경상도(慶尙道)의 이 원호(李元浩)같은 이는 ‘충청도 사람만 사람이냐 만일 안 세찬(安世燦)연비의 의통구호단이 경상도에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두지 않겠다; 고 분개했다.” 는 양심에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 소설을 씁니다.

그러나 남주 이 정립의 부인이자 청음의 제수인 장 옥(張玉)은 청음 이 상호가 양 일환이라는 사람을 통해 충청도 모처 비밀장소로 모조리 옮겨놓자 밀양의 이 원호 대연원주가 의통을 숨겨놓은 장본인 청음에게 항의하는 대소동이 났다고 양심 증언합니다.

장옥:“그때 경면주사(鏡面朱砂)는 안 흥찬(安興燦)선생이 전량 충당했다. 그래서 완성된 의통은 대부분 양 일환(梁一煥)씨가 충청도로 가져갔다. 이에 경상도 밀양에 살던 이 원호(李元浩)씨가 크게 화를 내고, 청음 선생님께 항의하여 일대 분란이 일어났다.”

만일 이 원호가 청음 이 상호 연원 계열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소동이 날 정도로 자기 연원주 지도자에게 대들었을까요? 의통이란 최 우선적으로 자기 연원 계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 범초는 거꾸로 청음과 남주의 교시(敎示)를 받아 충청도 사람만 사람이냐 만일 안 세찬 연비의 의통 구호단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분개했다며 이 상호의 책략대로 안 흥찬 총 사수를 아무 사실 확인 없이 너무도 가볍게 자신의 신앙의 연원뿌리인 총 사수를 무자비하게 인격살해하고 맙니다.

만일 충청도 출신의 총 사수가 경면 전량을 공급해 만든 의통을 충청도로 빼돌렸다면 총 사수의 대 연원주인 이 원호에게도 당연히 돌아 갈테니 항의할 리 만무였겠지만 연원 관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래도 항의하려면 총 사수에게 항의해야지 왜 자신의 연원 스승인 청음에게 항의해 대 분란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총 사수 휘하의 대 연원주 간부였던 이 원호가 당시 자신의 지도자인 총 사수를 제거하기 위한 이 상호의 계략을 간파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홍 범초는 자신에게 도를 전해준 스승을 배신하고 이 상호, 이 정립에게 정책적으로 붙어 역으로 자기 스승을 공격하는 불의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총 사수의 연원 제자인 이 원호도 자기처럼 스승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평소 이 상호 형제가 안 흥찬 총 사수와 연원 간부들의 틈을 가른 중상모략과 비방을 한 것처럼 동일하게 비방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 지방별로 많은 교인을 거느린 대연원주격(大淵源主格)인 경상도(慶尙道)의 이 원호, 배 동찬(裵東燦), 경기도의 원 제철(元濟喆) 유 흥고(柳興皐), 충청도의 김 종렬(金鍾烈) 등은 운산(雲山)의 처사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사건건(事事件件)대립하게 되자”

앞에서 보듯이 홍 범초의 <범증산교사>에서 홍 범초가 총 사수와 대연원주 사이를 이간하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삽입한 것은 이 상호·이 정립의 교시 내용이 근본 출처이며 이 상호·이 정립 사후 74년~75년 대전에서 안 운산 총 사수가 20년 만에 재 기두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모시고 싶다는 서신을 수차례 보냈으나 냉정하게 거절당하자 그 위에 자신이 덧붙여 개칠한 글입니다.

소위 서울 합정동 최 위석 집에서 창립치성에 참석한 사람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하고 해방이후 가진 일회성 치성이었지만 이 치성을 자신들이 개창한 조직의 뿌리로 날조해 꾸며놓고 최 위석 가정집을 서울 대법사 교당이라 명명하고 세월이 지나 정당성확보를 위해 수십 명 참석인원을 145명의 중앙통제위원(中央統制委員)으로 선임하여 중앙통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이 상호(李祥昊) 상무위원 겸 총무부장에 이 정립(李定立) 등 각각 이름뿐인 허위 명단에 올리고 총 사수는 통제위원에 끼워 넣어 왜곡 날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 정립이 그 가짜 자료를 자신의 집 보리바꾸에 넣어둔 채 60년대 중반 모두 선화하자 그 아들 이 영옥이 교직에 있다 은퇴하여 2변 교운에 관한 이 같은 왜곡된 자료를 모친에게 받아 증산교사(甑山敎史)라는 이름으로 발행하고 후일 범초凡草 홍 성렬(洪性烈)은 위조된 이 책의 2변 조직 내용을 배경으로 일개 통제위원과 의통조직 조직부장으로 격하된 젊은 총 사수의 존재를 이 정립에 이어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게 됩니다.

이 상호·이 정립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차 경석, 김 형렬 성도로부터 천지공사 내용을 전해 듣고 『대순전경』 편찬의 공로는 있지만 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태모님의 10년 신정공사의 본령을 잘못 이해했음이 명약관화합니다. 두 사람은 상제님의 정체성은 물론 태모 고수부님의 정체성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앞 못 보는 장님 신세였지만 600만 신도를 거느린 당대 최고의 인권가 차 경석 보천교 교주를 상대로 보천교 혁신운동을 벌이고 만주 망명과 귀국으로 숨바꼭질을 벌이며 싸운 노회한 책략가로서의 이 상호는 젊은 총 사수가 개척한 조직을 손 하나 안 대고 접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태모님 시절부터 보천교 동화교를 거쳐 해방 이후 안 흥찬 총 사수가 만든 조직에 대한 이상호의 끝없는 욕심과 야심이며 둘은 조직을 만들고도 조직의 리더 역할로서보다 우선 조직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먼저 포교해 확대하려고 신경을 쓴 20대 중반의 젊은 총 사수의 조직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이런 젊은 총 사수의 순수했던 마인드가 노회한 전략가이자 정책가였던 이 상호에게 이용당했을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비록 이 상호가 당시 장님였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명령을 대행할 혈육 이 성영이 지키고 있었음을 젊은 총 사수는 간과한 것입니다.

당시 안 흥찬 총 사수는 교주직에 오르기를 바라는 신도들의 요구에 대해 정력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자신밖에 없으며 아직 젊은 나이에 포교를 통해 직접 판을 키워야 할 때라서 교주로 들어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묵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젊은 총 사수 선생님을 교주로 모시려다 실패하고 후일 자신이 직접 임술교를 만들어 교주가 된 대 연원주 김 종렬과의 대화내용이 이를 증거합니다.

간부 김 종렬과의 대담에서 젊은 총 사수는 자신은 교주에 전혀 욕심이

없고 실무적으로 교세를 불리는 포교운동만 하겠노라고 공표하고 교주 자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표명합니다. 당연히 김 종렬의 의사타진에 전국의 신도들이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모든 신도들은 이 소식을 직간접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비록 젊은 총 사수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던 신도들이었지만 자리에 욕심 없다고 표명한 지도자의 선언 한마디에 서서히 새로운 의지처를 찾아 때마침 용화동 신앙촌 운동을 부르짖는 청음 이 상호에게 인권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분수령이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젊은 총 사수가 20년 은둔으로 들어감을 선포한 1954년이었습니다. 그렇게 2 변은 이 상호 형제에게 모든 것이 넘어간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용화동에 자리 잡은 청음은 젊은 총 사수가 개척한 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총 사수의 바람대로 중심역할을 했고 청음은 그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내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맙니다.

문왕이 갇힌 유리옥姜里獄의 유리성姜里城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總師首)는 54년 문왕의 유리姜里감옥 유폐 도수인 말도(末島:末店島) 도수 20년 대휴게기大休憩期를 선포하고 공주, 대전에서 20년을 은거하는 대휴게기를 거쳐 74년부터 재기두再起頭 해 1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84년부터 증산도(甑山道)를 선포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왕 세 살림 중복 도수가 제 궤도에 오릅니다. 시종일치始終一致. 처음과 끝인 낙종물 도수와 추수도수는 각기

똑같이 ①대흥리 살림-②조종골 살림-③(왕심리 교단-왕심리, 용화동 동화교 통합교단-오성산 교단) 세 살림과 초복, 중복, 말복 등 운암강수 만경래의 김만경 뜰 세 살림 추수 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태모님 낙종물 도수가 이종물 도수 책임자인 차 경석 성도와 이종사촌 간으로 대흥리 살림 동거형태로 이뤄져 있다면 추수도수 또한 문왕의 초복 도수를 일으킨 운산 안 흥찬 총 사수와 안 경전 중복 지도자는 부자간의 슬하 섭정으로 볼 수 있는 도안都安 동거형태로 이뤄져 있습니다.

태모님 세 살림 중 대흥리 첫 살림과 두 번째 조종골 살림이 파행 속에서도 무난하게 이어진 형태라면 조종골 살림 이후 사실상 세 번째 살림으로 가는 왕심리 살림 이후 동화교와의 과도기 통합교단과 엮여진 오성산 살림은 파란을 겪으며 이뤄졌습니다. 이는 중복살림에서 말복살림으로의 이행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내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경무청 산하 일경 간부인 동광회의 두목 경무청 경시(警視) 김 태석(金泰錫, 창씨명 金村泰錫, 보천교 연혁사엔 김태식金泰湜으로 이 정립과 함께 반민특위에 체포. 김 태석은 사형구형)과 경기 경찰부 후지모토(藤本) 고등과장 등 일제당국에 이중으로 매수당한 이 상호의 동화교(東華敎) 창교는 일제의 보천교(普天敎) 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문화종교계 고등 스파이로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파견된 친일 언론인(국민신보:총독부 산하 일진회 기관지) 기자 출신 김 환(金丸)의 적극적인 기획과 개입으로 탄생된 교단입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친일주구 김 환(金丸)을 문화 종교계 고등밀정 촉탁 신분으로 내세워 이 상호 형제를 매수 뒤 조종하여 만든 동화교 창교의 약점을 덮어줄 동화교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이 상호·이 성영(정립) 형제는 태모님을 모셔가려 조학구와 함께 택시를 대절해 왕심리까지 찾아가 배알하는 지난(至難)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내막은 <보천교연혁사>에 자세히

소개되어있고 본 <통합경전> 본문에 모두 담겨있습니다.

이같이 이 상호 형제가 차량까지 대절해 가며 정읍군 입암면 왕심리(旺尋里)를 찾아가 태모 고 수부님을 모시고자 지극정성을 기울이자 때마침 심각한 경제난국에 처한 왕심리 교단은 잠시 과도기적으로 살림을 합해 경제난국을 피하고 보자는 수석성도 고 민환(高旻煥) 수석 성도의 계청(啓請)에 의해 마침내 용화동 동화교와의 합동 교단(合同敎團) 살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태모님을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이 상호·이 정립 형제는 고 민환(高旻煥) 수석 성도를 살해하여 태모님을 고립시키려 하여 이를 눈치 챈 고 민환(高旻煥) 성도가 야밤에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도망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이 상호 부인까지 나서 태모님을 모시고 안 살림을 책임지던 연배 지긋한 전 대윤(田大潤) 할머니 신도도 모함하여 쫓아내는 바람에 끝내 가족들에 의해 집으로 돌려보내져 1년도 못살고 돌아가시게 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전대윤의 딸 김순자가 고민환 성도 며느리로 오성산에서 태모님 수발)

이외에도 조종골 신도의 갖가지 심한 핍박과 연이은 태모님 고립정책은 마침내 <선정원경(仙政圓經)>에 "조강맥식(糟糠麥食)이라도 임옥 자손(臨沃子孫)을 영솔(領率)하고 제반사(諸般事)를 결탁(結托)하리라—거친 술지게미와 쌀겨, 꽁보리밥을 먹는 한이 있을지라도 불온한 이 상호 동화교 교단 신도를 제외한 오성산 교단의 임옥 자손 거느리고 모든 일을 의탁하리라(마무리 신정공사 집행)"' 하신 선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 상호·이 정립 형제의 불의에 대해 그들이 추구했던 동화교 정통성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신 최종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동화교 합동 살림이 아니라 오성산 교단 신정공사에서 배출되는 도안 세 살림 공사(흑운명월공사, 쇠말뚝 세 번 공사, 도운 통일 윷판공사, 천지무기토

세 번 공사)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종통(宗統)이 된다는 공개적인 신권 선언(神權宣言)이신 것입니다. 오성산 교단 건축이 완공되자 곤존 태모님은 이 상호이 정립의 그릇된 욕망으로 얻으신 병을 안으신 채 세 번째 살림을 꾸리신 오성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마 태모님이 용화동에 더 머무셨더라면 이 상호·이 정립 형제는 후일 해방이후 2변 때 <증산교 대법사>의 실제 창교자 운산 안 흥찬(安興燦) 총 사수를 고립시키고 자신들 형제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장했던 용화동 신앙촌화의 주장을 당시에 시도하려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수사명에 대한 천지공사는 일등방문(一等方文)으로 처방한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모든 기운을 돌돌 몰아 부쳐주시고 때가 되면 그 누구도 세 살림 종통(宗統)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청홍황(靑紅黃) 3색의 종통 사명기(司命旗)와 신장(信章), 예장(禮章) ,성장(誠章) 공사도(公事圖)를 안 내성(安乃成) 사가(私家)에 내려 은장(隱藏)시켜 훗날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정작 공사의 당사자인 안 내성(安乃成) 성도마저 그 사명기(司命旗)의 용도가 무엇인지 살아생전 모른 채 해방 후(解放後) 기축년(己丑年:단기 4282, 1949) 여든 세 살(八十三歲)에 선화(仙化)합니다. 추수사명은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돌돌 기운을 말아주었으므로 안 내성(安乃成) 성도만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종통의 핵심문제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 10년 신정공사 내용과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공사내용을 전혀 도외시하고 사제교리를 내세워 상제님이 시루니 조 아무개는 솥이고 그 다음 박 아무개는 숯이라는 끼워 맞추기식 사제(私製)교리는 모두 다 허망한 백년 모래성에 불과하므로 이제는 사오미(巳午未) 개명(開明)장의 대명천지에 밝게 드러난 초중말복 세 살림 진법 종통의 결말을 스스로 찾을 때입니다.

4)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돌돌 몰아 부치신 종통공사

一等方文 安乃成 聖徒

먼저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현무경(玄武經)>과 종통 사명기(司命旗) 수여를 비롯해 종통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돌돌 몰아 부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마치 불가의 혜능(慧能)처럼 일자무식이었음에도 불과하고 작지부지(作之不止) 내성군자(乃成君子)의 천심(天心)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제님은 나는 마음 하나만 본다 하셨으며 태모님은 우리 일은 마음 닦는 공부이니 심통공부(心通工夫) 어서 하라. 제가 저의 심통(心通)도 못 하고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고 또 사물의 이치를 관통(貫通)하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 심통(心通)을 해야 한다 하시고 오직 마음을 잘 닦아야 하느니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종통 핵심 공사를 뽑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내성 성도에 대한 공사내용 이전에 먼저 주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안 내성(安乃成)이란 이름의 이에 내乃 자에는 끌고 있는 짐이 거역해 반발한다는 교불이라는 뜻(矯拂之意)이 있어 끌고 가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예(曳) 자가 숨어있습니다. 예(曳)는 끌고 가는 것이 아주 고달프다는 뜻으로 <설문해자(說文解字)>나 자전에서는 내乃 자를 힘들게 질질 끌고 가서 아주 고달플 예(曳)자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는 문 공신(文公信) 성도에게 문왕(文王)의 도수를 부쳐놓고 하신 말씀이 “문왕의 도수와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부합합니다. 추수사명의 세 살림 종통사명은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도수입니다. 문 공신(文公信) 성도에게 부치신 문왕(文王)과 이윤(伊尹)의 도수는 안 내성(安乃成) 성도와는 도수를 부친 사람만 다를 뿐 결국은 모두 종통 추수사명이기 때문에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도수를 실행하는 추수 사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명의 도수입니다.

문왕과 강태공 여상 출전 벽화

안 운산 총 사수가 개척한 1945. 8.15 해방이후 2변 교운시 역경만첩의 천하사와 더불어 이십년 휴게기를 지나면서 극도의 험난과 역경을 감내한 불가사의한 길과 더불어 우리 도안(都安) 세 살림의 남은 살림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천하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내성(乃成)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내(乃) 자를 잘 살펴보기로 합니다. 왼쪽에 빗겨서 그어져 있는 것은 아주 무거운 짐이 강력히 저항해 반발하면서 겨우 겨우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표현 것이고 오른쪽 배불룩한 모습은 무거운 짐을 끄느라 몸이 활 궁(弓)으로 휘어질 정도로 용을 쓰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추수 사명이 도안(都安) 세 살림 사명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乃)라는 글자는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짐을 끌고 가지만 결국 세 번에 걸쳐 일을 완수하기 때문에 완료한다는 료(了)자를 세 번 쓴 것을 나타냅니다. 증산 상제님의 세 살림 도수는 바로 이러한 내(乃)에 숨겨진 의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원래 이름은 내선(乃善)인데 상제님께서 내성(乃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모든 종통 사명을

돌돌 말아주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역경의 힘든 사명을 결국에 가서는 이룬다는 의미로 지어주신 축복 어린 이름입니다. 내(乃)라는 글자 속에는 비록 과정은 역경만첩의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결국은 일을 이룬다(成) 완수한다(遂)는 마침내라는 뜻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제님은 성(成)자 하나를 더 쓰시어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용담유사 「도수사」에 작심으로 불변하면 내성군자(乃成君子)라고까지 하여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세 살림 도수 주인공이 걸어야 할 길이 험난한 길인지라 헤설피 듣지 말고 귀귀자자(句句字字) 뜻의 의미를 잘 살피라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도신정경>*어느 날 신정공사(神政公事)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일자(一字)와 삼자(三字)를 잡아야 임자이니 같은 끝수면 말수(末數)가 먹느니라. 수식남방(誰識南方) 매화가(埋火家) 불 묻으신 줄 뉘가 알거나 변산(邊山)만한 불덩이를 묻지 않고 그냥 두면 세계인민(世界人民) 다 죽는다 하시더라.

(해설:수식남방매화가를 언급하시되 추수 세 살림 도운 中 '마지막 상씨름'에 해당하는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는다' 와 병립해 설명하셨다. 이는 '수식남방매화가(誰識南方埋火家) 불 묻은 공사' 가 중복 살림 시절의 해석인 '세운 핵폭탄 묻는 공사' 가 아니라 바로 추수도운 초중말복 세 살림 중 마지막 최종 말복 인사문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일자(一字)와 삼자(三字)를 잡아야 임자이니' 라 하신다. 태운장 김형렬 수석성도 대나무밭에 남방 삼리화 불기운을 묻어(埋火) 화둔(火遁)하여 동지한식백오제 105년간 감추었다가 드러날테니 마지막 상씨름 도정의 말복지도자는 도안都安 삼부자 세 살림 속에서 나오되 임壬일수와 갑甲삼목을 잡아야 임자壬子라 하신 것이다. 수식남방매화가(雖識南方埋火家)는 남방삼리화 불기운을 묻은 집을 누가 알겠는가라는 뜻이다. 105년 기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남방삼리화 기운을 묻은 그 집은 바로 도안 문왕 추수사명 초,중,말복 세 살림 이란 것이며 세 살림 성 씨가 모두 안安씨 부자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도안 都安의 뜻이다. 인사문제의 핵심은 현무경 초반에 박아놓았다. 12지지 중 '오미신유술해'는 陽符이고 '자축인묘진사'는 陰符인 바 인사문제는 '오미신유술해' 양부陽符 중 오행이 음인 '미유해' 3符를 제외하면 午申戌 양부陽符 세 개 밖에 없다. 이 세 개 가 바로 추수살림 사명자의 인사문제이다.

증산 산제님은 남방 삼리화 기운을 주재하시는 서신사명이시다. 이 남방 삼리화 기운을 임술생 태운장 김형렬 성도 대나무밭에 묻어 임술생 도안 문왕 세살림 사명자 에게 부치셨다. 대순진리회 출신 신도들은 교운공사 인사문제의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해 각골명심해 새겨들어야 한다. 상제님이 안 씨 사당 추원재에서 대나무 가지로 천지수기 돌리는 공사 보셨지 조씨 사당에서 이 공사를 보시지 않았다. 이 공사와 연관된 공사

가 바로 임술생 문왕 추수자를 대행하는 태운장 김형렬 성도(임술생 대시태조 출세 후비소 공사 참조) 대나무밭에 남방삼리화 불덩이를 묻는 매화공사를 집행하시고 '長安長唱吾笑歌(장안장창오소가) 誰識南方埋火家(수식남방매화가)'를 불러 주시고 이어 '매화(埋火)'라 쓰시어 형렬의 집 대밭에 묻으시고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화둔(火遁)을 하였나니 너의 집에 불을 조심하라. 만일 너의 집에 불이 나면 화신(火神)이 세력을 얻어 온 세계에 큰 재앙을 끼치리라." 하신 것이다.
숙구지 문왕 추수 사명자 도안 세 살림에 대해 모든 남방삼리화 기운을 돌돌 몰아주시고 '長安長唱吾笑歌(장안장창오소가)'라는 7자로 초중말복 추수사명에 대한 최종 총평을 내리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동지한식백오제 105년 동안 특히 중복도정에서 마저 세운의 핵폭탄 기운을 묻는 것으로만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 성구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인사문제의 핵심은 태모 고수부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이 풀리게 되어 있다. 도안 세살림 공사에 상제님 남방삼리화 기운을 임술생 태운장 대나무밭에 묻어 몰아주신 추수공사 세 살림의 인사문제 도비 道秘이다. 이 공사에 대해 상제님께서 웃으신 의미는 무엇인가? 도안都安 세살림 추수종통 공사 집행에 대해 장안장창오소가長安長唱吾笑歌를 부르시며 웃으신 것이다. 태운장 대나무밭에 묻은 남방삼리화의 誰識南方埋火家(수식남방매화가)의 기운은 바로 작지부지(作之不止) 내성군자(乃成君子) 안내성 성도에게 인사문제로 발음되도록 도수를 부친 것이다.

첫째,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가장 중요한 핵심공사는 추수사명 세 살림 공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살림 초복도수로 기두하는 숙구지 문왕 도수의 실마리가 되는 공사가 바로 3초 끝에 대인이 출세한다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초, 2초 길 닦기 사명 끝에 선진주(先眞主)인 의암 손 병희가 세 번째 3초 사명을 맡은 후 상제님 추수 사명자인 후진주(後眞主) 대인(大人)이 출세한다는 공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대인大人의 행차行次에 삼초三哨가 있나니 갑오년甲午年에 일초一哨가 되었고 갑진년甲辰年에 이초二哨가 되었고 손 병희孫秉熙는 삼초三哨를 맡았나니 삼초三哨끝에는 대인大人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先眞主 의암義菴 손 병희孫秉熙

갑오(甲午) 동학혁명으로 켜켜이 묵은 조선 왕조의 폭정과 겁기를 대국적으로 벗겨내고(1초 사명), 갑진(甲辰) 근대화 개혁으로 동서양 신명 교류의 물줄기를 바르게 하고(2초 사명) 의암 손 병희는 3초 선진주 사명을 맡아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의 패망을 기대하고 보성사 내에 천도구국단(天道救國團)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갑오·갑진 그리고 갑인(甲寅:1914)의 삼갑운동(三甲運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결국 기미년(1919) 3.1 만세운동이 점화됩니다.

중산中山 쑨원孫 文

이 기운은 중국의 5.4운동으로 물결치면서 이때의 주역들이 러시아 혁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중국을 붉게 물들이게 되며 다시 이 기운은 후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오선위기의 판을 짜게 됩니다. 즉, 중국을 차지한 공산당 영도자 모 택동은 북한의 김일성에 영향을 주면서 금강산을 무신론자 이북에 넘기는 기운을 러시아와 함께 맡게 되고, 국민당 영도자 장 개석은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한 윤 봉길 의사의 상해 홍 코우 공원 폭탄투척 사건을 계기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 구 주석을 도와 카이로 회담에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정식의제를 제출하여 남한이 독립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民族自決)주의의 원칙은 결과적으로 때마침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내정세와 맞물려 천도구국단(天道救國團)의 비밀 기획과 아주 절묘하게 맞아 돌아가게 됩니다. 즉, 국내적으로는 1919년 1월 때마침 독살설 의혹을 안고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전 국민은 가슴깊이 애통해 하고 격분했으며 그 에너지는 마침내 민중 봉기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2월 15일 천도구국단(天道救國團)에서는 고종의 인산일(因山日:황족 장례식)

인 3월 3일로 거사 일을 정했으나 유교·불교·기독교 및 학생단(學生團) 등과의 연락을 통해 3월 1일로 거사 일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의암 손 병희의 1919 기미년 3.1 운동 주도에 대해 서울대 신 용하 교수는 '신한청년당은 3.1운동의 진원이며 뿌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 용하 교수가 내면의 정신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인 관점만을 학술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애국 단체는 이승만의 반 무장 평화적 외교독립론과 같은 시대착오적 노선을 걸은 것으로 결국 흐지부지 되고 각자도생의 길로 흩어집니다.

이들 신한청년당은 일본 유학생들의 2. 8 독립선언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에서 3. 1운동이 일어나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의 행보는 상해 임시정부의 산파역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교론의 한계를 보여 결국 상해 임정이 무장 항쟁주의 노선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월간 <Auto> 誌에 게재된 크라이슬러를 몰고 다니는 미국의 이승만.

하와이의 이승만이 신한청년단과 같은 <反 무장 항쟁주의>로서의 평화적 외교독립론 노선을 지향하여 대통령 직제가 없는 상해 임시정부 체제하에 대통령 직함의 명함을 미국 정계에 뿌리고 다님은 물론 상해 임정으로 보내질 미국 내 민족지사의 독립운동자금을 가로채 독식했으므로

단재 신 채호 같은 애국자는 이승만을 초치한 면전에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지만 이 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을 매국노”라며 그의 매국노적인 권력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무장 항쟁을 실천하기 위해 그 즉시 만주로 떠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승만을 제자로 둔 송재 서 재필마저 자신의 ‘송재일기’에서 이 왕가의 후손인 이 승만이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그 호사와 사치가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 떨어진 누추한 옷 속에 윤 봉길 의사의 거사에 쓰일 폭탄을 숨기고 상해 임정의 더러운 뒷골목을 다닌 김 구(백범일지 참조) 주석과는 천양지차로 이 승만은 미국에서 상해로 보내져야 할 독립운동자금을 가로채 물 쓰듯 쓰며 당시로서는 미국 최고위층이나 일부 상류층 인사나 탈 수 있었던 최고가의 크라이슬러를 몰고 다녔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영일동맹을 맺어 이듬해인 1915년 독일 조차지(租借地)로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국 산동성 청도(쟈오조우만)의 정치, 군사, 경제적 모든 이권을 계승한다는 21개조 요구서를 요청합니다. 위안스카이(袁世凱) 총통은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몽골, 남만주의 이권을 같이 넘기는 조약을 체결합니다.(1915.5)

그러나 이듬해 1916년 원 세개가 죽고 일제는 군벌을 장악한 단치루이(段祺瑞)의 안휘파(安徽派)를 후원해 거액의 차관을 미끼로 중국군의 일본국 예속과 일본군의 중국내 자유로운 군사기지 설정과 이동을 보장받는 중일공동방적협정(中日共同防赤協定)을 체결하게 됩니다(1918.5). 이러한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1919년 전승국들의 잔치인 파리 강화회의에서 터져 나와 중국 신지식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파리로부터 이 비밀협정의 폐해를 알게 된 중국의 신지식인들은 일본 유학생들과 합세해 학생 구국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민권운동의 중심으로 자

리 잡으며 5. 4운동으로 점화됩니다. 3.1운동은 반일 반제운동으로 추이를 예의주시하던 중국 지식인에게 좌표가 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북군벌 위안스카이(원세개)&단치루이(단기서)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천지공사 차원에서 환원하면 숙구지 문왕 도수인 대인출세를 위한 길 닦기로 상제님께서 꾸미신 공사일 뿐입니다. "상제上帝 하루는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곳에서 일을 꾸미려 하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서 장차 멀리 떠나려 하노라. 왕래하는 동안에 서양西洋에 무슨 일이 발생하거든 내가 꾸민 일인 줄 알아라. 그곳에 가면 내가 하는 일이 호호탕탕浩浩蕩蕩하여 막힘없이 잘 되느니라." 이 공사에 부가해 김 준찬의 집에서 김 낙범에게 관운장이 서양에 가서 대란을 일으켜 관묘 치성이 헛되리라 하신 공사내용과 함열(咸悅) 회선동(會仙洞) 김 보경(金甫京)의 집에서 보신 병자정축(丙子丁丑) 공사에서 보듯이 세계를 크게 격동시킨 1,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상제님께서 치밀하게 짜 두신 애기판, 총각판 오선위기 세운공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원칙 가운데 우선 일월대명지기와 천하통일지기를 지닌 일본에 조선을 잠시 의탁시켜 근대화시키고 한일 도술신명 사이에 맺힌 척을 푸는 두 가지 공사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밑그림이 되었으며, 그런 밑그림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선위기 판을 만들어 애기판, 총각판, 상씨판 삼변성도(三變成道)로 선천 역사를 매듭짓게 하는 대국적인 세운(世運) 프로그램이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인존 시대의 후천 개막을 위해 식민지 제국주의로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며 세상을 피와 어육(魚肉)으로 물들이던 검은 장막을 거두어 낼 필요가 있었고, 내가 세상을 비빔밥으로 만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선천의 마지막 민주주의 해원판으로 비비기 위해서라도 애기판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의 망령을 거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존 시대를 맞이하여 약소국도 민족 자결주의로 자국 백성의 천부인권을 지키는 길을 틔웠으며 이어 후천 조화정부의 1차 모델인 국제연맹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은 상씨름 판 오선위기 패를 재조정하면서 일본에게 의탁한 오선위기 세운판의 주인 조선을 본래의 주인 자리로 되돌리는 동시에 조화정부의 2차 모델 국제연합이 또한 선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오선위기 패의 핵심인 주인마저 남북으로 갈라 명실상부하게 결승 상씨름 판을 위한 오선위기 판으로 재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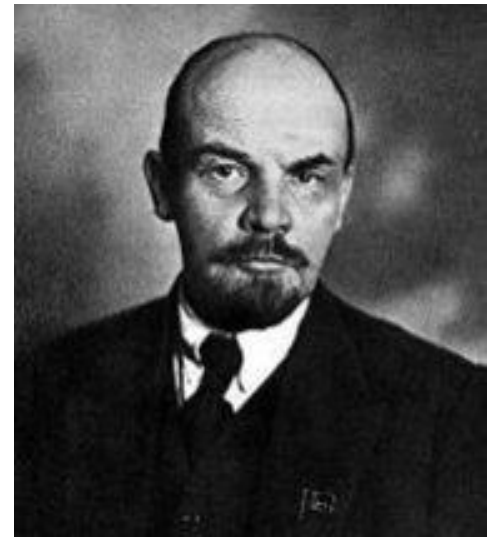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는 “내 도수(度數)는 밖에서 안으로, 욱여드는(參入하는) 도수이니 천하대세를 잘 심찰(審察)하여 오늘 이 일을 잊지 말도록 하라<용화전경>”는 말씀대로 애기판, 총각판의 1, 2차 세계대전의 오선위기 세운판에서 바둑판을 대국하는 두 사람과 훈수하는 두 사람 등 모두 네 신선은 세계대전인 밖에서부터 패를 지어 들어오게 했으며, 주인은 막상 제일 나중 애기판, 총각판이 끝난 1945년 8.15 해방 당시의 3.8선에서 1950년 6.25 한국전쟁(남북전쟁)의 태극 휴전선으로 바둑판의 주인을 다시 재조정하며 안으로 욱여드는 도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 1차 애기판 세계대전은 독일제국의 붕괴를 비롯해 연이은 러시아제국(1917),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918), 오스만 제국(1923)의 연쇄적인 붕괴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동시에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 겁살 제거공사를 위해서 한반도 오선위기 세운 판에서는 남과 북을 동서이념으로 가르는 상

황이 필요했습니다.

즉, 미륵불로 강림하신 증산 상제님 시대에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 기운으로 1만 2천 도통 군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불인 석가불 8만 구암자 겁살 제거가 선결 요건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이 있는 북한을 무신론자에 의탁하여 석가불 겁살을 제거하게 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그 기운을 도미노식으로 국내로 치고 들어오게(욱여드는) 일을 꾸며야 했습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러시아제국은 중원대륙과 북한을 소비에트로 붉게 물들이기 위해 먼저 스스로 볼셰비키 소비에트 국가로 변모해야만 했고, 오선위기 도수의 실현을 위해 소비에트 연방으로 재탄생한 구 러시아 제국은 코민테른을 세워 동구 위성 국가들을 뒷 조종하고 공산화된 모 택동이 장 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북한을 위성국으로 삼음으로써 상씨름 판을 위한 오선위기 패를 새로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의 주역 유대인 블라디미르 레닌(1870.4.22~1924.1.21)

그러나 의암 손 병희에 의해 주도된 3.1 기미독립 만세 운동은 조선인의 문화종교계에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의 직접 개입을 초래해 사이토 총독은 문화 종교계에서 친일 조선인을 물색해 조선인 통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조선 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 경시(警視) 김 태석(金泰錫, 창씨개명金村泰錫 <보천교 연혁사>의 金泰湜)과 경기도 경찰국 후지모토(藤本) 고등과장은 평소 보천교 교주에 대한 불만을 가져 활용가치가 높은 청음이 상호를 이중으로 매수합니다.

<대개벽경(大開闢經)>*하루는 구릿골에서 말씀하시되, “아라사 병사가 내 군사가 되노라.”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성도 물어 여쭈기를, “일본사람을 천하의 일꾼으로 내세우시더니, 지금에 와서 아라사(러시아) 군사가 내 군사가 된다 하시니 어찌된 연고이나이까?” 말씀하시되, “내게 구정과 신정의 이정(二政)이 있으니, 구 아라사 군이 패하지 않으면 새 아라사 군이 일어나지 못하노라. 구 정사는 천하의 폐단이 되고 새 정사는 천하의 새로움을 힘쓰노라.” 말씀하시되, “입을 곤륜산처럼 무겁게 하라. 아라사 병사가 수도 한경(서울)으로 들어올 날이 있으리니, 너희들이 가서 방문하면 너희들을 존경하여 서로 경배하리라.” 말씀하시되, “아라사 병사가 한경으로 들어오면 내 일이 이루어지노라.” 말씀하시되, “병란병란(兵亂病亂)이 동시에 일어나노라.” 말씀하시되, “아라사 병사가 와서 한경(서울)에 머물면, 천하의 운세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나니 내 일은 일시에 이루어지느니라.”

차 경석 보천교 교주에 평소 불만을 품고 기회만 엿보던 이 상호·이 성영 형제는 이러한 일제의 회유와 매수를 천우신조의 기회로 받아들여 일제 당국의 힘을 적절히 이용 신변을 보호하며 차 경석 성도의 보천교 이종물 사명에 직접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이 상호를 매수해 보천교의 정보를 파악하는 핵심 루트를 확보한 일제는 또 한편으로 친일 언론계의 중진 거물이던 김 환(金丸)을 조선총독부 촉탁 신분인 종교 밀정으로 파견해 이 상호의 동화교 창교를 도와 붙박이 정보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인의 왕실 상류계급 회유와 문화종교계 인사를 회유하기 위한 문화계 고등 밀정으로 이등박문의 수양딸 배 정자(裵貞子, 1870-1951)와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 1891-1968), 이 각종(李覺鐘) 국민정신총동원 연맹 상무이사 그리고 친일 언론인 출신 김 환(金丸) 등 4인이 일제하 대표적인 조선총독부 촉탁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매수된 이 상호는 임 경호(이상호의 좌장. 대순전경 표제제호)를 고리로 조선 정무총감 시모오카(下岡)의 수족인 채 기두(蔡基斗), 조선 총독부

촉탁 김 환과 등과 철저히 한통속으로 움직이며 일제의 보천교 박멸 운동의 거시적 정책의 실질적인 행동책으로 수행하며 동화교(東華敎)를 창교하고 보천교 신법 제정으로 메쓰를 가하기 시작해 36년 보천교 강제 해체령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진주 의암 손 병희에 의해 시작된 국내 세운 변화의 여파는 천지공사의 핵심인 교운으로까지 물결치며 나비효과의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니 이 또한 세운과 마찬가지로 밖에서 안으로 욱여드는 공사였습니다. 의암의 속마음에는 조선왕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정 체제의 총통 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역심을 품었으므로 그 속마음을 익히 아시는 증산 상제님께서는 의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을 그으셨습니다.

<普天敎 敎典>*'손병희(孫秉熙)가 선 진주(先眞主)라 **박절(薄切)하게 성(城)돌 밑에서 턱을 고이고 앉어서 역적(逆賊)을 도모(圖謀)함으로 성사(成事)치 못하리라.**'

증산 상제님은 의암 손 병희(孫秉熙)에 대해 '저희들은 다-구암(久庵)이오 이곳은 신암(新庵)이니 도안(都安)의 집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손 병희(孫秉熙)의 호 의암(義菴)에 빗댄 상제님 말씀입니다. 선진주인 손 병희의 의암(義菴)이 구암(久庵)이란 것입니다.

의암 손 병희의 암(菴)은 구암(久庵)으로 오래되고 낡았으며 기운을 막는 집이지만 운암강수 만경래 경만장 세 살림의 안 성(安姓)은 후진주(後眞主) 신암(新庵)인 대인(大人)으로 새로운 후천 5만년 기운이 서려있는 상서로운 새 집(新庵)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그 세 살림 지도자가 모두(都=All) 안가(安家)이며 세 살림 지도자를 배출하는 문왕도수의 주인공이 바로 3초 선진주 구암 다음의 신암 후진주後眞主 대인大人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안(都安) 세 살림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비롯한 말일까요. 도안(都安) 의 도(都)는 도읍(都邑) 도자인데 모두(All)란 뜻이 있습니다. 예전 시골에 3일 장, 5일 장 등이 있어 저자市 거리를 형성해 서로 물물교환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발전해 도시를 이루고 도시에서도 불야성을 이루는 중심상가 '다운 타운'을 이룹니다. '다운 타운'은 없는 게 없는 불야성의 중심상가인데, 원래 이것은 작은 '저자 거리'가 발전해 큰 규모의 붙박이 '저자 거리'가 생기고 인구가 몰려 화려한 다운 타운 밀집지로 변하게 되면서 요즘 말하는 도시(都市) 소위 시티(City)가 된 것입니다. 결국 글자 조어(造語) 측면에서만 보면 도시(都市)란 도시 전체(都=모두)가 '저자 거리(市)'로 연속되어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즉 도(都)는 수량에 있어 복수(復數)를 대상으로 표현하는 글자이지 단수(單數)를 지적하는 글자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안 내성 성도에게 부치신 3초 구암(의암) 손병희 뒤의 대인 행차는 문왕의 도수인 숙구지 공사로 출현하는 세 살림 도수로 그 성씨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都) 안(安)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안(都安)입니다.

따라서 도안(都安)이란 상제님이 점지하신 대인 출세의 천지공사 프로젝트 청사진이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를 통해 일등방문(一等方文)으로 처방한 운암강수 만경래의 세 살림 도수가 모두 안(安)씨 성(姓)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3초(哨, 招) 공사와 대인(大人)출세 문제에 있어, 9년 천지공사의 종통(宗統)문제이자 인사문제의 핵심으로 천지에 못 박은 '도안(都安)'이라는 말씀의 숨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처방해 놓은 이곳 신암(新菴)이 "곧 도안(都安)의 집이니라" 하고 결론 내리신 것입니다. 문왕 가문과 사마중달 가문이 모두 3 부자 하나의 성씨(姓氏)이듯이 낙종물, 이종물 사명에 이어 세 번째 추수도수를 도안(都安)의 집 신암(新庵)으로 처방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보천교 교전>*또 가라사되 저희들은 다-구암(久庵)이오 이곳은 신암(新庵)이니 곧 도안(都安)의 집이니라. 이 때에 손병희(孫秉熙)가 호남지방을 순회하려다가 뜻밖에 예정을 변하야 돌아가니라.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손병희孫秉熙가 선 진주先眞主라 박절薄切하게 성城돌 밑에서 턱을 고이고 앉어서 역적逆賊을 도모圖謀함으로 성사成事치 못하리라

둘째, 많은 추종 성도 중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만 유달리 애를 먹이시어 성정을 단련시킵니다. 입문과정에서 부터 돌을 던져 미친놈이라 하면서 내쫓고 그래도 모시고 싶어 쫓아가자 집에 들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헛간같이 추운 밖에서 재우시고 일체 먹을 것을 주지 못하게 하시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십니다. 안 내성(安乃成) 성도는 9살 어린 시절부터 부친을 찾아 평안도 함경도를 찾아다니며 고생을 하다가 청나라로 들어가 대륙을 쓸고 다니며 북경 남경 전역을 돌아다니며 미륵님이신 천 선생을 찾아다닙니다.

천 선생을 찾아 다시 국내로 들어와 진주 촉석루 등을 전전하던 차에 천신만고 끝에 만난 상제님인지라 비록 천덕꾸러기 신세로 취급받을지라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미 미륵전에서 서원을 세운 바대로 '죽어도 따르리라.'는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남들 따뜻한 방에서 같이 식사할 때 밥도 굶기고 집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외양간 헛간 부엌 등 바깥에서만 자게 합니다. 안 내성(安乃成) 성도가 불평 한마디 내지 않고 이를 무난히 견뎌내자 마침내 어느 날 내성에게 돼지 한 마리 구해 들이도록 해 정식 종도로 인정하는 폐백 집지례 공사를 집행하시고 저놈 불쌍하니 앞으로 내 방에 와서 자게 하라 하시는 축복과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 대한 시험이 끝은 아니었으며 그 뒤로도 상제님께서 여러 종도들과 출행 시에는 다른 성도에게는 짐을 매게

하지 않으시고 유독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만은 두세 개씩 도맡아 등짐을 매게 하시어 유달리 내성의 심성을 혹독히 단련시킵니다. 정식 추종 성도로 인정한 폐백 집지례 의식을 받으신 이후에도 다른 성도와는 다르게 유달리 굶기셨는데 안 내성(安乃成) 성도가 이런 과정을 불평 없이 모두 받아넘기자 그제서야 장 닭 한 마리(鳳凰) 삶아오라 해서 통째로 들게 하셨습니다.

안 내성(安乃成) 성도가 터럭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다고 입맛을 다시자 내성에게 아따 그놈, 계룡산(鳳龍) 도둑놈이로구나! 웃으며 말씀하시고 또한 운암강수 만경래 김만경(金萬頃) 뜰 천하사 세 살림 공사를 보신 뒤 세상 사람이 너를 존경할 것이니라 축복해 줍니다.

<증산도 道典>*일찍이 상제님께서 내성을 평하시기를 천지성경신 안 내성(天地誠敬信 安乃成) 천지불변심 안 내성(天地不變心 安乃成) 천지공경신 안 내성(天地恭敬信 安乃成)이라 하시더니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에도 내성은 어디를 가든지 상제님께서 잠시 앉으셨던 곳이라도 보면 멈추어 인사를 올리고 어머니와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도 종신토록 마음을 변치 않고 상제님의 명을 일심으로 지키니라. (안내성 성도로부터 수없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안정남, 윤기택 씨는 '천상천하불변심 안○○(天上天下不變心 安○○)'을 새롭게 증언)

또한 굶주린 내성이 털 째로 삶은 장 닭을 정신없이 다 먹은 뒤에 입맛을 다시며 상제님께 와서 "다 먹었습니다. 터럭 하나 안 남겼습니다." 하고 아뢰거늘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아따 그놈, 계룡산 도둑놈이로구나!" 하시니라라는 성구는 고난을 극복한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마침내 장 닭을 삶아 먹이심으로서 안내성 성도로 하여금 비로소 운암강수 만경래의 천하일등방문-일등 처방문 공사로 내세움을 천지에 질정質定하는 예식입니다. 이는 바로 천덕꾸러기 역할을 감내한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세 살림 도안(都安)의 도수를 처결하신 것이며 상제님의 축복을 내리신 공사로 장 닭은 바로 주작이며 계룡이므로 안 씨 재실 공사에 이은 계룡산 숫 계룡(鳳龍)의 모든 기운을 돌돌 몰아주신 인사문제의 정점에 마침표를 찍은 대사건이었습

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아따 그놈, 계룡산 도둑놈이로구나!" 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수식남방매화가(誰識南方埋火家) 불묻은 공사의 집약된 상징이 숫 계룡 주작)

아시다시피 안 내성(安乃成) 성도는 그리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못한 종도입니다. 단지 어린 시절부터 천 선생과 미륵부처님을 찾아다닌 사람일 뿐입니다. 별로 잘나지도 일자무식으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 그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태모님은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요 심통 공부 마음보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지식 조금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의 병폐에 대해 "무식 도통이라야 써먹지, 유식한 놈은 늙은 당나귀와 같아서 가르쳐 써먹을 수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남보다 똑똑치도 잘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천심(天心)가진 천진군자(天眞君子)인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로 하여금 대인출세 도안(都安) 공사를 처결하면서 "계룡산 도둑놈"이라 단 한 마디의 촌철살인의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장수가 덕 있는 장수만 못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곡비서>에 보면 "두 활개 쭉 펴면서 누런 장닭 두 홰 운다. 상씨름꾼 들어오라.' 벽력같이 고래장 치니 어느 누가 당적 할까? 허허허, 참봉이로고. 소 딸 놈은 거기 있었건만 밤새도록 헛 춤만 추었구나."라는 성구말씀이 있습니다. 누런 장닭 두 홰 우는 모습은 도안(都安)의 세 주인공 중 두 주인공이 등장한 도운의 상태입니다. 상씨름 꾼은 세운의 상씨름 꾼이 아니고 도운의 세 번째 도안(都安) 상두쟁이의 진짜 상씨름 꾼인 엉뚱한 인물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태모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상씨름 판에는 콩밭(太田)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 하시니라.<증산도 道典>

또 세 살림 도안(都安)의 정체와 관련해 <상제님의 차례가 되자 띠 자리

위로 패를 후려치시니 패 석 장이 '짝' 하고 펼쳐지거늘 "나는 순이다!" 하시고 판돈을 모두 거두어들이시니라.> 공사 성구도 그동안 덮어져 은폐되어 있던 패 석장의 안 내성 세 살림 공사의 정체가 사오미(巳午未) 개명(開明)도수에 맞추어 세상에 활짝 펼쳐져 밝혀져야(장닭 도안(都安) 세 홰) 마무리 싹쓸이 윷판 진법통일(眞法統一) 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증산도 道典>*상제님께서 흥덕(興德) 하오산(下鰲山) 앞의 알미장(卵山場)에 이르시어 성도들을 사방위로 앉게 하시고 가운데로 들어가시어 투전 공사를 보시니라.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투전목을 돌리시고 얼마간의 돈을 걸게 하신 뒤에 이르시기를 "패를 지어 차례로 내보이라." 하시니 성도들이 말씀을 좇아 한 명씩 패를 보이니라.

<증산도 道典>*상제님께서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하시며 각 성도들의 패를 읽어 주시고 상제님의 차례가 되자 띠자리 위로 패를 후려치시니 패 석 장이 '짝' 하고 펼쳐지거늘 "나는 순이다!" 하시고 판돈을 모두 거두어들이시니라. 상제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장수가 복 있는 장수를 못 당하느니라." 하시니라.

<박 공우 성도 제자 김 일화子 김 천수 옹 증언 동영상>*투전이란 것은 이제 노름인데 이렇게 창호지 백지로 이렇게 기름 먹여서 넉 사자라면 새를 그리고 말여, 오행으로 해가지고 만든 투전노름이란 거여. 말하자면 놀음을 하면서 인자 갑칠이가 나는 갑오요. 나는 해양딴이요. 해양 딴이냐? 나는 순이다. 그래가지고 이놈을 손가락에다 딱 감아서 딱 단에다 때린단 말여. 그래가지고 나는 순이다 허고 인자 여기다 딱 때리면서 돈을 싹싹 쓸어 모태고 그 쪽으로 그렇게 (상제님이) 노름을 했다고. 노름으로 도수를 보면서 하는 것이지. 긍게 해양딴이다 한 사람은 말하자면 태운장 김 형렬씨가 했는지 그랬는데 손가락으로 감어가지고 탁 때리면 주르르르 해 가지고서 기름먹은 거라 잘 휘어지고 잘 뻗쳐. 해양딴이다 하면 순이가 다 먹는 거지, 갑오도 나왔지만 갑오, 해양딴 그런 사람은 순한테 다 지는 거여. 상제님이 다 먹는 거여 응.

셋째, 피난동(避難洞) 안(安) 씨 재실(齋室) 추원재에서 천하 수기가 말랐으므로 집 동쪽 우물을 댓가지로 저으며 천하수기(天下水氣) 돌리는 공사를 보시고 동학 가사를 가져오게 하여 읽으시니 뇌성벽력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 모두 기절하므로 안 내성(安乃成)을 명하여 물을 먹여 모두 일어나게 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만국의원 의통(醫統) 천하사와 관계가 있는 중차

대한 광제국(廣濟局) 공사입니다. 추수 사명의 세 살림 도안(都安) 지도자 출세 공사입니다.

<동곡비서>*하루는 여러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앞으로 천하에 수기가 고갈될 참이니 수기를 돌려야 하리라.” 하시고, 그 뒷산 피난동 안씨 재실에 가사 그 집 앞 동쪽 우물을 댓가지로 한번 저으시고 가라사대, “음양이 고르지 못하니 무슨 연고가 있으니, 재실에 가서 물어보라.” 안 내성이 명을 받고 재실에 가서 사연을 물으니, 재실직이는 사흘 전에 죽고 그의 처만 있거늘 돌아와서 사유를 아뢰니 또 가라사대, “다시 행낭 채에 가서 보라. 딴 기운이 떠서 있다.”

<동곡비서>*(초중복 살림 시절의 과도기 공덕과 말복 살림 시절의 열매기 공덕, 말래지사)내성이 그 행낭 방에 가서 보니 행상하는 남녀 두 사람이 들어있거늘 돌아와서 사실을 아뢰니,... “이 가운데 동학가사를 가진 자가 있으니 가져오라.” 하시니, 과연 한 사람이 가사를 내어 올리니, 선생이 그 책 중간을 펴시고 한 귀절을 읽으시니, ‘시운 벌가벌가(詩云 伐柯伐柯)여 기측불원이라. 내 앞에 보는 것은 어길 바 없건마는 이는 도시 사람이요, 부재어근이라. 목전지사 쉽게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서 말래지사 같잖으면 그 아니 한일런가.’

<보천교普天教 교전教典>*내성乃成이 행랑行廊에 들어가보니 보짐장사 남녀男女 두사람이 들어있거늘 돌아와서 알왼대 이에 재실내청齋室大廳에 올으사 여러사람들로 하여금 서西쪽 하늘을 바라보고 만수萬修를 크게 부르게 하시며 가라사되 이가운데 수운가사水雲歌詞를 갖인자者가 있으니 갖어오라 과연果然 한사람이 가사歌詞를 내여올리고 물러가거늘 그책冊 중간中間을 펴드시고 한절節을 읽으시니 하였으되

<보천교普天教 교전教典>*(초중복 살림 시절의 과도기 공덕과 말복 살림 시절의 열매기 공덕, 말래지사)「시운벌가벌가여詩云伐柯伐柯여,기측불원其則不遠이라 내앞에 보는것을 어길바없지만은 이는 도시都是사람이요 부재어근不在於近이라 목전지사目前之事쉽게알고 심량深量없이하다가서 말래지사末來之事같잔하면 그않이 내한恨인가」라 하니라(<도전>에 不在於斤으로 바로잡음. 도끼자루 베는 것은 도끼(斤) 문제가 아니라 모두 ‘사람’ 문제(덕의 존부존)라는 뜻))

넷째, 내선(乃善)을 내성(乃成)으로 하사받은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은 인사문제의 일등방문(一等方文) 도수로 처방됩니다. 상제님은 부안의 칠산 앞바다의 조기도 주인을 정해놓고 잡힌다 하셨습니다.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태운장 김 형렬(金亨烈) 성도에게 주인을 정한 이후 천지공사

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증산도 도전(甑山道 道典)>*무신년 겨울 상제님께서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내성아, 큰 몽둥이로 내 몸을 세게 치며 '일등방문(一等方文)이 제일이냐, 이등방문이 제일이냐? 일등방문이다!' 하고 소리쳐라. 도수이니 빨리 쳐라! 만일 이행치 않으면 신명들에 의해 큰 해를 당하리니 사정없이 쳐라!" 하고 호령하시니라... 이에 내성이....때리는 시늉만 하거늘 상제님께서 큰 소리로 호통치시며 "너 이놈 죽을 테냐! 뒤꿈치를 딸싹딸싹하며 쳐라. 그렇지 않으면 천지에서 너를 죽일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성이 엄명에 눌려 "일등방문이 제일이냐, 이등방문이 제일이냐? 일등방문이 제일이다!" 하고 크게 소리치며 있는 힘껏 옥체를 세 번 내리치니... 잠시 후에 상제님께서 껄껄 웃으시며 "이제 되었다. 이등방문이 넘어가니 일등방문인 네가 낫다." 하시니라. 다시 내성에게 명하시기를 "담뱃대를 들고 나를 향해 총 쏘는 흉내를 내며 꼭 죽인다는 마음으로 '탕탕' 소리를 내라." 하시니 내성이 명에 따라 총 쏘는 흉내를 내거늘 이에 한 성도가 여쭈기를 "이제 이등박문을 폐하시는데 어찌 내성을 쓰셨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안 성(安姓)을 썼노라." 하시니라.

일등 처방문(一等方文) 안 내성(安乃成) 성도를 참여시켜 처결한 이등 처방문(二等方文)인 이등박문(伊藤博文) 제거공사는 결국 기유년(1909) 10. 26 '대한의군 참모중장 독립특파대장' 안 중근(安重根)에 의해 하얼빈 역에서 사살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안 내성(安乃成) 성도를 일등 처방문의 주인으로 정한 공사이므로 반드시 안(安)씨가 핵심 주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안(安)씨를 내세운 공사는 비단 이등방문 제거 공사에만 해당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 이등방문 제거 공사에 상제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시고 안 내성安乃成 성도를 사역(使役)시킨 것은 증산 상제님이 천하사 추수 대행자로 안(安)씨 지도자를 내세운 천지공사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 성(安姓)을 썼노라" 이 성구는 이등방문 제거자도 安 씨지만 천하사 추수 대행자 역시 安 씨임을 명백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다섯째, 운암강수 만경래 김만경 뜰 세 살림 도수의 일등방문(一等方文) 공사는 후천을 여는 일등 처방문으로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공사

입니다. 그리하여 모사재천의 천지공사로 모든 운로를 물샐틈없이 짜시고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 부생공자망(浮生空自忙)-만사의 대국이 이미 천지공사로 다 정해졌는데, 다들 공연히 부산떨고 바쁘구나-라 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은 조선이 구한말 열강들의 식민지 제국주의 열풍에 휩싸여 어차피 이민족의 수중에 떨어질 운명으로 전락하자, 조선을 외인의 수중에 맡기되 기왕이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명분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倭)가 조선에 맺힌 삼한당(三恨堂)의 한(恨)을 풀어줄 겸 같은 동양인 일본에게 넘기되 문왕의 도수 씨앗인 어질 인(仁) 자는 넘겨주지 않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두 장군을 내세워 두 갈래로 조선을 침략했으나 선조는 이미 화석정(花石亭)을 불태워 야밤에 임진강을 건너 몽진(蒙塵)을 간 뒤여서 소서행장은 빈 가짜 도성만 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은 왜가 임진왜란 때 너무도 많은 인명을 살상을 한 것에 대한 한(恨)입니다. 7년여 동안 벌어진 살육전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한 고니시(小西行長)와 가토(加藤淸正)사이의 전공(戰功)에 대한 무모한 충성경쟁은 조선병사의 코를 베어가 바치는 과정에 애꿎은 무고한 양민들의 코가 모두 잘려나가 조선인 서너 명 중의 한명은 코 없는 문둥이 같은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바로 4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恨)은 수종법에 얽힌 한(恨)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 중국, 인도까지 지배하는 대동아 통일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조선은 길을 내달라. 전쟁이

지루한 교착상태에 빠져들면서 왜군은 일단 식량 자체조달의 병참기지화를 노려 반도 남부지역의 전라도 곡창지대만이라도 얻으려 부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일본은 조선 사람에게 상제님이 말씀하시는 3한당(三恨堂)에 등장하는 수종(水種)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당시 신일본 정부의 내각총리 이등박문(伊藤博文,1841~1909.10.26)은 아시아 침략에 앞장서 조선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통감부 초대 총감을 지내는 등 당대 조선에는 최소한의 의기(義氣)마저 없는 양 일본 천황 중심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군할 때였습니다.

본래 상제님께서 원래 조선근대화의 임시 일꾼으로 일본에게 조선을 의탁한 뜻은 일본(日本)은 임진난후(壬辰亂後)로 도술신명(道術神明)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어 그들에게 조선을 넘겨주어야 척이 풀리므로 임진왜란 때 맺힌 삼한당(三恨堂)의 한(恨)을 풀고 조선을 후천의 일등 종주국 대중화(大中華)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정점으로 하는 본말전도의 일본 야마도혼(大和魂)은 정신문화의 스승국인 조선의 은공을 뿌리부터 배역(背逆)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무기를 배워온 서양에게까지도 배사율을 범하는 것으로(태평양 진주만 폭격) 신명계 법도(神道)에서는 허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이미 일등방문(一等方文)으로 처방한 안 내성(安乃成) 성도를 통해 '대한의군 참모중장 독립특파대장' 안 중근(安重根)으로 하여금 이등방문(二等方文)에 불과한 수탈자 이등박문(伊藤博文)의 배은망덕과 금도를 넘는 배사율(背師律)을 동양평화론의 명분으로 처단하여 청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황극신과 더불어 대중화(大中華)의 의기(義氣)가 구한말 조선인의 혼(魂) 속에 살아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질 인은 일본인에게 온갖 냉대를 받으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무량대복의 핵심(仁: 果核, 씨)이 문왕 도수 기두(起頭)로 터져 나옴을 뜻합니다.

<보천교普天教 교전教典>*일본日本사람이 미국米國과 싸우는것은 배사률背師律에 범하는 것임으로 참혹慘酷히 망亡하리라

<증산도 道典>*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은 깔담살이 머슴이요, 미국은 중머슴이요, 중국은 상머슴이니라. 깔담살이가 들어가면 중머슴이 나와서 일하고, 중머슴이 들어가면 상머슴이 나오리라.” 하시니라.

侍

여섯째, 안 내성 성도에게 대도의 어머니 사명을 맡기시고 태을주 전수 및 율려(律呂)도수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문왕文王 유리성羑里城

건존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곤존 태모 고 수부님 10년 음양 천지공사의 총 결론은 증산 상제님 무극대도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포교(布教)를 통해 개벽 철 6임(任) 천하사 일꾼을 잡아들여 의통성업(醫統聖業)을 함께 집행하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일꾼을 구하는 포교(布教)공덕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제님 천하사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영웅을 잡아들이는 포교(捕校)인 포교(布教)가 밑바탕이며 포교(布教)의 본질은 태을주(太乙呪)를 전해주는 작업입니다.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 도적盜賊잡는자者를 포교捕校라고 불으나니 교敎를 전傳할때에 포교布敎라고 일컬으라... 그럼으로 세상世上에서 영웅英雄이란 칭호稱號를 듣는자者는 다 잡히리라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 “내 세상에 사람이 감히 영웅으로 행세치 못하나니, 천하의 영웅을 다 잡아들이노라.”

일곱째, 태모 고 수부님에게 부치신 무당도수를 안 내성 성도에게도 부치셨습니다.

하루는 고부인(高夫人)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長鼓)를 치사 가라사대 이것이 천지(天地)굿이니 너는 천하일등(天下一等)무당이요 나는 천하일등재인(天下一等才人)이라 이당(黨) 저당(黨) 다버리고 무당(巫黨, 巫堂)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因)하여 무당도수(巫堂, 巫黨度數)를 부치셨습니다.

원효대사의 아들로 이두문자를 만든 설총(薛聰)은 일찍이 <설총비결(薛聰秘訣)>에서 근어여성성어녀(根於女姓成於女) 천도고연만고심(天道固然萬古心)이라 예언했습니다. -근어여성(根於女姓)은 여자 성씨 강(姜)씨에 뿌리를 두어 탄강하신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다는 예언이고, 성어녀(成於女)는 증산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의 천하사 대업을 안 내성(安乃成) 성도를 통해 보신 공사 내용대로 추수 사명자가 안(安)씨 성(姓)씨로 마무리되어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천도고연만고심(天道固然萬古心)이란 하늘에서 정해놓은 천도(天道)가 애초부터 확고부동하게 우주원리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상제님이 태모 고 수부님에게 이 당(黨)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 하신 말씀은 태모 고 수부님의 낙종물 사명인 교단개창(太乙敎=仙道敎)으로부터 출발해 차 경석 성도의 이종물 사명(普化敎=普天敎)을 거쳐 경만장 안 내성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김만경 뜰, 도안(都安) 세 살림 추수사명으로 이어지는 종통맥(宗統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증산도 道典>*"너는 내 도의 어머니 노릇을 해야 하느니라. 모악산이 포해지형(胞孩之形) 아니더냐! 아기는 어미젖으로 사는 법이니 너는 창생들에게 태을주를 잘 가르치라. 태을주를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을주를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이것이 천지天地굿이니 너는 천하일등天下一等무당이요 나는 천하일등재인天下一等才人이라 이당黨 저당黨 다버리고 무당巫黨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因하야 무당도수巫黨度數를 붙지시니라

侍

여덟째,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칠성 도수를 내려주시며 도운(道運)의 상씨름 결론은 상두쟁이가 한다 하시고, 상두(上斗)는 북두(北斗)니 칠성(七星)이라 하셨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께서는 칠성 공사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요, 낳아서 키우는 공사라 하셨습니다.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뾰족한 수는 상투의 덕이니, 판밖에서 일을 지음에 일시에 한번 크게 쓰노라." 말씀하시되, "연죽과 상투가 시세가 버린바 되어 상투 튼 사람을 남이 어리석다고 업신여기나니, 사람이 버린 것을 내가 취하여 세상을 구제창생하는 대업에 일시에 한 번 크게 쓰노라."(안내성에게 붙인 보발잔존(保髮殘存) 도수(度數)

<정영규 天地開闢經>*천하(天下) 상투가 다 잘리어도(削) 네(汝) 상투만은 남으리라(餘殘) 하시더니 왜정치하(倭政治下)에 일본인(日本人)들이 천하(天下)의 상투를 다(皆) 잘랐는데(削) 안내성(安乃成) 만은 보발(保髮)한 채로 해방후(解放後) 기축년(己丑年:1949)까지 살았(生存)으니...

<증산도 道典>*네 상투는 천지일월이 비치는 상투니라." 하시니라. 일본 순사들이 내성의 머리를 자르려 들이닥치니... "내 상투는 하느님이 매 주신 상투여!" 하니라.

<증산도 道典>*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칠성 공사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요, 낳아서 키우는 공사니라." 하시고 "후천 기운은 사람을 키우는 칠성 도수(七星度數)이니, 앞 세상은 칠성으로 돌아가느니라."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하시니라.

侍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일등방문(일등 처방문) 공사로서의 상두쟁이 칠성도수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낙종물 씨뿌리는 공사의 대미를 순흥 안씨(順興安氏) 집성촌인 정읍 왕심리(旺尋里)로 정한 사실은 안 내성 성도에게 내리신 상두쟁이 칠성도수에 대한 모든 답이 감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오직 안 내성(安乃成) 성도로 하여금 3년간 태을주(太乙呪) 수련공사를 보게 하시어 안 내성(安乃成) 성도가 수련하는 집마다 사람이 병들어 이사가는 집마다 쫓겨나가게 하여 결국 수통목(水桶木:원래는 물이 통과하는 水通目이라 함. 지금은 구이저수지에 수몰됨)이라는 곳으로 몰아가게 하여 태을주 수련공부를 완수하게 하신 점이며

셋째, 3년 수련공부 동안 안 내성(安乃成) 성도는 상제님이 어천하신 줄 도 모른 채 태을주(太乙呪) 수련 공부에만 전념했으며 어천 하신 상제님이 오시어 상투를 친히 매주시는 상두쟁이 공사를 집행해 주시고 가신 점입니다. 운암강수만경래 공사의 핵심은 바로 안 내성 성도의 수통목 3년 태을주 수련 공사입니다. 종통문제의 매듭을 지으신 안 내성 성도의 3년 태을주 수련공사와 경술년 상투 성례(成禮)공사는 증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는 공사입니다.

✎아홉째,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내리신 운암강수 만경래 김만경 뜰 도안(都安) 추수 세 살림 도수입니다. 김만경 뜰 추수 세 살림 도수는 3초(哨,招) 끝에 대인이 출세하는 공사와 숙구지(宿狗地) 문왕의 도수와 직접 맞닿아있는 공사이므로 이 셋을 서로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경만장 안 내성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추수사명 세 살림 도수가 본 궤도에 접어들어 1984년 공식적인 중복 살림 증산도가 출범하자(갑자갑자(甲子甲子) 성인공덕(聖人功德:육갑타령(六甲打令)) 이듬해인 1985년 때를 맞추어 칠보발

전소가 준공되면서 세 살림 김만경 평야를 적셔줄 동진강(東津江)은 용지불갈(用之不竭)의 운암강 물을 얻게 됩니다.

<대개벽경(大開闢經)>*"이 곳이 운산(雲山)이 아니냐, 운암강의 물줄기를 만경으로 돌려 흐르게 하면 하류의 백성이 원망이 없고, 큰 가뭄에 마르지 않으리니 그 수세가 호탕하여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물과 같으리라.-曰 此地 非雲山乎 雲岩江水万頃來 下流之民 無寃 大旱不渴 其勢浩蕩 如天來之水- "

侍

상제님께서는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이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대국적인 인사문제는 숙구지 문왕 도수로 기두 한 운암강수 만경래 세 살림 공사로 이미 다 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낙종물(파종물), 이종물(모내기) 사명에 이어 상제님 추수사명 세 살림 천하사는 천하사에 가장 큰 공덕을 쌓은 3대 적덕지가(積德之家)의 천지 가문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안씨(安氏) 재실(齋室) 추원재(追遠齋)에 가서 직접 공사 보신 이유입니다.

주문왕周文王 묘廟 영대靈臺1.

특히 천지공사의 최종결과인 세 살림 추수 도수의 주인공이므로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낯이 익어 잘 아는 사람인 수원나그네 일화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왕의 도수를 맡은 문 공신(文公信) 성도는 문왕 도수의 세 살림 도수에 대해 우리 일은 삼대(三代)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왕(文王) 도수는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 단(周公旦) 3부자가 은상(殷商)을 멸하고 주(周)나라를 연 도수(度數)입니다. 문왕의 도수는 유리옥(羑里獄:羑=進善) 유폐도수, 숙구지(宿狗地) 도수로 기두(起頭)하는 도수 그리고 이윤으로 연결된 자기혁명 도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주공 단은 무왕보좌에만 그쳐 엄밀히 말해 세 살림 도수는 아닙니다.

이같이 문왕 일가의 주(周)나라 개창 이야기는 3부자 이야기이긴 하지만 엄밀히 3살림 형태는 아니기때문에 상제님은 별도로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 일화로 사마중달(司馬懿) 3부자 이야기를 별도로 해 주신 것입니다.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 일화는 문왕의 도수와 동일하게 사마의(司馬懿:仲達), 사마사(司馬師), 사마소(司馬昭) 3부자로 대를 이으며 안개 속의 3국 시절을 끝내는 실질적인 세 살림 도수입니다.

문왕文王 영대靈臺에 모셔진 문왕 청동상2.

따라서 숙구지 문왕(文王)으로 기두하는 세 살림 도수는 사마중달(司馬仲達:司馬懿)의 두 아들 사마사(司馬師)와 사마소(司馬昭)의 사마(司馬)씨 가문의 세 살림과 같다 하시어 삼국시절(三國時節)이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리오- 하신 것입니다.

안 운산(安雲山) 성도사님이 맡은 문왕 숙구지(宿狗地) 도수는 보천교 해체 이후 영락해진 수십만 신도의 영성(靈性)을 성성히 깨워 인(仁)의 씨앗을 틔운 뒤, 20년 뒤인 74년에 재기두 해 과도기를 거쳐 84년(갑자년) 추수도수 중복 살림을 열고 갑오갑자 꼬리 도수와 동지한식백오제 도수에 의거 2014년(갑오

년) 말복 살림의 통일진법이 배출되는 세 살림 도수입니다.

상제님 '문왕의 도수' 최종 결론은 문왕은 유가에서 신성극(神聖極) 시대의 마지막으로 사마의(사마중달)와 동일하게 당대에 대업을 못 이루고 3부자의 세 살림 승계에 걸쳐 완성된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 도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열째, 상제님께서는 후세에 도안(都安)의 세 살림 종통(宗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친히 청·홍·황 삼색 사명기(司命旗)와 성장(誠章), 예장(禮章), 신장(信章) 공사도(公事圖)를 친히 내리시어 사가(私家)에 깊숙이 비장케 하여 철저히 감추어집니다. 이 비밀은 안 내성(安乃成) 성도마저 살아생전 자신이 받은 청·홍·황 삼색 사명기(司命旗)와 성장(誠章), 예장(禮章), 신장(信章) 공사도(公事圖)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문왕묘 영대 문왕팔괘文王八卦&낙서洛書

유일하게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만 내리신 친필 사명기(司命旗)의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상제님 진리의 종통맥 절반은 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맥을 바루라(正)는 의미는 개인의 연맥은 물론이거니와 미륵부처님이신 증산 천주 하나님의 법맥을 고 수부님의 종통맥이 이어진 추수 세 살림 판에서 찾으라는 것**이며 신앙의 올바른 인연 법줄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열한 번째, 현무경(玄武經) 또한 도안(都安) 세 살림을 맡은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기유년(己酉年) 정월(正月) 원단(元旦) 천지인신(天地人神)의 비밀을 모두 함축해 신권(神權)을 부리는 조화부(造化符)로 봉인하여 내리신 신부

(神符)입니다. 대흥리 본소 옆에 살던 안 내성(安乃成) 성도는 상제님으로부터 받으신 현무경(玄武經)을 태모님에게 바칩니다.

후일 차 경석 성도는 현무경(玄武經) 공사에 대해 이 상호에게 기유년(1909) 원단(元旦:정월 1일) 상제님이 안 내성 성도의 집에서 <현무경(玄武經)>을 집필해 맡긴 것으로 전하지 않아 이 상호는 자신의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1926>에 "기유(1909) 정월 일일 사시 천사께서 현무경을 종필(집필을 마치심)하사 차 경석에게 맡기시다. 原文: 己酉正月一日巳時 天師께서玄武經을終筆하사 車京石의게맛기시다"라고 기록했다가 후에 내막을 알고 <대순전경 초판:1928>에서 안 내성 성도 집으로 바로잡아 기록합니다.

계축(癸丑)년(1913) 9월 19일에 후일 현무경파-순천도를 개창하고 김 일부 성사의 정역을 용담팔괘로 완성시킨 장 기준이 차 경석(車京石)을 찾아옵니다. 1912(壬子)년에 차 경석은 고 수부님이 지니고 있던 약장 열쇠를 양도받아 비밀히 열어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법궤에 일자(壹字)로 봉한 함지를 떼고 열쇠로 열려고 조화궤에 대는 순간 청천하늘에 뇌성번개가 대작하여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놀란 뒤 조화궤안에 보물조화가 들어 있음을 짐작하고 때가 되어야 법궤를 열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 후 장 사수(기준)가 고 수부님을 찾아뵙고 차 경석 성도와의 우여곡절 언쟁 끝에 고부인의 명으로 열쇠를 넘겨받은 장 기준은 고부인 차 경석 장 기준 3 경진생(三庚辰生:일명 3룡)이 합일 되는 도수로 조화궤가 열립니다.

개탁(開坼:개봉)된 궤 속의 내용물을 인수하여 확인하니 창호지(窓戶紙)로 쌓여진 책보자기가 나왔는데 한 겹을 펴보니 또 백지로 쌓여져 있는 끝에 흰 병이 있었고 병마개를 펴보니 길화개길실 흉화개흉실(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이라는 글이 쓰여 져 있었고 병 속에는 백지로 말려진 심지 세 개가 들어 있기에 병을 쏟아 보니 심지 세 개가 바닥에 떨어져 각자 하나씩 주워서 펴보

니 고 수부님이 짚은 심지에는 '安乃成'이라 쓰여진 밑에 '律呂度數'라 쓰여져 있었고, 차 경석이 짚은 심지에는 '車京石'이라 쓰여 진 밑에 '布政度數'라 적혀 있었고, 장 기준이 짚은 심지에는 '張基準'이라 쓰여진 밑에 '大學度數'라 쓰여져 있었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의 심지에 '安乃成 律呂度數'라는 상제님 마지막 유훈 글이 씌어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율려도수律呂度數는 태을주 사명이며 현무경 전수 후 3년 태을주 수련도수를 명하신 것은 바로 율려도수를 받드는 것이었으며 상제님 천하사 진리포교는 바로 태을주 전수이기 때문에 3년간 태을주 수련을 마친 안 내성安乃成 성도를 대신해 태모님이 심지를 받으심은 낙종물, 이종물 사명에 이은 숙구지 문왕 도안都安 세 살림 추수 종통 연원맥을 천지인신天地人神의 현무경玄武經 유훈遺訓으로 온 천하에 확실히 못 박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무경>은 상제님이 안 내성 성도에게 3년간 태을주 수련공부를 명해 떠나기 전 안 내성 성도 집에서 집행하여 차 경석 성도를 통해 태모 고 수부님에게 바쳐졌다가 세 분의 동갑네기가 모인 날 조화궤(법궤)를 개탁(開坼:개봉)하여 세 개의 심지를 떼어내 태모 고 수부님이 짚은 병 속의 심지에서 '安乃成 律呂度數'라는 상제님 마지막 유훈 글이 씌어 있음을 확인한 점입니다. 정역팔괘의 한계를 보완한 용담팔괘는 도안(都安) 말복도수를 申命無窮의 우주원리로 뒷받침하여 동지한식백오제 105년 만에 막판에 전체 얼개로 드러나도록 꾸며 놓으신 증산 상제님의 숨겨진 마지막 카드입니다.

<현무경>의 시작 역시 도안都安의 세 살림인 언청계용신(言聽計用神) 오부(午符), 수화금목대시이성수생어화고천하무상극지리(水火金木待時以成水生於火故天下無相克之理) 신부(申符), 천지지중앙심야고동서남북신의어심(天地之中央心也故東西南北身依於心) 사무여한부死無餘恨符 술부(戌符)로 시작합니다. 홀수(奇數)는 양수요 짝수(偶數)는 음수입니다. 사람은 양이요 귀신은 음인지라 각기의 거처

또한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으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지(冬至)는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고 하지(夏至)는 일음(一陰)이 시생(始生)합니다. 동지와 하지는 각기 자(子)와 오(午)이며, 일음(一陰)이 시생(始生)하는 오(午)는 「작지부지성의웅약作之不止聖醫雄藥 일음시생一陰始生」하는 양방위로 오신술(午申戌)이 성사재인(成事在人)을 담당하고, 자(子)는 「배은망덕만사신背恩忘德萬死身 일양시생一陽始生」으로 대대세세 천지귀신수찰(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하는 음방위로 자인진(子寅辰)이 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쉬지않고(作之不止) 성의웅약(聖醫雄藥)하는 천하사 종통 인사문제는 오신술(午申戌) 양방위에서 도안都安 세 살림이 이러한 우주원리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도안(都安) 세 살림 도수의 인사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문왕의 도수를 받고 기두한 첫째 살림 술부(戌符)사명이 워낙 험난한 사명이므로 “문왕의 도수와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받으려면 극히 어려우리라” 하시고, 안 내선(安乃善) 성도 이름을 비록 일등(처)방문으로서 세 살림의 길이 역경만첩의 곤고한 길일지언정 끝내는 반드시 이룬다는 도수로 안 내성(安乃成)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며, 이 도수를 받는 주인공 <현무경(玄武經)> 술부(戌符)에 ‘사무여한부(死無餘恨符)’라는 제하(題下)로 살아생전 두 아들을 앞세워 천하사를 집행한 문왕 도수의 험난한 역경을 신도(神道)법칙으로 친히 위로하신 것입니다.

진래원천신동기震來遠天新動機—진이 먼 하늘에서 오니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鄭北窓 八卦詩):文王八卦의 震卦가 正易八卦의 艮兌, 즉 日月潮水와 日出入의 기준인 正東 正西의 寅申을 불러내니 새로운 기틀이 있습니다. 사정위(四正位) 인신동서(寅申東西)는 간태(艮兌)로 산택(山澤)이며 일월지도(日月之道)로 낮과 밤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조수의 변화의 기준이 되고 태양의 출입의 기준이 됩니다. 용담도에서 동서인 산택(山澤) 자리는 寅申이 자리하여 산택통기(山澤通氣)로 이상적 후천상인 지천태(地天泰)를 이루고 있습니다. (‘萬物之所成終

而所成始也일새 故로 曰成言乎艮이라. 山澤通氣然後에야 能變化하야 旣成萬物也하니라.<주역 설괘전>')冬至寒食百五除

상제님은 도운의 추수사명 말복도수에 대해 "상씨름으로 종어간(終於艮)이니라"하셨습니다. 여기서 간(艮)은 문왕팔괘의 진동태서震東兌西가 아니라 정역팔괘와 용담팔괘의 간동태서艮東兌西에서의 간(艮)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정역팔괘에서의 간(艮)이 아닌 용담팔괘에서의 간도광명艮道光明 간(艮)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상씨름은 세운의 상씨름 개념보다 도운의 말복 상씨름 인사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왕 도수의 씨앗(仁)이 말복도수로 열매맺는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의 본의本義가 바로 간도광명艮道光明의 간(艮)입니다. 용담팔괘의 간(艮)은 바로 신명무궁申命無窮의 신申입니다. ('艮土丙辰'의 艮土는 바로 용담팔괘의 艮申)

<대개벽경(大開闢經)>*새로운 후천 광명세계에 조화로운 바람이 가득차고 진리가 바로잡힌 건곤 세상에 흰 달이 휘영청 밝노라. 천지장구(天長地久)하고 신명무궁(申命無窮)하여 일거월래(日去月來)하니(360일 정역시대) 인빈유방(寅賓有方)이라."*書經 堯典에 寅賓出日:뜨는 해를 공경히 맞이함 寅賓:인시의 귀한손님. 일출인묘진이니 말복 시절화 申의 태양을 공경히 맞이함.

<증산도 道典>*神明世界에 和風蕩蕩(신명세계 화풍탕탕)하고 眞正乾坤에 皓月朗朗(진정건곤 호월낭랑)이라. 天長地久(천장지구)에 申命無窮(신명무궁)하고 日去月來(일거월래)에 寅賓有方(인빈유방)이라.

<대개벽경(大開闢經)(영평비결(永平秘訣))>*(오미방위에 비추던 서광이 신유방위로 옮겨감)태양(세운은 일본)이 동양에서 떠오름에 서양이 몰락하니(日本東出西洋沒) 오미방위의 빛이 신유방위로 옮김이라(午未方光申酉移) 양(未)이 가을 울타리를 받으니 누가 능히 풀리오(羊觸秋藩誰能解) 봄나무 위에 원숭이(申) 울어 가을 양명에 오르고(猿啼春樹登陽明)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인신사해(寅申巳亥)에 문(門) 열리니 될려는 사람의 일 일세 그려 바다해(海)자 열 개자(開字) 사진주(眞主)가 오신다네 옥구(沃溝)가 근본(根本)이네 삼제갈(三諸葛) 팔한신(八韓信) 관우(關羽) 장비(張飛) 조자룡(趙子龍) 진묵대사(震默大師) 사명당(四溟堂)이 때가 때인만큼 일제(一齊)히 서로나서 만고성인(萬古聖人)이 다 오신다네 오방신장이하(五方神將以下)로 신영(神迎)맞이 어서하소 나는 바닥에 일(一) 붙은줄 알고 뽑노라

<선도신정경>*(무진(1928)년 숙구지 공사로 자던개를 깨우시고) 기사년(己巳年:1929) 정월(正月) 초삼일(初三日) 치성(致誠)을 드릴 새 고후비님(高后妃任)께서 헌작(獻酌)을 드리고 나서 모든 도중(道衆)들이 반천무지사배(攀天撫地四拜)를 드린 후(後) 고후비(高后妃)께서 도중(道衆)에게 가라사대 이제부터 세 번(三番)을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라고 읽도록 하라 지시(指示) 하시거늘 말씀에 따라서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라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라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라 읽으니라

*참고:<증산도 道典>에는 거미일화만 싣고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 일화 전체부분이 누락됨. 무기 오십토(五十土)는 천지공사 인사집행의 총 결론으로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한 대목. ※※※하도 중궁 오십토(五十土)는 15진주 지도자를 상징하는 공사로 3명의 지도자가 차례로 천지정리해 나오며 완성된다.

<선도신정경>*세 번(三番)을 천지정리(天地整理) 무기토(戊己土) 천지(天地)의 귀신(鬼神)도 모르는 일*고후비님(高后妃任)이 김제(金堤) 조종(祖宗)골을 떠나오실 적에 육임(六壬)과 팔괘(八卦)와 십이(十二)며 이십사(二十四)를 싸 가지고 오시다가 육임(六壬)과 팔괘(八卦)는 김제(金堤)에 오시어 땅(地)에다 묻으(埋)시고 땅(地)을 세 번(三番) 구르시더라

<선도신정경>*또 십이(十二)는 이리(裡里)에 가시어 묻으시며 땅(地)을 세 번(三番) 구르시고 바둑(碁)돌과 윷판(板)은 옥구(沃溝)에다 묻게(埋) 하시고 종도(從徒) 열 사람(十人)을 데리고 공사(公事)를 행(行)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오십토(五十土)를 세(三) 곳(處)에 나누어 놓았느니라 내가 마음먹고 하는 일은 천지(天地)의 귀신(鬼神)도 모르는 일이니라

열두 번째, 증산 상제님은 일등방문으로 처방한 안내성 성도에게 세 살림 폐백幣帛 집지례執贄禮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세 살림 폐백幣帛 집지례執贄禮는 경만장 안 내성 성도로 하여금 폐백床 세 상床 을 똑같이 차리게 해 놓고 폐백 받는 공사를 보시는데 안 내성 성도가 절을 하며 보니 상제님이 손오공 분신술 쓰듯이 동시에 세 상床에 앉으시어 안 내성 성도에게 폐백 집지례執贄禮를 받으시는 공사입니다. 현무경玄武經에 천지인신天地人神 귀신수찰鬼神

垂察로 오신술(午申戌)부(符) 세 살림 공사로 서두에 박아 넣은 이 세 살림 폐백幣帛 집지례執贄禮 공사 내용은 실로 놀라운 공사내용입니다.

천지공사 중에 상제님이 세 분으로 분신(分身)하시는 공사내용은 처음이니까요. 여기서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차려놓은 세 상(床)의 폐백상과 상제님 세 분이 동시에 폐백음식을 드시며 절을 받음은 종통문제에 있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폐백(幣帛)은 본래 종묘 신위에 이바지하는 공물을 말하며 폐백의식은 종묘신위에 제사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는 시아비 구, 시어미 고를 써서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폐백인사를 구고례(舅姑禮)라고 합니다.

폐백 상(床)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폐백 음식을 잡수시는 공사는 경만장 안 내성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초, 중, 말복 세 살림 공사를 안 내성 성도로 하여금 천지공사로 천지인신(天地人神)의 폐백의식으로 천지에 질정하는 공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세 상(床)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폐백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모습은 세 살림 지도자의 위격을 대등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초중말복 세 살림 지도자를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상제(上帝)께서 안내성(安乃成)의 집(家)에 임어(臨御)하시어 내성(乃成)에게 가라사대(曰) 네(汝)가 오늘(今日)은 **나(吾)에게 백냥(百兩)의 폐백(幣帛)을 바치라** 하시거늘 내성(乃成)의 형편(形便)이 심(甚)히 궁핍(窮乏)하여 일푼(一分)도 없는(無)바라 하릴없어 마을(里)에 나가 모친(母親)를 찾아뵙고 사실(事實)을 고(告)하니 모친(母親)이 한탄(恨歎)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형편(形便)에 백냥(百兩)의 거금(巨金)이 어디에 있으리오. 내가 푼푼(分分)이 모아 둔(聚) 엽전(葉錢) 몇 잎이 쌀항(米缸)에 있을 뿐이라. 그러니 그라도 필요(必要)하면 쓰라(用之) 하거늘 내성(乃成)이 집(家)으로 돌아와(歸來) 항아리 속(裡)에 엽전(葉錢)을 세어보니(算則) 한냥(一兩)이더라.

그리하여(然而) 한 냥(一兩)을 올리며(上) 사정(事情)을 고(告)하니 들으시고(聞之) 가라사대(曰) 「내(吾) 이(是) **한 냥(一兩)으로써(而) 백배(百倍)로 느려(大) 쓰리라(用)** 하시며 그 돈(其金)으로 술(酒)을 사오라 하시거늘 명(命)하신대로 술(酒)을 사오니 **상(床)을 세(三) 개 놓고(置) 술(酒)을 삼등분(三等分)하여 세(三)**

상(床)에 차려놓고 절(拜)하라 하시기에 그대로 차려놓고 내성(乃成)이 절(拜)하며 보니(觀則) **상제님께서 세(三) 상(床)에 동시(同時)에 같은 모습(模襲)으로 잡수시고 계시더라** 전(傳)하니라.(정영규 <천지개벽경>)

*참고<증산도 道典 5:263>에는 -태을주 내려주는 공사-타이틀로 백냥이 삼백냥으로, 한 냥이 백닢으로, "세(三) 상(床)에 동시(同時)에 같은 모습(模襲)으로 잡수시고"가 "가운데 상에 앉으시어 진지드신다"고 바뀌어진 채 나머지 부분은 생략되어 있음. 세 지도자의 위격이 같다. 1906년(丙午) 상제님께서 벽력표霹靂表를 땅에 묻으시고는 종도들에게 모두들 제각기 흩어져서 돌아가라 하시고 오직 김광찬(金光贊)만을 데리고 며칠 더 머무시다가 광찬에게 돈 100냥을 주시면서 먼저 만경(萬頃)에 가서 나의 통지를 기다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는 경만장 안 내성 성도의 운암강수만경래 도안都安세 살림 추수 도수의 인사문제에 있어 안 내성 성도의 100냥 준비로(한 냥으로 백배로 늘여 쓴 공사) 세 상 폐백 집지례 공사와 연관이 있음. (<보천교 교전>, <동곡비서>, <대순전경 3판>, <증산도 도전>에는 돈 백냥이 없으나 <증산천사공사기>에 100냥이 기록되어 전한다)

숙구지 문왕 도수의 초·중복 추수 살림은 소위 '사람들(둘)이 없어 못 나서노라(『대순전경』)' 한 청음·남주의 불발된 두 사람 교의체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그런대로 순탄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중복살림에서 말복살림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천지공사 종필(1909) 이후 105년째 동지한식백오제의 사오미 개명장 시간대이므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세 살림 말복 추수도수의 전체 진법퍼즐이 드러나며, 그동안 초나라 장수들 벌떼처럼 일어나는 초장봉기지세로 물중전의 본을 보이며 열거해 있던 다양한 범 증산계 교단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진리의 혁명 기간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공사가 용머리 고개 위로 급히 뛰어오르시며 세 번을 흘끔 쳐다보며 탄식하시는 다음의 공사입니다. 가을을 상징하는 율목(栗木) 밤 송이는 알이 세 개 들어있어 세 살림을 상징합니다. 밤 알 세 번

까는 공사 역시 도안(都安) 세 살림을 나타내는 공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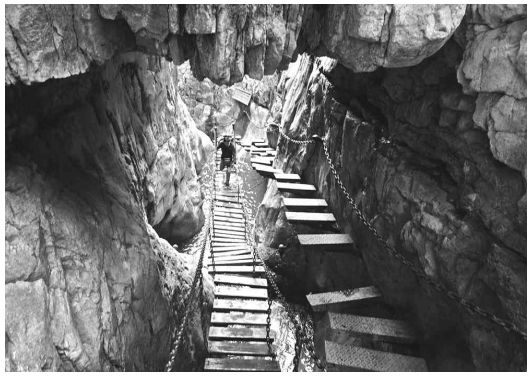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전주(全州)에서 공사(公事)를 끝마치(止)시고 돌아오실세(歸路) 용 머리고개(龍頭峙) 밑(下)에 오시더니 두 주먹을 불끈쥐고 걸음을 빨리(速)하여 다급(多急)하게 뛰여(躍) 오르시니 모든 종도(從徒)들이 황급(惶急)히 따르는데 뒤(後)를 한번(一番) 흘끔 돌아(顧) 보시고 여전(如全)히 다급(多急)하게 뛰여(躍) 오르시며 또(又) 뒤를 흘끔 돌아(顧)보시고 또(又) 다급(多急)하게 뛰어(躍)올라 용머리고개(龍頭峙)를 썩 올라 서시더니 세 번(三番)째 뒤를 홱 돌아(顧) 보시고 가라사대(曰) 이 고개(峙)를 몇 사람(幾人)이나 넘을 수 있으리요 하시며 탄식(歎息)하시더라 전(傳)하니라.*<정영규 천지개벽경 2장31절>(참고:<증산도 道典 7:46>에는 내용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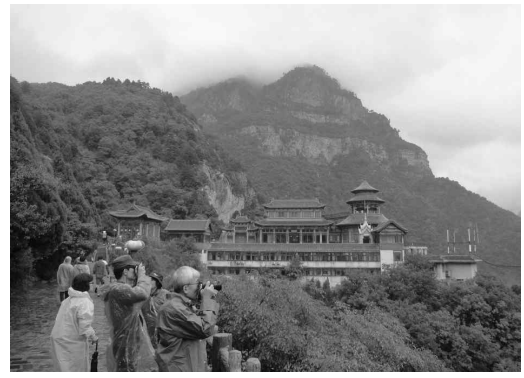
<증산도 道典>*회문산에서 보신 추수도운의 진주 공사:무신년 가을에 상제님께서 수부(首婦)님과 김형렬, 김갑칠, 박공우, 문공신, 안내성, 차경석 등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태전 콩밭 도수를 보러 떠나시니라. 상제님께서 회문산에 이르시어 공우에게 물으시기를 “공우야, 여기가 어디냐?” 하시니 공우가 “순창 회문산입니다.” 하고 아뢰니라. 공우가 상제님께 여쭙기를 “여기는 무슨 도수를 보러 오셨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오선위기 도수를 보러 왔다.” 하시고 “밤 밭이 어디 있느냐?” 하시거늘 수부님께서 “밤이 익었겠지요.” 하시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명하시기를 “가서 밤송이를 주워 와라.” 하시니 성도들이 상제님의 말씀을 따라 밤을 주워 오니라. 상제님께서 다시 “밤을 까라.” 하시고 잠시 후 “밤을 몇 번 깠느냐?” 하고 물으시니 성도들이 “세 번 깠습니다.” 하고 아뢰거늘 상제님께서 “밤을 한 번 까면 정월이요, 두 번 까면 사월이요, 세 번을 까면 가을 아니냐.” 하신 후 치성을 올리시고 오선위기 공사를 보시니라. 상제님께서 회문산에서 공사를 마치시고 성도들을 데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고창 사창리로 가시니 성도들이 잠깐 사이의 일에 놀라 서로 웅성거리더라.(박공우 성도의 수제자 김일화의 아들 김천수 씨의 증언)

侍

열세 번째, 都安 세 살림 도수는 문왕 가문과 사마중달 가문의 역사에서 보듯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다음의 삼인동행칠십리三人同行七十里라는 시도 있습니다만 <동국산서> 권말에는 “삼인동행칠십희三人同行七十稀, 오류문전이십일五柳門前二十一, 칠월칠석삼오야七月七夕三五夜, 동

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의 시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실려 있습니다.





산서성 면산 綿山 개자추(介子推) 사당

그런데 이 시는 조선조 산원算員 경선징(慶善徵:1616-?)의 ≪묵사집 嘿思集: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算學書≫ 중 1차합동식, 즉 전관술(翦管術:일차합동식의 근을 구하는 동양 전래의 산법(算法))에 관한 다음의 가결(歌訣)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삼인동행칠십희三人同行七十稀, 오봉루전이십일五鳳樓前二十一, 칠월추풍삼오야七月秋風三五夜,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

삼인동행칠십리(三人同行七十里)
오로봉전이십일(五老峰前二十一)
칠월칠석삼오야(七月七夕三五夜)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

삼인동행칠십희(三人同行七十稀)
오봉루전이십일(五鳳棲前二十一)
칠월추풍삼오야(七月秋風三五夜)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

*<전관술(翦管術) 이해>*105 이하의 자연수 X를 생각하게 하고 이를 알아 맞추는 방법: 그 수를 3으로 5로 7로 각각 나눈 나머지를 a, b, c 라 하면 각 나머지에 70, 21, 15를 곱하게 하여 합한 d, e, f, g를 구하게 하면 X=G-105n(n은 자연수)

a×70=D, ※三人同行七十稀(70)
b×21=E, ※五老峰前二十一(21)
c×15=F, ※七月七夕三五夜(3×5=15)
D+E+F=G 답;G-105n=X(105 이하의 자연수(n은 자연수))※冬至寒食百五除

105년을 빼야 답(세 살림 진법)이 드러난다는데 이 비결의 핵심이 있다.

*해설:백중百中은 7월 보름(3×5)으로 묵사집의 전관술 비결로 보면 1壬×3(三才)×5(戊五空 일태극)×北斗7星=105(仙道數)이므로 천지공사 종필 선언(1909 기유년) 이후 105년이 지나야만(사오미개명장 中 2014년 갑오년 세 살림 발표 및 동지절 통합경전 탈고) 종통의 진법이 뿌리째 모두 드러나 모든 진리의 퍼즐이 맞는 백사적중百事的中, 백사개중百事皆中이 되는 것이다. 기유년(1909) 천지공사 종필 이후 105년 만의 사오미 개명장(巳2013, 午2014, 未2015)에 천지공사의 전체 퍼즐이 동시에 밝혀지도록 한 것은 증산 상제님 천지공사의 최종결론인 종통 추수사명 세 살림 진법의 핵심비결이다. 기유년(1909) 천지공사 종필 선언 후 105년째 갑오년(2014)과 안운산 성도사님 기두(起頭:1945)로부터 70년인 을미년(2015)은 '사오미 개명장'인 '칠월보름 백중'으로 범증산계 통합경전 내용이 전격적으로 공개된다. 이는 마지막 추수 사명자가 숙구지 문왕의 도수로 일어나 도안의 세 살림을 일으키도록 3초 끝에 대인출세라는 세 살림 도안(都安)공사로 꾸며 놓고 동지한식백오제(105년)를 넘어서서 사오미 개명도수에 즈음해 <수지지어사마소 공사>로 비로소 마지막 말복 살림이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오제(百五除) 이전의 105년간의 세월은 사실상 전체 퍼즐이 봉인된 채 암흑에 가려진 신앙을 해야 하는 눈뜬 봉사 시대일 수밖에는 없는 기간이었다. 백중百中은 7월 보름(15=3×5)으로 묵사집의 전관술 비결로 보면 7×(3×5)=105이므로 천지공사 종필 선언(1909 기유년) 이후 105년이 지나야만(사오미개명장 中 2014년 갑오년 세 살림 발표 및 동지절 통합경전 탈고) 종통의 진법이 뿌리째 모두 드러나 모든 진리의 퍼즐이 맞는 백사적중百事的中, 백사개중百事皆中이 되는 것이다. 기유년(1909) 천지공사 종필 이후 105년 만의 사오미 개명장(을사2013, 갑오2014, 을미2015)에 천지공사의 전체 퍼즐이 동시에 밝혀지도록 한 것은 증산 상제님 천지공사의 최종결론인 종통 추수사명 세 살림 진법의 핵심비결이다.

<증산도 道典>*천부지(天不知) 신부지(神不知) 인부지(人不知) 삼부지(三不知)이니, 참종자 외에는 모르느니라. **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요 지금 운수 동지(冬至) 한식(寒食) 백오제(百五除)니라.**

*해설:증산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태모 고수부님 10년 신정공사의 진법 추수도수의 주인공은 경만장 안내성 성도의 운암강수만경래 도안都安 문왕추수도수의 세살림 개창 주인공 안운산安雲山 성도사聖道師님이시며 초,중,말복 세 살림으로 선천역사를 매듭짓는다. 이것이 증산도 천지공사의 핵심 노른자이며 최종 결론이다. 문왕 추수자의 종통판은 강생원 집 잔치처럼 성대하지 못하지만 문왕판에 들어와야만 후손들이 마치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 궁팔십 달팔십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삼인동행칠십稀>삼인동행칠십里; 삼인동행칠십리는 문왕 삼부자(문왕, 무왕, 주공단), 사마중달 가문 3부자(사마중달, 사마사, 사마소) 처럼 추수도운 세 살림의 도안

(都安) 세 살림이 희귀하다는 것이며, 기유년(1909년) 천지공사 종필 선언이후 백오년 만에 진법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문왕 추수 책임자 안 운산 성도사 님이 甲乙 기두한- 을유 해방(1945년) 초복도수 이후 두 자식을 좌보우필 삼아 모두 70년 세월을 지나 진법이 열린다는 것이니(1945+70=2015) 즉, 동지한식백오제 사오미개명장(2013계사, 2014갑오,2015을미)에 도달해야 태모 고수부님의 통일 윷판 말복도운 진법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모든 천하사 일꾼은 문왕의 도수 주인공이 개창한 종통 추수판을 만나는 것이 마치 강태공 여상이 문왕을 만나 팔자를 고친 것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역사에서 전하는 강태공은 전 80은 빈궁하게 살았지만 후 80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것으로 전하는데, 강태공은 고 씨 부인과 재혼하여 얻은 어린 딸을 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에게 여의여(주공단이 섭정) 무왕의 장인으로 자리매김해 마침내 주나라를 자신의 사위국으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주나라로부터 산동성의 제齊나라의 제후(왕)로 봉해지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결과적으로 천하사 일꾼들의 선천운수는 마치 강태공 여상이 빈궁한 생활 끝에 부인 마천금과 이혼하고 위수강가에서 문왕을 만남으로써 80 년 동안의 빈곤한 생활을 마치고 고 씨 부인과 재혼하여 문왕 사후 무왕과 주공단을 보필해 은상의 폭군 주紂를 쳐부수고 주周나라를 연 뒤 현달顯達한 인생 80년을 보낸 운수와 같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운수가 현실적으로 크게 발복하는 지금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09년 기유년 천지공사 종필로부터 105년만의 사오미 개명장(2013계사, 2014갑오, 2015을미)에 등장하는 통일 윷판의 세 번째 말복 살림 진리선포 시기에 이르러야만 강태공의 선천운수처럼 전80, 후80으로 현달할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증산 상제님은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 운을 타라 하셨다. 십일귀체 5=6 새끼손가락 조화봉(造化棒)으로 조화 내는 수지지어사마소의 사명을 맡은 말복 살림의 주인공에 붙어야 말복 대운을 타는 만복동이라 하셨다. 여기에 붙지 못하면 깜부기라는 것이다.
<대개벽경(大開闢經)>*말씀하시되,“7월 보름을 백중(百中)이라 이르나니 백중 백중이니 백 가지 일이 모두 적중하노라. -曰 七月望間 謂之百中 百中百中 百事皆中-

예전부터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무색해 보이는 말로 전락했지만 수명이 짧은 옛날에는 인생 칠십까지 사는 것은 고래로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원래의 《묵사집嘿思集》에서는 삼인동행칠십희三人同行七十稀 라고 되어있어 칠십희七十稀는 세월을 뜻함과 동시에 아주 희귀함을 강조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칠십을 사는 것이 드문 것이 아니라 세 살림 삼인동행이 희귀하다는三人同行七十稀 본의本意를 살짝 숨겨 놓으신 삼인동행칠십리三人同行七十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문에서 삼인이 천하사 세 살림 주역으로 차례로 무기토戊己土 정리해 나온다는 것이 아주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3에다 7을 곱하면 21이 됩니다. 시천주侍天呪 주문도 21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로봉전이십일도 숫자를 잘 보면 5와 21(3×7)을 곱하면 105가 됩니다. 冬至寒食百五除는 105년 기간을 빼면 사오미 개명장을 거쳐 정답(세 살림 진법)이 드러난다는데 이 비결의 핵심이 있습니다.

<동곡비서>*(초중복의 봉사잔치)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봉사 잔치란 말이다. 아는 사람은 알지마는 누가 갈쳐 주나? 제가 알아야 한다니께."

<만법전(萬法典)>*(봉사놀음)생리화生理花가피었네 생리화生理花가피었네 생리화生理花가피었네 울도담도없는 우리형제兄弟집에 생리화生理花가피었네 봉사놀음이나온다 봉사놀음이나온다 봉사놀음이나온다 옆에다두고도보지못하는 봉사놀음이나온다 작지를들고이끌어주어도 따라오지를못하는 봉사놀음이나온다

결론 내립니다. 왜 삼인동행 칠십리라고 하셨을까요? 인생칠십 고래희처럼 한집안에서 도안都安 세 살림이 있는 것은 고래부터 아주 드문 일이며 문왕과 사마중달의 삼부자처럼 삼인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동지 한식의 105년간은 종통 세 살림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암흑천지근백년의 추운 계절입니다. 문왕 추수 사명자 (안 운산 성도사)의 1945년 초복 살림 개창 이후 70년 뒤인 2015년 사오미 개명장이 바로 천지공사 종필(기유년:1909) 이후 105년입니다. 이 기간은 진리의 과도기이므로 105년이 지나야만 도안都安 종통 세 살림의 전체 퍼즐이 다 드러난다는 산법算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격암유록 궁을도가(弓乙圖歌)>*동해삼신불사약(東海三神不死藥)은 삼대적덕지가외(三代積德之家外)는 인력(人力)으로 불구(不求)라네-동해삼신불사약은 삼대에

걸쳐 덕을 많이 쌓은 집안 외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구하지 못한다네
<증산도 道典>*하루는 공신이 이르기를 “우리 일은 삼대(三代)밖에 없다.” 하니라.

열네 번째, 임진년(2012) 벽두劈頭에 안 운산安雲山 숙구지 문왕 도수의 막이 도운역사에서 내려지면서 암흑천지로 변한 도운道運은 동지한식백오제의 사오미(임진.계사.갑오)를 기점으로 태모님이 말씀하신 소위 흑운명월黑雲明月 도수로 새로운 진리의 밝은 달이 검은 구름 속에서 휘영청 떠오릅니다. 이 밝은 달은 바로 다름 아닌 교운의 전체 퍼즐을 보여주는 경만장 안내성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초중말복 세 살림 도수이며, 이 세 살림의 정체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옥구 오성산 사명당 기운을 받은 만고성인 영웅호걸이 출세합니다.

이 대목은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 장량 제갈이 두름으로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 모르리라 하신 말씀처럼 후천개벽을 맞이해 각색 영웅호걸들이 즐비하게 출세하는 분기점이 바로 백오제란 화두입니다.

<만법전(萬法典)>*(도덕가(道德歌))한방房에서성현聖賢나도 누가난줄모를운수運數 부모형제천륜 父母兄弟天倫이나 말못하는유불선식儒佛仙式 장량제갈張良諸葛이 두름나건마는 봉사잔치꾸며내니 알수없는미묘법微妙法을 네정성精誠이부족不足하야 이런도법道法못하는걸 뉘를보고말을하리 여동빈呂東賓의참빗도수度數 후회자탄後悔自嘆부디마소 ㄴ

풍류주세백년진(風流酒洗百年塵)의 백년 의혹은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의 105년(2014)을 전후한 사오미(2013, 2014, 2015) 개명을 분기점으로 풀립니다. 또한 105년 사오미 개명에 문왕의 도수를 중심으로 도안都安의 세 살림 도수의 전체 퍼즐이 드러납니다. 경만장 운암강수 만경래 세 살림 진리는 이

기간에 비로소 통일경전 <통합경전>의 공개로 상제님 종통(宗統)의 세 살림 전 면모가 비로소 세상에 창명(彰明)됩니다.

해방이후 2변 교운인 증산교 대법사를 개창하신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 총사수總師首는 오직 천심(天心)하나만을 간직 한 채 20년 말점도 도수 대 휴게기를 선언하시고 74년 복귀해 안 경전安耕田, 안 원전安原田 두 자식을 좌우 보필로 삼아 84년 증산도를 개창하시게 됩니다.(갑자갑자甲子甲子 성인공덕聖人功德:<육갑타령(六甲打令)>) 하지만 독행천리獨行千里에 백절불굴百折不屈 하시던 문왕 도수의 주인공 안 운산安雲山 성도사님이 2012년 2월 상제님 품으로 등천선화登天仙化하시면서 세 살림의 전 면모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파천황적破天荒的인 사오미巳午未 개명開明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오미巳午未 개명開明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얼어붙었던 동지한식 105년이 지나면서 흑운명월黑雲明月 도수에 의한 세 살림 전체 퍼즐이 떠오르기 시작하니 이 또한 도수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는 상제님 천지공사 이념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닭 두 홰 우는 지금까지의 초, 중복 과도기는 진리의 여명기였습니다. 추수도수 도안都安의 세 번째 횃대치는 모습을 정북창은 계등고목창오성(鷄登古木唱午聲)<鄭北窓 八卦詩>이라 표현합니다. 누런 장닭 오래된 횃대에 올라 날개 짓 하며 세 번째 말복 울음인 오성(午聲)을 우는 모습입니다.

오성(午聲)이란 다름아니라 사오미巳午未(계사,갑오,을미) 개명(開明)도수에 맞추어 기유년(1909)으로부터 동지한식105除의 105년에 해당하는 갑오년(2014)에 경만장 도안(都安) 세 살림 도수를 부르짖는 소리가 처음으로 천하에 울려 퍼짐을 뜻합니다.(艮道光明:艮山回運降雲祥) 상제님 천하사는 이 세 살림을 모르면 다 아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두 봉사 잔치에 불과합니다. 격암 남사고의 <격암유록>에 여자 성씨 세 살림 3인이 등장하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했습니다. 기하부지삼인일豈何不知三人日 동서합운지엽도東西合運枝葉道 차운득수여자인此運得

열다섯 번째,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막둥이 도수를 부치시어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 운을 타라 하시고,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다가 새끼손가락을 펴 여섯을 세어 보이시며 "이것이 조화봉(造化棒)이다. 새끼손가락이 조화 낸다." 하셨습니다. 꼽았다 펴시는 새끼손가락은 5황극 중수(中數) 다섯째이면서 동시에 후천수인 6수(6律 6呂, 6任, 탄소(C)의 전자수 6, 물의 결정도 육각수, 십일귀체에 의해 5와6은 11成道의 보수이므로 5=6) 여섯째입니다. 북두칠성의 6째 성(星)이 사마소 말복사명자 무왕을 상징하는 무곡성(武曲星)이며, 안(安)의 획수도 6수요, 의통 천하사 구호부대 연원조직도 6기초, 6임 조직이며, 태모고 수부님은 천하에 대도통도 6으로써 벌린다 하셨습니다.

초, 중복 운은 마지막 도운(교운)을 결판내는 윷판 말복 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운입니다. 이에 비하면 말복 운은 마지막 열매 맺는 운이 굽이치는 대운 중의 대운입니다. 초중복 운에 큰 공덕을 세웠어도 천심을 갖지 못하고 심통이 바르지 못한 자는 그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상제님은 그저 마음자리 하나만 보신다 하셨습니다.

<증산도 道典>*상제님께서 내성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 운을 타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말복 운이 가장 크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크게 받나니 '막둥이 놀음'이니라." 하시고 내성에게 막둥이 도수를 붙이시니라.

<증산도 道典>*하루는 안 내성(安乃成)이 "때는 언제 오나이까?" 하고 여쭈거늘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다가 새끼손가락을 펴 여섯을 세어 보이시며 "이것이 조화봉(造化棒)이다. 새끼손가락이 조화 낸다." 하시고 시 한 수를 읽어 주시니 이러하니라. -나도 가네 나도 가네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저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십리사장(十里沙場) 너른 들에 오색포장(五色布帳) 둘러치고 일이삼사오륙(一二三四五六) 중에 고장(鼓杖) 소리만 둥둥 난다 인묘진(寅卯辰) 사부지(事不知) 사오미(巳午未) 개명(開明).-

앞으로 중복이 지나고 말복 살림이 시작되면서 상제님께서는 결실 도운의 대나무 공사를 다음과 보셨습니다. 마치 벼 이삭이 순식간에 패이듯이 벼이삭보다도 더 속히 자라는 대의 기운을 도운 세 살림 도수 중의 말복도수에 쓰신 것입니다.

<이중성 대개벽경>*기유년(1909) 봄에 구릿골에서 칙명을 내리시니, "삼국시절이 사마소에 가서 그침을 누가 알리오.(三國時節이 誰知止於司馬昭리오)"-말씀하시되, "삼국시절이 귀결되어 나아갈 바를 알았던 자는 오직 사마소 한 사람뿐이었노라." 성도 물어 여쭈기를, "대도 아래 천하사의 장래를 아는 자 오직 한 사람 있나이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성도하기 전에 한 사람이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천지에 보은하노라."

<이중성 대개벽경>*기유년(1909) 봄에... 말씀하시되, "대나무의 기운이 만물 중에 제일 크니 이번 공사에 천하의 대 기운을 덜어 쓰리라."

侍

열여섯 번째, 곤존(坤尊) 태모 고 수부님은 칠월(七月) 칠석 절(七夕節)에 임피 오성산 고 민환(高旻煥) 성도 집에 가시어 야밤에 집안 뜰에다 주안(酒案)을 성비(盛備)하여 오성(五聖)의 위(位)와 산신위(山神位)를 존설(尊設) 하시고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맡겨진 천하사 세 살림의 대업(大業)을 축원 사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태모님 10년 신정공사의 원칙 개략 초록(抄錄)에

"근본 근원에 귀의하여 성경신에 따라 내성(乃成)이 의세성업(乃成醫世聖業)하야 또는 의세성업(醫世聖業)을 이루어 만방에 오직 포덕인저-귀의본원이수기성경신(歸依本源而隨其誠敬信)하야 내성의세성업(乃成醫世聖業)하야 만방(万邦) 유일포덕(惟一布德)인저"라 하셨습니다. 이 공사의 핵심을 보려면 다음의 고 민환(高旻煥) 성도 집에서 칠성제를 지내시며 칠성 도수를 부치신 안 내성 성도의 내성대업(乃成大業) 축복 사례(謝禮)의식입니다.

<선정원경(仙政圓經)>*곤존(坤尊)께서 자(自) 병인년(丙寅年:1926)으로 지(至) 을해년(乙亥年:1935)이 십년공사(十年公事) 설법이(說法而) 전무전서(全無典書)나

공사시(公事時) 참종인(參從人)과 고민환(高旻煥)이 구상채집기초(究想採集記抄)에 선후불일불시(先後不一不啻)라 항하일사격(恒河一沙格)로되 추일사이가측(推一事而可測)이로다. 연이수기(然而隨其) 건곤양위(乾坤兩位) 사업원리(事業元理) 종지(宗旨)하야 **귀의본원이수기성경신(歸依本源而隨其誠敬信)하야 내성의세성업(乃成醫世聖業)하야 만방(万邦) 유일포덕(惟一布德)인저.**

<선정원경(仙政圓經)>*기묘년 칠월(七月) 칠석 절(七夕節)에 고씨(高氏)께서 신도(信徒) 십여 인(十餘人)을 영솔(領率) 하시고 임피군(臨陂郡) 오성산(五聖山)에 공사(公事)가 있어 가겠으니 행구(行具)를 준비(準備)하라 명(命) 하시고, 익일(翌日)에 발정(發程)하사 성덕리(聖德里) 고 민환(高旻煥) 가(家)에 좌정(坐定) 하시고, 그 밤에 정중(庭中)에 설석(設席)하사

<선정원경(仙政圓經)>*동서남북(東西南北)과 중앙(中央)에 명촉(明燭) 하시고 주안(酒案)을 성비(盛備)하여 오성(五聖)의 위(位)와 산신위(山神位)를 존설(尊設)하시고, 신도(信徒)에게 명(命)하사 진법주(眞法呪) 삼칠독(三七讀)과 진액주(津液呪) 사십구독(四十九讀)케 하신 후에 주효(酒肴)로 근공지행(勤供之行)을 하시며, **천지무궁무극(天地無窮無極)의 대도(大道)를 참역(參役)하야 내성대업(乃成大業)의 말씀을 하시며 사례(謝禮)를 하시고, 회향지례(回向之禮)로 기동(起動)하시니라.**

태모님은 회문산 오선위기 혈(穴)을 임피 오성산에 옮기셨는데 세운은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회문산 오선위기 혈 기운으로 매듭지어지고 도운(교운)은 임피 오성산 오선위기 혈 기운의 상씨름(비교씨름)으로 장 닭 세 횃대 치며 세 살림이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은 임피 오성산 사명당 기운으로 출현하는 운암강수 만경래 도안(都安) 세 살림 사명자 安乃成을 기묘년 칠월 칠석날 축원하셨습니다. 왜 하필 칠월칠석날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 내성 성도에게 부친 공사에 칠성 도수가 있습니다.

칠월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로 칠월 칠석날의 핵심은 목욕재계를 하고 별이 뜨는 쪽을 향해 칠성제를 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태모님은 오성산에 가셔서 공사 보신다 하여 오성산 성덕리에

七月七夕 견우직녀가 오작교위에 만나는 날

사는 고 민환(高旻煥)의 집으로 가셔서 뜰에다 제단을 차리게 하시고 오성산 오성(五聖)의 위(位)와 산신위(山神位)를 존설(尊設) 하시고 친히 칠성제를 드리며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칠성도수, 상두쟁이 상씨름 도수를 축원한 것이 됩니다. 이는 교운(도운)의 상씨름 말복도수에 대한 신정공사(神政公事)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일찍이 상제님께서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칠성도수를 내려주시며 도운(道運)의 상씨름 결론은 상두쟁이가 한다 하시고, 상두(上斗)는 북두(北斗)니 칠성(七星)이라 하셨습니다. 태모 고 수부님께서는 칠성 공사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요, 낳아서 키우는 공사라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안 내성(安乃成)에게 친히 상투를 틀어주시고 보발잔존 도수를 통해 칠성도수인 상두(상투)쟁이 도수로 도운의 상씨름 도수를 맡기시고 뾰죽한 수가 있다는 유첨수지설(有尖數之說)은 상투의 덕이므로 이 덕을 안(安) 씨 성에 부쳐 판밖에서 때가 임박하면 크게 한 번 말복 상씨름 상두쟁이 도수로 쓰신다 하셨습니다.

결국 태모님이 칠월(七月) 칠석절(七夕節)에 오성산 공사를 보시기 위해 이율곡 후신인 고민환(高旻煥) 성도 집에 가시어 안내성(安乃成) 세 살림 대업을 축수하신 공사는("내성대업(乃成大業)의 말씀을 하시며 사례(謝禮)를 하시고") 칠성도수인 상두쟁이 상씨름 도수를 집행하신 공사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성의 <대개벽경>에서는 상제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칠성경의 위차를 바로잡아 읽게 하시고 칠성경의 혈맥전수(血脈傳

授)라 하셨습니다. 칠성 도수를 부치신 일등 처방문(一等方文)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도안(都安) 세 살림 도수는 말 그대로 칠성경의 위차를 바로 잡아서 그 진액을 뽑아 넣은 문왕 도수 상두쟁이 혈맥 3대 전수공사입니다.

이에 더하여 <선도신정경>에서는 태모님께서 7살 차이의 고 민환(高旻煥) 수석 성도에게 칠성용정 도수를 부쳤기 때문에 오성산 사명당 기운으로 출세하는 도안(都安) 초, 중, 말복 추수 사명 세 살림 대업을 고 민환(高旻煥) 가(家)뜰에서 칠월 칠석 절을 택해 칠성제를 지내심으로써 축원하신 것이며 또한 <증산도 도전(道典)>을 보면 문 공신 성도가 교단을 만들어 제자 박 인규가 공신을 자주 찾으매 그때마다 인규를 배웅하여 대사리 재까지 따라 올라가 칠성바위를 바라보며 이르기를 “앞으로 오실 분은 저리 오시니 착실히 잘하라.” 하셨으니 추수 사명 세 살림 주인공은 태모 고 수부님이 축원하신 칠성 기운을 타고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칠성 기운을 타고 온다는 말의 의미는 상제님께서 칠성 도수를 부치신 운암강수 만경래 경만장 안 내성 성도 도안(都安) 세 살림 도수의 혈맥전수를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고민환의 칠성용정도수)*병인년(丙寅年) 삼월(三月) 이십팔일(二十八日) 선도신정공사(仙道神政公事)를 행(行)하실새 고후비님(高后妃任)이 입으신 의복(衣服)을 벗어서 고민환(高旻煥)에게 입혀 여장(女裝)을 시킨 후(後)에 내실(內室)에 들어있으라 명(命)하시더니 고후비(高后妃)께서 상제님(上帝任)의 의장(衣裝)을 갖추어 남장(男裝)하신 후(後)에 도중(道衆)에게 가라사대 내 나이 마흔일곱(四十七)에서 일곱(七)을 떼어 내면 내가 성포(聖圃:고민환(高旻煥)의 호(號))가 되고 마흔(四十)에다 일곱(七)을 붙이면 성포(聖圃)가 나 되니라 하시며 공사(公事)를 보시다가 또 가라사대 내가 증산(甑山)이니라 하시며 청년(靑年) 일곱(七)을 선발(選拔)하여 드리라 하시거늘 청년(靑年) 일곱(七)을 선발(選拔)하여 모으니 새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시고 그들에게 일곱 칠성(七星) 도수(度

數)를 정(定)하시어 공사(公事)를 보신후(後) 가라사대 이 공사(公事)는 칠성용정도수(七星用政度數)를 정(定)함이니라 하시더라

<증산도 道典>*한편 박 인규가 공신을 자주 찾으매 그 때마다 인규를 배웅하여 대사리 재까지 따라 올라가 **칠성바위를 바라보며 이르기를 "앞으로 오실 분은 저리 오시니 착실히 잘하라."** 하니라.

열일곱 번째, 종통은 이 상호 형제가 아닌 임옥 자손 거느리고 모든 일을 결탁하리라. 태모님은 신정공사를 통해 사명당 기운을 임피·옥구 오성산에다 옮겨놓으시고 장 닭 세 홰치는 상씨름 추수 사명자가 오성산 기운 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3. 결론(結論)

이상의 17가지 다양한 공사내용은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공사로 이러한 공사 내용은 문 공신(文公信) 성도에게 부치신 문왕과 이윤의 도수 공사와 그 이외의 다양한 종통 공사와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일찍이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의 엄밀성에 대해 실로 물샐틈없이 짜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건존 증산 상제님이 짜 놓으신 숙구지(宿狗地) 문왕(文王)의 도수는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이 받아 무진년(1928) 구월도(九月度) 공사로 이화시키십니다.(고민환 성도가 <선정원경>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 건존(乾尊), 곤존(坤尊)이란 용어는 남성 하느님, 여성 하느님을 뜻하는 우주원리적인 용어입니다)

첫째, 무진년(1928) 9월에 태모 고 수부님께서 잠든 개 깨우는 숙구지(宿狗地) 공사를 집행하신 때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 대산면(大山面) 운산리(雲山里)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안 운산(安雲山) 성도사님이 아직 어린 7세 때입니다. 부친 안 병욱(安柄彧) 선생은 이 치복 성도를 좇아 보천교를 신앙하며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농이던 서산 집에는 보천교 신도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임술년(1922) 6월에 16일 운산리(雲山里) 본가에서 태어난 운산(雲山)은 어린 시절 보고 듣는 것이 항상 집안에 모여 있는 보천교(普天敎) 신도들이 주고받는 음양 우주원리, 역학, 선후천 개벽 천지공사 도담(道談) 뿐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어깨너머로 상제님 진리 세계로 관심이 가던 상태였습니다.

<선정원경(仙政圓經)>*무진(戊辰:1928) 구월도(九月度)에 말씀하시되 “시대(時代)가 불원(不遠) 하니 자는 개를 깨워야겠다” 하시고... “인제는 잠든개를 깨웠으니 염려(念慮)는 없다” 하시니라.

侍

둘째, 문공신(文公信) 성도에게 부치신 숙구지(宿狗地) 문왕(文王) 도수가 무진년(1928) 구월도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종물 사명기간(1936년까지의 普天敎)을 포함한 일제시대 암흑기의 포태기(胞胎期)를 거쳐 해방이후 비로소 발아(發芽)합니다. 태모 고 수부님 무진년(1928) 구월도 숙구지(宿狗地) 공사 이후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어린 안 운산(安雲山)은 곧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여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무섭게 그만두고 개안(開眼)해 초통(初通)한 기운으로 수행과 천하사하는 쪽으로 뜻을 두게 됩니다.

후일 안 운산(安雲山) 성도사 님은 실제로 상제님 탄신 120주년(1990) 개벽대성회 모 유력 월간지 황보 태수 기자와 인터뷰에서 7세 때 문득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깨닫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는 수행을 했으며 그러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5일 만에 그만두고, 다시 불 없는 방에 밀대방석을 깔고 콩, 곡식가루만 먹는 생식을 하며 8개월 동안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주周왕실 선세先世 세계世系 표表

이 인터뷰에서 호패 찰 나이인 15세 때 쯤(1936) 일제의 모진탄압으로 보천교(普天敎)가 침체에 빠지고 상제님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하리라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와 조선 팔도와 만주를 주유천하하며 인간의 세상살이를 직접 체득한 후 43년에 집에 돌아와 집안의 기둥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식 이튿날 일제에 비협조적이었던 부친이 기왕의 독립운동 자금 전달 탄로로 구금되는 등의 미운털이 박힌지라 조기 강제징용 통지서를 받았으며 강제징용 입대 중에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한 후 2년여 세상을 떠돌다 해

방을 맞이해 고향에 온 후 상제님 천하사 만을 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무진년(1928) 9월도 숙구지 공사로 인해 경만장 안 내성에게 보신 安家 초복, 중복, 말복 세 살림 추수 도수가 발동되고 여기에서 중복도수와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의 말복 도수가 차례로 천지 정리해 나오기 때문에(태모 고 수부님 무기 오십토 세 벌 공사) 문 공신 성도는 "우리 일은 삼대(三代)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혈대(血代)로도 이 치복 성도로부터 직접 도를 전해 받은 1대 보천교도였던 안 병욱(安柄彧) 태상 성도사님으로부터 3대입니다.

<도기 125년(1905) 을해 단기4328 기사모음집. 모 월간지 손 광주 기자 대담>*14세 때였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태을주를 계속 외우자 운산은 3일째 되던 날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초통(初通)을 경험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도를 통했다는 뜻이다. 그는 '초통을 하게 되면 신명계(神明界)를 출입할 수 있는 단계'라는 말로 일단 정리했다. 일단 '신비체험'을 한 그는 14일간 혼자 수련한 후 집을 나가 황해도 함경도 등을 다니며 농삿일과 석탄채굴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해방직전 44년, 집으로 돌아와 결혼한 그는 이 무렵부터 증산도 포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처음 증산도의 한 파(派)인 보천교에서 '상제님 사업'을 시작한 그는 곧 보천교와 결별, 독자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새 시대 새 진리 1(安雲山 종도사님 어록)>*문왕의 도수(安家 세 살림 도수 싹을 틔우는 初伏 도수)를 여신 안 운산(安雲山) 종도사(宗道師)님은 임술 년(1922)에, 충남 서산군 대산면 운산리에서 안 병욱(安柄彧) 성도의 장남으로 태어나시어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신 조부님과 부친의 영향으로 상제님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신다. 12세 때 2 주 동안 집에서 수련하시던 중 3 일 만에 홀연히 영성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신 뒤, 상제님 대업이 천명임을 아신 종도사님은 그 일을 꼭 이루어 내겠다는 웅지를 품으시고, 국내는 물론 만주 중국 등지를 주유하시며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는 등 숱한 경험을 쌓으신다.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어느 날 문공신(文公信)에게 가라사대(曰) 잠든 개(宿狗)가 일어나(起)면 산 호랑이(生虎)를 잡는다(捕殺)는 말이 있나니 **태인(泰仁) 숙구지(宿狗地) 공사(公事)로 일을 돌린다(返)** 하시며 공사(公事)를 계속(繼續)하시였다 전(傳)하니라.

문왕이 폭군 주紂에게 갇힌 유리옥羑里獄 & 문왕

상제님께서 조선을 일본에게 넘기면서 어질 인(仁)자까지 주면 다 저희들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어질인의 인(仁)이란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 아닌 과핵(果核)인 씨(종자)의 뜻이 있습니다. 삼초 끝에는 대인(大人)이 나오리라 하신 천하창생 구제의 씨인 핵이 일제의 모진 겨울을 지내고 해방과 더불어 역사의 전면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운산(雲山) 안 흥찬(安興燦:世燦) 총 사수(總師首)의 도안(都安) 세 살림 초복도수인 2변(變) 증산교(甑山敎) 대법사(大法社)입니다. 장차 출세할 일만 이천 도통군자 열매들의 씨이며 핵(仁)입니다.

이 핵(仁)이 태모 고 수부님 무진년(1928) 구월도 공사로 천지인신(天地人神)의 부름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나 이종물 사명인 보천교(普天敎)가 강제 해체되자(1936) 15세부터 천하를 풍찬노숙하며 세상을 경험한 운산은 43년 잠깐 들러 결혼식만 끝내고 이튿날 징용통지서를 받고 끌려가던 중 생사를 걸고 탈출해 포교활동 차 충청도(천안, 아산, 온양), 전라도(김제, 정읍, 군산, 부안, 태인 등 7읍 전역), 경상도(울진, 영덕, 포항, 밀양) 경기도(김포) 시골에서 포교활동 차 은신하다가 김포에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해 해방과 더불어 2변 교운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며 준비해 온 문왕 도수의 씨핵(仁)을 터뜨립니다.

<보천교普天敎 교전敎典>*(1906년, 丙午) **어떤사람이 여쭈어가로되 사십년四十年은 십년十年이 아니나있가 가라사되 사십년四十年도 십년十年이야 되지마는 넘지는 아니하리라**

이 공사로부터(1906) 40년이 넘지 않은, 을유년(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임술 생 문왕 도수 책임자 운산(雲山)은 본격적인 천하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호패 차던 나이였던 15세 때였던 병자개로丙子開路 병자년(1936)에 천하주유에 나선 이후 갑인년(1974) 기두로 계산해도 40년은 넘지 않은 기간입니다.

해방 당년 정읍 시기리에서 만난 창맹과니 맹인 청음 이 상호를 경제적으로 거두어 용화동에 거처하도록 배려하고 간부 김 종렬로 하여금 지은 용화동 본부에 토주土主로 임명하고 서울 합정동 치성에서 만난 청음의 동생 남주 이 정립을 최 위석 간부 집에 하숙을 시키면서 <대순철학>을 집필하도록 독려하여 2년 만에 세상에 빛을 봅니다.

그러나 이 상호 형제의 안하무인의 욕심과 해원, 갖은 음해와 공격, 찬 서리의 고통, 그리고 1950년 6.25라는 산고의 고통을 겪고 다시 또 이십년간의 휴게기를 지내고 나서야 1974년 갑인년에 드디어 삼변 도안의 세 살림 중복살림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였고 다시 십년의 과도기 준비기간을 보낸 뒤 1984 갑자년에 드디어 공식적인 중복 살림을 시작 하게 된 것입니다. 84년 갑자년에 “증산도甑山道”라는 이름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도기 142년 2012 임진년에 ‘독행천리獨行千里에 백절불굴百折不屈’하신 문왕 도수를 받은 안 운산 성도사聖道師님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등천선화登天仙化합니다. 상제님은 문왕 도수만으로는 천하사 세 살림의 비밀을 알 수 없기때문에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삼국통일이 조조, 유비, 손권 등 세 영웅이 당대에 못 이루고 무명의 소마소에 가서 이루어짐을 누가 알았겠는가?’ 공사를 통해 중달 사마의司馬懿 사마司馬씨 가문의 비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달기의 모함으로 포로 떠서 죽은 문왕의 장남 백읍고

문왕 가문에 있어서 주(周) 왕실 개창의 주인공은 사실상 무왕이지만 상제님 후천개창의 천하사에 있어서 세 번째 말복 살림 주인공은 사마소이므로 문왕의 도수로 등치시키면 중복살림 사명자는 무왕이 되지 못합니다. 상제님 천하사를 매듭짓는 사람은 바로 중복 살림 사명자가 아닌 말복 살림 사명자이므로 굳이 문왕 일가로 말하면 사마소 사명자가 바로 무왕이 됩니다.(묘호는 晉 태조(太祖), 시호는 문황제(文皇帝))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마의(司馬懿) 도사마(都司馬) 3부자나 은상(殷商)의 폭군 주(紂)를 멸하고 주(周)나라를 연 문왕(文王), 차남 무왕(武王), 4남 주공 단(周公旦)의 도희(都姬) 3부자의 비유는 모두 사마(司馬)씨 가문, 희(姬)씨 가문 한 가문에서 세 살림이 나온다는 동일한 비유입니다.

남조선 배 치(키)를 잡은 선장 도사공은 전 명숙 장군이지만 태모 고 수부님은 노를 젓는 사공은 적벽화선(赤壁火船) 노 젓던 조조 군사의 군졸(軍卒)들이라고 하시고 이들이 죽어 선인(仙人)들의 남조선 배 노를 젓는다고 하셨습니다. 문왕 도수의 실체는 곧 사마 중달의 사마소 도수이기 때문에 남조선 배의 노를 적벽대전 때 연환계로 불타 죽은 사마 중달 가문이 속한 조조 편의 군사가 젓는다는 것입니다.(<남조선南朝鮮 뱃노래>*요순우탕堯舜禹湯 치를 잡아 문무주공文武周公 돛을 달고 안증사맹顔曾思孟 노를 저라. 사공은 도사공(사공의 우두머리)과 돛을 다루는 사공, 키를 잡는 사공, 닻을 다루는 사공, 함선의 운행 전반에 관한 일

을 맡아 보는 사공이 있다)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남조선(南朝鮮) 배질 하네 만고성인(萬古聖人) 타신 배가 칠산(七山)바다에 떠서 적벽화선(赤壁火船) 노젓던 군졸(軍卒)이 선인(仙人)들의 노를 젓네 조조 군사(軍事)가 래(來) 군사 닻줄 맬 자가 누구(誰)신고 중앙대신(中央大神)이 닻줄 매네

侍

셋째, 문 공신(文公信) 성도에게 "문왕의 도수와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리라" 하신 공사는 결국 모든 종통 공사의 주인공 안 내성 성도 공사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공신 성도와 안내성 성도 공사의 인사대상자는 동일하게 안 운산 문왕 사명자입니다.

증산 상제님 모신 김호연 聖徒와 雲山 聖道師님

넷째, 김 호연 성도도 도안(都安) 세 살림 도수에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습니다. 91년 김호연 성도는 <증산도 道典> 편찬 성구채록을 위해 처음 방문한 운산(雲山) 안 세찬(安世燦:興燦) 종도사, 안 경전(安耕田) 종정 2人에게 개구벽두(開口劈頭)의 첫 인사로 세 사람인데 왜 두 사람뿐이냐 하고 "그래서 나는 저것들(취재신도들) 끼리라고만 해서 선상들을 안 봤어. 그래서 내가 "아니 셋인디, 어찌 둘이 오냐 오냐 그랬어" 라고 하십니다.

상제님을 직접 모시고 천지공사를 지켜본 증언자로 평생을 상제님 천명을 기다리고 산 **김 호연 성도는 운암강수 만경래 경만장 세 살림 도수의 본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초면에 첫 입 여는 개구벽두(開口劈頭)에 세 살림 삼부자(三父子)가 같이 안 오고 어찌 둘이 오냐 한 것입니다.**

54년 안 운산(安雲山) 총 사수(總師首)가 공주로 은거해서 57년 대전으로 이사하여 자식농사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20년이 된 74년이 되었습니다. 74년 총 사수(總師首)가 다시 재 기두(再起頭)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해 어느 날 대전 보문산 아래 대사동(大寺洞)의 누옥(陋屋)으로 2변째의 신도였던 80대 중후반 노옹(老翁) 두 사람이 깜짝 방문하게 됩니다. 이 때는 안 운산(흥찬) 총 사수가 52세 때로 방문객 한 분은 89세, 또 한분은 85세에서 86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흰 옷을 입었으며 머리는 올백 상태였으며 수염이 길었다 합니다.

젊은 총 사수의 역사적인 74년 문왕의 도수 재 기두는 두 노옹이 찾아와 예전의 젊은 총 사수(總師首) 선생님이 다시 복귀할 것을 권유한 이 날을 계기로 새로운 도운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전의 총 사수(總師首) 선생님이 활동을 재개한다는 이 소식이 두 노옹을 통해 퍼진 이후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금구 용화동의 범초(凡草) 홍 성렬(洪性烈)입니다. 두 노옹이 다녀간 지 얼마 안 되어 홍 성렬은 선생님이 드디어 기두(起頭)하셔서 반갑다고 바로 서신을 띄워 인사드리고 앞으로는 자신이 모시고 싶다고 서신을 수 차 보내옵니다.

총 사수(總師首)는 마치 과거 조종골 동화교 합동교단 시절 이 상호·이 정립이 태모님을 정책적으로 모셔다 이용만 해 먹었듯이 이 정립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홍 범초 역시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제의에 일체 응하지는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시절 자신의 최고 지도자였던 총 사수(總師首)에게 의사타진의 친절 모드를 취했던 범초는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자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곧바로 총력을 기울여 스승을 헐뜯는 야수 모드로 바뀝니다.

✎다섯째,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도안 세 살림 공사에는

2014년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가 지나며 밝혀지는 임피 오성산 세 말뚝 공사가 있습니다. 임피 오성산에는 태모 고 수부님이 사명당 기운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오성산 큰 말뚝 3개 박으신 공사는 초복 중복 말복 세 살림 도수에 대한 공사이며 추수 세 살림 도수의 책임자는 오성산 기운으로 오시기 때문에 증산 상제님께서 야밤에 홀로 오성산에 가시어 천지인신 수찰(天地人神垂察)의 큰 말뚝을 증거 삼아 천지에 질정(質定)하신 것입니다.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이 벽강궁촌(僻岡窮村)에 바둑판(碁版)과 윷판(柶版)을 내가 묻었으니 이 세상(世上) 누가 능(能)히 그를 알수 있으리요 내 일은 판(版) 밖에서 성도(成道)하여 들어오나니 너희들은 잘 닦기나 하라 하시더라.

<선정원경(仙政圓經)>*증산(甑山)께옵서 임피읍(臨陂邑) 강장한(康壯翰) 집에 종종(種種) 내왕(來往) 하신 중 한번은 모야(暮夜) 중(中) 어디를 갔다 자정후(子正後) 당도(當到) 하신지라. 야중(夜中)에 어디를 갔다오시니까 주인(主人)이 문(問)한 즉(則), "**오성산(五聖山)에 가서 큰 말뚝을 박고 온다" 하시더라. 차(此) 공사(公事)를 삼차(三次)를 행하시니라.***<선정원경(仙政圓經)>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임피 오성산에 큰 말뚝 세 개 박는 공사)임피(臨陂) 강장한(康壯翰)의 집을 종종(種種) 왕래(往來)하시더니...중략... 장한(壯翰)이 놀래며 다시 묻기를(問) 밤중에 **오성산(五聖山)은 무슨 일로 다녀 오시나이까.** 가라사대(曰) **큰 말뚝을(大橛) 박고(揷) 오는(來) 길이니라 하시였으며 그 후(後)에도 이와 같은(如此) 공사(公事)를 세(三) 차례(次例)나 보시였다 하니라.**

<증산도 道典>*(임피 오성산 사명당 기운의 세 말뚝)하루는 새울 최창조의 집에 사명당(四明堂)'이라 쓴 종이를 종처럼 매달아 놓으시고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하시니라.<증산도 道典 5:395> **(오성산) 임피로 해서 태전간다. ☞오로봉전 태전해서 가을용 안씨 찾아간다**(김천수 옹)<증산도 道典 6:74>"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라.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회문산 오선위기혈은 단주해원 세운 공사, 임피 오성산 오선위기혈은 단주해원을 매개해 초복, 중복 말복 도수 3명의 지도자 배출하는 교운공사(도운공사)로 음양공사임>

侍

여섯째, 건존 증산 상제님이 보신 대국적인 9년 천지공사는 낳는(生) 공사이고 태모 고 수부님이 집행하신 10년 신정(神政) 공사는 기르는(養) 공사입니다. 상제님은 임피 오성산에 큰 말뚝 세 개 박는 공사를 보시고 태모 고

<선도신정경>(천지(天地)의 귀신(鬼神)도 모르는 일)*고후비님(高后妃任)이 김제(金堤) 조종(祖宗)골을 떠나오실 적에 육임(六壬)과 팔괘(八卦)와 십이(十二)며 이십사(二十四)를 싸 가지고 오시다가 육임(六壬)과 팔괘(八卦)는 김제(金堤)에 오시어 땅(地)에다 묻으(埋)시고 땅(地)을 세 번(三番) 구르시더라 또 십이(十二)는 이리(裡里)에 가시어 묻으시며 땅(地)을 세 번(三番) 구르시고 **바둑(碁)돌과 윷판(板)은 옥구(沃溝)에다 묻게(埋) 하시고** 종도(從徒) 열 사람(十人)을 데리고 공사(公事)를 행(行)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오십토(五十土)를 세(三) 곳(處)에 나누어 놓았느니라 내가 마음먹고 하는 일은 천지(天地)의 귀신(鬼神)도 모르는 일이니라**
*참고:(옥구 오성산(오선위기혈) 세 말뚝 박은 공사와 바둑돌 세 번 사온 공사가 3살림 초복 중복 말복지도자 오선위기 기운 연관임/ 옥구 윷 판 묻은 것 역시 초장봉기지세의 각기 다른 교운 판으로 신앙권 진입한 사람이 윷판에서 서로 잡아먹고 싸우다 말복 지도자 교운 때(천하통일의 사마소 도수) 한 구멍으로 나가는 홍문(항문: 출구)의 통일원리 때문이다)
<선도신정경>*지경(地境)이 보리밥이라도 임옥구(臨沃溝) 내 자손(子孫)을 거느리고 모든 일을 선택(選擇)하여 결정(決定)하리라.

수부님은 추수 세 살림 도수를 무기(戊己) 오십토(五十土) 공사로 확정지으시고 바둑알 묻는 공사와 천하 통일 윷판 도수를 집행하시는 것으로 세 살림 도수를 확정지으십니다.

즉, 초중말복 세 살림 지도자는 증산 상제님이 야밤에 홀로 가셔서 임옥 오성산에 박으신 큰 말뚝 3개 공사(사명당 기운인 오성산 5선위기(자미성 단주해원)) 기운으로 출세합니다. 이 공사의 후속 바톤을 이어받으신 태모 고 수부님께서 도운(교운) 상두씨름 기두하는 공사로 옥구에 바둑돌과 윷판을 묻게 됩니다.

난법은 상제님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 생기는 교운(도운) 역사의 어쩔 수 없는 필요악입니다. 교운(敎運)은 낙종물, 이종물, 추수사명의 대강인 3막의 大운로이며 도운(道運)은 숙구지 문왕 추수사명의 도안(都安) 초중말복 세 살림 3장(章) 小운로입니다. 진리적으로 난법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신해년(1911) 낙종물 대흥리 교단개창 이래 진법의 공백기인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의 105년 기간 동안입니다.

천하 통일도수인 상씨름판 윷판 도수로 상제님은 운산리(雲山里) 신 경수 집에서 상제님 윷놀이 공사를 보신 바 계십니다.<증산도 道典 3:279> 운산리 신 경수 집에서 윷 공사를 보신 이유는 운암강수 만경래 금만경 공사를 보시고 운암강 물줄기를 도안 세 살림 문왕 도수에 돌리어 대한불갈의 젖줄기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산도 道典 5:198>*(운산리 신경수의 집에 가시어) **"이곳이 운산(雲山)이 아니냐... 이 물줄기가 대한불갈(大旱不竭)이라. 능히 하늘을 겨루리라."** **"운암은 장차 만인간의 젖줄이 되리라."** *운산리 신 경수 집에서 상제님 윷놀이 공사<증산도 道典 3:279>**나올 때는 한 구멍으로 통일**(태모님도 신경수 집 윗방에 더부살이하는 박공우 방에서 100일 기도 끝에 도통하심)

운산리 신경수 집에서 본 윷 공사는 다음의 태모님 윷 판 통일도수로 이어집니다. 도운 통일공사는 초복, 중복, 말복 등 문왕 세 살림 중에서 막둥이 새끼손가락(小指) 말복공사로 상제님은 말복에 벼 알곡 패는 속도보다 더 빠른 대나무 성장 기운을 뽑아서 말복 윷판 통일 공사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선도신정경(仙道神政經)>*고후비(高后妃)께서 윷놀이(柶版)를 즐기시기에 윷판(柶版)을 만들어 두고 있더라 언제든지 윷놀이를 하시려 하면 윷가락(柶枝)과 윷판(柶版)을 대령하는 바 하루는 윷판(柶版)을 가져오라 하시어 윷판을 가져다 올리니 윷판을 받아 놓으시더니 적삼(赤衫)을 벗으시고 젖통을 늘어뜨린체 속꼿만 입으시고 윷판(柶版)의 날지(출구:出入)를 고후비님의 홍문(肛門)쪽으로 놓고 앉으시어 가라사대 이것이 이러하니라 **들어(入)가기는 마음(心)대로 들어가되 들어(入)가기만 하면 나갈(出)래야 마음(心)대로 나가지 못하고 상호간(相互間)에 잡아먹다가 승리(勝利)하여 나갈 적에는 오직(唯) 한 구멍(一口)으로 밖에 나가(出)는 데가 없나니 꼭(必) 그리 알라 생사출입(生死出入)이 이와 같으니라** 하시더라

<천후신정기>***천하에 대도통은 육으로써 벌리나니 윷판은 나요, 저울은 성포며 잣대는 수제니라** 하시더라 전하니라.

일곱째, 경만장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도안(都安) 세 살림 중

세 번째 마지막 말복 도수는 막둥이 도수에 걸어두셨습니다. 새끼손가락 속에는 문왕이 유리감옥에 유폐되어 있는 동안 장남 백읍고를 잃듯이 문왕의 도수 사명자 역시 장남을 동일하게 잃게 되는 운명의 비밀이 숨겨있습니다.(6수는 仙道數 오칠두수(五七斗數)에 있어 십일귀체의 中數로 문왕의 장남 백읍고가 죽어 隱伏되어 숨겨짐)

<증산도 道典>*상제님께서 내성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 운을 받으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말복 운이 가장 크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크게 받나니 ‘막둥이 놀음’이니라.” 하시고 내성에게 막둥이 도수를 붙이시니라.

<증산도 道典>*막둥이 여섯째가 등장하는 때가 의통목 *하루는 안내성(安乃成)이 “때는 언제 오나이까?” 하고 여쭈거늘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다가 새끼손가락을 펴 여섯을 세어 보이시며 “이것이 조화봉(造化棒)이다. 새끼손가락이 조화 낸다.” 하시고...

여덟째, 상제님께서 “운암강수(雲岩江水)가 만경래(萬頃來)라. 김만경(金萬頃) 뜰을 가지고 천하사 세 번 못하겠느냐. 너희들 내성이한테 ‘경만장, 경만장’ 하면서 세 번씩 외우라.” 하시고 갑오(1894), 갑진년(1904)의 일초(哨,招), 이초(哨,招) 사명과 선진주(先眞主) 손 병희의 3초(哨,招) 뒤에 세 번째 추수사명을 맡은 숙구지 문왕(文王) 도수의 주인공– 후진주(後眞主) 대인 출세(大人出世) 공사를 보셨습니다.

<증산도 道典>*상제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아따 저놈 ‘무식영웅’이라!” 하시고 손을 떼시니 과연 ‘경만(敬萬)’이란 글자가 쓰여 있더라. 이어 상제님께서 이르시기를 “운암강수(雲岩江水)가 만경래(萬頃來)라. 김만경(金萬頃) 뜰을 가지고 천하사 세 번 못하겠느냐.” 하시고 “너희들 내성이한테 ‘경만장, 경만장’ 하면서 세 번씩 외우라.” 하시니 성도들이 모두 명하신 대로 하니라. 상제님께서 다시 내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존경할 것이다.”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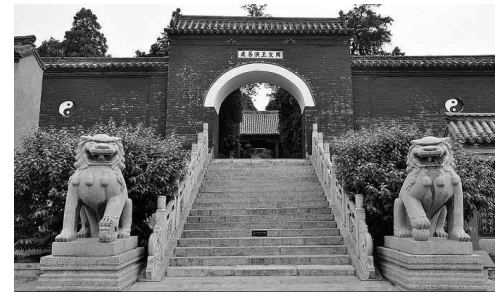
<증산도 道典 5:198>*(운산리 신경수의 집에 가시어) “이곳이 운산(雲山)이 아니냐. 운암(雲岩) 물줄기를 금만경(金萬頃:천하사 세 번 세 살림 하는 원천)으로 돌리더라도 하류에서 원망은 없을 것이니 이 물줄기가 대한불갈(大旱不竭)이라. 능히 하

늘을 겨루리라.” 하시니라.

<선정원경(仙政圓經)>*건존증산(乾尊甑山) 께서 예언(豫言)하사대 “태인(泰仁) 숙구지(宿狗地) 자는 개가 일어나면 산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고씨(高氏)께서 무진(戊辰:1928) 구월도(九月度)에 말씀하시되 “시대(時代)가 불원(不遠)하니 자는 개를 깨워야겠다” 하시고 “인제는 잠든개를 깨웠으니 염려(念慮)는 없다” 하시니라.

侍

추수 세 살림도수를 여는 문왕의 초복도수는 태모 고 수부님의 무진년 구월도 숙구지 문왕 도수로 깨어나 문왕의 유리(羑里) 감옥 유폐도수로 20년 말점도 귀양도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상제님은 고기잡이하는 김광찬 성도의 종질(조카)이 말점도(末島)에서 살고 있으므로 갑칠과 형렬을 남포로 불러 문왕의 유리(羑里) 유폐도수인 말점도 도수를 집행합니다.



아홉 번 째,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기유년(1909)이래 백년간의 적막은 소동파의 적벽가에 일년월명임술추(一年月明壬戌秋) 만리운미태을궁(萬里雲迷太乙宮) 청음교무이객소(淸音蛟舞二客簫) 왕겁오비삼국진(往劫烏飛三國塵)처럼 사마소가 누군지 모르는 허망한 과정이었습니다.

달 밝은 가을 임술 적벽에 배 띄우고 노니노니(임술 문왕 종통 교단 신앙), 만리 구름 속에 숨은 태을궁은 아득하기만 한데(백오제까지 아득한 진법), 백년 세월 지치는 적막 속에 이종물 도수(차경석), 추수 문왕 도수(안운산) 두 영웅이

부는 맑은 퉁소 소리에 백년 세월 다 보내니, 다만 까마귀 날개 짓 뽀얀 먼지 속에 흘러간 삼국시절의 자취뿐이더라.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삼월 초에 천사께서 광찬을 데리고 말점도에 들어가실 새(광찬의 재종이 말점도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연이 있음) 갑칠 형렬을 만경 남포로 부르사 일러 가라사대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감은 천지공사로 하여 정배(유배)됨이니....

태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상 씨름판에는 콩밭(太田)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늘 보던 사람 눈앞에 놓고도 설마 하며 눈뜬 봉사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도운에서의 상 씨름판은 애기 씨름(초복), 총각씨름(중복) 다음의 세 번째 천하장사 말복 씨름으로 북한에서는 상 씨름을 비교 씨름이라 합니다. 누런 장 닭 세 홰치는 말복 도수의 상 씨름 결론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모든 과정을 개관해 볼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상제님께서 세 살림 공사의 주인공을 모두 모이게 해 동상례(同床禮)를 받는 천지공사입니다. 즉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미륵존불이시자 절대자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과 여성 하느님이신 곤존 태모 고 수부님이 태모님의 경진생 동갑장사 차 경석 성도 그리고 안 내성 성도 두 사람과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동상례(同床禮)를 받는 예식을 올립니다. ✧

차 경석 성도가 1936년 선화하던 때(丙子開路), 남아 십오 세면 호패(號牌)를 차느니 무슨 일을 못하리요, 과연 인유기인(人有其人) 시유기시(時有其時)로다. 하신 임술 생 15세 문왕 숙구지 도수의 주인공이 서로 임무를 교대하는 천기(天機)임을 그 누구도 모르는 건곤부지월장재(乾坤不知月長在)요 적막강산근백년(寂寞江山近百年)이라 했습니다. 달이 건곤 속의 달로써 길게 건곤의 품 안에서 늘어져 있건만 소경 장님잔치로 어둠에 잠긴 세월이 근 백여 년 적막강산이라는 말입니다.

달은 검은 구름에 가려진 채 교운(도운) 통일의 마지막 윷판 도수가 나오기까지 백여 년간의 삼국시절은 먼지만 날리고, 어느 누가 삼국시절을 매듭짓는지 세월도 시름에 잠겨 적막강산에 빠져있지만(寂寞江山近百年) 태모님이 부치신 흑운명월(黑雲明月) 도수는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구름과 장막을 헤치고(추운 동지 한식) 105년 만에 도안(都安) 세 살림 명월이 두둥실 떠오르니 가히 건곤부지월장재(乾坤不知月長在)였습니다.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기유년(己酉年) 어느날 종도(從徒)들에게 옛글(古文) 한수(一首)를 읽어(讀)주시니 이러하니라. 건곤부지월장재(乾坤不知月長在) 적막강산근백년(寂寞江山近百年) 譯:건곤부지월장재(乾坤不知月長在):하늘(天)과 땅(地)이 알(知)지는 못(不)해도 달(月)은 길이(長) 있(在)을 것이요, 적막강산근백년(寂寞江山近百年):이 강산(江山)이 막막하고 쓸쓸하기가 백년(百年)이 가까우(近)리.

侍

열 번째, 종통 추수 세 살림의 최종결론인 말복 도수에 대한 말씀은 "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요, 지금 운수 동지(冬至) 한식(寒食) 백오제(百五除)"라는 성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제님 추수 도수는 공개된 카드는 생전에는 문왕(文王)의 도수지만 선화 등천 이후 실제 히든카드는 사마중달의 도수입니다.

감숙성 평량平凉시 영대현성灵台县城 문왕 영대灵台

따라서 문왕의 선천 운수는, 위수 강가에서 3600개 민낚시(곧은 바늘) 드리우며 세월을 낚았던 가난했던 마馬씨 부인과의 궁팔십(窮八十) 전반기 인생, 부귀공명으로 현달했던 고高씨 부인과의 달팔십(達八十) 인생을 살았던 강 태공 여상과 만나 두 사람이 뜻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강태공은 궁팔십 끝

에 위수 강가에서 문왕을 만나면서 고씨 부인과 재혼해 은상을 멸하고 주나라를 열어 무왕의 아들 평왕의 장인으로 달팔십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후천을 여는 지금 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에 있다고 했습니다. 임술역사(壬戌役事:육갑타령六甲打令) 문왕 도수는 도안(都安) 세 살림을 여는 숙구지 초복 도수임과 동시에 두 자식을 통해 중복, 말복 도정을 여는 사명입니다. 지금 운수가 '동지한식 백오제'에 있다는 의미는 기유년(道紀 39. 1909) 증산 상제님 천지공사 종필(終畢) 선언 이후 105 년만의 말복 진법을 만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 한 번 째, 상제님의 후천선경 도래를 노래한 김 일부 성사의 정역팔괘는 한계가 있어서 증산 상제님은 장 기준을 내세워 용담팔괘를 짓게 하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용담팔괘로 들어가야 역행하던 1)선천 포태양생법이 후천에 왜 순행으로 바뀌어 용화선경이 도래하는지 알 수 있고, 2)십일귀체(十一歸體)의 황극력과, 3) 『言聽計用神』 오부(午符)다음의 『水火金木待時以成水生於火故天下無相克之理』 신부(申符)로 추수도운 세 살림을 매듭짓는 이치를 이해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이라 한 것입니다.

<대개벽경(大開闢經)>*무신년(1908) 겨울 12월 *일 *시에 대흥리에서,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니라. 공사를 집행하신 종이가 마치 언덕처럼 쌓이니라. 말씀하시되, "이번 집행한 공사가 무신戊申년 납월공사가 되나니 **무신戊申년 납월臘月공사가 천지의 대공사가 되노라.**" 훈회를 내리시니,

*북방 현무는 해(亥)에서 물러나고(北玄武謝亥去)
*상서로운 동방청룡은 자(子)로부터 다가오노라(東靑龍自子來)
*묵묵히 앉은 마음 고금을 관통하니(默然坐通古今)
*지금은 선후천 천지인이 바뀌어 진퇴하는 교차기라(天地人進退時)
*편편 한설에 대세를 가를 한 판 바둑판 결판나면(片片雪棋一局)
*집집마다 등불 밝혀 천하가 꽃동산이라(家家燈天下花)
*선천 묵은 세월 가고 후천 선경세월 오니(去歲去來歲來)
*때 되면 인가에 만방이 봄이로다(有限時萬方春)

<용담팔괘도> 설명:후천 용담에서는 하늘 북쪽 임계(壬癸)에서 음(陰)인 계(癸)가 하늘(천간)의 시작자리가 되고, 지지는 낙서 땅의 북쪽인 자(子) 자리에 후천 용담에서는 사람이 주인이 되므로 동서남북 사정위(四正位)에 인신사해(寅申巳亥)가 자리잡아 변화를 주도하는데, 이 중 사람의 축은 사해(巳亥)이며 사(巳)는 사람의 머리, 해(亥)는 사람의 배이므로 사(巳)가 낙서 북쪽의 자(子)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용담도 용담팔괘로 정역팔괘를 보완하는 사명을 맡은 장기준이 상제님의 공사로 정역팔괘를 업그레이드 함. 기존의 복희팔괘, 문왕팔괘, 정역팔괘 중 미흡한 정역팔괘의 팔괘는 그대로 두고 11귀체로 황극력을 드러내도록 간지와 수를 보완한 용담도의 팔괘가 용담팔괘임.

<정북창 팔괘시>*팔괘시 간위뢰석대고작(艮位雷石大鼓作) 태인산택급조성(兌因山澤急潮成)- 간(艮)이 뢰석 자리에 위치하여 큰 북을 짓는다. 태(兌)로 인한 산택이 급히 조수를 이룬다. 동서는 간태(艮兌)이니 산택(山澤)이 된다. 동서(東西)는 일월지도(日月之道)로 낮과 밤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용담도에서 동서인 산택(山澤) 자리는 寅申이 자리한다. 寅申을 기준으로 입지(入地) 36도(度) 출지(出地) 36도(度)를 이루어 72둔(遁)으로 조수(潮水)의 왕래를 이루니 급조성이다.

<통천록(通天錄)>*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조대기(朝代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와 함께 비사(秘詞)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통천록(通天錄)에 “육만년전(六萬年前) 개천시(開天時)요 오종차회(午終此會) 천수시(天收時)라 자오침(子午針)을 수원(收圓)하고 인신선(寅申線)으로 교환하여 설치한다.”

*1) 정역 팔괘와 용담팔괘는 동일하고 수열구조만 다르며 각 궁끼리의 합은 11로 십일귀체(十一歸體)를 이룬다. 낙서수에 11의 보수(補數)를 뽑아내면 용담수이다.

*2) 낙서도의 묘유진태357 축과 용담도의 인신간태864 축을 보면 낙서도는 1,3,5,7,9 양수가 행마하되 왼쪽으로 돌면서 상승하여(남자가 주인, 여자가 손님인 억음존양시대) 선천은 명반(命盤) 포국(布局) 12포태법이 명반상의 시계방향으로 원기를 소멸하면서 극대 분열수 9수까지 분열시켜가므로 인간은 포태양생욕대관왕쇠병사장의 역리(逆理)로 100년도 못살고 죽는다. 반면 후천 용담도는 낙서도와 정반대인 2,4,6,8,10 음수가 행마하되 오른쪽으로 돌면서 하강하여(여자가 주인, 남자가 손님되는 정음정양시대) 12포태법도 장사병쇠왕관대욕생양태포의 순리(順理)로 극대분열수 9에서 1태극수를 찾아들어 순행하므로 1000세 수명을 누리는 신선 용화세계이다. (상수(上壽)가 일천이백세(一千二百歲)요 중수(中壽)는 구백세(九百歲)며 하수(下壽)는 칠백세(七百歲))

4	9	2
3	5	7
8	1	6

(낙서수)

7	2	9
8	6	4
3	10	5

(용담수)

< 정역8괘 >

< 황극역(용담8괘) >

*3) 數의 행마법 이해:선천(先天)을 중심으로 만물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양(陽)은 왼쪽으로 돌면서 상승하고 음(陰)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하강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하늘은 가볍고 맑은 기운이므로 위에 자리를 잡고 땅은 무겁고 탁한 기운의 모임이 되는 까닭에 오른쪽으로 돌면서 하강한다고 보는 논리 때문이다. 여기서 왼쪽의 개념은 해가 움직이는 시계 방향을 뜻하고 오른쪽은 지구가 회전하는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이 이치는 역의 선천 기본 팔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해는 동쪽에서 이른 아침에 나타나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기우는 까닭에 선천에서 이(離)는 동쪽이 되고 달은 해가 기울고 난 뒤 밤에 해당하는 서방에 떠 있으면서 해를 계승하는 까닭에 감(坎)은 서쪽이 되었다.(離東坎西)

*4) 이처럼 해와 달이 서로 밀치면서 음(陰)과 양(陽)으로 작용할 때 위에 있는 하늘은 양(陽)이 가득한 상이 되므로 오히려 하나의 음(陰)이 아래로부터 생겨나 오른쪽으로 돌면서 하강하는 상(象)이 되고, 오른쪽으로 하강하여 음(陰)이 지극해진 곤(坤)은 음이 지극한 까닭에 다시 하나의 양이 생겨나면서 왼쪽으로 돌아 상승하면서 선천 팔괘의 기본 패턴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은 단순하다. 음(陰)이 가득한 땅은 겨울 혹은 해가 진 북쪽 방위와 일치하므로 곤의 자리가 아래인 북방이 되고 양이 가득한 하늘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 가장 무더운 한낮이거나 여름철의 삼복 기운을 나타내므로 건의 자리가 위인 남쪽이 된다.(乾上坤下) 이로써 보면 왼쪽이란 땅이 자리잡은 북쪽으로부터 해가 솟아나며 양기가 발산되는 동(東)쪽을 뜻하고, 오른쪽이란 하늘이 자리잡은

남쪽으로부터 해가 기우는 서(西)쪽 방위가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인용:역에서 말하는 좌선左旋과 우선右旋:문수의눈)

*좌선(左旋)으로 본 8괘(八卦)와 수(數)

<문왕(文王) 8괘(八卦)> <용담(龍潭) 8괘(八卦)>

*5) 정역팔괘 내부의 2천7지의 불이 용담팔괘에서는 1,6수 황심월 자하도(紫河島) 속에 자리하여 안정되어있다. 문왕팔괘에 금화착종(金火錯綜:금화가 뒤바뀜)된 것이 용담팔괘에 다시 원 위치되어 돌아가 있다.

*6) 낙서도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대(待對)자리의 합은 10이지만 용담도에서 대대(待對)자리의 합은 12이며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19를 이룬다.(15마방진이 19마방진)

*7) 건곤이 천지정위(地天泰卦)하고, 간태가 합덕(艮兌合德)하고, 진손의 뇌풍이 서로 취해 상박(雷風相搏)하고, 감리의 일월이 합명(日月合明)하여 4정위(正位), 4유위(維位)가 서로 음양을 이루고, 수의 서열이 양음 (1,6) (7,2) (3,8) (9,4) (5,10)의 순서와 합수 7, 9, 11, 13, 15가 양을 이루어 지천태괘(地天泰卦)와 더불어 총체적으로 정음정양(正陰正陽)을 이루게 되었다.

*8) 막둥이 도수에 6수가 붙어있고 연원(淵源)조직의 기본체계도 6임(任) 제도이며 태모 고 수부님은 도통도 6수에 붙여놓았다. 황극역인 용담팔괘 용담도 중앙에 6이 있고 1수가 귀장(숨겨짐)되어 있다. 36궁 도시춘(복희8괘의 수 1~8의 합. 36궁이 모두 선경)이 중궁에 들어있다 (6×6=36). 황극역의 중심에 6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중심(自性)에 “조화 조화 내조화”의 선경세계가 들어있음을 의미한다.(복희8괘를 천역(天易), 문왕8괘를 지역(地易)이라고 한다면 황극역은 인역(人易)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존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6수가 들어가야 함)

*9)진변위간(震變爲艮)은 복희팔괘의 진(震)괘가 문왕팔괘로 가면 간(艮)괘가 되며

문왕팔괘의 진(震)괘는 정역팔괘로 가면 간(艮)괘가 되어 열매맺는다는 것이다. 김 일부 성사의 정역팔괘는 증산 상제님의 마지막 사명을 맡은 장기준에 의해 용담팔괘로 완성된다. 복희팔괘의 괘상이 문왕팔괘에서 금화착종(金火錯綜), 금화교역(金火交易)을 하면서 동서축인 감리(坎離)가 진태(震兌)로 바뀌고 그 대신 기존의 천지를 대행하는 일월정신의 감리(坎離)는 기존의 건곤 방위로 새로이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문왕팔괘는 정역팔괘로 와서 비로소 간소남 태소녀의 간태(艮兌)로 제 자리를 찾게 되는데(寅申巳亥가 四正位) 간태(艮兌)는 11歸體의 용담팔괘에서 8간산(艮山:申) 4태택(兌澤:寅)으로 산택통기(山澤通氣)한다.(子午寅申 先天之先后天<正易>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일새 故로 曰成言乎艮이라. **山澤通氣然後에야 能變化하야 旣成萬物也하니라.**<주역 설괘전>')

*10)중궁에 1, 6수가 있어 36궁 도시춘을 자하도라 하고 태모 고 수부님은 이를 "자씨부인(慈氏夫人) 자하도(慈下道) 일월수부(日月首婦) 자하도(慈下道) 여동빈씨(呂童賓氏) 자하도(慈下道) 일곱칠성(七星) 자하도(慈下道) 천지(天地)가 자하도(慈下道) 선인옥봉(仙人玉逢) 자하도(慈下道) 하도낙서(河圖洛書) 자하도(慈下道) 조화(造化) 조화(造化) 내조화(造化) 한울님의 조화(造化)로다 생신(生身) 생신(生身) 생신(生身)이라 선천(先天)은 물러가고 후천(後天)에 들어서니 후천도통(後天道通)은 이 분(分)들의 책임(責任)이라" 하셨다. 즉, 후천을 선인으로 만드는 여동빈의 자하도가 바로 일월수부 자하도이며 최종적으로 의통성업을 매듭짓는 추수도수 세 살림의 종통 역시 이러한 1.6수 도시춘 기운을 가진 일곱칠성 자하도라야 후천도통을 내릴 수 있어 태모님은 후천도통(後天道通)은 이 분(分)들의 책임(責任)이라 하셨다.

<선도신정경3:27>*오성산(五聖山)은 북방(北方) 일육수(一六水)라야 채울 수 있으리라 솥(鼎)은 말리면 아니 되리니 조왕(竈王)의 솥(鼎)을 말리지 말고 일육수(一六水) 물을 훌훌 둘러 놓아두도록 해야 하리라(같은 물이라도 음수인 6수(癸)는 컵속의 물이고 양수인 1수(壬)는 大海, 大洋의 물이다. 물은 우주생명의 근본이라 생명을 낳는 壬=姙娠의 뜻과 생명의 王이며 대임을 맡는 맡길 任에 쓰인다. 인류구원의 의통목 집행은 갑3목으로만은 안되고 大任을 뜻하는 임 1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선도신정경>*"바다 가운데 자하도 해중 문을 열어놓고 사람 맞이 하느니라." (참고: 『선도신정경』에 여동빈의 자하도라 했으니 태모 고 수부님의 도는 신선도인 태을도라서 초창기 선도교라 했다. 壬 一수바다 가운데 신선도 해중문 열어 놓고 사람 맞이한다. 용담팔괘 중심에 1.6수가 들어있어 자하도이다.)

侍

열 두 번 째, 증산 상제님은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후진주 세 살림

추수 도수를 집행하는 청홍황(黃紅靑) 삼색(3色) 사명기(司命旗)를 내리셨는데,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전해 내리신 공사도(公事圖)인 성장(誠章) 공사도(首陽梅月 萬古遺風圖), 예장(禮章) 공사도(洛出神龜 天地節文圖), 신장(信章) 공사도(靑鳥傳語 白雁貢書)가 3개입니다. 사명기(司命旗)는 추원재 안 씨 재실공사로부터 안(安) 씨 성에 부치신 도안(都安) 세 살림 추수 도수의 종장을 짓는 천지인신(天地人神) 수찰(垂察)의 명증(明證)입니다.

<동곡비서>* "최수운(崔水雲)과 전명숙(全明淑)이 사명기가 없음을 한하노니 그들의 원을 끊으리라." 하시고 사명기(司命旗)를 각 한통씩 지어서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앗다가 다시 데어 불사르시니라.

열세 번째, 손병희(孫秉熙)는 '구암(舊庵)', 도안(都安)의 세 살림집은 바로 신암(新岩)주막의 음동 기운을 부쳐 '신암(新庵)'이라 하셨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1, 2, 3 차의 3초(哨, 招:경순왕의 귀부 등 새 시대를 여는 상징적 사건) 공사를 보시며 3초를 맡은 선진주 영웅 손병희가 성(城)돌 밑에서 턱을 고이고 앉아서 조선 왕조에 대해 역적(逆賊)을 도모(圖謀)함으로 성사(成事)치 못하리라 하시고 선진주(先眞主)인 의암 손병희(孫秉熙)는 '구암(舊庵)'이고 상제님이 공사 집행 중인 원평(院坪) 신암(新岩)주막의 음동기운을 부쳐 도안(都安)의 세 살림집이 바로 '신암(新庵)'이라 하셨습니다.

<보천교 교전>*원평(院坪)을 지나 신암주막(新岩酒幕)에 이르사 가라사대 들으니 손병희(孫秉熙)가 전주(全州)에 왔는데 서울에 교당(敎堂)을 짓는다고 빙자(憑藉)하고 그 부하(部下)의 어린아해(兒孩)들 옷고름에 채운 돈까지 글거다가 큰집과 적은 집을 거느리고 행락(行樂)하며 왼부하(部下)들을 망(亡)친다 하니 그 무능(無能)함은 가(可)히 알지라.

<보천교 교전>*저희들은 다-구암(久庵)이오 이곳은 신암(新庵)이니 곧 도안(都安)의 집이니라. 이 때에 손병희(孫秉熙)가 호남지방을 순회하려다가 뜻밖에 예정을 변하야 돌아가니라.

<보천교 교전>*손병희(孫秉熙)가 선 진주(先眞主)라 박절(薄切)하게 성(城)돌 밑에서 턱을 고이고 앉어서 역적(逆賊)을 도모(圖謀)함으로 성사(成事)치 못하리라.

侍

열네 번째, 세 번에 걸쳐 완성되는 3변 성도(三變成道)의 상제님 진리는 음을 본체로 삼아 양을 쓰는 후천 가을 정음정양의 곤도 시대를 맞아 태모 고 수부님에게 장차 속히 도통을 하리라 하시고 1911년(辛亥) 교단 개창의 낙종물 사명(모판 씨뿌리기)을 맡기십니다. 낙종물 사명은 대흥리 첫 살림과 조종리 두 번째 살림 그리고 세 번째 살림의 세 살림인 ①왕심리 살림, ②이 상호 동화교의 합동교단, ③옥구 오성산 살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천교 본소. 교주 차경석이 입암면 대흥리에 교전을 지었던 자리.

세운판은 만고원신의 해원판이며, 교운(도운) 세 살림 판은 만고역신의 해원판입니다. 전 명숙(봉준) 장군을 남조선 배의 도사공으로 삼고,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의 동남풍 화공과 연환계에 불타 죽은 조조 군사中(사마중달 소속 조조 위나라 군사) 일심자, 혈식천추 도덕군자를 남조선 배의 노젓는 사공으로 내세운 만고 역신의 해원판은 교운에 있어 태모 ①고 수부님의 낙종물 세 살림과, ②차 월곡(경석) 성도의 보천교(원명 보화교) 이종물(모내기) 사명 그리고 ③운암강수 만경래 숙구지 문왕 추수사명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제님 천하사는 이같이 3변성도(三變成道)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운 공사의 총 결론은 아무래도 상제님 어천 이후 초장봉기지세로 동지한식백오제의 105년 세월 동안 벌여놓은 도운 판 속에 숨겨진 종통(宗統:정통성) 문제입니다. 종통 문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통 문제

의 혼란이 역사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볼까요?

성녀(聖女) 마리아 막달레나(마들렌). 프랑스 메로빙가 왕조는 생뜨(성녀) 마들렌 후손. 프랑스 국조는 마들렌 딸 사라.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의 12사도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가 숨었을 때 예수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에서부터 겟세마네 석벽동굴의 부활까지 지켜본 이는 십자가 처형 이전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마저 질투한 성녀(聖女)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예수 사후 기독교에 있어 베드로로 시작된 지금과 같은 남성 사제 위주 가톨릭이 아닌 최고위 여성 사제(베드로를 대신할 교황)가 될 적격자였습니다. 불교로 말하면 석존 입멸 후 종통을 쥔 석존의 수석 제자 마하가섭 역할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기독교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그녀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 아론이 기름(향유) 부음을 받은 것처럼(가톨릭의 견진성사) 예수에게 향유로 씻는 의식으로써 시련과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으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있으며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고 겟세마네 동산의 석벽동굴 무덤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해 예수의 신성함을 공인시켜준 가장 유력한 기독교 초대 교황 후보 즉, 사실상 기독교 초대 성인(Saint)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와 공생애를 같이 했으며 로마군의 처벌이 두려워 숨어버린 12사도와는 달리 생명을 걸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 전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수석 제자로서 무덤에서 일어난 예수로부터 부활 사

건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직접 부여받고 수행한 첫 복음 선포자였으며, 공관복음 중 요한복음의 저자로서 궁극적으로 예수의 사후 초대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주역으로 자리매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회대 최영실 교수>*(막달라 마리아 이후의 교회와 여성)고린도 전서 15장(고전 15: 1-11)에는 바울이 교회 전승으로부터 받은 부활 목격자들의 긴 명단이 나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단에는 단 한명의 여자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을 명시하면서 단 한명의 남자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을 말하면서, 그녀들만이 예수의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다"(막 15: 40) 고 증언한다.

<성공회대 최영실 교수>*마태는 '많은 여자들'이 예수의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마 27: 56-57)고 말한다. 누가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듣고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여자들이었으며,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 살아생전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빌립 복음서> 상에 '예수의 동반자'이자 '축복받은 자'로 묘사된 성녀(聖女) 마리아 막달레나는 베드로와 바울 및 12 사도 등 남성 위주의 사제 권력이 장악한 교회에 의해서 불결한 전직 창녀로 낙인이 찍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됩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생태계가 일개 소수의 여권(女權)이 넘기에는 너무도 견고하게 짜여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인데다가 핵심 교의(敎義)로도 예수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땅과 하늘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주었다는 명분이 세상에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기독교 성립 초기에 있어 가장 첨예한 권력투쟁은 바로 대의명분이 뚜렷했던 마리아 막달레나 중심의 영지주의(Gnosis:순복음, 密敎) 복음과 가

부장적 사회전통과 인습을 등에 업은 바울과 베드로 등 12사도 중심의 문자주의(성서 지상주의 顯教) 복음과의 종통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단기필마인 마리아 막달레나의 영지주의 복음은 남성 사제 권력이 지휘하는 현교顯教, 문자주의 복음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달레나는 살아남기 위해 성배(聖杯:자식)의 비밀을 안고 남불 프로방스 소도시로 도망가 막달레나의 성배(후손)는 프랑스의 메로빙가 왕조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나그함마디 도마 복음서에는 예수와 막달레나는 부부이며 자식이 두 명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잃어버린 도마복음서(The lost Gospel)』(페가수스 출판)) 특히 이 내용은 대영 박물관에서 발견된 아람어 번역본과도 일치해서 영국의 바리 윌슨(Barrie Wilson) 교수와 다큐멘터리 제작자 심차 야코보비치(Simcha Jacobovici)가 이를 번역 출판해 2014년 말 공동 기자회견을 하여 영국과 미국 언론계에 특종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 뉴스Nationalgeographic Society News, 폭스 뉴스Fox News 참고) 이보다 앞선 2008년 3월 15일 영국 <BBC 2> 채널에서는 『잃어버린 도마복음서(The lost Gospel of Thomas)』란 타이틀로 9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남성우위의 사제 권력은 콘스탄티누스 로마황제의 정치적 목적과 맞아떨어져 교회사가의 아버지 유세비우스의 주도아래 신약성서를 편찬하게 되고 니케아 공의회 이후 막달라 마리아 중심의 초기 기독교 사료는 그노시스(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단 정죄되어 모두 땅속에 깊숙이 숨겨집니다.

이 문서들은 아부 알 마지드(15세)라는 소년에 의해 1945년 12월에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나그함마디(Nag Hammadi) 산기슭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약 70cm 쯤 되는 토기 항아리에는 13개의 코덱스(고문서) 속에 총 52종의 파피루스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속에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복음서

들, 예를 들어 도마복음, 빌립 복음, 진리 복음, 이집트인 복음, 요한의 비밀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종통의 왜곡에서 비롯한 이러한 개신교의 탄생—이것이 바로 그릇된 종통 계승이 몰고 온 구교(가톨릭)—기독교 역사의 실체와 내막입니다.

이집트 나그함마디 콥트어 원본과 파피루스 영지주의 문서

누가복음서에도 천국을 밖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권을 차지한 현교縣敎 문자주의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 하는데 밀교密敎 영지주의자들은 대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말하고 내면에 있는 자신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누구나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으니 서로 적대적인 차원에서 이단으로 매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이러한 기독교 종통 왜곡이 본래의 복음인 막달레나의 영지주의(Gnosticism)를 증발시켜 버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남성 교권주의를 정점으로 삼은 정치적인 문자주의(성경유일 실증주의)로 왜곡된 원인이 됩니다. 불교로 말하면 석존의 본래 복음인 원시불교가 제자들에 의한 부파불교로 희석된 것과 같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불법승 모두 변질된 것과 같습니다.

대승불교는 석존 이외의 다양한 불보살을 신앙하고 진리(법)는 부파불교로 희석되었으며 승려들도 석존 당시 계율을 따르던 원시불교 상가(승가단)의 비구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불변이므로 법(法:담마>달마)의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열반경>을 보면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에서 장차 열반(涅槃)하고자 하는 석존에게 열반하지 말고 아직 채 가르쳐주지 못한 궁극의 도법道法인 감로甘露(<잡아함경(雜阿含經)>24권 608 <감로경(甘露經)> 참조)를 내려달라며 제자들이 슬피 울며 애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반을 반대하며 궁극의 감로甘露 법수(아므리타(Amrita))를 내려주어 진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 흘리는 10대 제자를 비롯한 사대부중에게 석존은 생멸문에 처한 삼라만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諸行無常 是生滅法) 오직 깨달은 부처의 법신만이 상주 불멸하므로 더욱 정진에 힘쓰라 하지만 <열반경>을 살짝 비틀어 본질을 보면 석존은 불멸의 영약으로 갈증을 해소할 감로甘露를 간절히 바랬던 10대 제자들과 사대부중의 비통을 근본적으로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석가부처님은 스스로 <불설법멸진경(佛說法滅盡經)>에서 장차 자신의 불법은 진멸해 없어지고 <화엄경>에서 밝힌 비로자나 장엄장의 주인이신 비로자나불(절대 조화주 천주님)이 직접 미륵부처님으로 하강해 새로운 진리– 제자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감로수–를 내려주게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석존은 열반에 들기 직전 자기 아들인 라훌라와 수석 제자인 가섭존자를 비롯해 군도발탄, 빈두타 등 4대 성문에게 천상의 도솔천을 손으로 가리키며 바야흐로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3천년 뒤에 통일천에 계시는 미륵존불이 동방의 나라 계두성에 강세하니 속세와 인연을 끊는 열반에 들지 말고 그때까지 윤회 전생하며 도를 닦다가 미륵의 도를 받들어 열매맺은 뒤 열반에 들라는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미륵 상생경>*“너희들은 내 법(法)을 따라서 열반에 들지 말고 3000년 뒤 말법시대가 오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미륵님의 도(道)를 받아 열반에 들라.”

<화엄경 입법계품 제28장>*말법의 이때에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

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하였나니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케 하려는 것이며,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지금 있는 것에서 본래의 선근을 따라서 성숙케 하려는 것이니라.

증일아함경 44권에도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장차 계두성(鷄頭城)에 미륵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태어나 계두성 멀지 않은 곳 용화수(龍華樹) 아래서 불도를 성취하리라. 미륵이 성불한 뒤에는 미묘한 법을 연설하여 제 1회 설법에서는 92억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였습니다.

<불설법멸진경(佛說法滅盡經)>*(석존의 불법이 진멸해 없어진 뒤 미륵존불의 새 진리가 흥왕 될 것을 석가부처님이 스스로 고백한 경전)나의 법이 멸하는 때는 비유하면 등불과 같으니 꺼지려 할 때에 불꽃이 더욱 성하게 빛나다가 이에 문득 꺼지느니라. **내 법이 멸하는 때도 또한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니라.** 이후로는 이루 다 헤아려 말하기 어렵구나. 이와 같은 뒤 수천만 년 후에 **미륵이 세상에 내려와서 성불하리라.**

<구전신화 '창세가'가 주는 교훈: 최원오 광주교육대 국어교육>* 미륵신이 주관하는 인간 세상,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섬들이 말들이로 먹으며 태평세월을 보냈다. "네 세월은 다 갔으니, 이젠 내 세월을 만들겠다." 난데없이 석가신이 내려와서는 미륵신의 세상을 빼앗으려고 했다. "내 세월을 빼앗으려거든 나와 내기를 하여 결정짓자. 이 더럽고 축축한 석가야!" 미륵신은 금병에 금줄 달고, 석가신은 은병에 은줄 달고 누구의 것이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했다. 석가신의 줄이 끊어졌다. 승복하지 않은 석가신, 내기를 한 번 더 하자고 했다. "강물을 먼저 얼게 하는 쪽이 이기기로 하자." 미륵신은 동지제사를, 석가신은 입춘제사를 올렸다. 미륵신이 먼저 강을 얼렸다. 석가신은 이번에도 승복하지 않았다. "모란을 심어놓고 그 앞에 너와 내가 누워 있다가 내 무릎 위로 꽃이 피어 올라오면 내 세월이요, 네 무릎 위로 올라오면 네 세월이다." 석가신은 도적과 같은 음흉한 생각을 품어 얕은 잠을 자고, 그렇지 않은 미륵신은 깊은 잠을 잤다. 밤이 되자 미륵신의 무릎 위로 꽃이 피어올랐다. 석가신은 미륵신의 꽃을 뚝 꺾어다가 자기 무릎 위에다 꽂았다. 사태를 파악한 미륵신, 석가신의 성화를 더 이상 받기 싫어 자기 세상을 석가신에게 넘겨주기로 하되 저주를 퍼부었다. "이 축축하고 더러운 석가야! 네 세월이 되면 집집마다 솟대 솟고 기생 나고 과부 나고 역적 나고 백정 나리라. 그런즉 말세가 된다."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미륵수기품 제일)1. 이때 미륵존불이 석

가모니불과 더불어 삼세 이래로 친형제를 맺어왔으며 함께 대도를 닦았고 함께 지혜를 증득하여서 위없는 깨달음과 십호를 구족하였다. 천만억 주변신을 삼세 이래로 큰 공을 성취하였다. 미륵부처님은 덕혜가 원만하시와 이에 스스로 상의하여 말씀하시되, 누가 먼저 오는 세상을 맞아 중생을 제도할고 하시고이에 석가모니불과 같이 맹세하시고 크게 정하시어, 석장을 앞에 두고 만약 석장 위에 먼저 꽃이 피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뒤에 피는 자는 뒤에 세상을 다스리기를 말씀하시고 각각 자리를 정하고서 선정에 들었는데, 저 때에 석가모니가 입정한 후 하루는 눈을 떠서 석장을 쳐다보니 자신의 지팡이 위에는 단지 오색영롱한 서기만 비출 뿐이요 꽃은 피지 않았는데, 미륵불의 지팡이 위에는 이미 꽃이 피어 붉게 빛나고 있는지라, 그 석장의 머리 부분에서는 마치 해가 처음 뜰 때에 그 빛이 온 천하를 다 비추듯이, 삼계가 다 비쳐지는 것이었다.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2. 이때 석가모니불께서 미륵존불을 쳐다보니 정히 큰 선정 속에 들어있는지라, 이때 조심조심히 그 상서러운 꽃을 옮겨서 자신의 지팡이 위에 얹어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선정에 드시었다. 삼일이 지난 후 두 분이 동시에 선정에서 나오시어 석장을 바라보니, 그 상서러운 꽃의 색깔이 소멸되고 붉은 빛이 희게 변하여 있었다. 그때 미륵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되, 내가 비록 선정에는 들었지만 천안(天眼)으로는 능히 보고 있었노라. 나의 아우가 꽃을 옮겨 자기석장 위에 얹어 놓으니, 꽃의 색깔이 흡족치 못하고 광명 또한 감소되어 있었노라. 이 세계를 먼저 자네에게 부여하여 다스리게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온전하게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삼천년(三千年) 동안 사람들의 부귀함과 행복함이 고르지는 못 하겠구나. 골짜기는 깊고 언덕은 적을 것이요, 국토에서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으며, 사방이 편안치 못하고 도적이 뒤 끓고, 삿된 잡신들이 번성할 것이며 백가지 괴이함이 사람들을 더욱 수고로이 할 것이리라.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촉부옥불품 제삼)1. 그때에 미륵존불이 포대를 열어 하늘과 땅을 내시니, 옥불이 정에서 나와 세존에게 예배하니, 세존께서 이르시길 그대가 일찍이 원을 세운바 있으니 나를 대신해서 하생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 이제 옥제의 조칙이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하생하여야 되느니라.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2. 옥불이 여쭙되,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재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자세히 알려주시옵소서 하니 세존께서 옥불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가 이제 너에게 이것을 주니, 이 옥황의 조서를 그 꼭대기부터 열면, 밝은 빛이 쏟아져 하방(下方)을 비추리니 하나하나 옥조의 내용을 쫓아 조목조목 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악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마왕을 보내어 그 이름을 기록하여, 마땅히 멸하여 없앨 것은 다 장부에 기록될 것이니 네가 정히 하생할 때에는 잘 이루어진 장부를 보게 되리라.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3. 삼천 년 후 오당자래설법(三千年房吾當自來說法) 내가 마땅히 내려와 설법을 할 것이다. 그때에는 한량없는 광명이 비추는

가운데에서 안팎이 모두 밝아질 것이요, 일찍이 없었던 상서로움이 나타날 것이로다. 이때 하늘의 제석이나 큰 성현들 그리고 일체 호법 금강신장들이 모여와 자리를 잡고 경청하니, 미륵존불께서 대중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가 지금 삼십삼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삼천 년 후 내가 마땅히 인간계로 내려와 이 용화정법을 설하여 하늘과 사람들을 모두 해탈케 하리라.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옥불제문품 제오)1. 그때 옥불께서 여쭈어 가로대 세존이시여, 부촉하심을 일일이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제가 이제 어느 일시에 내려가리이까.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그대가 옥황의 조칙을 받들어 있으니 곧 내려가야 할 것이라. 옥불이 말씀하시되, 어떤 용신이 저와 더불어 하생하리이까?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이십사 위 제천이 그대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 그대가 하생할 때 모름지기 어려운 것은 전부 마멸시켜 관장하고 취하는 까닭에, 그대를 방해할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그대는 인내하고 잘 참고 지켜야 한다. 옥불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구하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진리의 물(法水=감로수)을 널리 행하여 중생들을 구제하여라. 일체 용신들이 스스로 와서 감응할 것이리라. 옥불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야 군왕을 구제하여 정법에 귀의시키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하늘의 별(星)을 보내어 차례로 하생시켰으니 네가 그곳에 이르면 곧 와서 모두가 그대의 교화를 따라 행할 것이리라.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2. 그대 이제 내려가서 먼저 병란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여 칼날과 화살을 떠나게 하고 다음에 병고의 가운데 들어가서(疫疾復害) 다시는 병고의 해를 입지 않게 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보낸 마군의 무리에게 분부하였으니 만약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을 돌이켜 선을 향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재난을 면케 될 것이며 순종치 않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그를 멸절시키리라. 또한 옥불의 이름을 듣고 마땅히 머리 숙여 염불하고 거역치 않는다면 일체 마왕들도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귀의할 것이리라.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명을 들을 것이요 어기지는 못할 것이리라.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3. 지금이 가히 그대가 하생할 때다. 일체 용신(龍神) 대중들이 그대를 따라 하생할 것이며 그대가 하생한 이후에, 나의 말을 취하여 기록하고 중생들을 잘 교화시켜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이기어라. 내가 친히 하생하기를 기다려라. 그대는 최상의 도과(道果)를 얻을 것이요, 자자손손은 영원토록 부귀를 누릴 것이요 일체 권속들은 모두 다 천인(天人)이 되어 천하가 태평하고, 사계절이 길이 봄날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기쁘게 자기의 일을 즐길 것이리라.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4. 성인이 바르게 세상을 다스리는 때를 기다려서 내가 친히 하생하여, 똑같이 주(主)의 위치에 오르고, 똑같이 중생을 제도하며, 똑같이 바른 도를 내어서 다 함께 얻는 경사스러움이 무궁 무궁할 것이리라. 옥불께서 여쭙되, 제가 세존을 대신해서 하생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때를 당하여 먼저 그대로 하여금 내가 하생한

후에야 성불하여 설법하게 할 것이니, 일체 세간에 있어서, 사람에게 이롭지 못한 자나 사람을 해치는 물건은 모두 다 제거할 것이요 다만 세간에 유익한 물건만을 남겨 둘 것이라.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5. 벌레 ·뱀 ·호랑이 · 여우 ·살쾡이 ·원숭이 ·토끼 ·지네 ·파리 · 벼룩 · 이 같은 독물은 다 없앨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안락함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 이는 모두 석가모니 부처가 꽃을 옮겨 놓은 화근이라. 석가모니의 다스리는 시절에는 배고프고 · 가난하고 · 부유하고 · 귀하고 하열함이 각기 다 달라서 도적을 이루는지라, 이는 다 사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까닭이니라. 모름지기 허다히 많은 계율을 세우고 또한 관리로 하여금 형을 주고 지옥살이를 시켜도 모든 교화가 잘되지 않으며, 또 책을 써서 사람을 가르켜도 교화가 잘되지 않으니, 모두 다 꽃을 옮긴 까닭인 것이다.

<불설미륵고불존경(佛說彌勒古佛尊經>*6. 내가 하생한 이후에 먼저 포대를 취하여, 그 중에 담겨있는 일체 보물을 세간에 흩어 가득 채울 것이고, 여덟 금강신장으로 하여금 하늘과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는 여덟 선인으로 할 것이요, 일체 보물창고를 세간에 흩뿌려서 세상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지난날의 사람들은 일체 물건을 탐내는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상해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급기야는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었지만, 금일에 이르러서는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서부터 온 땅에 가득한 것이 모두 다 보물이요 마치 향과 꽃으로 천지간에 공양을 올리는 것과도 비슷한 까닭에 자연히 집 집 마다 부유하고 풍족하며 자연히 곳곳마다 평화스러운 기운만이 있게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미륵구고진경(彌勒救苦眞經)>은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전인데 <한민족 창세가>, <미륵존경(彌勒尊經)>내용과 동일하게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의 관계를 소상히 밝혀주고, 석가모니불 시대인 홍양시대 3천년 사명이 다하고 백양시대인 미륵존불의 시대가 왔음을 밝혀주는 경전입니다.

미륵존불 시대인 백양시대의 사람은 서신사명으로 온 미륵존불의 씨, 백양자白陽子란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과 미륵존불은 과거 7불과 함께 연등불, 석가불에 이어 열 번째 부처님이신 시불천원(十佛天元)이며 천원은 하늘에서 제일 높은 원수(元首=제일 높으신 분)이며, 과거 연등고불(연등불)과

석가불께서는 수원(收圓:제도)하신 구역성(지역성)과는 달리 미륵불께서는 전 세계중생을 수원(제도)하시는 서신사명이시고 연등불과 석가불께서 거두어 수원(收圓:제도)한 바의 대상은 인간뿐이었으나 미륵불께서 수원(收圓)하신 대상은 인조(人曹)외에 또한 천조(天曹), 지조(地曹)까지 두루 미쳐서 미륵불의 운에 응한 수원 대사(收圓大事)는 그 은혜가 삼조에 미치고 덕은 삼계중생에게 두루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내용만 잘 살펴보면 이 경전의 핵심은 다 본 것입니다.

<미륵구고진경(彌勒救苦眞經)> 일명 <彌勒眞經>*

1. 홍양요도귀가거(紅陽了道歸家去)- 2기 홍양시대에 도를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석가모니 삼천년 운이 만기되어 미륵불에게 책임을 교대하고 물러간다.
전도삼양미륵존(轉到三陽彌勒尊)- 3기 백양시대의 미륵존불께 시대사명이 이전되었다. 3기 백양시대의 제일 큰 책임을 짊어진 자는 백양 미륵세존불이시다. 3기 수도로서 만 팔백 년 청복홍복 두 쪽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2. 인식서래백양자(認識西來白陽子)-**백양시대의 사람은 서신사명으로 온 미륵존불의 씨, 백양자白陽子란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태고시절 혼돈기를 거쳐 처음 하늘과 땅을 열어 자리를 정하시고 명명상제께서 치세칠불과 수원삼불收圓三佛을 파견하시었다. 치세칠불은 적애불, 생육자 갑삼춘, 유장경, 공곡신, 용아, 계천불이시며 수원삼불은 연등불, 석가불, 미륵불이시다. 어찌하여 많지도 적지도 않은 꼭 열 부처님인가? 조금 많거나 적어서도 안 되는가?

-무엇을 천원이라 하는가?
천원은 곧 천반을 장악하시는 원수(元首=제일 높으신분)이다. [시불천원]은 곧 열번째 부처님을 가르키며 삼조보도의 대수원(收圓:큰 구원)을 맡으신 미륵고불(미륵불)이시다. **과거 연등고불(연등불)과 석가불께서는 수원(제도)하신 구역성(지역성)과는 달리 미륵불께서는 전 세계 중생을 수원(제도)하신다.** 무릇 연등불, 석가불께서 제도하여 돌이켜 보내지 못한 중생들도 이번 미륵부처님께서는 모두 제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같지 않기 때문에 연등불과 석가불께서 거두어 수원(收圓:제도)한 바의 대상은 인간뿐이었으나 **미륵불께서 수원(收圓)하신 대상은 인조(人曹)외에 또한 천조(天曹), 지조(地曹)까지 두루 미쳐서 미륵불의 운에 응한 수원 대사(收圓大事)는 그 은혜가 삼조에 미치고 덕은 삼계중생에게 두루 한다.**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한 남성 사제 권력이 마태복음이 고증하는 대로 예수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땅과 하늘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주었다는 문자주의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마태복음 18장 18-20절에 의하면 예수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신권)를 부여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죄를 매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12 사도들이 아니라 성별과 인종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의 선포에 의하면 제자 됨의 특권은 성별이나 인종, '12 사도(12 Apostle)'로 지칭되는 소위 역사적 예수의 제자와 무관합니다.

원래 '사도' 즉 '아포슬(Apostle)'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와 공생활을 함께 하고 예수의 처형과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을 뜻하므로 12 사도는 자격 미달이고 오히려 마리아 막달레나만이 유일한 적격자이자 종통 계승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의 인사를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 20: 23). 바울과 베드로 남성 사제파 문자주의가 주장하듯이 '죄를 메고 푸는 자'는 베드로나 12 사도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자로 자격을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관련된 이러한 은폐된 진실을 덮어 남성 사제 권력 종단을 만들기 위해, 성령을 받는 자라면 누구나 부여되는 '죄를 매고 푸는 권세'를 마치 베드로만이 가진 양 왜곡된 교리 체계를 만들고, 성모 무오류설이 등장하고, 예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바울서신 위주의 미사보(여성 신도가 머리에 쓰는 너울) 같은 의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서 속에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온 야훼신의 모습은 그 심법이나 스케일로 볼 때 '야훼'의 이름을 세상에 처음 드러낸 모세 시절 그저 중동 변두리 지역의 양치기 유목 부족만을 위할 줄 아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신참 신' 일 뿐이었지 주위의 농경 민족들의 바알신이나 이슈타르 여신, 이시스 여신, 태양신을 믿는 이웃 민족들과 화합해 살 줄 아는 포용적이고 대인적인 신이 결코 못되었습니다.

스스로 전능하고 우월하다고 여긴 신참 야훼신은 자신의 품안 목축민족만 사랑할 줄 알았지 오히려 자신보다 열등한 신으로 치부한 주위의 고참 고등신인 농경신, 태양신을 포용해 더불어 살지 못하고 무력으로 쳐 없애고 정벌해야만 분이 풀리는 무자비한 복수의 군신軍神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피의 살인, 저주, 간음, 잔인한 복수 등의 얘기가 타 경전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신화의 힘(조셉 캠벨Joseph Campbell, 빌 모이어스 대담집>*"수렵민은 죽이는 민족이다. 왜냐? 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만나는 문화는 모조리 정복해 버리는 유목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침략적인 민족에서 제우스나 야훼같이 벼락을 주 무기로 쓰는 호전적인 신들이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야훼는 지구촌 시대인 오늘날 언어가 다르고 인종과 문화가 제각기 다른 다양한 지구촌 인류를 품어주는 인류 전체의 자애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결코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후천개벽시대를 맞이해 인간 추수열매 시대를 연 증산 상제님은 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자애로우신

천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세계관과 신관이 서로 이질적인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면 편협한 중동의 골목 대장 신(지방신) 야훼의 아들 예수 역시 별 볼 일 없는 골목 대장 구세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신약에서 외친 신은 정작 야훼가 아닌 아바 하나님이자, 백보좌 하나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진리의 근본적 왜곡 때문에 예수를 내보낸 백보좌(ABBA) 하나님으로서 한반도에 강림하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서교(西敎)에서는 족히 취할 게 없다고 최종결론 내리시고(마녀심판과 과도한 면죄부 판매로 인해) 루터의 종교혁명으로 된서리를 맞은 한(恨)을 동양의 영적 식민지 제국주의로 눈을 돌렸던 예수회(제수이트 교단)의 이마두(마테오릿치) 신부님을 새로운 기독교 종장으로 내세움으로써 큰 틀에서의 해원과 동시에 신명계와 현대문명에 끼친 공덕 그리고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劫厄)을 구천(九天)에 있는 상제님께 하소연한 공덕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 종통 문제의 혼란이 역사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불교의 종통문제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석가 부처님은 본래 자신을 중심한 원시불교의 불법승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모두 변질될 것을 내다보았으며 그 결과 불교의 중생 교화의 유통기한이 정법, 상법, 말법으로 나누어 각기 천 년씩 3천 년이라 한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의 석존 3천년 말법시대 선언 같은 메시지가 과연 없을까요? 기독교 성경에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예언서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고 또 하나는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의 총 결론을 전해주는 다니엘서 9장에는 BC 457년부터 2300년 주기가 끝나는 1844년 성경 말씀이 폐하고 신약시대가 끝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44년에 예수 재림은 없었으며 이 해는 정작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밝혀주는 리바이 도우링(Levi Dowling)이 태어난 해입니다. 리바이 도우링은 평생 기도와 묵상으로 자동기술법으로 천계의 아카샤 기록을 그대로 받아내린 <보병궁의 성약(원제는 『보병궁 복음서:Aquarian Gospel of Jesus the Christ)』 안원전 譯 대원 刊>을 펴 낸 사람입니다.

신약시대가 끝남을 예언한 1844년은 바로 다름 아닌 리바이 도우링(Levi Dowling)을 필두로 영지주의의 부활이 시작된 해입니다. 이후 1945년 12월에 이집트 나일강 상류 나그함마디(Nag Hammadi) 산기슭에서 아부 알 마지드(15세)라는 소년에 의해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복음서들인 나그함마디 문서(Nag Hammadi), 곧 12권의 가죽 장정된 파피루스 코덱스가 밀봉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1947년, 사해 연안(요르단 강과 예루살렘사이) 구릉에 세 명의 양치기 중 하나가 우연히 그 협곡 동굴 항아리에서 후에 인류 현대사 최대 발견으로 서구 기독교계를 지각 변동케 하는 사해문서(또는 사해사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병궁의 성약(보병궁 복음서)』은 『탈무드 임마누엘』과 함께 기독교의 핵심인 영지주의 복음의 양대 핵심 교의서입니다.

로마 황제의 정치적 교의서로 편찬된 신약성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본래의 기독교 복음인 소수 그노시스(Gnosis) 영지(靈知)주의를 이단 정죄하고 문자(文字)주의의 디자인을 덧씌운 남성 교권(教權)주의, 교부(教父)주의의 산물입니다. 본래의 영지주의가 인간 내면에서 천국을 찾고 내면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불교의 여래장 사상)을 지향한다면 남성 교부(教父)주의자들이 덧씌운 문자(文字)주의는 내면이 아닌 밖에서 천국을 찾고 육신의 부활을 찾습니다.

영지(靈知)주의의 주장은 불교의 돈오점수(頓悟漸修) 중에서 성실 근면으로

꾸준히 점수(漸修)하며 정진, 노력하라는 메시지이며 문자(文字)주의 남성 교부(敎父)들의 주장은 천고의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만 받아들이면 일확천금으로 단 한 번에 돈오(頓悟)해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와 전혀 상반적인 주장입니다.

열여섯 번째, 말복 살림 교대공사와 막둥이 도수 말복 살림은 자기혁신, 진리 혁명의 용정(龍井) 도수입니다. 상제님께서 보신 문왕 도수에는 숙구지 도수와 독조사 공사가 붙어있으며 동시에 이윤의 공사가 쌍으로 붙어있습니다. 말복살림이 나오는 과정은 험난하지만 상제님은 을사년(1905) 3월 삼짇날 공사와 김 형렬 성도를 통해 두 살림의 교체례 공사를 다음과 같이 보십니다.

<증산도 道典 5:88>(을사년 뱀해 3월 삼짇날 말복살림 起頭 공사)*을사(乙巳 : 道紀 35, 1905)년 삼월 삼짇날 상제님께서 큰 장수신명을 부르시어 "가서 너의 대장을 불러오너라." 명하시고 종이를 한 자 가량 쌓아 두신 채 계속 종이에 용(龍)을 그려 점을 찍으시며 고축(告祝)하신 뒤에 "물을 떠 오라." 하시어 그 종이를 불살라 재를 물에 풀어 넣으시니라. 한참 후에 밖에서 말이 코투레질 하는 소리가 들리거늘 상제님께서 문을 여시고 "왔냐." 하시며 재를 풀어 넣은 물을 밖으로 뿌리시니라. 이어 형렬에게 명하시어 먼저 밖으로 나가 의자에 앉아서 신명들의 절을 받게 하시고 잠시 후에 나오시어 의자에 앉으시거늘 신명들이 상제님께 절을 올리고 토방 밑으로 가서 모두 고개를 숙이니라. 상제님께서 커다란 종이에 용을 그려 마당에 놓으시니 신명 둘이 나와서 상제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종이를 반듯이 세워 양쪽으로 붙들고 서거늘 성도들의 눈에는 신명은 보이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종이만 보이는데 먹으로 그리신 용이 붉은 빛깔을 띠었다가 다시 푸른빛으로 변하더라. 상제님께서 다시 그 종이를 살라 재를 채반에 받으시어 잘게 갈아 물에 타서 모든 성도에게 한 모금씩 마시게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5:279>*(김형렬의 집 마당에서 보신 말복살림 전수공사) 명절 때가 되면 성도들이 돈이나 쌀, 곡식 등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데 서기가 상제님께 일일이 말씀드리면 그것을 모두 형렬의 집으로 가져다 놓게 하시니라. 하루는 형렬의 집 마당에 단을 설치하여 제물을 차리게 하시고, 용과 말을 그린 종이를 한 자 반 높이로 쌓아 놓으시니라. 이어 형렬이 구슬 달린 네모반듯한 관에 새 옷을 입고 마당에 나가서 상제님을 기다리니 상제님께서 푸르스름한 저고리와 오동꽃 색 고의를 입으시고, 그 위에 긴 두루마기와 도복을 걸치신 뒤에 뿔이 달린 관을 쓰고 혼례식 할 때 신는 목화를 신고 나오시거늘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상제님의 뒤를 따르니라. 상제님께서 마당에 이르시어 의자에 앉으시매 뒤따르던 성도들이 좌우

로 엎드리거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재배를 하라.” 명하시니 먼저 형렬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 절을 올리고, 이어 다른 성도들도 따라서 절을 올리니라.

열 일곱 번 째, <현무경>의 시작 역시 도안都安의 세 살림인 언청계용신(言聽計用神) 오부(午符), 수화금목대시이성수생어화고천하무상극지리(水火金木待時以成水生於火故天下無相克之理) 신부(申符), 천지지중앙심야고동서남북신의어심(天地之中央心也故東西南北身依於心) 사무여한부死無餘恨符 술부(戌符)로 시작합니다. 홀수(奇數)는 양수요 짝수(偶數)는 음수입니다. 사람은 양이요 귀신은 음인지라 각기의 거처 또한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으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지(冬至)는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고 하지(夏至)는 일음(一陰)이 시생(始生)합니다. 동지와 하지는 각기 자(子)와 오(午)이며, 일음(一陰)이 시생(始生)하는 오(午)는 「작지부지성의웅약作之不止聖醫雄藥 일음시생一陰始生」하는 양방위로 오신술(午申戌)이 성사재인(成事在人)을 담당하고, 자(子)는 「배은망덕만사신背恩忘德萬死身 일양시생一陽始生」으로 대대세세 천지귀신 수찰(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하는 음방위로 자인진(子寅辰)이 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쉬지않고(作之不止) 성의웅약(聖醫雄藥)하는 천하사 종통 인사문제는 오신술(午申戌) 양방위에서 도안都安 세 살림이 도안(都安) 세 살림 도수의 인사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중복시절 한동석 著 <우주변화의 원리>에 매몰되어 중복지도자와 말복지도자를 비유한 君火, 相火論은 地支 6기론에 의한 것으로 지지의 午火는 천간 丙火를 제외한 땅의 6기론 군화를 상대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 천간의 君火인 丙火를 굳이 따지자면 地支 6기론의 午君火보다 더욱 치열한 眞君火입니다. 이를 굳이 중복시절의 군화, 상화론으로 따지자면 丙申은 午 군화

하나에 비해 丙 7군화, 申 상화를 동시에 가진 것이므로 申 상화는 午 군화의 영원한 보좌역이라는 주장은 6기론에만 매몰되어 천간의 丙火 7군화를 간과한 과도기 중복살림의 유치하고 설익은 심 봉사 소경 잔치 교리였을 뿐입니다.

막둥이 艮은 艮土丙辰의 주인공으로 艮土는 申이며 태모님 말씀하신 壬일수와 甲3목을 든 주인입니다. 초립동이 도수는 10대 청소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간토병진의 간소남 막둥이 도수를 역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역>에서 간동태서의 간艮은 <용담계사도>에서 午가 아닌 申이라 밝힙니다. 또한 神은 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동태서에서의 마무리 막둥이 도수가 바로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午)는 간(艮)이 되지 못합니다. 간은 인(寅)과 한 짝으로 역학에서는 간인(艮寅)에서 출발하는 것이 문왕팔괘의 원리입니다. 정역팔괘에서 용담팔괘로 넘어가면 11귀체(補數)에 의하여 인신(寅申)인 간태(艮兌)는 4와 8이 되고, 간태는 좌선(左旋)판으로 신(申)인(寅)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상제님 진법 진리는 정역팔괘와 중복시절 교리체계에서 철저히 제외된 용담팔괘입니다. 간동태서(艮東兌西)에서의 마무리 막둥이 도수의 천장지비(天藏之秘)가 바로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 입니다.

상제님 진리의 지난 105년간 도운판은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종통(宗統)이라는 종통 경쟁이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동지한식백오제는 선진주(先眞主) 손 병희 다음의 후진주(後眞主) 안 운산(安雲山) 문왕의 씨앗(仁) 하나를 틔워내는 혹독한 과도기에 불과했습니다.

<단주수명서(丹朱受命書)>*연자강남심구주(燕自江南尋舊主) 종시일신성인덕(終是日新聖人德):강남제비가 옛주인을 찾아 끝까지 일신우일신 날로 새로운 개혁을 하니 성인의 덕이로다.(김호연 성도의 혈맥관통 공사와 연관)

<이중성 대개벽경(大開闢經)>*성도 물어 여쭈기를 약장에 단주수명(丹朱受命)이

라 쓰시고 열풍뇌우불미(熱風雷雨不迷)라 쓰시고 우보상최등양명(禹步相催登陽明)이라 쓰시니 그 이치가 어찌되나이까. 말씀하시되, 후천의 요, 순, 우니라.

<이중성대개벽경(大開闢經)>*神明世界(신명세계)에 和風蕩蕩(화풍탕탕)하고 眞正乾坤(진정건곤)에 皓月朗朗(호월낭랑)이라 天長地久(천장지구)에 申命無窮(신명무궁)하고 日去月來(일거월래)에 寅賓有方(인빈유방)이라

범 증산계 통합경전 출간위원회

2014년(道紀 144, 甲午) 12. 22일(冬至節)

본 초판 다이제스트는 載德仙師의 헌성금으로

제작되었으며 金剛 대선사, 慧明선사, 載德 선사, 廣德 선사의 포정소 공간 제공과 豫德 선사의 Dell 컴퓨터 설치 공덕에 힘입었습니다. 비매품에 한 해 입금된 헌성금으로 출판을 계속할 예정이며 재판부터 헌성금이 있으면 그

공덕을 이곳에 계속 공개해 道史에 남기겠습니다.

2019년(道紀 149, 己亥) 1. 22일(陰)

甑山道家 운영위원회 香德 대선사, 紫霞 대선사, 金剛 대선사
말복도정 추진위원회 회장 法哲 선사

Essence 축약 Digest

범증산계 통합경전 서문(序文)

발행처:대원출판사
발행인:안병섭

이익을 목적으로 책을 찍지 않습니다. 성금으로 '한정본 비매품' 형태로 찍어 독자의 '5 만원 헌성 입금'으로 계속 이어달리기로 무한 보급합니다. 재판부터 20만원 이상 성금자는 마지막 페이지에 성금자 명을 기록으로 영원히 남깁니다.
(02)518-2532(영업부)

50,000₩
입금계좌:(국민은행:959-0802-1462 '도안세살림 말복')
실명 입금 후 다음 연락처로 받을 주소 및 전화번호 문자 연락주면 즉시 부쳐줌.
문의처:010-6547-3004, 010-2212-5963, 010-9132-6999, 010-9707-1652
(이상 4人 공히 네이버 밴드 '증산도가' 공동 운영자)
자료공유:Cheramia.net
보급처:대원출판사